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인·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 저 자

김은영, 구자연, 김지원, 김혜진, 김재철,  
김종근, 조숙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연구 책임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김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김 재 철 (한남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김 종 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위탁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4-13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66-4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오늘날,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은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교육 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학계와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 설문조사, 아동검사, 문헌연구 등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유형과 빈도 등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교육적 성과와 부작용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남대학교 김재철 교수님, 국립공주대학교 김종근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동선 교수님과 연구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어머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구에 헌신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 목차

---

요약	1
<b>I. 서론</b>	<b>13</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b>II. 연구의 배경</b>	<b>43</b>
1. 사교육의 정의	45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49
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54
<b>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b>	<b>61</b>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63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80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88
4. 소결(시사점)	119
<b>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b>	<b>123</b>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125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145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163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185
5. 소결	205

---

---

<b>V. 결론 및 시사점</b>	<b>209</b>
1. 결론 .....	211
2. 시사점 .....	213
<b>참고문헌</b> .....	<b>217</b>
<b>Abstract</b> .....	<b>225</b>
<b>부록</b> .....	<b>237</b>
1. 설문지: 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	237
2. 설문지: [유아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	258
3. 부록 표 .....	264

---





## 표 목차

〈표 Ⅰ-3- 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19
〈표 Ⅰ-3- 2〉 설문조사 문항 구성 .....	21
〈표 Ⅰ-3- 3〉 연구 대상 아동 특성 .....	22
〈표 Ⅰ-3- 4〉 부모 응답자 특성 .....	22
〈표 Ⅰ-3- 5〉 LSSC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	23
〈표 Ⅰ-3- 6〉 REVT 하위 검사 구성 .....	25
〈표 Ⅰ-3- 7〉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문항 구성 .....	25
〈표 Ⅰ-3- 8〉 단어목록회상 과제 문항 .....	26
〈표 Ⅰ-3- 9〉 문제해결력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	28
〈표 Ⅰ-3-10〉 문제해결력 검사 문제상황 목록 .....	28
〈표 Ⅰ-3-11〉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성격 특성 프로파일 .....	29
〈표 Ⅰ-3-12〉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설문문항 구성 .....	29
〈표 Ⅰ-3-1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	30
〈표 Ⅰ-3-1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	31
〈표 Ⅰ-3-15〉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특성 변인 .....	32
〈표 Ⅱ-1- 1〉 선행연구에서의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	47
〈표 Ⅱ-2- 1〉 시도별 조례에 따른 학원의 교습시간 차이 .....	49
〈표 Ⅱ-2- 2〉 사교육 관련 정책 .....	53
〈표 Ⅲ-1- 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24년 .....	67
〈표 Ⅲ-1- 2〉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유형별 가짓수): 2024년 .....	69
〈표 Ⅲ-1- 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 2024년 .....	71
〈표 Ⅲ-1- 4〉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24년 .....	73
〈표 Ⅲ-1- 5〉 (사교육 유경험자)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2024년 ..	75
〈표 Ⅲ-1- 6〉 월간 사교육 비용: 2024년 .....	77
〈표 Ⅲ-1- 7〉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24년 .....	79
〈표 Ⅲ-2- 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	81
〈표 Ⅲ-2- 2〉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시간제학원 개수 .....	81
〈표 Ⅲ-2- 3〉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 .....	82
〈표 Ⅲ-2- 4〉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	83
〈표 Ⅲ-2- 5〉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개수 .....	84

---

<표 III-2- 6>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85
<표 III-2- 7>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16년 VS. 2024년	85
<표 III-2- 8> 월간 사교육 비용: 2016년 VS. 2024년	87
<표 III-2- 9>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16년 VS. 2024년	87
<표 III-2-10>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이용비용	88
<표 III-3- 1>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89
<표 III-3- 2>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90
<표 III-3- 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16년 VS. 2024년	92
<표 III-3- 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24년	93
<표 III-3- 5>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4
<표 III-3- 6>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5
<표 III-3- 7>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97
<표 III-3- 8>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24년	97
<표 III-3- 9> 사교육을 지속할 의향: 2024년	99
<표 III-3-10> 지속할 의향이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2024년	100
<표 III-3-11>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16년 VS. 2024년	103
<표 III-3-12>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24년	104
<표 III-3-13>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16년 VS. 2024년	105
<표 III-3-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24년	106
<표 III-3-1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108
<표 III-3-1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109
<표 III-3-17>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111
<표 III-3-18>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111
<표 III-3-19>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중요한 고려요소: 2024년	114
<표 III-3-20>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 2024년	117

---

---

〈표 IV-1- 1〉 자녀 행동 특성(1) (영역별 총점): 2024년 .....	126
〈표 IV-1- 2〉 자녀 행동 특성(1) (총체적 어려움 세부영역별 점수): 2024년 .....	128
〈표 IV-1- 3〉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여부 및 지속기간): 2024년 .....	132
〈표 IV-1- 4〉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정도): 2024년 .....	136
〈표 IV-1- 5〉 부모-자녀 상호작용(전체): 2024년 .....	138
〈표 IV-1- 6〉 부모-자녀 상호작용(자녀 연령별): 2024년 .....	139
〈표 IV-1- 7〉 부모-자녀 상호작용(가구소득별): 2024년 .....	140
〈표 IV-1- 8〉 부모-자녀 상호작용(학습 사교육 개수별): 2024년 .....	143
〈표 IV-1- 9〉 부모-자녀 상호작용(사교육 여부별): 2024년 .....	144
〈표 IV-2- 1〉 LSSC 검사 결과 .....	147
〈표 IV-2- 2〉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응답 결과 .....	149
〈표 IV-2- 3〉 단어목록회상 과제 결과 .....	151
〈표 IV-2- 4〉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	151
〈표 IV-2- 5〉 정서·행동 특성 T점수 .....	153
〈표 IV-3- 1〉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변수 .....	163
〈표 IV-3- 2〉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	164
〈표 IV-3- 3〉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 유형의 추이 .....	164
〈표 IV-3- 4〉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추이 .....	165
〈표 IV-3- 5〉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	165
〈표 IV-3- 6〉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 .....	165
〈표 IV-3- 7〉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	166
〈표 IV-3- 8〉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	166
〈표 IV-3- 9〉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	167
〈표 IV-3-10〉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 .....	168
〈표 IV-3-11〉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	171
〈표 IV-3-1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	172
〈표 IV-3-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	174
〈표 IV-3-14〉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	174
〈표 IV-3-15〉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	175
〈표 IV-3-16〉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	177
〈표 IV-3-17〉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78

---

---

〈표 IV-3-18〉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	180
〈표 IV-3-19〉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1
〈표 IV-3-20〉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	182
〈표 IV-3-21〉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2
〈표 IV-3-22〉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	184
〈표 IV-3-23〉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	184
〈표 IV-3-2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	185
〈표 IV-4- 1〉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 .....	185
〈표 IV-4- 2〉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	188
〈표 IV-4- 3〉 유아 1만명당 학원수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	193
〈표 IV-4- 4〉 시도별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	194
〈표 IV-4- 5〉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	198
〈표 IV-4- 6〉 유아 1만명당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	199
〈표 IV-4- 7〉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	201
〈표 IV-4- 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	202
〈표 IV-4- 9〉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	204

---



## 그림 목차

[그림 Ⅰ-3- 1] 단어목록화상 과제 예시 .....	27
[그림 Ⅳ-2- 1] LSSC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 .....	146
[그림 Ⅳ-2- 2] LSSC 영역별 점수 .....	148
[그림 Ⅳ-2- 3]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점수 .....	148
[그림 Ⅳ-2- 4] 비언어성 지능 점수 .....	150
[그림 Ⅳ-2- 5]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실시 유형 조사 .....	154
[그림 Ⅳ-2- 6] 현재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인식 조사 .....	156
[그림 Ⅳ-2- 7] 영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방법 .....	157
[그림 Ⅳ-2- 8] 영어 사교육 시작 시기 및 현재 주당 실시 횟수 .....	157
[그림 Ⅳ-2- 9]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타인이해 간 관계 .....	162
[그림 Ⅳ-2-10] 과거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집중력 부진 간 관계 .....	162
[그림 Ⅳ-2-11] 과거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관계 .....	162
[그림 Ⅳ-3- 1]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 예시 .....	170
[그림 Ⅳ-3- 2]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계적 평균 .....	178
[그림 Ⅳ-3- 3]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계적 평균 .....	180
[그림 Ⅳ-4- 1] 유아 대상 학원의 분포 (좌: 유아 사교육기관, 우: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	189
[그림 Ⅳ-4- 2] 시군구별 유아 사교육기관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	190
[그림 Ⅳ-4- 3]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	191
[그림 Ⅳ-4- 4]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 (좌: 유아 1만명당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	192
[그림 Ⅳ-4- 5]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 (좌: 센터의 위치, 우: 시군구별 분포) .....	196
[그림 Ⅳ-4- 6]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Hot and Cold Spots .....	197

---

[그림 IV-4- 7]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좌: 유아 1만명당 수, 우: Hot and Cold Spots) .....	200
[그림 IV-4- 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	203

---



##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구성 지표별 질문	264
〈부록 표 2〉 문제해결력 검사 평가 영역 및 질문	264
〈부록 표 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266
〈부록 표 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267
〈부록 표 5〉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1)	268
〈부록 표 6〉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가짓수 (2)	270
〈부록 표 7〉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 (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1)	272
〈부록 표 8〉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 (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2)	274
〈부록 표 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16년 VS. 2024년	276
〈부록 표 1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24년	276
〈부록 표 11〉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277
〈부록 표 12〉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278
〈부록 표 13〉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279
〈부록 표 14〉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16년 VS. 2024년	280
〈부록 표 15〉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24년	281
〈부록 표 16〉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16년 VS. 2024년	282
〈부록 표 17〉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24년	282
〈부록 표 18〉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 2024년	284
〈부록 표 1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285
〈부록 표 2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24년	285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일찍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사교육 비용은 예비부모들에게 자녀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정부 또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일부 부모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의 사교육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기존자료 심층분석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2. 연구내용

- 사교육 정의 관련 선행연구 분석, 법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사교육 관련 제도·지침 정리, 영유아기 교육 관련 시도별 조례 조사
- 선행연구 내 사교육 실태나 영유아기 사교육 영향 관련 내용 정리
-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 실태, 부모들의 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조사·분석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영유아의 행동 특성,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관계성 분석
-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검사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 분석
- 패널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분석
-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와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나 치료센터의 지역분포 분석, 상관성 분석

- 영유아 교육정책 입안 관련 시사점 제시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만2, 3,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 대상 응답 결과 분석
- 아동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과 부모 72명
- 패널자료 심층분석: 한국아동패널의 사교육 경험 변인(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부모 변인(7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8차년도~14차년도) 활용 분석
-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지역분포 조사 등
- 정책토론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II. 연구의 배경

### 1. 사교육의 정의

-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아직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정의할 때 일반적 개념과는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프로그램 외 특별활동 포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함.
-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함.

###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 사교육 관련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자치법규로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등이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둬. 해당 법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뜻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는 학원의 교습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현재 17개 시도전체 지역 상황에 따른 조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교습시간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모든 조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학습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관련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유아교육법에선 방과후 과정에 대한 규정과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음.
-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2023) 발표하였고, 주요 추진과제 6가지 중 유아 사교육 대응도 포함됨.
- 이 중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단기적으로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중장기적으로 유보 통합 연계, 3~5세 교육과정 개정,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등이 있음.
  - 교육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847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함.

### 3. 선행연구

-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사교육 시작연령, 유형, 비용,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국아동패널 2008년~2013년 조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이용,

기관 내 특별활동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증가하였음(이정림 외, 2015).

- 김은영과 김근진, 윤지연(2017)의 사교육 국제비교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교육 유형으로 체육, 미술, 한글 순으로 분석되었고,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와 유사한 결과였음.
- 서문희, 양미선(2013)의 연구에서 3~5세 유아 중 약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졌음. 가구소득, 자녀출생순위, 아동의 연령 등이 사교육 참여율이나 지출규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안재진, 2011; 송정 외, 2011; 이경선·김주후, 2010)에서도 유사하였음.

□ 영유아 시기 사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일부 인지 및 언어 발달 등에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Ren et al, 2020), 사회정서 발달에는 부정적인 결과(권정윤, 2007; 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김성숙, 2013)도 함께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의 종류와 동시 참여 개수 등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Shi et al, 2022)도 있었고, 사교육 실시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1;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 2013; 윤소정·김진옥; 2016)도 있었음.

### III.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 조사대상의 65.33%가 사교육 이용 중이며,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 경우 30.10%로 나타남.
-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 평일에는 거의 매일 이용하며,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음. 배경에 따라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

육을 더 많이 받았음.

-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음.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음. 사교육 유형별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음.
- 사교육 시작 연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장 빨랐음. 영유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은 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의 경우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음.
- 전체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19만 8천원,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음.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 표준편차 921.25로 개별 가정 간 차이가 매우 컸음.

##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가질수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사교육 시작 연령 또한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의 사교육 비용과 반일제학원 비용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음.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사교육에 대해 부모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음. 2024년 조사 응답자의 79%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음.

- 사교육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음. 한편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해주길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이 해당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함.
-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로는 유치원 재원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남. 어린이집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을 더 선호했으며,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를 가장 선호함. 소득과 상관없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가장 선호했는데,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사교육 축소,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보다 질이 낮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치원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동등하게 중시했음.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음.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음.

##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미치는 영향

###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음. 세부적으로는 사교육 여부, 사교육 개수에 따라 영유아기 행동 특성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사교육을 받거나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영유아의 부모가 집안일 함께 하기, 스포츠나 운동하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임.

###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관계를 살펴봄. 사교육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과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고,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를 프로그램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살펴보았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과 현재 아동의 언어 발달,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의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거에 실시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많은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이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남. 즉,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은 성실성과 타인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

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프로그램의 경험도 집중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전에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

-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아동의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추이, 사교육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순위 등 다양한 아동 및 부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음. 또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이는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외의 다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제약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속변수인 아동 특성 변인은 시점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나 아동 중 응답자가 달라지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 8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는 어머니가 응답했으나, 13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측정 도구의 변화는 변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결과 해석 시 신중을 요함.



####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함.
-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761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66% 이상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포함. 시군구별로는 평균 한 시군구에 34개소가 분포, 서울 강남구는 277개로 전국에서 사교육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그 외에도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지방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하였음.
-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총 956개소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하여 사교육기관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하나의 시군구에 평균 3.8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구는 전국 대비 6.5배 이상 많이 분포하였음.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함.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석 결과, 시군구별로 평균 3.2개소 분포함.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또는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인데, 밀도가 높은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전국 6,637곳이 운영 중이었고,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14여 개소임.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함.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는데,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약 4배 집중 분포함.
-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평균은 23.5개소인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임.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평균 57.8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음.
-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나아가 LISA 지수 및 LISA 맵을 작성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패턴을 검토한 결과, 약 11.2%의 시군구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어 외국어 학원의 밀도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밀도 분포는 일부 시군구별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하지만,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영유아의 특성상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
  - 영유아 사교육 참여와 유형, 개수, 비용 등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목적은 영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흥미, 유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우선시 함.
  - 부모의 인식과 실제는 차이가 있음.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일제학원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체능 못지않게 한글과 영어 등 학습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요령을 잘 터득,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 인지 및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등의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남. 아동패널 심층분석 결과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일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는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이 보고됨.
-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 유형과 관련이 있었음.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예체능 사교육은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반면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았고,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 지속성과 관련이 있었음.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사교육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유아의 행복감은 감소하였음. 한편 사교육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 2. 시사점

-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 I

---

##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부터 교육이 계급 이동을 위한 사다리의 역할을 했던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일찍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이나 과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 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입시제도는 비단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들은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 하루라도 더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과 배움을 주고자 하며, 남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에 주변의 선택을 무작정 따라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월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에 등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경제적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 이는 예비 부모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되어 저출생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수년 간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애 초기부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올 6월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과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교육부, 2024c)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의 시급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보통합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4c: 1, 4). 이러한 정책 모두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애 초기 인생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영유아기에 바람직한 경험과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특정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도 하고, 배움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의 노출은 여러 영역에서 발달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전두엽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측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선행하여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서유현, 2010).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자기 주도성의 발달 지연과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의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최항석, 2014).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미·김연경, 2018).

정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을 펴고 있고, 부모 또한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교육과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많은 부모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통해 자녀를 더 잘 교육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감안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유아 사교육 대응으로 이음학기 운영과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 확대를 언급한 바 있으며(교육부, 2023: 16),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5세에 놀이중심 언어교육 등 문해력·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이음학기’를 운영하여 유아-초등 교육 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교육부, 2024c: 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의 사교육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 관련 연구가 설문조사나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기존자료 심층분석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영유아들이 그 시



기에 적합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고, 법자료와 정책자료를 통해 사교육 관련 제도나 지침을 정리한다. 또한 시도별로 적용되는 조례를 살펴보고, 영유아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추출한다.

둘째, 사교육 실태나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 실태와 부모들의 사교육 관련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영유아기 사교육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8년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패널자료 재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의 사교육 실태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함께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직접 검사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발달이나 학습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여섯째, 패널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중장기적으로 발달이나 학습,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일곱째,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와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나 치료센터의 지역 분포를 분석해보고 상관성을 살펴본다.

여덟째, 다양한 연구방법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사교육 관련법,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인식,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과 영유아기 적절한 교육 경험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육실태조사 재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추이를 분석하였다.

####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와 인식, 사교육 경험과 영유아 행동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 1) 연구 대상

본 설문조사는 만2, 3,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을 만2세와 5세로 설정한 것은 2016년 사교육 연구(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와 일부 동일문항으로 조사하여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 현황을 시계열로 비교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조사에서는 유치원 입학 최저연령인 만3세를 추가하여 영유아의 연령별 사교육 및 특별활동 현황을 함께 보고자 하였다.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하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각 재원기 관별 할당 고려 시 상대적으로 사례 확보가 어려운 가정양육,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는 가정양육을 하는 만2세 영아 자녀의 어머니 최소 30명,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자녀의 어머니 각 연령별 최소 30명을 최소 분석단위로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2세 영아의 경우, 위에서 최소 분석단위 확보를 위해 할당한 가정양육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은 모두 어린이집 재원 사례에 할당하고, 3세와 5세 유아의 경우는 가정양육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사례를 1:1 비율로 할당하여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는 주로 30-40대였는데, 이 중 30대가 63.73%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33.87%였다. 응답 당사자인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과반 이상인 57.80%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뒤로 전문대 졸업이 21.6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53%,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우자, 즉 응답가구 아버지의 최종학력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4.33%, 전문대 졸업이 19.5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49%, 대학원 졸업 이상 10.62% 순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5.40%가 맞벌이고, 외벌이는 34.27%였다. 가구의 한 달 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36.53%고,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33.93%였다. 700만원 이상인 가구도 21.13%로 그 뒤를 따랐다. 응답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 38.40%, 읍면지역 16.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가구의 자녀 연령은 비례할당하여 표집한 대로 만2세와 만3세, 만5세가 동일하게 33.33%였고, 전체의 51.33%가 남아고 나머지 48.67%가 여아였다. 본 조사의 주요 배경변인인 자녀의 재원기관도 앞서 목표한 대로 표집하여,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60.67%, 유치원 33.80%,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반일제학원 3.53%. 마지막으로 어떤 기관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3-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500
연령		
20대	2.13	( 32)
30대	63.73	(956)
40대	33.87	(508)
50대	0.27	( 4)
60대 이상	0.00	( 0)

구분	비율	(수)
본인(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53	(158)
전문대졸	21.67	(325)
4년제대졸	57.80	(867)
대학원졸 이상	10.00	(150)
배우자(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49	(229)
전문대졸	19.55	(289)
4년제대졸	54.33	(803)
대학원졸 이상	10.62	(157)
취업상태		
맞벌이	65.40	(981)
외벌이	34.27	(514)
미취업	0.33	( 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40	(126)
300 이상~500만원	36.53	(548)
500 이상~700만원	33.93	(509)
700만원 이상	21.13	(317)
지역 규모		
대도시	38.40	(576)
중소도시	45.60	(684)
읍면	16.00	(240)
자녀 성별		
남아	51.33	(770)
여아	48.67	(730)
자녀 연령		
만2세	33.33	(500)
만3세	33.33	(500)
만5세	33.33	(50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3.80	(507)
어린이집	60.67	(910)
반일제학원	3.53	( 53)
가정양육	2.00	( 30)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2) 연구 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배경 질문,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영유아의 하루 일과, 영유아의 행동 특성,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이다.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3-2〉 설문조사 문항 구성

구분	조사 내용
배경 질문	거주지역, 응답자 성별, 연령, 자녀 유무, 응답자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주당 근로시간,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막내자녀의 출생연월, 성별, 재원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참여 여부, 참여 종류, 참여 가짓수,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참여 이유, 충분성과 이유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생 부모만) 학원 선택 이유, 비용, 만족도 사교육 여부,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및 유형, 학습 사교육 시키는 이유, 예체능 사교육 시키는 이유, 사교육 만족도, 비용, 사교육 횟수와 회당 시간, 지속 의향 여부 및 유형
영유아의 하루 일과	평일과 토요일의 유형별 일과 참여 시간
영유아의 행동 특성	강약점 질문지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사교육 정책의 방향

## 다. 아동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사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동 대상 인지·언어검사와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대상 검사는 아동의 언어능력, 화용 능력 중 문해해결력, 집행기능 과제를 실시하여 아동의 뇌 발달, 언어능력, 사회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사교육 현황 및 인식과 더불어 사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 발달력, 언어 환경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 검사 대상

#### 가) 아동 특성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과 부모 72명이다. 아동 대상자의 성별은 남아가 36명(50.0%), 여아가 36명(50.0%)이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85.8개월(표준편차 5.0)이었다. 모든 아동은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 검사2(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문수백, 2020) 결과 동작성 지능지수가 85(-1 SD) 이상인 아동들로 선정하였으며, 부모 보고에 의해 시각 및 청각 등의 동반 장애가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3-3〉 연구 대상 아동 특성

단위: 개월, 세

구분	남 (n=36)		여 (n=36)		전체 (n=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령	86.0	5.9	85.5	4.0	85.8	5.0
연령	7.1	0.4	7.1	0.3	7.1	0.4
비언어성 지능	119.7	23.9	118.7	17.3	119.2	20.8

나) 부모 응답자 특성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대졸 66.6%, 석사 18.0%, 박사 6.9%, 고졸 5.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졸 69.4%, 석사 20.8%, 박사 5.5%, 고졸 1.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 36명(50%), 외벌이 가정 36명(50.0%)이었고,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4시간이고, 어머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3시간,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은 689.4만원(표준편차 21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600~800만원 미만인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0~600만원 미만이 21.4%, 800만원~1000만원 미만이 21.4%, 200만 원 미만은 8.9%로 나타났다. 영어권 나라에 다녀온 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 '없음'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미만'이 29.6%, '2년 이상'이 9.9%, '6개월~1년 미만'이 5.6%, '1년~2년'이 2.8%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는 가정 내에서 아동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3-4〉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항목	내용	비율	(수)
성별	여성	100.0	72
	남성	0.0	0
부 교육수준	고졸 이하	5.5	4
	대졸	66.6	48
	석사	18.0	13
	박사	6.9	5
	무응답	2.7	2
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	1
	대졸	69.4	50
	석사	20.8	15
	박사	5.5	4
맞벌이 여부	무응답	2.7	2
	맞벌이	50.0	36
	외벌이	50.0	36

## 2) 검사도구

## 가) 언어능력

## (1) 전반적 언어능력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이윤경·허현숙·장승민, 2015)를 실시하였다.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는 만7~12세 학령기 아동을 평가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이며, 총 11개의 하위검사(상위개념 이해 및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어 표현, 구문 이해, 비유문장 이해, 문법 오류 판단 및 수정, 복문 산출, 단락 듣기 이해, 문장 따라 말하기)를 통하여 의미, 문법, 화용-담화, 청각적 기억과 같은 전반적인 언어 영역을 수용과 표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한다.

LSSC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용 또는 표현 언어능력에 대한 정상 및 지연 발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연령 집단별 기준을 통하여 백분위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 경우 정상 발달 범주 내에 있는 또래 대비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표 I-3-5〉 LSSC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하위검사		문항	검사 내용
상위개념 이해 및 상위어 표현	상위개념 이해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상위개념 이해와 상위어 표현을 통해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그림자료집(1~12번), 검사기록지</li> </ul>
	상위어 표현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li> <li>• 중단: 이해 검사를 기준으로 6문항 연속해서 틀리면 중단</li> </ul>
반의어 표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반대되는 낱말, 비슷한 낱말 표현 능력을 통해 어휘표현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검사기록지, 필기도구</li> </ul>
동의어 표현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실시</li> <li>• 중단: 연속해서 8문항 틀리면 검사 중단</li> </ul>
구문 이해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구문복잡도에 따른 문장 이해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그림자료집, 검사기록지</li> <li>• 시작: 1~2학년은 1번 문항, 3학년 이상은 9번 문항부터 시작</li> <li>* 기초선: 3학년 이상의 경우 5문항 연속 정반응을 기초선으로 하며 시작점에서 기초선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연속 5문항 정반응이 나올 때까지 역순으로 진행</li> <li>• 중단: 모든 학년 아동에게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li> </ul>

하위검사		문항	검사 내용
비유문장 이해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관용구나 속담과 같이 비유가 포함된 문장의 이해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그림자료집, 검사기록지</li> <li>•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시작</li> <li>• 중단: 모든 학년 아동에게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li> </ul>
문법 오류 판단·수정	판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문법오류 판단 및 수정 과제를 통해 문법 형태소 사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검사기록지</li> <li>•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시작</li> <li>• 중단: 정문(틀린 곳이 없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판단 과제에서 연속 6문항을 오반응 하는 경우 검사 중단</li> </ul>
	수정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문법오류 판단 및 수정 과제를 통해 문법 형태소 사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평가</li> <li>• 도구: 검사기록지</li> <li>• 시작: 모든 학년 아동에게 1번 문항부터 시작</li> <li>• 중단: 정문(틀린 곳이 없는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판단 과제에서 연속 6문항을 오반응 하는 경우 검사 중단</li> </ul>
복문 산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2~4개의 짧은 문장을 듣고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도록 하여 복문 산출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녹음기, 검사기록지</li> <li>• 시작: 1~3학년은 1번부터, 4~6학년은 8번 문항부터 시작</li> <li>* 기초선: 4~6학년의 경우 연속 3문항 정반응을 기초선으로 함. 시작 문항에서 연속 3문항 정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3문항 연속해서 정반응을 보일 때까지 역순으로 진행</li> <li>• 중단: 연속해서 6문항 오반응을 보이는 경우 검사 중단</li> </ul>
단락 듣기 이해	저학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이야기글 또는 설명글 형식의 단락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녹음기, 단락글이 녹음된 MP3파일, 그림자료집</li> <li>* 그림자료집 - 단락듣기 단락1의 4번, 단락4의 5번, 단락7의 5번 문항에서 사용</li> <li>• 시작: 1~3학년은 단락1~단락6까지 실시</li> <li>4~6학년은 단락4~단락9까지 실시</li> <li>• 중단: 각 학년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li> </ul>
	고학년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이야기글 또는 설명글 형식의 단락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li> <li>• 도구: 녹음기, 단락글이 녹음된 MP3파일, 그림자료집</li> <li>* 그림자료집 - 단락듣기 단락1의 4번, 단락4의 5번, 단락7의 5번 문항에서 사용</li> <li>• 시작: 1~3학년은 단락1~단락6까지 실시</li> <li>4~6학년은 단락4~단락9까지 실시</li> <li>• 중단: 각 학년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항까지 실시</li> </ul>

## (2) 어휘력

아동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만2세 6개월부터 만16세 이상 성인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수용어휘력 검사와 표현어휘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5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 수용어휘력 검사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 형용사 및 부사 19개(10%)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어휘력 검사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3%)로 구성되어 있다.



〈표 I-3-6〉 REVT 하위 검사 구성

어휘 영역	문항 수	품사별 문항 수(비율)
수용어휘	185개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0%) 형용사 및 부사 19개(10.0%)
표현어휘	185개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3%)

## (3) 아동의 언어능력 및 언어 환경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KBPR 한지윤·임동선, 2018)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능력과 언어 환경적 현주소를 분석하였다.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한지윤·임동선, 2018)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아동의 발달력, 현재 언어능력,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총 17개 문항(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1 참조)이 있으며 초기 이정표, 현재 언어능력,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가족력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KBPR의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의 문항을 모두 더해 산출하며, 총점은 각 영역의 총점들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표 I-3-7〉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문항 구성

구성 지표	내용	단위: 개, 점	
		문항 수	총점
초기 이정표	걸음마 시기, 첫 낱말 시기, 2어 조합 시기	4	18
현재 언어능력	아동의 표현 능력, 조음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장 구성 능력	5	15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책 읽기 선호도, 문해 능력, 선호하는 활동	6	18
가족력	가족 구성원의 교육 수준, 가족 및 친척의 학습과 언어에 대한 어려움 여부	2	9

## 나) 인지 능력

## (1) 비언어성 지능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2: KBIT2)(문수백, 2020)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KBIT2는 만4~90세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지능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 검사 중 관계유추 검사를 사용하였다. 관계유추 하위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비언어성 IQ(nonverbal IQ)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여러 자극 간의 관계를 지각하고 전체 자극들을 하나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비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는 유동성 추리능력(fluid reasoning)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집행기능

집행기능 하위요소 중 작업기억의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단어목록 회상 과제(천소연·임동선, 2017)를 실시하여 아동의 전전두엽 기능을 측정하였다. 일화적 완충기는 장기기억과 작업기억 사이, 또한 시공간 작업망과 음운적 루프 사이에서 다차원적 정보를 통합된 일화(episode) 또는 덩어리(chunk)로 만들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검사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3어절 단문, 5어절 단문, 5어절 접속복문, 7어절 접속복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문장 순 배열이 13문항, 무선 순 배열이 13문항이다. 문장 순 배열은 실제 문장과 동일하며 낱말목록을 조사 없이 실제 문장의 어순으로 배열하여 제시하는 것이고, 무선 순 배열은 문장 순에서 사용되는 낱말과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되 문장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를 섞어 재배열한 것이다. 단어목록 회상 과제는 각 배열 조건과 기억폭 별로 전체 어절 수 중 정반응한 어절의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표 I-3-8〉 단어목록회상 과제 문항

어절	번호	문장 순 배열	무선 순 배열
3어절	1	예쁜 그림 그려요	그려요 그림 예쁜
	2	친구 신나게 놀아요	놀아요 신나게 친구
	3	엄마 치마 입어요	입어요 치마 엄마
	4	아빠 동생 봐요	봐요 동생 아빠
5어절	1	동생 작은 가위 종이 잘라요	잘라요 가위 작은 종이 동생
	2	엄마 시장 사과 조금 사요	사요 시장 조금 사과 엄마
	3	친구 배고파서 밥 빨리 먹어요	먹어요 배고파서 빨리 밥 친구
	4	아빠 바지 입고 양말 신어요	신어요 입고 양말 바지 아빠
	5	아빠 친구 작은 공 던져요	던져요 공 아빠 친구 작은

어절	번호	문장 순 배열	무선 순 배열
	6	동생 추우면 엄마 이불 줘요	줘요 추우면 엄마 이불 동생
7어절	1	친구 우유 많이 먹고 맛있는 사탕 받았어요	받아요 우유 사탕 맛있는 먹고 많이 친구
	2	동생 많이 배고프면 엄마 맛있는 빵 만들어요	만들어요 엄마 배고프면 빵 맛있는 많이 동생
	3	아빠 배 많이 아파서 빨리 병원 가요	가요 아파서 배 빨리 많이 병원 아빠

[그림 I-3-1] 단어목록회상 과제 예시

<문장어순(패턴 조건)>

엄마
시장
맛있는
사과
사요

<무선어순(비패턴 조건)>

사과
맛있는
엄마
사요
시장

- 조건에 따라 조사없이 제시되는 낱말 목록을 듣고 기억한 뒤 재산출함.
- 제시되는 낱말자극은 문장 어순 혹은 무선 어순 형태임.
- 종속변수는 조건별 정반응률(%).임.

<언어적 덩어지기 과제>

## 다) 사회정서

### (1) 문제해결력

아동의 상황/단서 추론, 원인/이유 추론, 감정 추론, 문제해결 추론, 예방책 제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력 검사(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2023)를 실시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는 사회 상황에 근거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림을 보고 제시된 그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상황의 원인을 소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답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의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의 사회적 문제상황을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문제상황 및 질문은 부록 표 2 참조). 조사자가 각 상황마다 상황/단어 추론, 원인/이유 추론, 감정 추론, 문제해결 추론, 예방책, 기타(상황판단)의 6개의 질문을 던지면 아동은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표 I-3-9〉 문제해결력 하위검사 구성 및 내용

상황	측정내용
사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주의 또는 미흡한 상황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li> <li>• 그림을 보고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또 그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시능력</li> </ul>
문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 또는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li> <li>• 그림에 나타난 단서들을 통해 문제상황을 예측 및 유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제시능력</li> </ul>
일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li> <li>• 그림을 보면서 경험을 회상하여 말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하고 등장 인물들의 감정을 유추능력</li> </ul>

〈표 I-3-10〉 문제해결력 검사 문제상황 목록

상황	측정내용
사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의 유리창을 깨 상황,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공에 머리를 맞은 상황</li> </ul>
문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트에서 아이가 떼를 쓰며 울고 있는 상황,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친구가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황, 부엌에서 아빠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식탁 위에 올라와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li> </ul>
일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리기 시합에서 1, 2, 3등을 한 친구들을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 바닷가에서 가족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데 남동생이 모래성 위에 모래를 쏟고 있는 상황,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불을 끄러 온 상황</li> </ul>

(2) 정서·행동 특성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II)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18)를 사용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집중력 부진, 불안·우울, 학습·사회성부진, 과민·반항성 등에 대한 정서·행동 특성과 내적(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외적(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 의식), 위험문항(학교폭력피해), 외부요인(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조금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4개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총 6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격 특성 부분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심군 선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의 성격 특성은 외적/내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격 특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지원을 평가함으로써 부모는 학생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서·행동 특성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최근 해당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행동 특성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다. 관심군은 정서·행동문제 총점이 초1 남학생 기준 20점, 여학생 기준 17점 이상이며 이 점수는 평균에서 1.5SD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3-11〉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성격 특성 프로파일

구분	핵심 성격 특성	의미
개인 내적 성격 특성	성실성	맡은 바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태도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개방성	일이나 사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개인 외적 성격 특성	타인이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각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의식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
	사회적 주도성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 경험 여부를 파악
외부요인	부모 자녀 관계	자녀양육 중 곤란한 상황이 많았는지를 확인
정서·행동 문제요인	집중력 부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불안/우울	분리불안장애 등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충격, 별다른 원인 없이 나타나는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 원치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떠오르는 등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학습/사회성 부진	언어 발달의 지연 및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의 부진, 학습장애, 지적장애, 강박성향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 또는 사회성 부진을 파악
	과민/반항성	짜증스러운 기분과 반항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 기분조절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에서 흔한 정서·행동문제의 경향성을 파악

〈표 I-3-12〉 아동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설문문항 구성

단위: 개

구분		문항 수	
성격 특성	내적	성실성	4
		자존감	4
		개방성	4
	외적	타인이해	4
		사회적 주도성	4
		공동체의식	4

구분		문항 수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2
외부요인		부모 자녀 관계	4
요인	정서행동 특성	집중력 부진	7
		불안/우울	10
		학습/사회성 부진	8
		과민/반항성	4
기타 (전반적 삶의 질, 상담경험, 지원 선호도)		7	

### 라)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관련 설문문항은 크게 자녀의 하루 일과,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정서 행동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하루 일과와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하형석·정문진·최승주·구본호, 2017)의 보호자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김보용(2009: 98-107)의 연구와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를 조사한 정복주(2010: 134-144)의 연구,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한 최재원(2021: 67-71)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교육 인식 및 현황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녀의 하루 일과는 하루의 시간을 10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평일(주중)과 주말에 각각의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적도록 하였다.

사교육 현황 및 인식은 사교육 목적, 사교육비 부담 정도, 사교육 결정 주체, 사교육 과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9개의 문항(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3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3-1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구성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목적, 사교육비 부담 정도, 사교육 결정 주체, 사교육 과목	9개

자료: 김보용(2009).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pp. 98-107 내용과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pp. 134-144 내용 및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pp. 67-71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함.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문항은 백지원(2009: 50-55)의 영유아 초기 영어 사교육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와 신나나(2021: 61-68)의 유아 영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어 사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실시 경험, 실시 연령, 지도 방법, 실시 이유, 실시 횟수, 시행 기간, 비용,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총 7개의 문항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부록 표 4 참조).

〈표 I-3-1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구성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실시 경험, 실시 연령, 지도 방법, 실시 이유, 실시 횟수, 시행 기간, 비용, 긍정적/부정적 효과	7개

자료: 백지원(2009). 영·유아 초기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pp. 50-55 내용과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pp. 61-68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과 서울, 경기 육아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배부하여 부모님께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 간 1:1 대면 검사로 실시되었고 조용한 환경에서 노트북, 녹음기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학교 방문 검사의 경우 아동의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내 부모님께서 응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검사에 참여하는 동안 응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패널자료 심층분석

패널자료 심층분석은 부모 변인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 중 본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교육 경험 변인, 부모 변인, 아동 변인은 〈표 I-3-15〉와 같다.

〈표 I-3-15〉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특성 변인

사교육 경험 변인 (w5, w6, w7)	부모 변인(w7)	아동 특성 변인
사교육 경험 유무	아동 출생순위	지능지수(w9)
사교육 경험 유형	거주지역 규모	학업수행능력(w8-1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w11-14)
월평균 사교육 비용	부모학력	자아존중감 (w8-11, 13-14)
	부모 취·학업 유무	집행기능곤란(w8-11, 13)
	부모 우울	
	부부 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주: w는 wave의 약자로서 반복측정을 의미함.

###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3년 동안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 자료 중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 사교육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한 설문문항이 활용되었다. 사교육 경험 유형은 총 13가지로 구분되며,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는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이 포함되고, ‘학습 관련 사교육’에는 과학,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교구 이용 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 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험을 예체능 관련 사교육 유형과 학습 관련 사교육 유형으로 구분하여,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별로 ‘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0)’,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만 참여한 집단(1)’, ‘학습 관련 사교육에만 참여한 집단(2)’, ‘예체능 및 학습 관련 사교육에 모두 참여한 집단(3)’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 변수 및 아동 변수와의 관련성 분석에는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7차년도 자료에서 생성한 사교육 경험 유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학습 관련 사교육의 참여 개수에 따라서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별로 ‘학습 관련 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집단(0)’, ‘학습 관련 사교육에 1~2개 참여한 집단(1)’, ‘학습 관련 사교



육에 3개 이상 참여한 집단(2)'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 변수 및 아동 변수와의 관련성 분석에는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 7차년도 자료에서 생성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변수를 활용하였다.

##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대한 부모 변인의 효과

부모 변인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인으로 활용된 부모 변인으로는 7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출생순위, 패널 거주지역 규모, 가구소득, 부모학력, 모 취·학업 유무, 부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등이다.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0개, 1~2개, 3개 이상), 월평균 사교육 비용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교육 경험 유무'를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교육 경험 유형'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을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사교육 경험으로 간주한 경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사교육 경험 관련 변인으로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유형, 학습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아동 특성 관련 변인으로는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등을 활용하였다. 다만, 아동 변수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Angrist, J. D. & Pischke, J-S. 2017; 손호성·이재훈, 2018; Card & Krueger, 1994). 이중차분법을 활용, 1차 시점에

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변화율(rates of change)에 대한 사교육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분석하였다(Muthen, & Muthen, 2017).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등 종속변인의 전체 분산 중 개인 능력, 부모 변인이 설명하는 분산을 제거한 후, 사교육 경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 마.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 1)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 가)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전국의 135,753개의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로 주소, 학원명, 정원합계, 교습과정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4시간) 이상 운영하는 영어 학원의 교습 과목 및 정원 신고 정원 목록을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956곳(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학원에서 교습하는 2,470개의 과목에 대해 신고한 정원 자료이다. 이 때, 정원 자료는 신고에 의존하는 자료이다 보니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출 또는 검증되지 않아 분석에 사용될 만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sup>1)</sup>

행정구역별 유아 인구를 산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누리집에서(<https://jumin.mois.go.kr>)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기관별 연령별 인구자료를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는 행정구역 단위로 수

1) 예를 들어 춘천시와 서울 노원구 학원의 총 정원은 약 600만명 및 262만명에 달한다. 또한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 정원의 경우 울산 북구는 약 2.3만명에 달하는데, 해당 지역의 유아 인구가 1.2만명이다.

집 및 작성되는데 행정구역은 특성상 수시로 변동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분류 코드 또는 행정기관 코드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수집한 인구자료와 공간자료(행정 경계 shapefile과 기관 코드 등의 속성자료)를 연계하여 기준시점의 행정단위별 유아 인구를 산출하였다.

## 나) 분석방법

### (1) 자료의 전처리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자료는 학원의 수강생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습과정 목록 또는 교습과정명에 '유아'를 포함하는 학원을 검색하면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와 같이 대상이 유아에만 국한되지 않거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추출되나 각 학원의 교습 대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실용외국어'를 교습하는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습과정 목록 필드는 다수의 교습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이외에도 '논술', '수학', '영어', '스피치', '글쓰기', '주산', 또는 '어학'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아'를 키워드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원을 모두 추출하였다[예: 유아 and (논술 or 수학 or 영어)]. 또한, '미술', '예능', '음악', '무용', '피아노'를 키워드로 하면서 '유아'를 키워드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원도 모두 추출하였다[예: 유아 and (미술 or 예능 or 음악 or 무용 or 피아노)].

전자를 '학습 사교육기관', 후자를 '예체능 사교육기관'으로 구분하였는데, 학습 사교육기관은 총 8,761곳, 유아 대상 예체능 사교육기관은 239곳이 추출되었다. 예체능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의 수는 37,200곳에 달하지만, 이 학원 목록에서 '유아'를 키워드로 사용하면 239곳으로 한정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이윤진과 문무경, 김문정, 양시내(2009)의 연구도 유아 대상 학원의 추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유아 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 국제화 학원 및 전체 예능 학원수(2008년 기준 국제화 학원 7,408개소, 예능학원 23,578개소)를 제시한 바 있다.

### (2) 사교육기관 주소의 좌표변환

이상의 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주소의 좌표변환을 실시하였다. 지오코딩

(geocoding)은 주소 정보를 위도와 경도 또는 특정 투영 좌표계의 직각평면 좌표 값으로 변환시키는 공간분석 기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구역도나 도로망도와 같은 다른 공간자료와 중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주소의 좌표변환은 중요하다. 사교육기관의 주소 정보는 WGS84 타원체의 경위도 좌표계 중 하나인 EPSG:4326 좌표계의 좌표로 변환하였다. 이 좌표계는 GPS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좌표계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새주소지도에서 사용하는 직각평면 좌표계인 EPSG:5179로 변환하였다.

### (3) Hot Spot / Cold Spot 분석

수집 및 전처리한 유아 사교육기관 및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위치점을 시군구 단위로 합역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사교육기관 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비율,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소의 비율을 산출하고<sup>2)</sup>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후 각각의 비율에 대해 Getis-Ord  $G_i^*$  (Getis and Ord, 1992) 통계치를 계산하여 Hot Spot 또는 Cold Spot을 탐지하였다. Hot spo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의 군집을 이룬 경우를 말하고, cold spo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이 군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밀도분포도이다. 이를 통해 단위 공간 상 수요의 강도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수요의 분포를 공간 관계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통계 기법으로는 공간 군집분석(Spatial Cluster Analysis)이 대표적이다. 공간 군집 탐지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전역적, 국지적, 초점 모델)이 널리 사용된다(Mitchell, 2005; Cromley and McLafferty, 2012). 특히 국지적 방법은 집계된 공간단위가 지도 위의 점과 점을 이어 만든 다각형인 폴리곤(polygon)인 경우 많이 사용하는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 statistics)를 시각화하는 LISA 맵(Anselin, 1995)과 국지 G 통계치(Getis-Ord  $G_i^*$ )가 대표적이다.

---

2) 교습소 정원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 교습소 비율(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수/유아 인구)을 활용함

$G_i^*$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지적으로 높은 값이 군집을 이루는 곳(hot spot)과 낮은 값 군집(cold spot)을 탐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특정 지역을  $m$  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누었다고 가정하고,  $X_i$  를  $i$  지역의 특성(서비스 수요, 공급 인프라 규모, 인프라의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변수로 상정하며,  $W_{ij}$ 를 지역  $i$  와  $j$  사이의 접근성을 대표하는 공간가중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표준화된  $G_i^*$  통계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G_i^*(d) = \frac{\sum_{j=1}^n W_{ij}(d)x_j - W_i^* \bar{x}}{s[(nS_{1i}^*) - (W_i^*)^2 / (n-1)]}$$

$$W_i^* = \sum_{j=1}^n W_{ij}(d)$$

$$S_{1i}^* = \sum_{j=1}^n W_{ij}^2$$

$$s = \sum_{j=1}^n (x_j - \bar{x})^2 / n^{0.5}$$

위 식은 공간  $j$ 의 속성값과 공간  $i$ 의 속성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공간  $j$ 의 속성값이 공간  $i$ 와 어떤 관계를 고려한 분포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분석을 위해 각 지점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거나 공간관계를  $W_{ij}$ 로 모형화한다. 분석 결과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z$ 값으로 제시되며 이 값의 절대값이 큰 경우 (>3) 큰 속성값을 가지는 집단이 군집을(Hot Spots) 이룬다고 해석하고,  $z$ 값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3) 낮은 값이 군집을 이룬다(Cold Spots)고 분류하게 된다.

## 2)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지역분포

### 가)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인터넷에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수집한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목록 자료이다. 인터넷상에서 지역별로 상담센터나 놀이치료센터를 검색한 결과로 나타난 정보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후 기관별 주소를 확보하여 목록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색 결과의 수, 리뷰의 수, 웹 크롤링의 용이성 등 전반적인 편의성

을 고려하여 네이버 맵을 사용하였다. 네이버 맵에서 시군구별로 언어치료, 놀이치료, 상담센터를 키워드를 연결하여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검색 키워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언어치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놀이치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담센터”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군구 250개와 키워드 3개를 교차하여 검색 결과, 2024년 7월 31일 기준 총 9,141개의 상담센터 및 언어/놀이치료센터를 추출하였는데 소개 홈페이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총 5,114개를 선정하였다.

## 나) 분석방법

### (1) 자료의 전처리

키워드로 검색한 목록 중 유아 치료와 거리가 먼 기관은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상담소, 노인요양센터, 재활 및 돌봄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치료센터 여부를 구분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 기관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개하는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유아’ 대신 ‘아동’을 사용하기에 ‘아동’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 연령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아동’ 키워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아동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아동 포함 전 연령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기관도 아동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치료 및 놀이치료는 심리 발달, 언어 발달, 행동 발달 등 포괄적인 범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기관 설명 페이지에 관련 단어(심리, 언어, 발달, 검사 등)가 포함된 경우, 치료센터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면(예: 치료센터이지만 아동 여부가 불확실 시, 아동 0, 치료 1로 표기) 아동 대상 치료센터가 아닌 곳으로 간주하였다. 검색 목록에 연결된 리뷰 및 블로그의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였다.

검색 및 전처리 결과 2024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아동치료 기관은 총 6,637개의 기관이 확인되었고, 그 중 아동 대상 기관은 총 5,114개이다. 자료에 포함된 필드는 기관의 네이버맵 주소(URL), 기관명, 검색 키워드,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URL), 아동 대상 유무, 치료기관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2)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주소의 좌표변환과 Hot Spot / Cold Spot 분석

수집한 주소의 좌표변환과 공간군집 분석방법은 아동 대상 교육기관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사용되는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유아 대상 센터의 수,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을 산출하고 그 분포를 확인하였다.

### 3)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 분석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비율과 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을 살펴본다.

두 변수의 상관성을 보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하는 두 변수는 정규성(normality)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모수적 상관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자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또는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y)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유의한 상관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어떤 지역이 정적 또는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나는지를 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간적 패턴이 발생하는 유의미한 공간적 과정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t Spot / Cold Spot 분석은 주로 단변량에 대해 공간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데 비해, 두 변수의 공간적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관측치 또는 완전히 다른 관측치가 나타난다면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높다 또는 공간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를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부르고, 후자를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negative spatial autocorrelation)이라 부른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은 단변량 또는 이변량/다변량에 대해 전역적 상관성 또는 국지적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적 군집에 대한 공간통계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자주 이용되는 통계치로는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가 있다. LISA는 Anselin(1995)이 제안한 공간적 의존성에 대한 국지적 통계치로, 특정 지역과 주변 지역의 속성값들을 비교하여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속성값이 동시에 높은 HH(High-High) 유형이나 동시에 모두 낮은 LL(Low-Low) 유형의 국지적 군집 지역들을 도출해준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지역 즉, HL(High-Low) 유형이나 LH(Low-High) 유형의 탐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외국어 교습소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분포하는지 여부, 어떤 지역이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LISA는 단변량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입력 자료 변경을 통해 이변량 상관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이변량 LISA, 즉 국지적 Moran's  $I$  를 사용한다.

이변량 국지적 Moran's  $I$  ( $I_i^B$ ) 통계치는 간략히 말하면 위치  $i$ 에서 한 변수의 값  $x_i$ 와 이웃한 지역에서 다른 변수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sum_j W_{ij}y_j$ ) 다른 변수값의 공간적 지연(spatial lag)의 관계를 나타낸다. 변수와 다른 변수의 공간적 지연의 관계는 곱으로 표현되고, 두 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표준화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_i^B = cx_i \sum_j W_{ij}y_j$$

## 바. 정책토론회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5일(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분석방법을 논의하며, 제안한 유아교육 정책 시사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교육 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유아교육 전문가, 통계전문가,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사교육 기초자료에 대한 생각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 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설문조사 내용의 타당성 검증, 기초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여 대상은 부처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 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이며, 착수, 중간, 최종 단계의 정기적인 협의회와 연구 관련한 수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II

## 연구의 배경

- 01 사교육의 정의
- 0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 0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 II. 연구의 배경

###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私教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한다(위키백과, 2024). 통계청(2022)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정의한 사교육(비)의 개념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비)를 뜻하고,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유형이 포함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아직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을 정의할 때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 개념과는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사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김지경(2004: 70)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사교육을 정의하였다. 전국 규모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한 차성현 외(2010: 25-26)의 연구에서도 사교육을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 기타 교육비로 유아 사교육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송정 외(2011: 36-37)의 연구 또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을 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예: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 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외부강사에 의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도 사교육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와 다르게, 이정원(2009), 민미희(2015), 이승미와 김언경(2018)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개

인 또는 그룹과의 등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지칭하여 사교육이라 정의하고, 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사교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광현과 권용재(2015: 86)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덧붙여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한 개념을 협의의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안주희와 곽승주(2017: 275)는 사교육을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과 유아교육기관 외 사교육으로 나누고,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으로, 유아교육기관 외 사교육은 학원, 센터 등 외부 사설기관교육과 학습지 등 가정방문교육으로 세분화하였다. 최효미와 김길숙, 이동하, 임준범(2016: 19)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에서 교육·보육 서비스를 4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중 사교육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거나 시간제학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선택적 교육·보육 서비스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후 최효미 외(2021a: 39-40)는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사교육을 반일제 이상 학원과 단시간 학원, 기타 사교육과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비대면 사교육도 포함하여 더욱 조사 범위를 확장하였다.

한편, 유아기의 사교육은 초·중·고 사교육과 다르게 ‘조기 사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조기 사교육’은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교육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을 가리킨다(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 250, 재인용). 혹은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기초한 ‘적기교육’과는 무관하게 주로 학교교육에 대비하는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 ‘조기·특기교육’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학원교육, 개인/소집단 과외교육, 가정학습, 가정방문 교육,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등이 포함된다(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154).

이상의 사교육의 정의와 개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표 II-1-1〉 선행연구에서의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연구자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및 유형
김지경 (2004: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li> </ul>
우남희·백해정·김현신(2005: 6, 재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하여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교육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학습 자극</li> </ul>
강이주 (2007: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공교육비 이외에 지출되는 모든 교육비용을 말함.</li> <li>음악, 미술, 체육 등의 재능교육, 여학, 컴퓨터, 한문, 산수 등의 학원과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과 관련된 비용을 총칭함.</li> <li>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특별활동 포함</li> </ul>
이정원 (2009: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개인 또는 그룹과외 등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지칭</li> <li>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포함</li> </ul>
차성현 외 (2010: 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칭</li> <li>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도 유아사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li> </ul>
송정 외 (2011: 3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li> <li>영유아교육기관에서 외부강사에 의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사교육 범위에 포함</li> <li>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과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li> </ul>
서문희·양미선 (2013: 191-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각종 학원, 방문학습지,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비용으로 개념 정의</li> </ul>
민미희 (2015: 12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제외하여 어린이집 이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li> <li>각종 학원, 학습지와 방과과외, 문화센터 및 주민센터, 인터넷 및 전화교육</li> </ul>
이광현·권용재 (2015: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의 개념으로 정의</li> <li>원론적 사교육비 +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한 개념을 협의의 사교육비로 정의</li> </ul>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 (2016: 3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사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학습을 유아 사교육으로 정의</li> <li>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은 사부담 혹은 무상 공교육의 범주로 구분</li> </ul>
안주희·곽승주 (2017: 277-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기 사교육: 만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가 성인으로부터 의도된 교육을 받는 형태를 의미함.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포함하여 부모가 교육비를 사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모든 영역을 뜻함.</li> <li>사교육 유형: 문화센터, 짐보리 등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설기관교육/학습지 및 은물 등을 활용하는 가정방문교육/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li> </ul>
이승미·김연경 (201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원,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2)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혹은 그룹지도, 방문교사의 방문 교육, 3) 교사 없이 실시하는 학습지나 교구활용 교육, 4)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교육의 형태까지 포함</li> </ul>



연구자	영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및 유형
최효미·이정원·김태우 (2021b: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반나절 이상 이용하는 주된 육아서비스 이외에 방과후(오후) 시간 등에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서비스로, 공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적 영역의 교육서비스, 구체적으로 단시간 학원, 학습지, 교재교구 활동,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li> <li>●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 서비스에 해당하긴 하나 보육·교육서비스의 대체제로 반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서비스에서 제외</li> <li>●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방과후 단시간 이용하는 서비스이긴 하나 사교육 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이 포함된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교육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li> </ul>
박중서 외 (2021: 266,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양육비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포함), 공교육비(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돌봄비용(조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비혈연자 돌봄), 기타비용 항목으로 조사</li> <li>● 사교육비는 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업비, 특별활동비는 제외</li> </ul>
최정윤·양정호 (2022: 595-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비 및 사교육비로 구분함. 보육비는 유치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제외)과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뜻하고,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을 제외한 학원, 개인교습, 직장보육시설, 학습지 및 기타 등 사교육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말함.</li> <li>●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에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원 포함)/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직장보육시설/개인교습(학습지나 재택과외 포함)/예체능 개인교습, 기타</li> </ul>

자료: 1) 김지경(2004).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6-86.  
 2)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3)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4)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5)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6)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7)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8) 민미희(2015).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7-136.  
 9)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83-107.  
 10)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1) 안주희·곽승주(2017). 영아기 사교육 유형별 실태 및 교사-부모 인식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273-302.  
 12) 이승미·김연경(2018). 유아 사교육 현황, 사교육에 대한 유아의 불만족도 및 행복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9(3), 31-48.  
 13) 최효미·이정원·김태우(2021b).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5(1), 3-27.  
 14) 박중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최정윤·양정호(2022). 영유아의 보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비용 결정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589-608.



## 2. 사교육 관련법과 정책

### 가. 사교육 관련법

사교육 관련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이 있으며, 자치법규로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의 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뜻하여, 만3세 미만의 영아는 학원의 교습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두 관할 교육감에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라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정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현재 17개 시도전체 지역 상황에 따른 조례가 모두 제정되었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에서 교습소와 개인 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시간에 따른 내용은 지역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모든 조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표 II-2-1〉 시도별 조례에 따른 학원의 교습시간 차이

재학생 구분	교습시간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05:00~22:00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05:00~24:00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05:00~21:00	세종특별자치시
	05:00~22:00	

재학생 구분	교습시간	해당 지역
	05:00~22:00 05:00~23:50	전라남도
	05:00~21:00 05:00~22:00 05:00~23:00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05:00~22:00 05:00~23:00 05:00~24:00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자료: 각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인출일: 2024. 2. 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의 제 8조를 살펴보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방과후학교 과정도 동일하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에 대한 규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을 “방과후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3월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해 놓아 유아교육기관과 유사한 사교육기관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는 위의 내용을 위반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 4항에는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한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가 가능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외국어 등 언어 분야,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 나. 사교육 관련 정책

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황폐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야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선행교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6가지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수요 흡수, 유아 사교육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유아 사교육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 공교육 내 교육과정·방과후에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을 연계하고 3~5세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여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와 같은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고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 16~18).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교육부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847개를 전수조사 및 점검한 결과도 함께 발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이루어진 조사의 내용은 교습정원(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급식비·피복비·교통비 등),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의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규교습과정 중 영어 외에도 체육·미술·수학·과학·한글 등을 교습하는 경우가 적발되었고, 교습비의 경우 급식비·재료비·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평균 월 17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23: 18, 22~23).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부의 주요정책 중 10번째 중점과제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모델에서 유아를 예로 들면, 원어민, AI를 활용한 놀이 중심 어린이 영어,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사교육기관을 대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2024b: 18).

〈표 II-2-2〉 사교육 관련 정책

정책	주요 추진과제	세부 내용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 2023)	1)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수능평가 실현</li> <li>•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li> </ul>
	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li> <li>•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엄정 대응</li> </ul>
	3)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li> <li>•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li> </ul>
	4) 중·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활용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li> <li>•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강화</li> <li>• 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학습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li> </ul>
	5) 초등 돌봄 및 체육·예술 수요 흡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li> <li>• 방과후 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체육, 예술 사교육 흡수</li> <li>• 다양한 초등 교과 사교육 문제 해소</li> <li>•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li> </ul>
	6) 유아 사교육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확대</li> <li>-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24.~)</li> </ul> </li> <li>• 유보통합과 연계 및 교육과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 유보통합 모델 시안 제시(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교사 대비 영유아수 감축,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li> <li>-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등 돌봄 확대</li> <li>- 유보통합 대비 및 2022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국교위 협업)</li> </ul> </li> <li>•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실태조사</li> <li>-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 정상화: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 추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목대로 운영.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li> <li>- 조기 사교육 부작용에 관한 연구 추진</li> </ul> </li> </ul>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2024a)	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li> <li>•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li> </ul>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li> <li>• 늘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li> <li>•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li> </ul>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최종완성: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li> </ul>

자료: 1) 교육부(2023). 사교육 경감대책. p.16~1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2.23.)

2)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6~8, 1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914> (인출일: 2024.2.23.)

### 3. 영유아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실태 관련 연구와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관련 연구

사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림 외(2015)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아동패널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이용, 기관 내 특별활동 참여,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김은영·김근진·윤지연, 2017)에서 한국은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으로 체육(20.9%), 미술(17.3%), 한글(13.3%)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와 유사하였다.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비교 국가 모두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한국이 2.2개로 비교국가인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에 비해 가장 많고, 주당 이용 횟수 또한 1.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은영·김근진·윤지연, 2017).

송정 등(2011)은 36개월 미만 영아기 자녀의 사교육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영아는 30.1%이었고, 유아의 경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86.8%로 다수의 유아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세 25.0%, 만2세 46.6%, 만3세 67.1%, 만4세 83.0%, 만5~6세는 93.3%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차성현 외, 2010)에서 발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3세 이상의 초등학교 미취학 유아가 있는 전국의 2,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2,521가구(99.8%)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원 이상이며, 부모 10명 중 4명이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교육비 부담 때문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차성현 외, 2010). 서문희, 양미선(2013)의 연구에서는 3~5세 유아 중 약 86.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평균 129,700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수록,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유의미하게 커진다고 하였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재진(2011)은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반일제기관 이용 여부, 모의 취업 여부, 거주지역, 월 가구소득, 모의 학력, 자녀 수, 자녀출생순위, 아동의 만 연령 등이 시간제 사교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가구특성 면에서 보면 모가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고 도시지역에 사는 가구에서 시간제 사교육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뒤로 갈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 확률은 낮았으며, 아동의 만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 이용확률이 높았다. 송정 등(2011)에 따르면 영아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3,888원이었으며, 영아에 따라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400,000원까지 다양한 비용 차이를 나타냈다. 유아의 경우는 189,522원으로 이는 유아 연령, 취학전 자녀 수,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원준(2018)은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내 학습량과 공교육 불안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선과 김주후(2010)는 연령이 높고 유아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영과 곽수란(2015)은 유아 사교육비는 공공의 지원과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김은영 외(2016)는 2세 자녀를 둔 맞벌이와 애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사교육을 덜 이용하고 5세 남아 자녀를 둔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자율적 부모보다 사교육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정윤과 양정호(2022)는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월평균 소득, 자녀 수, 첫째아 연령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첫째아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며, 자녀 수가 1명보다 2명 이상일수록 교육비 지출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이나 자산 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녀의 수나 자녀의 연령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김정욱과 배호중

(2021)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거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걱정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별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주로 결정하는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교육 문제는 가구의 경제적 측면이나 부담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 대한 걱정 정도나 자녀부양을 둘러싼 가치관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사교육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홍세희와 노연경(2017)은 만6세 때 사교육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모의 근로여부,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가구 연간소득, 부모와 거주여부, 다문화가정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입학 후 학업성취는 사교육을 많이 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사교육 집단, 중간 사교육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백승희와 정혜원(2017)은 사교육 시작 비율은 만0세에서 만3세 사이에 증가하다가 만3세 때 가장 높은 사교육 시작 비율을 보이고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고, 사교육 시작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유아의 성별, 모의 연령, 거주지역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사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고,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빨리 시작했으며,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교육 시작 시점이 더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안주희와 곽승주(2017)의 연구에서 사교육 유형별 경험 실태는 특별활동, 사설기관교육, 가정방문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기관 교육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신체활동을 위주로, 가정방문교육은 학습준비를 위한 한글·수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아기 사교육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 과열현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또래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유형 중 사설기관교육에 대해 부모보다 교사가 영아의 참여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인식하였다. 가정방문교육은 부모와 교사 모두 영아기 활동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 교사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안주희·곽승



주, 2017).

송정 등(2011)은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영아의 경우 자녀의 흥미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은 19.4%로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경우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38.8%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흥미, 초등학교 학습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며, 실제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과목은 재능이나 소질의 계발과 관련된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교육 보다는 영어 과목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는 아이들이 영어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며 부모의 인식과 실제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효미 외(2021a: 184)의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사교육의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36.2%),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27.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11.1%) 순으로 나타나 학습과 관련된 이유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나.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 관련 연구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남희와 백혜정, 김현신(2005)은 사교육을 조기에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등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은 어려서부터 빨리 많은 것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아들이 조기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기 사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3~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에 참여하는 것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hi et al(2022)에 따르면 방과후 교습의 종류에 따라, 예술 및 건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들의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며, 예술 및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개선시켰지만, 예술, 과학 및 건강 활

동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아 사교육이 이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만5세 유아의 언어능력을 조사한 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언어 및 어휘능력(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1)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언어 및 어휘능력(이기숙 외, 2013)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연구 결과 만5세의 어휘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의 국어성적과 어휘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사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휘를 풍부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권혜진, 정혜옥(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윤소정, 김진옥(2016)의 연구에서도 유아 사교육이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과외 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Ren et al(2020)에 따르면 과외활동 참여는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정서적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과외활동의 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때는 과외 활동의 횟수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시작하는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권정윤(2007)은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은 횟수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 백혜정 외(2005)도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수가 많아질수록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함께 위축, 우울, 불안 등 내재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영양과 이성희(2004)는 만5세 유아의 과외활동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영역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심 상함, 부담감 등 모든 영역에서 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위집단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김성숙(2013)은 성인의 주도하에 행해지는 과도한 사교육은 유아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승미(2015) 또한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에 의

해 자유로운 놀이시간이 부족한 것은 유아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체화주의 인지적 접근에 따르면, 체화적인 놀이를 통해 영유아기의 학습은 주어진 환경 내 자극에 대해 비목적적으로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며, 그 학습의 경로와 과정은 개인의 내적 요인들(활동성, 호기심, 지속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저마다 역동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놀이가 유아기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차기주·윤성규·이지윤, 2022). 이런 점을 볼 때에도 놀이 시간을 사교육으로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 III

---

##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 01 영유아 사교육 실태
- 0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 0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 04 소결(시사점)



### Ⅲ.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sup>3)</sup>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본 설문 조사와 이전 연구와의 비교 분석, 기존 실태자료 재분석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이용 변화 및 추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이전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인식 및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영유아 사교육 실태

##### 가. 사교육 이용 현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의 65.33%이고,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다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다는 경우 30.10%였다.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다니는 사교육의 경우 전체 평균 가짓수는 2.08개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 사교육 이용 여부는 자녀 연령, 자녀의 재원기관, 어머니/아버지 최종학력, 가구소득별로 집단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75.35%, 반일제학원에 다니는 경우 81.13%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59.56%), 가정양육의 경우(43.33%) 보다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3) 2016년(김은영 외, 2016), 2024년 조사의 결과분석은 모두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음. 또한 본 장에서 언급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추가로 이용하는 사교육 유형에 있어서 자녀 연령과 지역 규모,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2세인 경우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5세의 경우는 학습 관련 사교육 그리고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추가 사교육 이용 가짓수 중 학습 관련 사교육 학원 수는 만2세에 비해 만3,5세가 많았다.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학원 수는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집단(1.41개)이 전문대 졸업 집단(1.23개) 보다 많았고,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거주 집단(1.47개), 대도시(1.32개), 읍면도시(1.18개) 순으로 높았다. 다니고 있는 추가 사교육 개수를 전체 총계로 살펴보면 만2세(1.72개) 보다 만3세(2.09개)와 만5세(2.29개)가 많았고, 반일제학원을 다니거나(2.74개)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2.21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1.94개)보다 많은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다니고 있는 추가 사교육 총계는 어머니 최종학력 수준과 지역 규모, 가구소득별로도 집단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2.05개)와 중소도시(2.24개) 거주 집단이 읍면지역(1.65개) 거주집단 보다 많은 추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추가 사교육 가짓수(2.39개)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 1.89개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는 2024년 조사에서의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았다(표 III-1-2 참조). 해당 표는 전체 응답자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이고, <부록 표 5>~<부록 표 8>에는 어떤 유형이든 하나라도 사교육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와 각 유형별로 하나 이상 한 경우를 기본으로만 하여 수를 뽑아 두었다. 본문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만0세 때 경험했던 사교육 개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0.36개의 사교육을 경험하였고, 만1세 때는 0.73개,



만2세 1.29개, 만3세 2.01개, 만4세 2.19개, 만5세 3.15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한 사교육 개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3세 이상에서 두드러지는데, 만3세 때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의 경우는 여아 1.08개로 남아의 0.84개 보다 많았다. 만4세와 5세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의 개수가 남아 보다 여아가 많았고, 이는 전체 학원 총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의 결과로 이어졌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202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현재 연령이 어릴수록 동일 연령 경험에서의 사교육 가짓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조사시점과 가까운 연령에 대한 경험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오래 전 기억일수록 부정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고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사교육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설문지에서 사교육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만2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문화센터를 사교육으로 인식하고 바로 응답할 확률이 높지만, 만5세 자녀를 둔 경우는 그동안의 사교육 경험이 혼재 되어 최근에 주로 경험한 보다 ‘학원’ 형태의 교육을 사교육으로 인식하고 응답했을 수 있다.

자녀 재원기관에 따라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만1세반 경험에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가짓수와 전체 사교육 가짓수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예체능/기타 유형 0.49개, 전체 0.81개)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예체능/기타 유형 0.33개, 전체 0.57개) 보다 많았고, 만2세 때는 모든 유형의 사교육에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지속된다. 이러한 경향은 만3세 이후의 경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만4,5세 때의 경험에서는 현재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의 사교육 개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사교육 유형과 무관하게 월등히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가정일수록 사교육에 보다 친화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만2세반 이하의 경험에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이

용하는 사교육 개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향이 있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만3세반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비교적 어린 연령대의 경험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만0세반 경험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와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맞벌이인 가정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었고, 만1세반 경험에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만2세반 경험에서는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역시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보다 많이 하고 있었고, 만3세반 경험에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에서 그러하였다. 반면, 만4세와 5세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도 일부 연령에서 지역 규모와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에서는 대표적으로 만4세반 경험에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와 전체 사교육 개수에서 중소도시 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소득은 만2세반 경험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학습 관련 사교육을 0.71개 했었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집단이 0.49개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III-1-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치수: 2024년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가치수						
	이용함	인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전체	65.33	34.67	100(1,500)	32.24	37.65	30.10	100(980)	1.85	1.36	2.08	(980)
자녀 성별											
남	63.25	36.75	100( 770)	34.91	36.34	28.75	100(487)	1.90	1.34	2.09	(487)
여	67.53	32.47	100( 730)	29.61	38.95	31.44	100(493)	1.79	1.38	2.07	(493)
$\chi^2(df), t$	3.041(1)			3.159(2)				1.2	-0.7	0.2	
자녀 연령											
만2세	51.00	49.00	100( 500)	35.29	43.14	21.57	100(255)	1.42 <sup>b</sup>	1.41	1.72 <sup>b</sup>	(255)
만3세	60.80	39.20	100( 500)	35.20	35.86	28.95	100(304)	1.86 <sup>a</sup>	1.38	2.09 <sup>a</sup>	(304)
만5세	84.20	15.80	100( 500)	28.27	35.63	36.10	100(421)	2.07 <sup>a</sup>	1.33	2.29 <sup>a</sup>	(421)
$\chi^2(df), F$	128.471(2)***			17.722(4)**				24.8(w)	0.7(w)	13.9***(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75.35	24.65	100( 507)	29.32	37.43	33.25	100(382)	2.01 <sup>a</sup>	1.36	2.21 <sup>a</sup>	(382)
어린이집	59.56	40.44	100( 910)	35.24	38.19	26.57	100(542)	1.73 <sup>a</sup>	1.34	1.94 <sup>b</sup>	(542)
반일제학원	81.13	18.87	100( 53)	18.60	32.56	48.84	100( 43)	2.14 <sup>a</sup>	1.60	2.74 <sup>a</sup>	( 43)
가정교육	43.33	56.67	100( 30)	38.46	38.46	23.08	100( 13)	1.25 <sup>a</sup>	1.63	1.77	( 13)
$\chi^2(df), F$	48.080(3)***			14.234(6)*(b)				4.5**	1.8	4.9**(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43	45.57	100( 158)	40.70	37.21	22.09	100( 86)	1.89	1.27	1.94	( 86)
전문대졸	63.38	36.62	100( 325)	35.92	38.83	25.24	100(206)	1.75	1.23 <sup>b</sup>	1.86 <sup>b</sup>	(206)
4년제대졸	66.32	33.68	100( 867)	30.61	37.91	31.48	100(575)	1.84	1.41 <sup>a</sup>	2.12	(575)
대학원졸 이상	75.33	24.67	100( 150)	27.43	34.51	38.05	100(113)	2.05	1.40	2.36 <sup>a</sup>	(113)
$\chi^2(df), F$	15.834(3)**			10.629(6)				1.2	3.0*(w)	3.1*	

단위: %, (명), 개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가짓수						
	이용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5.02	44.98	100( 229)	34.13	38.10	27.78	100(126)	1.90	1.39	2.09	(126)
전문대졸	64.36	35.64	100( 289)	35.48	39.25	25.27	100(186)	1.89	1.30	1.99	(186)
4년제대졸	67.87	32.13	100( 803)	31.93	36.33	31.74	100(545)	1.76	1.38	2.06	(545)
대학원졸 이상	70.06	29.94	100( 157)	24.55	40.00	35.45	100(110)	2.20	1.37	2.35	(110)
$\chi^2(df), F$	14.718(3)**			6.477(6)				2.5(w)	0.4	1.4(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89	39.11	100( 514)	29.07	44.09	26.84	100(313)	1.71	1.30	1.88	(313)
맞벌이	67.89	32.11	100( 981)	33.63	34.68	31.68	100(666)	1.91	1.40	2.17	(666)
미취업	20.00	80.00	100( 5)	100.00	0.00	0.00	100( 1)	1.00	-	1.00	( 1)
$\chi^2(df), F, t$	11.839(2)**(b)			10.139(4)*(b)				2.2	-1.8	-	
지역 구분											
대도시	68.23	31.77	100( 576)	30.79	36.39	32.82	100(393)	1.79	1.32 <sup>b</sup>	2.05 <sup>a</sup>	(393)
중소도시	64.62	35.38	100( 684)	33.71	34.39	31.90	100(442)	1.93	1.47 <sup>a</sup>	2.24 <sup>a</sup>	(442)
읍면	60.42	39.58	100( 240)	31.72	51.03	17.24	100(145)	1.72	1.18 <sup>c</sup>	1.65 <sup>b</sup>	(145)
$\chi^2(df), F$	4.848(2)			18.288(4)**				1.6	9.1***(w)	11.7***(w)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9.21	50.79	100( 126)	43.55	29.03	27.42	100( 62)	1.84	1.40	2.10	( 62)
300 이상~500만원	60.58	39.42	100( 548)	30.42	43.37	26.20	100(332)	1.71	1.32	1.89 <sup>b</sup>	(332)
500 이상~700만원	68.76	31.24	100( 509)	33.43	38.86	27.71	100(350)	1.89	1.33	2.04	(350)
700만원 이상	74.45	25.55	100( 317)	30.08	30.08	39.83	100(236)	1.96	1.45	2.39 <sup>a</sup>	(236)
$\chi^2(df), F$	34.196(3)***			21.033(6)**				1.6	1.3	5.0**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면,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4)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II-1-2〉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유형별 기점수): 2024년

구분	만0세반 경험 (n=1,500)		만1세반 경험 (n=1,500)		만2세반 경험 (n=1,500)		만3세반 경험 (n=1,000)		만4세반 경험 (n=500)		만5세반 경험 (n=500)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전체	0.17	0.19	0.30	0.43	0.73	1.29	1.06	0.96	2.01	1.16	1.03	2.19	1.85	1.30	3.15
자녀 성별															
남	0.18	0.20	0.32	0.40	0.72	1.25	1.02	0.84	1.86	1.05	0.81	1.86	1.81	1.14	2.95
여	0.16	0.19	0.28	0.46	0.73	1.34	1.09	1.08	2.18	1.28	1.27	2.55	1.89	1.47	3.35
t	0.6	0.3	0.5	1.3	-1.2	-0.9	-0.7	-3.0**	-2.0*	-1.7	-4.1***	-3.1**	-0.5	-2.9**	-1.7
자녀 연령															
만2세	0.19	0.29 <sup>a</sup>	0.48 <sup>a</sup>	0.42 <sup>a</sup>	0.69 <sup>a</sup>	1.10 <sup>a</sup>	0.82 <sup>a</sup>	1.06 <sup>a</sup>	1.87 <sup>a</sup>	-	-	-	-	-	-
만3세	0.20	0.21 <sup>a</sup>	0.41 <sup>a</sup>	0.33 <sup>a</sup>	0.45 <sup>b</sup>	0.78 <sup>b</sup>	0.68 <sup>a</sup>	0.81 <sup>b</sup>	1.49 <sup>b</sup>	1.41	1.24	2.65	-	-	-
만5세	0.12	0.09 <sup>b</sup>	0.21 <sup>c</sup>	0.15 <sup>b</sup>	0.15 <sup>c</sup>	0.30 <sup>c</sup>	0.24 <sup>b</sup>	0.28 <sup>c</sup>	0.52 <sup>c</sup>	0.70	0.68	1.38	1.16	1.03	2.19
F/t	2.0(a)	14.4***(w)	8.6***(w)	24.8***(w)	53.2***(w)	52.7***(w)	60.4***(w)	78.1***(w)	92.4***(w)	7.43***	6.98***	8.18***	NA	NA	NA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15	0.16	0.31	0.23	0.33 <sup>b</sup>	0.57 <sup>b</sup>	0.45 <sup>b</sup>	0.57 <sup>b</sup>	1.02 <sup>b</sup>	1.07	0.98	2.05	1.20 <sup>b</sup>	1.13	2.33 <sup>b</sup>
아름이집	0.16	0.20	0.36	0.32	0.49 <sup>a</sup>	0.81 <sup>a</sup>	0.63 <sup>a</sup>	0.80 <sup>a</sup>	1.43 <sup>a</sup>	1.01	0.90	1.91	0.98 <sup>b</sup>	0.85 <sup>b</sup>	1.83 <sup>b</sup>
반일제학원	0.49	0.23	0.72	0.62	0.34	0.96	0.92 <sup>a</sup>	0.81	1.74	1.46	1.24	2.71	2.19 <sup>a</sup>	1.54 <sup>a</sup>	3.73 <sup>a</sup>
가정양육	0.17	0.37	0.53	0.33	0.33	0.67	0.57	0.60	1.17	-	-	-	-	-	-
F	0.9(w)	0.8(w)	2.0(a)	3.2*(w)	3.6*(w)	3.4*(w)	4.9*(w)	4.5*(w)	5.7*(w)	1.7	1.4	2.0	6.5*(w)	5.2**	7.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27	0.29	0.56	0.42	0.59	1.01	0.75	0.81	1.56	1.14	0.87	2.01	0.91	0.86	1.77
전문대졸	0.11 <sup>b</sup>	0.10 <sup>b</sup>	0.21 <sup>b</sup>	0.22 <sup>b</sup>	0.35	0.58 <sup>b</sup>	0.46 <sup>b</sup>	0.59 <sup>b</sup>	1.056	0.93	0.93	1.85	1.26	0.97	2.23
4년제대졸	0.14 <sup>b</sup>	0.18	0.32 <sup>b</sup>	0.28	0.40	0.68	0.56	0.71	1.27	1.03	0.96	2.00	1.21	1.09	2.30
대학원졸 이상	0.38 <sup>a</sup>	0.36 <sup>a</sup>	0.74 <sup>a</sup>	0.46 <sup>a</sup>	0.59	1.05 <sup>a</sup>	0.76 <sup>a</sup>	0.92 <sup>a</sup>	1.68a	1.41	1.10	2.51	0.85	1.08	1.93
F	3.8*(w)	5.4*(w)	5.6*(w)	3.9*(w)	3.0*(w)	4.4*(w)	4.0*(w)	3.1*(w)	4.6*(w)	2.4(a)	0.6	1.6(a)	1.3	0.7	0.8

단위: 개

구분	만10세반 경험 (n=1,500)		만11세반 경험 (n=1,500)		만12세반 경험 (n=1,500)		만13세반 경험 (n=1,000)		만14세반 경험 (n=500)		만15세반 경험 (n=500)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0.15	0.16	0.25	0.42	0.67	0.68	1.12	0.88	0.86	0.95	1.57	1.10
고졸 이하	0.18	0.27	0.31	0.50	0.81	0.73	1.30	0.96	1.18	0.97	2.00	1.14
전문대졸	0.15	0.18	0.30	0.43	0.73	0.62	1.35	1.04	1.23	1.06	1.84	1.37
4년제대졸	0.25	0.17	0.36	0.33	0.69	0.57	1.22	1.44 <sup>a</sup>	1.31	1.13	2.15	1.60
대학원졸 이상	1.0(a)	1.5(a)	0.7(a)	1.1(a)	0.5	1.8(a)	0.3	3.8*(w)	1.4(a)	0.3	1.3(a)	2.5
F												1.7(a)
맞벌이 여부	0.10 <sup>b</sup>	0.14	0.23 <sup>b</sup>	0.38	0.61	0.50	1.12 <sup>b</sup>	0.86 <sup>b</sup>	1.14	1.08	1.75	1.42
외벌이	0.21 <sup>a</sup>	0.22	0.34 <sup>a</sup>	0.45	0.79	0.62	1.38 <sup>a</sup>	1.15 <sup>a</sup>	1.17	1.01	1.91	1.24
맞벌이	0.20	0.40	0.20	0.80	1.00	1.00	2.20	2.00	0.00	0.00	0.00	0.00
미취업	5.6*(w)	2.3(a)	4.4*(w)	1.3(a)	2.5(a)	2.7(a)	3.7*	4.4*(w)	0.3	0.5	1.0	1.7(a)
F												0.7
지역 규모	0.15	0.15	0.29	0.38	0.66	0.60	1.31	1.19	1.30	1.25 <sup>a</sup>	1.99	1.49
대도시	0.19	0.23	0.42	0.47	0.78	0.60	1.32	1.00	1.00	0.89 <sup>b</sup>	1.80	1.20
중소도시	0.16	0.21	0.37	0.29	0.74	0.47	1.19	0.91	1.29	0.93	1.65	1.13
읍면	0.7	2.5(a)	1.7(a)	0.2	1.5(a)	1.5(a)	0.4	2.4	2.3(a)	4.4*(w)	1.2	3.7*
F												2.6
가구소득	0.29	0.24	0.53	0.44	0.71	0.71	1.37	1.16	1.03	0.80	2.26	1.40
300만원 미만	0.15	0.17	0.32	0.39	0.66	0.49 <sup>b</sup>	1.22	0.98	1.12	0.95	1.69	1.22
300 이상~500만원	0.12	0.21	0.33	0.45	0.76	0.56	1.23	1.08	1.17	1.04	1.87	1.29
500 이상~700만원	0.23	0.20	0.43	0.45	0.80	0.71 <sup>a</sup>	1.49	1.10	1.25	1.21	1.93	1.39
700만원 이상	2.6*(w)	0.5	1.6(a)	0.9	0.4	3.2*(w)	0.8	0.5	0.3	1.3	1.1	0.5
F												3.6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지만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만10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분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 \*\*\* p < .05, .01, .001.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녀온 후 추가로 다니는 사교육의 주당 이용 횟수와 회당 시간에 대한 2024년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이고,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다. 자녀 연령별로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모두에서 차이가 뚜렷했는데, 만2세의 주당 횟수는 2.93회, 만3세 4.28회, 만5세 5.83회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횟수도 증가했고, 회당 시간도 만2세에 비해 만3, 5세에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재원기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반일제학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다 회당 평균 시간이 길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의 회당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졸 이하 집단(약 38분)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약 44분)에 비해 회당 시간이 확연히 짧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였고, 월평균 7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고소득의 가구(각각 약 43분, 42분)가 300만원 미만 가구(약 35분) 보다 회당 시간이 길었다.

〈표 III-1-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 2024년

단위: 명, 회, 분

구분	(수)	주당 횟수		회당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 980)	4.59	4.51	41.54	17.39
자녀 성별					
남	( 487)	4.69	4.54	41.52	17.90
여	( 493)	4.49	4.50	41.56	16.89
<i>t</i>		0.7		0.0	
자녀 연령					
만2세	( 255)	2.93 <sup>c</sup>	3.61	37.58 <sup>b</sup>	13.67
만3세	( 304)	4.28 <sup>b</sup>	4.24	41.10 <sup>a</sup>	18.58
만5세	( 421)	5.83 <sup>a</sup>	4.83	44.26 <sup>a</sup>	18.05
<i>F</i>		36.5***(w)		14.8***(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382)	5.04	4.42	43.49 <sup>a</sup>	17.26
어린이집	( 542)	4.27	4.60	39.58 <sup>b</sup>	17.41
반일제학원	( 43)	5.23	4.57	48.02 <sup>a</sup>	16.19
가정양육	( 13)	3.08	1.71	44.49	13.25
<i>F</i>		3.0*		6.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86)	4.92	5.45	38.34 <sup>a</sup>	17.98
전문대졸	( 206)	4.38	4.35	39.49 <sup>a</sup>	17.61
4년제대졸	( 575)	4.58	4.43	42.75 <sup>a</sup>	17.23
대학원졸 이상	( 113)	4.79	4.49	41.53 <sup>a</sup>	16.90
<i>F</i>		0.4		2.9*	

구분	(수)	주당 횟수		회당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6)	4.86	4.39	37.73 <sup>b</sup>	14.27
전문대졸	( 186)	4.80	5.06	40.81	19.42
4년제대졸	( 545)	4.36	4.01	42.11	17.06
대학원졸 이상	( 110)	5.16	5.96	44.34 <sup>a</sup>	17.61
<i>F</i>		1.3(a)		3.3*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13)	4.14	4.14	41.97	17.55
맞벌이	( 666)	4.81	4.67	41.35	17.33
미취업	( 1)	1.00	0.00	30.00	0.00
<i>F</i>		2.7		0.4	
지역 규모					
대도시	( 393)	4.32	3.92	42.47	17.15
중소도시	( 442)	5.01	4.92	40.53	17.45
읍면	( 145)	4.07	4.65	42.11	17.80
<i>F</i>		3.3*(w)		1.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62)	5.32	5.91	35.09 <sup>b</sup>	14.98
300 이상~500만원	( 332)	4.17	4.66	41.22	16.19
500 이상~700만원	( 350)	4.65	4.24	42.26 <sup>a</sup>	18.73
700만원 이상	( 236)	4.91	4.25	42.61 <sup>a</sup>	17.28
<i>F</i>		1.9		3.4*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사교육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사교육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해보았다. 현시점 기준 자녀 연령에 따른 사교육 시작 평균 연령 차이는 회고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한 응답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원기관에 따른 차이에서 16명만이 응답한 가정양육을 제외하고 해석해보면, 타집단에 비해 사교육에 보다 친화적인 성향의 가구일 수 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사교육 시작 연령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1.67세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반면, 전문대 졸업인 경우는 2.23세로 두 집단 간 시작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4〉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24년

단위: %, (명), 세반

구분	만0세반 경험	만1세반 경험	만2세반 경험	만3세반 경험	만4세반 경험	만5세반 경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9.53	19.78	22.87	20.45	8.68	8.68	100.00(1,198)	2.05	1.52
자녀 성별									
남	19.97	18.62	22.48	18.62	9.06	11.24	100.00( 596)	2.12	1.59
여	19.10	20.93	23.26	22.26	8.31	6.15	100.00( 602)	1.98	1.44
$\chi^2(df)/t$	18.069(6)**							1.6	
자녀 연령									
만2세	32.96	33.24	33.80	0.00	0.00	0.00	100.00( 358)	1.01 <sup>c</sup>	0.82
만3세	19.11	21.73	26.70	32.46	0.00	0.00	100.00( 382)	1.73 <sup>b</sup>	1.11
만5세	9.39	7.64	11.14	26.42	22.71	22.71	100.00( 458)	3.14 <sup>a</sup>	1.54
$\chi^2(df)/F$	702.895(12)***							322.0***(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3.89	13.66	15.51	31.25	13.19	12.50	100.00( 432)	2.54 <sup>a</sup>	1.54
어린이집	22.35	23.07	27.08	14.47	5.87	7.16	100.00( 698)	1.80 <sup>b</sup>	1.45
반일제학원	21.15	23.08	26.92	17.31	11.54	0.00	100.00( 52)	1.75 <sup>b</sup>	1.30
가정양육	43.75	31.25	25.00	0.00	0.00	0.00	100.00( 16)	0.81 <sup>c</sup>	0.83
$\chi^2(df)/F$	157.263(18)*** (b)							32.7*** (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93	20.51	18.80	20.51	6.84	9.40	100.00( 117)	1.94	1.58
전문대졸	13.15	20.72	23.51	23.90	9.96	8.76	100.00( 251)	2.23 <sup>a</sup>	1.45
4년제대졸	18.62	19.20	24.21	20.63	8.74	8.60	100.00( 698)	2.07	1.50
대학원졸 이상	32.58	20.45	18.18	12.88	7.58	8.33	100.00( 132)	1.67 <sup>b</sup>	1.61
$\chi^2(df)/F$	39.983(18)**							4.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28	22.09	20.93	24.42	8.72	7.56	100.00( 172)	2.10	1.47
전문대졸	22.37	21.93	20.18	19.30	8.77	7.46	100.00( 228)	1.93	1.53
4년제대졸	19.60	18.99	24.20	19.14	8.58	9.49	100.00( 653)	2.07	1.54
대학원졸 이상	17.83	18.60	23.26	24.81	8.53	6.98	100.00( 129)	2.09	1.46
$\chi^2(df)/F$	14.467(18)							0.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7.92	20.52	20.00	23.64	9.35	8.57	100.00( 385)	2.12	1.52
맞벌이	20.25	19.51	24.07	19.01	8.40	8.77	100.00( 810)	2.02	1.52
미취업	33.33	0.00	66.67	0.00	0.00	0.00	100.00( 3)	1.33	1.15
$\chi^2(df)/F$	22.543(12)*(b)							0.9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지역 규모									
대도시	15.80	19.26	25.97	22.73	8.44	7.79	100.00( 462)	2.12	1.44
중소도시	21.49	19.67	21.68	19.67	7.83	9.65	100.00( 549)	2.02	1.56
읍면	22.99	21.39	18.72	17.11	11.76	8.02	100.00( 187)	1.97	1.58
$\chi^2(df)/F$			16.105(12)						0.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89	21.11	24.44	13.33	2.22	10.00	100.00( 90)	1.69	1.56
300 이상~500만원	15.90	20.72	24.34	20.96	9.88	8.19	100.00( 415)	2.13	1.47
500 이상~700만원	19.95	18.75	21.39	20.43	9.62	9.86	100.00( 416)	2.11	1.57
700만원 이상	21.30	19.49	22.38	22.02	7.58	7.22	100.00( 277)	1.97	1.49
$\chi^2(df)/F$			41.281(18)**						2.5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n세반 경험"이란 어린이집·유치원 방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으로 응답받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사교육은 체육으로 48.91%, 그 다음으로 교구 37.90%, 미술 29.63%, 영어 27.05%, 국어 21.12%, 음악 20.78%, 수학 15.61%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자녀가 2세인 경우 교구를 첫 사교육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컸으며, 만3세와 만5세로 갈수록 국어, 수학을 첫 사교육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앞서 <표 III-1-4> 해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고 효과와 사교육 정의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다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별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1-5〉 (사교육 유경험자)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2024년

단위: %

구분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교구	학습기타 (학습지 등)	체육	무용	음악	미술	요리	기타
전체	21.12	2.25	27.05	4.26	15.61	4.51	3.67	37.90	0.67	48.91	12.19	20.78	29.63	11.60	0.83
자녀 성별															
남	23.99	2.35	28.36	5.20	17.28	4.70	3.52	36.07	1.01	53.52	5.03	18.62	26.51	12.75	0.84
여	18.27	2.16	25.75	3.32	13.95	4.32	3.82	39.70	0.33	44.35	19.27	22.92	32.72	10.47	0.83
자녀 연령															
만2세	10.61	1.12	21.51	2.51	5.03	2.23	0.84	52.51	0.56	57.54	8.10	26.26	29.33	13.41	0.84
만3세	23.04	3.40	28.80	3.93	16.23	7.33	6.02	39.27	1.05	50.00	13.61	25.39	32.98	15.45	1.31
만5세	27.73	2.18	29.91	5.90	23.36	3.93	3.93	25.33	0.44	41.27	14.19	12.66	27.07	6.99	0.4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3.15	2.55	30.79	5.32	19.91	5.32	4.40	30.56	1.16	47.45	15.51	18.52	31.25	11.11	0.69
어린이집	20.49	2.01	24.21	3.30	13.47	4.01	3.15	41.12	0.43	50.43	10.03	22.78	29.08	12.32	1.00
반일제학원	19.23	3.85	40.38	9.62	13.46	5.77	5.77	46.15	0.00	42.31	11.54	13.46	25.00	7.69	0.00
가정양육	0.00	0.00	6.25	0.00	0.00	0.00	0.00	68.75	0.00	43.75	18.75	18.75	25.00	6.25	0.00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22	3.42	29.91	5.98	17.09	4.27	5.98	45.30	0.85	47.86	10.26	23.93	33.33	16.24	0.00
전문대졸	26.29	1.99	23.90	3.19	18.73	3.98	1.99	33.47	0.00	51.39	12.35	16.73	28.29	9.96	0.00
4년제대졸	20.49	1.72	27.51	3.58	14.76	4.30	3.44	36.96	1.00	48.14	12.32	20.49	29.80	11.75	1.43
대학원졸 이상	13.64	4.55	28.03	8.33	12.88	6.82	6.06	44.70	0.00	49.24	12.88	27.27	28.03	9.85	0.00

구분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교구	학습기타 (학습지 등)	체육	무용	음악	미술	요리	기타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84	2.91	20.93	5.23	15.70	2.91	2.91	37.21	0.58	51.74	8.14	18.60	26.74	14.53	2.91	
전문대졸	21.49	0.88	25.00	3.07	16.23	3.95	6.14	35.96	0.88	51.75	11.84	25.88	35.09	14.04	0.00	
4년제대졸	19.30	2.45	28.64	3.98	14.85	4.59	2.60	39.05	0.61	47.01	13.32	19.60	28.48	10.26	0.77	
대학원졸 이상	26.36	3.10	33.33	6.20	19.38	7.75	6.20	35.66	0.78	50.39	12.40	20.93	28.68	10.85	0.00	
맞벌이 여부																
외벌이	20.52	1.56	26.23	3.64	13.51	3.64	1.56	35.32	0.78	51.43	11.69	20.26	30.65	11.43	0.78	
맞벌이	21.36	2.59	27.53	4.57	16.67	4.94	4.69	39.01	0.62	47.90	12.35	21.11	29.01	11.60	0.86	
미취업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66.67	0.00	0.00	33.33	0.00	66.67	33.33	0.00	
지역 규모																
대도시	21.43	1.95	32.25	3.68	15.15	5.63	3.68	35.71	0.87	50.87	13.20	21.00	32.25	11.26	0.65	
중소도시	20.22	3.10	24.41	4.55	16.39	4.19	3.46	38.80	0.73	46.81	11.84	18.94	27.87	12.57	1.09	
읍면	22.99	0.53	21.93	4.81	14.44	2.67	4.28	40.64	0.00	50.27	10.70	25.67	28.34	9.63	0.5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56	2.22	28.89	7.78	18.89	6.67	8.89	45.56	1.11	50.00	7.78	25.56	24.44	14.44	1.11	
300 이상~500만원	19.76	2.17	23.86	3.86	12.77	3.61	3.61	35.42	1.20	48.92	14.70	23.37	31.08	12.53	0.96	
500 이상~700만원	22.84	2.16	30.29	3.61	17.79	4.33	2.64	35.82	0.48	52.64	9.38	20.67	30.29	10.58	0.72	
700만원 이상	19.13	2.53	26.35	4.69	15.52	5.42	3.61	42.24	0.00	42.96	14.08	15.52	28.16	10.83	0.72	

주: 복수응답임.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적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사교육 비용

월간 사교육 비용 조사 결과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은 평균 19만 8천원이고,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으로 나왔다. 자녀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여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따른 차이는 반일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사교육 비용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였다. 또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전문대 졸업인 경우 보다 사교육 비용이 높았다. 지역규모의 경우, 전체 사교육 비용과,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유형에서 모두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지역에 비해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과 500만원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존재했다.

〈표 III-1-6〉 월간 사교육 비용: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980)	198.00	184.10	( 611)	163.31	153.24	( 664)	141.96	106.09
자녀 성별									
남	( 487)	203.47	196.76	( 310)	172.49	173.06	( 317)	143.90	106.39
여	( 493)	192.61	170.70	( 301)	153.85	129.32	( 347)	140.19	105.93
<i>t</i>		0.9			1.5			0.5	
자녀 연령									
만2세	( 255)	136.92 <sup>c</sup>	137.06	( 145)	121.79 <sup>b</sup>	119.79	( 165)	104.57 <sup>c</sup>	92.08
만3세	( 304)	194.78 <sup>b</sup>	190.43	( 195)	164.91 <sup>a</sup>	166.80	( 197)	137.34 <sup>b</sup>	118.06
만5세	( 421)	237.33 <sup>a</sup>	194.04	( 271)	184.36 <sup>a</sup>	155.04	( 302)	165.41 <sup>a</sup>	98.80
<i>F</i>		31.4*** <sup>(w)</sup>			8.1***			18.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382)	224.58 <sup>b</sup>	194.00	( 239)	186.77 <sup>b</sup>	158.49	( 270)	152.41 <sup>b</sup>	97.53
어린이집	( 542)	161.99 <sup>c</sup>	138.32	( 335)	132.13 <sup>c</sup>	112.67	( 351)	124.02 <sup>c</sup>	88.07
반일제학원	( 43)	429.23 <sup>a</sup>	347.77	( 29)	338.48 <sup>a</sup>	309.56	( 35)	246.89 <sup>a</sup>	217.33
가정양육	( 13)	153.85 <sup>c</sup>	96.91	( 8)	132.50 <sup>c</sup>	98.38	( 8)	117.50 <sup>c</sup>	84.13
<i>F</i>		17.0*** <sup>(w)</sup>			10.2*** <sup>(w)</sup>			7.5** <sup>(w)</sup>	

구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86)	181.92	164.27	( 54)	166.41	169.73	( 51)	130.57	82.45
전문대졸	( 206)	157.16 <sup>b</sup>	116.97	( 126)	123.83 <sup>b</sup>	75.03	( 132)	127.06	85.46
4년제대졸	( 575)	208.76 <sup>a</sup>	194.12	( 357)	167.81 <sup>a</sup>	145.19	( 399)	150.69	118.57
대학원졸 이상	( 113)	230.00 <sup>a</sup>	229.57	( 74)	206.51 <sup>a</sup>	241.20	( 82)	130.59	78.00
F		8.2***(w)			8.1***(w)			2.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6)	189.61	154.59	( 78)	142.48 <sup>a</sup>	129.80	( 83)	153.94	107.85
전문대졸	( 186)	168.90 <sup>b</sup>	168.51	( 113)	140.26 <sup>a</sup>	113.91	( 120)	129.72	111.23
4년제대졸	( 545)	200.36	179.53	( 347)	166.01 <sup>a</sup>	143.44	( 371)	139.06	96.92
대학원졸 이상	( 110)	253.87 <sup>a</sup>	249.17	( 66)	221.43 <sup>a</sup>	250.51	( 83)	160.37	133.39
F		3.7*(w)			3.0*(w)			1.8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13)	178.26	157.20	( 175)	148.78	132.40	( 222)	134.05	97.07
맞벌이	( 666)	207.54	194.89	( 435)	169.46	160.66	( 442)	145.94	110.23
미취업	( 1)	30.00	0.00	( 1)	30.00	0.00	( 0)	0.00	0.00
F		-			1.5			1.9	
지역 규모									
대도시	( 393)	198.93 <sup>a</sup>	165.47	( 250)	165.80	135.64	( 272)	135.03	89.24
중소도시	( 442)	210.28 <sup>a</sup>	209.49	( 290)	164.19	169.12	( 293)	154.70 <sup>a</sup>	126.68
읍면	( 145)	158.09 <sup>b</sup>	139.29	( 71)	150.92	144.64	( 99)	123.31 <sup>b</sup>	73.01
F		6.3**(w)			0.3			4.7*(w)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62)	157.95 <sup>c</sup>	142.01	( 44)	119.80 <sup>b</sup>	103.99	( 35)	129.20	105.92
300이상~500만원	( 332)	164.21 <sup>c</sup>	150.09	( 188)	130.70 <sup>b</sup>	104.20	( 231)	129.64	93.69
500이상~700만원	( 350)	206.35 <sup>b</sup>	180.80	( 214)	174.53 <sup>a</sup>	156.05	( 233)	149.67	104.68
700만원 이상	( 236)	243.68 <sup>a</sup>	226.80	( 165)	197.49 <sup>a</sup>	193.48	( 165)	151.04	122.24
F		9.6***(w)			8.4***(w)			2.0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전체 응답자 대상의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이었고, 표준편차가 921.25로 매우 컸다. 100만원 미만의 학원을 보내는 가정은 11.32%이고, 350만원 이상 학원을 보내는 가정도 7.55%인 것으로 나타나, 반일제 이상 학원별 비용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24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50만원	3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32	18.87	28.30	24.53	9.43	7.55	100.00(53)	1829.25	921.25
자녀 성별									
남	11.11	18.52	29.63	22.22	14.81	3.70	100.00(27)	1807.41	869.87
여	11.54	19.23	26.92	26.92	3.85	11.54	100.00(26)	1851.92	988.58
$\chi^2(df)/t$			2.926(5)(b)						-0.2
자녀 연령									
만2세	8.33	25.00	25.00	8.33	25.00	8.33	100.00(12)	1975.00	1234.45
만3세	6.67	26.67	20.00	33.33	0.00	13.33	100.00(15)	1960.00	1060.86
만5세	15.38	11.54	34.62	26.92	7.69	3.85	100.00(26)	1686.54	650.32
$\chi^2(df)/F$			10.547(10)(b)						0.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800.00	0.00
전문대졸	16.67	16.67	33.33	0.00	16.67	16.67	100.00( 6)	1966.67	1112.95
4년제대졸	8.57	20.00	31.43	28.57	5.71	5.71	100.00(35)	1774.29	795.24
대학원졸 이상	9.09	18.18	18.18	27.27	18.18	9.09	100.00(11)	2022.73	1214.36
$\chi^2(df)/F$			13.210(15)(b)						0.7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67	0.00	0.00	0.00	0.00	33.33	100.00( 3)	1733.33	1616.58
전문대졸	14.29	42.86	0.00	0.00	14.29	28.57	100.00( 7)	2150.00	1705.63
4년제대졸	7.14	10.71	46.43	21.43	14.29	0.00	100.00(28)	1741.07	520.16
대학원졸 이상	6.67	26.67	13.33	46.67	0.00	6.67	100.00(15)	1863.33	969.62
$\chi^2(df)/F$			37.333(15)**(b)						0.4(a)
맞벌이 여부									
외벌이	12.50	18.75	31.25	18.75	12.50	6.25	100.00(16)	1771.88	717.86
맞벌이	10.81	18.92	27.03	27.03	8.11	8.11	100.00(37)	1854.05	1004.53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0.00	0.00
$\chi^2(df)/F$			0.690(5)(b)						0.1
지역 규모									
대도시	9.68	16.13	25.81	29.03	16.13	3.23	100.00(31)	1867.74	833.92
중소도시	11.11	16.67	33.33	22.22	0.00	16.67	100.00(18)	1933.33	1082.48
읍면	25.00	50.00	25.00	0.00	0.00	0.00	100.00( 4)	1062.50	502.29
$\chi^2(df)/F$			11.082(10)(b)						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50.00	0.00	0.00	50.00	0.00	100.00( 2)	2000.00	1414.21
300 이상~500만원	40.00	20.00	0.00	20.00	0.00	20.00	100.00( 5)	1680.00	1173.46
500 이상~700만원	16.67	27.78	38.89	5.56	5.56	5.56	100.00(18)	1611.11	992.70
700만원 이상	3.57	10.71	28.57	39.29	10.71	7.14	100.00(28)	1983.93	820.46
$\chi^2(df)/F$			22.503(15)(b)						0.7

주: 1)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2.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 가. 사교육 이용 변화 및 추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면서, 별도의 사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사교육의 유형<sup>4)</sup>과 가짓수에 대해 조사연도 별로 비교해 보았다. 본 조사에서 사교육이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뤄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한다.

2세의 경우, 2016년에는 추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1.15%였는데, 2024년에는 51.00%로 2세의 추가 사교육 이용 여부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 유형으로 2016년은 학습 관련 사교육이 42.53%였고, 학습 관련 사교육 가짓수는 1.35개였다. 예체능과 학습 관련 사교육 모두 받는다는 응답도 34.84%로 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세의 경우,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2016년 22.62%에서 2024년 43.1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5세의 경우, 추가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016년, 2024년 조사 모두 8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세와 유사하게 예체능/기타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2016년(20.03%)에 비해 2024년(35.63%)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는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가짓수가 2016년 1.64개였는데, 2024년 2.07개로 증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4) 본 보고서의 사교육 유형은 각 조사연도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2016년 조사] 1) 학습 관련 사교육: 수, 과학, 창의, 언어 등, 2) 예체능 관련 사교육: 음악, 미술, 체육 등
- [2024년 조사] 1) 학습 관련 사교육: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한자 포함), 수학, 과학(과학실험, 드론, AI 관련 등), 컴퓨터(코딩 포함), 교구(가베, 몬테소리, 프리벨 블록, 오감놀이 등) 등 2) 예체능 관련 사교육: 체육, 무용(발레, 댄스 등), 음악, 미술 등, 3) 기타 사교육: 인성교육, 다도, 이야기할머니, 요리 등



〈표 III-2-1〉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유형,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개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하는 경우) 가짓수							
	이용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모두	계(수)	학습 관련 (수)	예체능/ 기타 관련 (수)	총계 (수)	총계 (수)			
2세	2016	41.15	58.85	100 (537)	42.53	22.62	34.84	100 (221)	1.35	(171)	1.28	(127)	1.77	(221)
	2024	51.00	49.00	100 (500)	35.29	43.14	21.57	100 (255)	1.42	(145)	1.41	(165)	1.72	(255)
	<i>t</i>								-0.95		-1.45		0.51	
5세	2016	81.53	18.47	100 (704)	29.62	20.03	50.35	100 (574)	1.64	(459)	1.37	(404)	2.28	(574)
	2024	84.20	15.80	100 (500)	28.27	35.63	36.10	100 (421)	2.07	(271)	1.33	(302)	2.29	(421)
	<i>t</i>								-5.42***		0.87		-0.13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학원 이용 추이는 〈표 III-2-2〉과 같다. 2004년에는 8.7%의 미취학 아동이 시간제학원을 이용했으며, 2009년에는 12.8%, 2012년에는 20.4%, 2015년에는 17.5%, 2018년에는 22.3%, 2021년에는 21.1%로 나타나 추이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은설 외(2016)는 2015년의 시간제학원 이용률 감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하였으며, 2021년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김은설 외, 2021).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2004년 1.9%에서 2009년 2.9%, 2012년 5.4%, 2015년 5.6%, 2018년 8.7%, 2021년 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2〉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시간제학원 개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2004	91.3	6.8	1.5	0.4	-		100.0(2,962)
2009	87.2	9.9	2.2	0.5	0.2	-	100.0(3,303)
2012	79.6	15.0	4.3	0.8	0.2	0.1	100.0(3,343)
2015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2018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2021	78.9	11.3	4.7	3.2	1.3	0.6	100.0(3,471)

자료: 1)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Ⅱ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1. 〈표 7-2-1〉.

- 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0. <표 VII-2-1>.
-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50. <표 X-2-1>.
- 4)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6. <표 X-2-1>.
- 5)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52. <표 X-2-1>.
- 6)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05. <표 X-2-1>.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반일제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시간제학원이용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9년 20.1%, 2012년에는 45.2%, 2015년에는 35.1%, 2018년에는 32.6%, 2021년에는 43.0%이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9년에 38.4%, 2012년에 43.3%, 2015년에 48.6%, 2018년에 49.8%, 2021년에는 46.9%였다. 2021년에는 시간제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표 III-2-3〉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이용안함	계
2009	20.1	38.4	5.7	0.5	35.3	100.0(422)
2012	45.2	43.3	5.8	0.5	5.2	100.0(614)
2015	35.1	48.6	3.3	0.9	12.1	100.0(522)
2018	32.6	49.8	5.7	-	11.9	100.0(741)
2021	43.0	46.9	6.5	-	3.7	100.0(692)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는 영유아를 합산한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기타 기관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2. <표 VII-2-3>.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49. <표 X-1-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5. <표 X-1-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50-551. <표 X-1-3>.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503-504. <표 X-1-2>.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총 5회의 조사연도에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았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예능(미술, 음악)과 체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과 2021년에는 시간제학원과 개별교육 이용비율이 이전 조사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의 특기교육 실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김은설 외, 2016).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대면 교육을 제한한 결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1).

수학과 과학 영역을 통합하여 보면, 2009년에는 영유아 합계로 6.1%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6.9%, 2021년에는 22.6%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로 영아가 이용하는 영유아교육전문 영역을 제외하고는 5회의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영역별 시간제학원 이용률이 영아보다 유아에게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4〉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13.8	28.8	14.8	23.5	13.7	40.3	-	2.6	-	3.5	1.2	4.6	-	-
2012	28.7	33.0	16.3	26.4	46.3	53.8	1.3	1.7	0.6	5.2	3.1	5.0	N/A	N/A
2015	8.8	31.4	9.5	14.3	33.1	56.3	0.5	1.6	1.7	9.0	10.1	9.0	-	0.1
2018	<sup>-2)</sup>	-	-	-	50.0	52.0	<sup>-3)</sup>	-	-	-	<sup>-4)</sup>	-	-	-
2021	<sup>-5)</sup>	-	-	-	46.2	52.5	<sup>-6)</sup>	-	-	-	<sup>-7)</sup>	-	-	-

구분	영유아 교육 전문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종합보습		기타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51.3	6.3	1.0	-	1.5	12.4	-	0.2	0.7	1.9	14.4	6.6	(139)	(238)
2012	22.0	1.0	0.0	0.6	1.3	11.0	N/A	N/A	N/A	N/A	5.0	2.9	(162)	(430)
2015	N/A	N/A	-	2.3	3.5	8.2	-	1.4	N/A	N/A	28.1	9.5	( 80)	(430)
2018	-	-	-	-	1.9	13.3	-	-	-	-	18.0	6.4	(107)	(634)
2021	-	-	-	-	12.1	16.9	-	-	-	-	23.5	6.6	( 59)	(633)

- 주: 1)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는 시간제학원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2) 2018년 자료에는 미술과 음악 영역을 '예능'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4.3%, 49.8%이다.  
 3) 2018년 자료에는 과학과 수학 영역을 '수학/과학 관련'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2.0%, 14.9%이다.  
 4) 2018년 자료에는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영역을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와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9%, 16.4%이다.  
 5) 2021년 자료에는 미술과 음악 영역을 '예능'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39.2%, 48.7%이다.  
 6) 2021년 자료에는 과학과 수학 영역을 '수학/과학 관련'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4.4%, 18.2%이다.  
 7) 2021년 자료에는 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영역을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집하였고, 영아와 유아의 이용비율은 각각 20.0%, 23.4%이다.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384. <표 VII-2-5>.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52. <표 X-2-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67. <표 X-2-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53-554. <표 X-2-2>.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06-507. <표 X-2-2>.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sup>5)</sup>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2.1%의 미취학 아동이 개별교육을 이용했으며, 이 비율은 2009년에는 26.3%, 2012년에는 33.8%까지 증가했다. 그 후 2015년에는 16.6%, 2018년에는 19.6%, 2021년에는 18.2%로 소폭 감소하면서 시간제학원 이용 현황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표 III-2-5>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개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2004	97.9	1.8	0.3	-	-	-	100.0(2,962)
2009	73.7	24.8	1.3	0.2	-	-	100.0(3,303)
2012	66.2	15.5	13.5	3.6	0.6	0.5	100.0(3,343)
2015	83.4	9.1	5.5	1.4	0.5	0.1	100.0(3,560)
2018	80.4	10.6	6.5	1.6	0.6	0.3	100.0(3,775)
2021	81.8	12.0	4.1	1.5	0.4	0.2	100.0(3,471)

- 자료: 1)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I]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50. <표 7-3-1>.  
 2)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03. <표 VII-3-3>.  
 3)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2. <표 X-3-3>.  
 4)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6. <표 X-3-3>.  
 5)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4-565. <표 X-3-3>.  
 6)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18. <표 X-3-3>.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학습지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재교구활용 개별교육이 높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대부분의 개별교육 이용이 2018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문형태의 학습지나 교재교구활용 개별교육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은설 외, 2021). 반면 2021년에는 유아의 통신교육 이

5) 개별교육은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그룹 교육, 학습지와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말한다.

용이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유아의 통신교육 이용은 2012년(0.4%)에 처음 집계된 이후 2015년(1.3%), 2018년(2.0%), 2021년(3.3%)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이용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2-6〉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습지		예체능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2009	66.6	94.4	0.6	2.3	35.7	9.0	N/A	N/A	(139)	(734)
2012	75.1	95.3	0.5	1.7	35.0	8.9	0.5	0.4	(206)	(851)
2015	68.0	86.5	1.5	9.5	32.3	10.5	2.8	1.3	( 62)	(459)
2018	56.0	86.2	N/A	N/A	36.1	9.0	3.2	2.0	( 63)	(635)
2021	2.1	18.2	N/A	N/A	1.4	4.0	0.3	3.3	( 44)	(554)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는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08. 〈표 VII-3-9〉.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1. 〈표 X-3-2〉.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375. 〈표 X-3-2〉.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3-564. 〈표 X-3-2〉.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517. 〈표 X-3-2〉.

사교육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사교육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2세의 경우, 2016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1.45세 때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고, 2024년도 조사에서는 평균 1.01세 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시작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2세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시작 연령이 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2016년 3.55세, 2024년 3.14세).

〈표 III-2-7〉 (사교육 유경험자) 사교육 시작 연령: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세반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2세	2016	11.97	31.34	56.69	-	-	-	100.00( 284)	1.45	0.70	7.19***
	2024	32.96	33.24	33.80	-	-	-	100.00( 358)	1.01	0.82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경험				
5세	2016	2.56	7.52	11.52	19.84	28.16	32.33	100.00( 625)	3.55	1.36	4.56***
	2024	9.39	7.64	11.14	26.42	22.71	22.71	100.00( 458)	3.14	1.54	

주: "만n세반 경험"이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 나. 사교육 비용 변화 및 추이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총 월평균 금액과 사교육 유형별 월평균 금액을 나누어 2016년, 2024년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2세의 경우, 2016년 총 월평균 금액은 약 12만 7천원이고, 이 중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은 약 9만 3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의 월평균 금액은 약 9만 7천원 수준이었다, 2024년 2세의 총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약 13만 7천원이고, 이 중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은 약 12만 2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의 월평균 금액은 약 10만 5천원 수준이었다, 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2016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5세의 월간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사교육 비용은 약 16만 5천원이었고, 이 중 학습 관련 사교육은 약 9만 8천원, 예체능/기타 사교육의 비용이 약 12만 4천원이었다. 2024년 5세의 총 사교육 비용이 약 23만 7천원,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은 약 18만 4천원,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은 약 16만 5천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5세에 비해 2024년 5세의 전체 사교육 비용, 학습 관련 사교육 비용,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 비용 모두 대폭 증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지난 8년간 19.2%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다시 살펴보았다<sup>6)</sup>.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2세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약 1만 1천원(9.9%) 증가한 반면, 총사교육비는 약 1만 4천원(10.2%) 감소하고, 예체능/기타 사교육비는 약 1만 1천원(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는 총사교육비는 약 4만원(20.3%),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약 6만 7천원(57.3%), 예체능/기타 사교육비는 약 2만 3천원(11.5%)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세는 사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5세는 증가한 가운데, 학습 관련 사교육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증가하였고, 특히 5

6) 본 단락의 이하 수치는 8년간의 19.2%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세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월간 사교육 비용: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총 월평균 금액				학습 관련 월평균 금액				예체능/기타 관련 월평균 금액			
	(수)	평균	표준 편차	t	(수)	평균	표준 편차	t	(수)	평균	표준 편차	t
2세	2016 (221)	127.05	123.18	-0.76	(171)	93.08	91.97	-2.37*	(127)	96.99	85.54	-0.72
	2024 (255)	136.92	137.06		(145)	121.79	119.79		(165)	104.57	92.08	
5세	2016 (574)	165.05	118.62	-6.70***	(459)	98.05	77.21	-8.56***	(404)	124.41	77.95	-5.98**
	2024 (421)	237.33	194.04		(271)	184.36	155.04		(302)	165.41	98.80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에 대해 연도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학원비용에는 교재비와 반일제학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다만, 2세의 경우 응답사례수가 2016년 30명, 2024년 12명으로 매우 적고, 응답값의 편차가 커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2세는 월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00%로 주를 이뤘으며,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평균 약 31만 4천원이었다. 반면 2024년의 2세는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이 평균 197만 5천원으로 2016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세의 경우도 2세와 마찬가지로 2016년과 비교 시 2024년 비용 상승폭이 매우 큰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비용은 평균 약 60만 2천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168만 7천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9〉 월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비용: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50만원	3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
2세	2016	90.00	10.00	-	-	-	-	100.00(30)	314.07	333.87	-4.59**
	2024	8.33	25.00	25.00	8.33	25.00	8.33	100.00(12)	1975.00	1234.45	
5세	2016	81.43	17.14	-	1.43	-	-	100.00(70)	602.47	394.51	-7.98***
	2024	15.38	11.54	34.62	26.92	7.69	3.85	100.00(26)	1686.54	650.32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월간 총 이용비용 분포와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2009년(49.1%)과 2012년(44.7%)에는 개별교육 이용 가구의 월 이용비용이 5만원 미만에 집중되었다. 이후 2015년(45.5%)부터는 5-10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되어, 2018년(35.8%)과 2021년(31.0%)까지도 5-10만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개별교육에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2009년(16.0%)부터 2012년(16.6%), 2015년(20.8%), 2018년(34.9%), 2021년(48.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월간 총 10만원 이상을 개별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비용은 2009년 64,100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65,900원, 2015년에는 75,900원, 2018년에는 93,000원, 2021년에는 108,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학원과 더불어 개별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10〉 개별교육 이용 영유아의 이용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2009	49.1	34.9	10.2	3.3	1.7	0.8	100.0( 871)	64.1
2012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9
2015	33.7	45.5	11.2	5.3	3.4	0.9	100.0( 521)	75.9
2018	29.4	35.8	20.2	7.6	4.4	2.7	100.0( 698)	93.0
2021	20.2	31.0	28.3	9.0	7.2	4.3	100.0( 598)	108.7

주: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는 영유아를 합산한 개별교육 이용비용이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자료: 1)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p. 413. 〈표 VII-3-15〉.  
 2)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465. 〈표 X-3-6〉.  
 3)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378-379. 〈표 X-3-6〉.  
 4) 이정원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66-567. 〈표 X-3-5〉.  
 5)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521-522. 〈표 X-3-6〉.

### 3. 영유아 사교육 인식 및 변화

#### 가. 사교육 선택 이유

한 번이라도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을 알아본 결과,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8.25%로 가장 높았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7.11%,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6.60%,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71%,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단위: %, (명)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전체	7.11	78.25	1.96	6.60	3.71	2.37	100.00(970)
자녀 성별							
남	6.20	79.96	2.07	5.79	3.51	2.48	100.00(484)
여	8.02	76.54	1.85	7.41	3.91	2.26	100.00(486)
$\chi^2(df)$			2.673(5)				
자녀 연령							
만2세	5.24	77.62	2.10	7.69	4.90	2.45	100.00(286)
만3세	7.35	75.40	2.24	8.63	3.83	2.56	100.00(313)
만5세	8.36	81.13	1.62	4.04	2.70	2.16	100.00(371)
$\chi^2(df)$			11.728(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70	77.97	2.03	5.80	2.90	2.61	100.00(345)
어린이집	6.04	78.33	1.78	7.46	4.09	2.31	100.00(563)
반일제학원	6.25	79.17	4.17	4.17	6.25	0.00	100.00( 48)
가정양육	14.29	78.57	0.00	0.00	0.00	7.14	100.00( 14)
$\chi^2(df)$			11.849(15)(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25	78.35	2.06	7.22	2.06	2.06	100.00( 97)
전문대졸	9.09	76.08	3.35	6.70	3.35	1.44	100.00(209)
4년제대졸	5.55	79.79	1.79	6.26	4.47	2.15	100.00(559)
대학원졸 이상	10.48	74.29	0.00	7.62	1.90	5.71	100.00(105)
$\chi^2(df)$			18.419(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80	82.61	0.72	6.52	2.90	1.45	100.00(138)
전문대졸	8.24	76.92	3.30	5.49	3.85	2.20	100.00(182)
4년제대졸	7.13	78.42	2.06	6.75	3.56	2.06	100.00(533)
대학원졸 이상	7.69	74.04	0.96	7.69	4.81	4.81	100.00(104)
$\chi^2(df)$			9.137(15)(b)				
맞벌이 여부							
외벌이	6.08	80.07	1.01	8.45	1.01	3.38	100.00(296)
맞벌이	7.60	77.65	2.38	5.51	4.92	1.94	100.00(671)
미취업	0.00	33.33	0.00	66.67	0.00	0.00	100.00( 3)
$\chi^2(df)$			33.392(10)***(b)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8.97	78.63	1.85	5.54	3.69	1.32	100.00(379)
중소도시	5.56	78.22	2.44	7.56	3.56	2.67	100.00(450)
읍면	7.09	77.30	0.71	6.38	4.26	4.26	100.00(141)
$\chi^2(df)$			10.552(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41	75.64	3.85	8.97	2.56	2.56	100.00( 78)
300 이상~500만원	6.29	83.02	0.94	6.60	1.26	1.89	100.00(318)
500 이상~700만원	7.35	75.29	2.06	7.06	5.29	2.94	100.00(340)
700만원 이상	8.12	76.92	2.56	5.13	5.13	2.14	100.00(234)
$\chi^2(df)$			17.075(15)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한 번이라도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학습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03%로 가장 높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16.14%,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4.11%,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02%,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16% 순으로 학습 사교육 응답 결과와 응답분포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순위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는 여아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높았고, 여아의 경우는 재능 탐색을 목적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남아에 비해 높았다.

〈표 III-3-2〉 예체능 관련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 2024년

단위: %, (명)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전체	14.11	59.03	1.16	16.14	5.02	4.54	100.00(1,035)
자녀 성별							
남	12.35	59.72	1.21	19.03	4.86	2.83	100.00( 494)
여	15.71	58.41	1.11	13.49	5.18	6.10	100.00( 541)
$\chi^2(df)$			13.189(5)*				

구분	재능 탐색	발달·학습에 도움	경쟁에서 우위 차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돌봄을 위해	기타	계(수)
자녀 연령							
만2세	10.06	67.86	0.65	15.58	3.90	1.95	100.00( 308)
만3세	14.02	57.01	2.44	15.55	5.79	5.18	100.00( 328)
만5세	17.29	53.88	0.50	17.04	5.26	6.02	100.00( 399)
$\chi^2(df)$			27.645(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6.45	58.49	1.04	14.62	4.96	4.44	100.00( 383)
어린이집	13.03	58.88	1.02	17.09	5.08	4.91	100.00( 591)
반일제학원	10.20	67.35	2.04	12.24	6.12	2.04	100.00( 49)
가정양육	8.33	50.00	8.33	33.33	0.00	0.00	100.00( 12)
$\chi^2(df)$			15.021(15)(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43	56.70	2.06	18.56	4.12	4.12	100.00( 97)
전문대졸	18.87	57.55	1.89	14.62	4.25	2.83	100.00( 212)
4년제대졸	12.13	60.82	0.66	15.57	5.90	4.92	100.00( 610)
대학원졸 이상	15.52	54.31	1.72	19.83	2.59	6.03	100.00( 116)
$\chi^2(df)$			16.141(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79	55.17	1.38	20.69	4.14	4.83	100.00( 145)
전문대졸	16.00	61.50	0.50	14.00	3.50	4.50	100.00( 200)
4년제대졸	13.35	59.61	1.25	15.30	6.05	4.45	100.00( 562)
대학원졸 이상	14.78	57.39	1.74	17.39	3.48	5.22	100.00( 115)
$\chi^2(df)$			8.435(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11.99	66.08	0.88	13.74	1.17	6.14	100.00( 342)
맞벌이	15.22	55.51	1.30	17.25	6.96	3.77	100.00( 690)
미취업	0.00	66.67	0.00	33.33	0.00	0.00	100.00( 3)
$\chi^2(df)$			27.525(10)**(b)				
지역 규모							
대도시	14.49	59.18	1.21	16.67	4.83	3.62	100.00( 414)
중소도시	13.67	60.74	0.87	14.75	4.77	5.21	100.00( 461)
읍면	14.38	53.75	1.88	18.75	6.25	5.00	100.00( 160)
$\chi^2(df)$			5.311(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41	61.54	1.28	20.51	5.13	5.13	100.00( 78)
300 이상~500만원	15.08	60.34	1.40	13.97	3.35	5.87	100.00( 358)
500 이상~700만원	13.20	57.58	0.56	18.26	6.46	3.93	100.00( 356)
700만원 이상	16.46	58.44	1.65	14.81	5.35	3.29	100.00( 243)
$\chi^2(df)$			16.085(15)(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 2세의 경우,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그리고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둘 다 26.67%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닌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20.00%로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 2세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이 33.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응답자가 12명 소수에 불과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016년 조사 5세의 경우는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을 위해 보낸다는 응답이 25.71%,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86%,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 18.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의 5세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3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내는 이유로 자녀 연령과 조사연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초등 학습 준비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능 개발	기타	계(수)
2세	2016	10.00	26.67	20.00	16.67	26.67	-	100.00(30)
	2024	8.33	33.33	16.67	16.67	16.67	8.33	100.00(12)
5세	2016	12.86	17.14	18.57	22.86	25.71	2.86	100.00(70)
	2024	11.54	30.77	7.69	30.77	15.38	3.85	100.00(26)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2.08%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때문에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낸다고 하였다. 그 뒤를 이어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28.30%,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개발 18.8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II-3-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24년

단위: %, (명)

구분	초등 학습 준비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 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 능 개발	기타	계(수)
전체	7.55	28.30	7.55	32.08	18.87	5.66	100.00(53)
자녀 성별							
남	3.70	25.93	14.81	25.93	18.52	11.11	100.00(27)
여	11.54	30.77	0.00	38.46	19.23	0.00	100.00(26)
$\chi^2(df)$			8.580(5)(b)				
자녀 연령							
만2세	8.33	33.33	16.67	16.67	16.67	8.33	100.00(12)
만3세	0.00	20.00	0.00	46.67	26.67	6.67	100.00(15)
만5세	11.54	30.77	7.69	30.77	15.38	3.85	100.00(26)
$\chi^2(df)$			7.583(10)(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100.00	0.00	0.00	0.00	0.00	100.00( 1)
전문대졸	0.00	0.00	0.00	33.33	50.00	16.67	100.00( 6)
4년제대졸	11.43	22.86	8.57	37.14	17.14	2.86	100.00(35)
대학원졸 이상	0.00	54.55	9.09	18.18	9.09	9.09	100.00(11)
$\chi^2(df)$			16.431(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33.33	0.00	33.33	33.33	0.00	100.00( 3)
전문대졸	0.00	42.86	0.00	42.86	14.29	0.00	100.00( 7)
4년제대졸	3.57	21.43	10.71	32.14	21.43	10.71	100.00(28)
대학원졸 이상	20.00	33.33	6.67	26.67	13.33	0.00	100.00(15)
$\chi^2(df)$			10.540(15)(b)				
맞벌이 여부							
외벌이	6.25	12.50	6.25	37.50	31.25	6.25	100.00(16)
맞벌이	8.11	35.14	8.11	29.73	13.51	5.41	100.00(37)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chi^2(df)$			4.211(5)(b)				
지역 규모							
대도시	12.90	25.81	6.45	32.26	12.90	9.68	100.00(31)
중소도시	0.00	27.78	5.56	38.89	27.78	0.00	100.00(18)
읍면	0.00	50.00	25.00	0.00	25.00	0.00	100.00( 4)
$\chi^2(df)$			10.427(10)(b)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0.00	0.00	50.00	50.00	0.00	100.00( 2)
300 이상~500만원	0.00	20.00	0.00	60.00	20.00	0.00	100.00( 5)
500 이상~700만원	5.56	44.44	5.56	22.22	22.22	0.00	100.00(18)
700만원 이상	10.71	21.43	10.71	32.14	14.29	10.71	100.00(28)
$\chi^2(df)$			10.892(15)(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사교육 만족도 및 지속 의향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3.28%(만족하는 편 60.22%+매우 만족 33.06%)이었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26점 정도이다. 자녀특성이나 가구특성별 배경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5〉 (현재 하고 있는)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4	6.18	60.22	33.06	100.00(744)	3.26	0.59
자녀 성별							
남	0.26	4.76	60.32	34.66	100.00(378)	3.29	0.57
여	0.82	7.65	60.11	31.42	100.00(366)	3.22	0.61
$\chi^2(df)/t$		4.165(3)(b)					1.7
자녀 연령							
만2세	1.58	5.79	58.42	34.21	100.00(190)	3.25	0.63
만3세	0.00	5.96	61.28	32.77	100.00(235)	3.27	0.56
만5세	0.31	6.58	60.50	32.60	100.00(319)	3.25	0.58
$\chi^2(df)/F$		5.795(6)(b)					0.1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00	5.94	59.09	34.97	100.00(286)	3.29	0.57
어린이집	0.73	6.55	60.19	32.52	100.00(412)	3.25	0.60
반일제학원	0.00	2.78	69.44	27.78	100.00( 36)	3.25	0.50
가정양육	10.00	10.00	60.00	20.00	100.00( 10)	2.90	0.88
$\chi^2(df)/F$		21.430(9)*(b)					1.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6	10.94	56.25	31.25	100.00( 64)	3.17	0.68
전문대졸	1.27	5.73	64.97	28.03	100.00(157)	3.20	0.59
4년제대졸	0.23	5.68	59.09	35.00	100.00(440)	3.29	0.58
대학원졸 이상	0.00	6.02	60.24	33.73	100.00( 83)	3.28	0.57
$\chi^2(df)/F$		9.269(9)(b)					1.4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16	10.53	58.95	27.37	100.00( 95)	3.11	0.71
전문대졸	0.00	9.22	51.06	39.72	100.00(141)	3.30	0.63
4년제대졸	0.24	4.53	64.92	30.31	100.00(419)	3.25	0.54
대학원졸 이상	0.00	4.94	54.32	40.74	100.00( 81)	3.36	0.58
$\chi^2(df)/F$		30.064(9)***(b)					2.5(w)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0.45	6.82	56.82	35.91	100.00(220)	3.28	0.61
맞벌이	0.57	5.93	61.57	31.93	100.00(523)	3.25	0.58
미취업	0.00	0.00	100.00	0.00	100.00( 1)	3.00	0.00
$\chi^2(df)/F$		2.223(6)(b)					0.3
지역 규모							
대도시	0.65	4.55	58.12	36.69	100.00(308)	3.31	0.59
중소도시	0.59	7.33	63.34	28.74	100.00(341)	3.20	0.59
읍면	0.00	7.37	55.79	36.84	100.00( 95)	3.29	0.60
$\chi^2(df)/F$		7.528(6)(b)					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89	3.77	54.72	39.62	100.00( 53)	3.32	0.64
300 이상~500만원	0.42	8.86	56.96	33.76	100.00(237)	3.24	0.62
500 이상~700만원	0.38	4.55	62.88	32.20	100.00(264)	3.27	0.56
700만원 이상	0.53	5.79	62.11	31.58	100.00(190)	3.25	0.58
$\chi^2(df)/F$		8.433(9)(b)					0.3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이어서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 전반에 걸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95.81%(만족하는 편 47.12%+매우 만족 48.69%)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44점 정도이다. 이는 학습 관련 사교육 만족도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학습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자녀특성이나 가구특성별 배경변인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6〉 (현재 하고 있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4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6	3.93	47.12	48.69	100.00(764)	3.44	0.58
자녀 성별							
남	0.55	4.14	47.51	47.79	100.00(362)	3.43	0.60
여	0.00	3.73	46.77	49.50	100.00(402)	3.46	0.57
$\chi^2(df)/t$		2.441(3)(b)					-0.8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만2세	0.00	5.13	48.21	46.67	100.00(195)	3.42	0.59
만3세	0.43	4.68	48.94	45.96	100.00(235)	3.40	0.60
만5세	0.30	2.69	45.21	51.80	100.00(334)	3.49	0.57
$\chi^2(df)/F$		4.776(6)(b)					1.6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0.32	2.24	47.12	50.32	100.00(312)	3.47	0.56
어린이집	0.00	5.68	47.41	46.91	100.00(405)	3.41	0.60
반일제학원	2.56	0.00	46.15	51.28	100.00( 39)	3.46	0.64
가정양육	0.00	0.00	37.50	62.50	100.00( 8)	3.63	0.52
$\chi^2(df)/F$		17.255(9)*(b)					0.9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5.97	44.78	49.25	100.00( 67)	3.43	0.61
전문대졸	0.00	4.64	43.05	52.32	100.00(151)	3.48	0.59
4년제대졸	0.44	3.53	49.89	46.14	100.00(453)	3.42	0.58
대학원졸 이상	0.00	3.23	41.94	54.84	100.00( 93)	3.52	0.56
$\chi^2(df)/F$		6.194(9)(b)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4.08	38.78	57.14	100.00( 98)	3.53	0.58
전문대졸	0.00	3.45	48.97	47.59	100.00(145)	3.44	0.56
4년제대졸	0.24	4.26	48.70	46.81	100.00(423)	3.42	0.59
대학원졸 이상	1.11	3.33	45.56	50.00	100.00( 90)	3.44	0.62
$\chi^2(df)/F$		7.014(9)(b)					0.9
맞벌이 여부							
외벌이	0.39	2.73	44.14	52.73	100.00(256)	3.49	0.57
맞벌이	0.20	4.54	48.52	46.75	100.00(507)	3.42	0.59
미취업	0.00	0.00	100.00	0.00	100.00( 1)	3.00	0.00
$\chi^2(df)/F$		4.719(6)(b)					1.7
지역 규모							
대도시	0.00	4.04	47.83	48.14	100.00(322)	3.44	0.57
중소도시	0.30	3.66	46.65	49.39	100.00(328)	3.45	0.58
읍면	0.88	4.39	46.49	48.25	100.00(114)	3.42	0.62
$\chi^2(df)/F$		2.764(6)(b)					0.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2.13	53.19	44.68	100.00( 47)	3.43	0.54
300 이상~500만원	0.37	4.85	41.79	52.99	100.00(268)	3.47	0.61
500 이상~700만원	0.38	3.46	48.46	47.69	100.00(260)	3.43	0.58
700만원 이상	0.00	3.70	51.32	44.97	100.00(189)	3.41	0.56
$\chi^2(df)/F$		6.582(9)(b)					0.5

주: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16년 2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4점 만점에서 평균 2.90점을, 2024년 2세의 경우는 동일하게 4점 만점에서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5세의 경우도 유사하게 2016년 3.15점에서, 2024년 3.50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표 III-3-7〉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t
							평균	표준편차	
2세	2016	-	-	-	-	100.00(30)	2.90	0.49	-1.68
	2024	0.00	0.00	83.33	16.67	100.00(12)	3.17	0.39	
5세	2016	-	-	-	-	100.00(70)	3.15	0.48	-2.73**
	2024	0.00	3.85	42.31	53.85	100.00(26)	3.50	0.58	

주: 1)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2) 2016년에는 1) 비용, 2) 프로그램 내용, 3) 교재, 4) 강사, 5) 집단구성, 6) 시설 6개 항목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2024년에는 전반적 만족도 1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음. 2016년 만족도 전체 점수는 6개 항목의 합산을 항목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음.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8점이었고, 만족하는 편 58.49%,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가 39.62%로,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가정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자녀의 성별, 연령이나 가구특성별 집단 간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8〉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만족도: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0.00	1.89	58.49	39.62	100.00(53)	3.38	0.53
자녀 성별							
남	0.00	3.70	55.56	40.74	100.00(27)	3.37	0.56
여	0.00	0.00	61.54	38.46	100.00(26)	3.38	0.50
$\chi^2(df)/t$		1.061(2)(b)					-0.1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수)	점수(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자녀 연령							
만2세	0.00	0.00	83.33	16.67	100.00(12)	3.17	0.39
만3세	0.00	0.00	66.67	33.33	100.00(15)	3.33	0.49
만5세	0.00	3.85	42.31	53.85	100.00(26)	3.50	0.58
$\chi^2(df)/F$		6.713(4)(b)				1.8(a)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0.00	100.00	0.00	100.00( 1)	3.00	0.00
전문대졸	0.00	0.00	50.00	50.00	100.00( 6)	3.50	0.55
4년제대졸	0.00	0.00	62.86	37.14	100.00(35)	3.37	0.49
대학원졸 이상	0.00	9.09	45.45	45.45	100.00(11)	3.36	0.67
$\chi^2(df)/F$		5.328(6)(b)				0.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0	0.00	66.67	33.33	100.00( 3)	3.33	0.58
전문대졸	0.00	14.29	42.86	42.86	100.00( 7)	3.29	0.76
4년제대졸	0.00	0.00	57.14	42.86	100.00(28)	3.43	0.50
대학원졸 이상	0.00	0.00	66.67	33.33	100.00(15)	3.33	0.49
$\chi^2(df)/F$		7.350(6)(b)				0.2	
맞벌이 여부							
외벌이	0.00	0.00	50.00	50.00	100.00(16)	3.50	0.52
맞벌이	0.00	2.70	62.16	35.14	100.00(37)	3.32	0.53
미취업	0.00	0.00	0.00	0.00	0.00( 0)	0.00	0.00
$\chi^2(df)/F$		1.338(2)(b)				1.2	
지역 규모							
대도시	0.00	0.00	51.61	48.39	100.00(31)	3.48	0.51
중소도시	0.00	0.00	72.22	27.78	100.00(18)	3.28	0.46
읍면	0.00	25.00	50.00	25.00	100.00( 4)	3.00	0.82
$\chi^2(df)/F$		14.584(4)**(b)				2.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0	0.00	50.00	50.00	100.00( 2)	3.50	0.71
300 이상~500만원	0.00	0.00	60.00	40.00	100.00( 5)	3.40	0.55
500 이상~700만원	0.00	5.56	61.11	33.33	100.00(18)	3.28	0.57
700만원 이상	0.00	0.00	57.14	42.86	100.00(28)	3.43	0.50
$\chi^2(df)/F$		2.309(6)(b)				0.3	

주: 1)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79.00%가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

면,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 7.2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3.80%나 되었다. 자녀 연령과 가구소득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다.

〈표 III-3-9〉 사교육을 지속할 의향: 2024년

단위 : %, (명)

구분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음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79.00	7.20	13.80	100.00(1,500)
자녀 성별				
남	79.22	7.14	13.64	100.00( 770)
여	78.77	7.26	13.97	100.00( 730)
$\chi^2(df)$		0.048(2)		
자녀 연령				
만2세	75.00	9.20	15.80	100.00( 500)
만3세	77.60	7.20	15.20	100.00( 500)
만5세	84.40	5.20	10.40	100.00( 500)
$\chi^2(df)$		14.886(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4.02	5.13	10.85	100.00( 507)
어린이집	76.15	8.13	15.71	100.00( 910)
반일제학원	86.79	5.66	7.55	100.00( 53)
가정양육	66.67	16.67	16.67	100.00( 30)
$\chi^2(df)$		18.864(6)**(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32	8.23	16.46	100.00( 158)
전문대졸	78.77	6.46	14.77	100.00( 325)
4년제대졸	78.55	7.50	13.96	100.00( 867)
대학원졸 이상	86.00	6.00	8.00	100.00( 150)
$\chi^2(df)$		6.811(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55	7.86	16.59	100.00( 229)
전문대졸	78.89	6.23	14.88	100.00( 289)
4년제대졸	80.20	7.10	12.70	100.00( 803)
대학원졸 이상	77.71	8.92	13.38	100.00( 157)
$\chi^2(df)$		3.948(6)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82	7.98	14.20	100.00( 514)
맞벌이	79.61	6.83	13.56	100.00( 981)
미취업	80.00	0.00	20.00	100.00( 5)
$\chi^2(df)$		1.356(4)(b)		

구분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음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77.26	7.29	15.45	100.00( 576)
중소도시	80.85	6.87	12.28	100.00( 684)
읍면	77.92	7.92	14.17	100.00( 240)
$\chi^2(df)$		3.139(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8.25	13.49	18.25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75.00	9.49	15.51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82.32	3.93	13.75	100.00( 509)
700만원 이상	84.86	5.99	9.15	100.00( 317)
$\chi^2(df)$		32.103(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앞선 문항에서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경우에 한해, 하고 싶은 사교육 유형을 추가 질문한 결과, 학습 관련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83.46%이고, 예체능 관련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은 93.84%로 학습 관련 사교육 보다 다소 높았다. 기타 사교육에 대한 지속 의향도 27.34%로 나타났고, 여기서의 기타 사교육은 인성교육, 다도, 요리 등을 의미한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기타 사교육을 지속하거나 새로 시킬 의향이 높았다. 또한 반일제학원에 다니는 경우, 기타 사교육을 지속하거나 새로 시킬 의향이 특히 높았고, 가정양육과 유치원의 경우 다소 낮았다.

〈표 III-3-10〉 지속할 의향이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2024년

단위 : %, (명)

구분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관련 사교육			기타 사교육		
	의향이 있음	의향이 없음	계(수)	의향이 있음	의향이 없음	계(수)	의향이 있음	의향이 없음	계(수)
전체	83.46	16.54	100(1,185)	93.84	6.16	100(1,185)	27.34	72.66	100(1,185)
자녀 성별									
남	84.59	15.41	100( 610)	92.62	7.38	100( 610)	27.05	72.95	100( 610)
여	82.26	17.74	100( 575)	95.13	4.87	100( 575)	27.65	72.35	100( 575)
$\chi^2(df)$		1.163(1)			3.219(1)			0.054(1)	

구분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관련 사교육			기타 사교육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계(수)
자녀 연령									
만2세	82.93	17.07	100( 375)	94.93	5.07	100( 375)	33.87	66.13	100( 375)
만3세	81.70	18.30	100( 388)	93.04	6.96	100( 388)	27.06	72.94	100( 388)
만5세	85.55	14.45	100( 422)	93.60	6.40	100( 422)	21.80	78.20	100( 422)
$\chi^2(df)$	2.274(2)			1.245(2)			14.573(2)**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83.10	16.90	100( 426)	93.43	6.57	100( 426)	22.77	77.23	100( 426)
어린이집	82.83	17.17	100( 693)	93.94	6.06	100( 693)	29.87	70.13	100( 693)
반일제학원	91.30	8.70	100( 46)	93.48	6.52	100( 46)	34.78	65.22	100( 46)
가정양육	95.00	5.00	100( 20)	100.00	0.00	100( 20)	20.00	80.00	100( 20)
$\chi^2(df)$	4.221(3)			1.461(3)(b)			8.537(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82.35	17.65	100( 119)	92.44	7.56	100( 119)	31.09	68.91	100( 119)
전문대졸	85.94	14.06	100( 256)	94.14	5.86	100( 256)	23.83	76.17	100( 256)
4년제대졸	82.97	17.03	100( 681)	93.98	6.02	100( 681)	27.31	72.69	100( 681)
대학원졸 이상	82.17	17.83	100( 129)	93.80	6.20	100( 129)	31.01	68.99	100( 129)
$\chi^2(df)$	1.520(3)			0.469(3)			3.307(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81.50	18.50	100( 173)	96.53	3.47	100( 173)	28.32	71.68	100( 173)
전문대졸	85.96	14.04	100( 228)	92.98	7.02	100( 228)	23.25	76.75	100( 228)
4년제대졸	82.61	17.39	100( 644)	93.94	6.06	100( 644)	28.88	71.12	100( 644)
대학원졸 이상	87.70	12.30	100( 122)	90.98	9.02	100( 122)	24.59	75.41	100( 122)
$\chi^2(df)$	3.451(3)			4.186(3)			3.245(3)		
맞벌이 여부									
외벌이	79.75	20.25	100( 400)	95.00	5.00	100( 400)	27.00	73.00	100( 400)
맞벌이	85.40	14.60	100( 781)	93.21	6.79	100( 781)	27.53	72.47	100( 781)
미취업	75.00	25.00	100( 4)	100.00	0.00	100( 4)	25.00	75.00	100( 4)
$\chi^2(df)$	6.332(2)*(b)			1.723(2)(b)			0.048(2)(b)		
지역 규모									
대도시	84.27	15.73	100( 445)	93.93	6.07	100( 445)	28.54	71.46	100( 445)
중소도시	84.63	15.37	100( 553)	94.21	5.79	100( 553)	27.85	72.15	100( 553)
읍면	78.07	21.93	100( 187)	92.51	7.49	100( 187)	22.99	77.01	100( 187)
$\chi^2(df)$	4.687(2)			0.709(2)			2.171(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0.23	19.77	100( 86)	93.02	6.98	100( 86)	32.56	67.44	100( 86)
300 이상-500만원	80.54	19.46	100( 411)	93.19	6.81	100( 411)	26.76	73.24	100( 411)
500 이상-700만원	84.73	15.27	100( 419)	94.27	5.73	100( 419)	26.49	73.51	100( 419)
700만원 이상	86.99	13.01	100( 269)	94.42	5.58	100( 269)	27.88	72.12	100( 269)
$\chi^2(df)$	6.108(3)			0.696(3)			1.439(3)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다.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학부모가 사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 자녀의 연령과 조사연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만2세 아동 부모의 경우 2016년에는 58.29%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지만, 2024년에는 이 비율이 41.80%로 감소했다. 반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24.02%에서 45.08%로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2016년에 10.99%였지만, 2024년에는 5.80%로 줄어들었으며,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6.33%에서 6.40%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만5세 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2016년에는 56.96%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5.80%로 줄어들었다. 대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호는 26.99%에서 53.20%로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2016년에 8.95%였으나, 2024년에는 4.20%로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연령별 분석을 보면, 만2세 아동 부모의 경우 41.80%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45.80%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선호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5.80%였고,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를 원하는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만5세 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35.80%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53.20%가 인프라 구축을 선호했으며,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4.20%,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6.60%였다.

종합적으로,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2016년에서 2024년으로 갈수록 감소한 반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으며, 이는 부모들이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거나 현실적으로 사교육 축소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 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3-11〉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	사교육 부정적 영향 홍보를 통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수)
2세	2016	58.29	24.02	10.99	6.33	0.37	100.00( 537)
	2024	41.80	45.80	5.80	6.40	0.20	100.00( 500)
5세	2016	56.96	26.99	8.95	6.11	0.99	100.00( 704)
	2024	35.80	53.20	4.20	6.60	0.20	100.00( 500)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를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재원 기관, 부모의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히, 재원기관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48.52%)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42.41%)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부모는 인프라 구축(49.89%)을 더 선호했으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38.68%였다.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47.17%)을 더 선호했고,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26.42%였다. 한편,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50.00%)를 가장 선호했고, 인프라 구축은 43.33%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를 보면,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33.33%)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50.79%)를 더 선호했다. 사교육 축소에 대한 선호는 9.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300만원 이상~500만원 소득 그룹은 인프라 구축(51.28%)을 가장 선호했으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41.79%로 나타났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3.4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00만원 이상~700만원 소득 그룹도 인프라 구축(48.92%)을 선호했고,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는 39.69%였다. 마지막으로 700만원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인프라 구축(45.43%)이 가장 높았지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다른 소득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9.78%로 나타났다.

〈표 III-3-12〉 사교육 정책 방향성: 2024년

단위: %, (명)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	사교육 부정적 영향 홍보를 통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수)
전체	39.73	49.20	5.20	5.67	0.20	100.00(1,500)
자녀 성별						
남	40.52	48.83	5.06	5.45	0.13	100.00( 770)
여	38.90	49.59	5.34	5.89	0.27	100.00( 730)
$\chi^2(df)$			0.860(4)(b)			
자녀 연령						
만2세	41.80	45.80	5.80	6.40	0.20	100.00( 500)
만3세	41.60	48.60	5.60	4.00	0.20	100.00( 500)
만5세	35.80	53.20	4.20	6.60	0.20	100.00( 500)
$\chi^2(df)$			10.916(8)(b)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2.41	48.52	3.75	4.93	0.39	100.00( 507)
어린이집	38.68	49.89	5.82	5.49	0.11	100.00( 910)
반일제학원	26.42	47.17	9.43	16.98	0.00	100.00( 53)
가정양육	50.00	43.33	3.33	3.33	0.00	100.00( 30)
$\chi^2(df)$			23.771(12)*(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94	46.84	5.06	3.16	0.00	100.00( 158)
전문대졸	42.15	47.08	4.92	5.54	0.31	100.00( 325)
4년제대졸	38.06	50.29	5.31	6.11	0.23	100.00( 867)
대학원졸 이상	38.67	50.00	5.33	6.00	0.00	100.00( 150)
$\chi^2(df)$			5.926(12)(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05	49.34	6.99	2.62	0.00	100.00( 229)
전문대졸	43.25	47.06	4.15	5.19	0.35	100.00( 289)
4년제대졸	37.86	50.44	5.48	5.98	0.25	100.00( 803)
대학원졸 이상	40.76	46.50	3.82	8.92	0.00	100.00( 157)
$\chi^2(df)$			13.307(12)(b)			
맞벌이 여부						
외벌이	40.08	49.22	4.67	5.45	0.58	100.00( 514)
맞벌이	39.65	49.03	5.50	5.81	0.00	100.00( 981)
미취업	20.00	80.00	0.00	0.00	0.00	100.00( 5)
$\chi^2(df)$			8.308(8)(b)			
지역 규모						
대도시	39.06	48.09	6.60	6.08	0.17	100.00( 576)
중소도시	42.25	48.10	4.39	5.26	0.00	100.00( 684)
읍면	34.17	55.00	4.17	5.83	0.83	100.00( 240)
$\chi^2(df)$			15.089(8)(b)			



구분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	인프라 사교육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수)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	부정적 영향 홍보를 통한 사교육 축소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3.33	50.79	9.52	5.56	0.79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41.79	51.28	3.47	3.28	0.18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9.69	48.92	5.70	5.70	0.00	100.00( 509)
700만원 이상	38.80	45.43	5.68	9.78	0.32	100.00( 317)
$\chi^2(df)$		29.908(12)**(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을 연도별 및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아동의 경우 2016년에는 69.71%의 부모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24년에는 57.07%로 감소하였다. 5세 아동의 경우에도 2016년 54.43%에서 2024년 40.63%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표 III-3-13〉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2세	2016	69.71	30.29	100.00( 340)
	2024	57.07	42.93	100.00( 396)
5세	2016	54.43	45.57	100.00( 542)
	2024	40.63	59.38	100.00( 448)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학력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재원기관, 지역 규모, 가구소득)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모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아 부모의 52.90%가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아 부모는 46.98%만이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2세 아동의 부모 중 57.07%가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3세 아동의 경우 53.17%, 만5세 아동의 경우 40.63%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자녀 재원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가 52.92%로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유치원 재원 아동 부모(45.11%)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나타난 경향일 수 있다.

지역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읍면 거주 가정의 56.65%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중소도시(46.88%)와 대도시(51.0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58.33%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2.32%만이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3-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 2024년

단위: %, (명)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전체	50.00	50.00	100.00(1,286)
자녀 성별			
남	52.90	47.10	100.00( 656)
여	46.98	53.02	100.00( 630)
	$\chi^2(df)$ 4.493(1)*		
자녀 연령			
만2세	57.07	42.93	100.00( 396)
만3세	53.17	46.83	100.00( 442)
만5세	40.63	59.38	100.00( 448)
	$\chi^2(df)$ 25.443(2)***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수)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5.11	54.89	100.00( 481)
어린이집	52.92	47.08	100.00( 805)
반일제학원	0.00	0.00	0.00( 0)
$\chi^2(df)$	7.337(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2.45	47.55	100.00( 143)
전문대졸	51.23	48.77	100.00( 285)
4년제대졸	49.79	50.21	100.00( 731)
대학원졸 이상	45.67	54.33	100.00( 127)
$\chi^2(df)$	1.480(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9.51	50.49	100.00( 204)
전문대졸	51.38	48.62	100.00( 253)
4년제대졸	48.61	51.39	100.00( 683)
대학원졸 이상	52.76	47.24	100.00( 127)
$\chi^2(df)$	1.089(3)		
맞벌이 여부			
외벌이	52.13	47.87	100.00( 422)
맞벌이	49.07	50.93	100.00( 860)
미취업	25.00	75.00	100.00( 4)
$\chi^2(df)$	2.065(2)(b)		
지역 규모			
대도시	51.02	48.98	100.00( 490)
중소도시	46.88	53.12	100.00( 593)
읍면	56.65	43.35	100.00( 203)
$\chi^2(df)$	6.104(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33	41.67	100.00( 108)
300 이상~500만원	54.22	45.78	100.00( 474)
500 이상~700만원	48.05	51.95	100.00( 437)
700만원 이상	42.32	57.68	100.00( 267)
$\chi^2(df)$	13.333(3)**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를 연도별, 자녀 연령별



로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60.34%에서 2024년 53.10%로 감소하였고, 2016년 5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38.31%에서 2024년 41.76%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응답은 18.57%에서 2024년 15.93%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5세 부모 대상의 응답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3-1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가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수)
2세	2016	60.34	18.57	10.97	4.22	5.91	100.00(237)
	2024	53.10	15.93	17.70	5.31	7.96	100.00(226)
5세	2016	38.31	30.51	19.66	7.80	3.73	100.00(295)
	2024	41.76	28.57	23.63	4.40	1.65	100.00(182)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2024년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하였다. 자녀 성별에 따라 남아 부모는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49.28%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여아 부모는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19.59%)과 ‘재능·소질 계발 가능’(5.74%) 항목에서 여아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만2세와 만3세 부모가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각각 53.10%와 53.19%로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만5세 부모는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음’을 28.57%로 더 높게 평가했다.

재원기관에 따른 분석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가 ‘발달 수준에 맞춘 진행’을 51.17%로 유치원 재원 부모(47.47%)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1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이 사교육 대체 기능으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단위: %, (명)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기능	기타	계(수)
전체	49.92	21.77	18.20	4.51	5.60	100.00(643)
자녀 성별						
남	49.28	22.19	17.00	3.46	8.07	100.00(347)
여	50.68	21.28	19.59	5.74	2.70	100.00(296)
$\chi^2(df)$			10.778(4)*			
자녀 연령						
만2세	53.10	15.93	17.70	5.31	7.96	100.00(226)
만3세	53.19	22.13	14.47	3.83	6.38	100.00(235)
만5세	41.76	28.57	23.63	4.40	1.65	100.00(182)
$\chi^2(df)$			23.743(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47.47	27.19	18.43	4.15	2.76	100.00(217)
어린이집	51.17	19.01	18.08	4.69	7.04	100.00(426)
$\chi^2(df)$			9.612(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7.33	18.67	16.00	6.67	1.33	100.00( 75)
전문대졸	51.37	20.55	17.12	7.53	3.42	100.00(146)
4년제대졸	48.08	22.53	17.86	3.57	7.97	100.00(364)
대학원졸 이상	48.28	24.14	25.86	0.00	1.72	100.00( 58)
$\chi^2(df)$			19.963(12)(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54.46	21.78	14.85	2.97	5.94	100.00(101)
전문대졸	49.23	23.85	14.62	7.69	4.62	100.00(130)
4년제대졸	50.00	20.48	20.48	3.92	5.12	100.00(332)
대학원졸 이상	47.76	22.39	16.42	4.48	8.96	100.00( 67)
$\chi^2(df)$			8.969(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51.82	21.36	19.09	3.64	4.09	100.00(220)
맞벌이	48.82	22.04	17.77	4.98	6.40	100.00(422)
미취업	100.00	0.00	0.00	0.00	0.00	100.00( 1)
$\chi^2(df)$			3.385(8)(b)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51.20	19.20	20.40	4.80	4.40	100.00(250)
중소도시	48.92	24.82	17.63	3.60	5.04	100.00(278)
읍면	49.57	20.00	14.78	6.09	9.57	100.00(115)
$\chi^2(df)$			8.93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2.38	19.05	17.46	6.35	4.76	100.00( 63)
300 이상~500만원	51.75	23.74	15.95	4.28	4.28	100.00(257)
500 이상~700만원	49.52	17.62	20.48	4.76	7.62	100.00(210)
700만원 이상	45.13	26.55	19.47	3.54	5.31	100.00(113)
$\chi^2(df)$			8.914(12)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연령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만2세의 경우, 2016년에는 ‘부모 선택권이 적음’이 4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은 24.2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피드백 어려움’은 21.36%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이 30.00%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부모 선택권 적음’은 27.65%로 감소하였다. ‘사교육보다 질 낮음’도 18.82%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만5세의 경우, 2016년에는 ‘부모 선택권 적음’이 38.46%로 가장 높았고,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도 37.65%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드백 어려움’은 13.36%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2024년에는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음’이 37.9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사교육보다 질 낮음’이 16.54%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부모 선택권 적음’은 24.06%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교육보다 질이 낮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17〉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16년 VS. 2024년

단위: %, (명)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수)
2세	2016	24.27	2.91	41.75	21.36	2.91	6.80	100.00( 103)
	2024	30.00	18.82	27.65	20.59	1.76	1.18	100.00( 170)
5세	2016	37.65	3.24	38.46	13.36	2.43	4.86	100.00( 247)
	2024	37.97	16.54	24.06	16.92	1.50	3.01	100.00( 266)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18〉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불가로 인식하는 이유: 2024년

단위: %, (명)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수)
전체	33.13	16.17	25.19	20.84	1.71	2.95	100.00(643)
자녀 성별							
남	34.63	14.89	25.57	20.39	2.59	1.94	100.00(309)
여	31.74	17.37	24.85	21.26	0.90	3.89	100.00(334)
$\chi^2(df)$			5.854(5)				
자녀 연령							
만2세	30.00	18.82	27.65	20.59	1.76	1.18	100.00(170)
만3세	29.47	13.53	24.64	26.09	1.93	4.35	100.00(207)
만5세	37.97	16.54	24.06	16.92	1.50	3.01	100.00(266)
$\chi^2(df)$			13.460(1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34.09	14.39	26.52	18.56	1.89	4.55	100.00(264)
어린이집	32.45	17.41	24.27	22.43	1.58	1.85	100.00(379)
$\chi^2(df)$			6.353(5)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피드백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수)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30.88	10.29	26.47	23.53	7.35	1.47	100.00( 68)
전문대졸	29.50	16.55	24.46	24.46	0.72	4.32	100.00(139)
4년제대졸	34.06	18.53	23.43	19.62	1.36	3.00	100.00(367)
대학원졸 이상	37.68	8.70	34.78	17.39	0.00	1.45	100.00( 69)
$\chi^2(df)$			27.908(15)*(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95	10.68	24.27	29.13	0.97	0.00	100.00(103)
전문대졸	26.83	18.70	24.39	20.33	3.25	6.50	100.00(123)
4년제대졸	35.33	15.95	25.07	19.66	1.71	2.28	100.00(351)
대학원졸 이상	30.00	21.67	30.00	15.00	0.00	3.33	100.00( 60)
$\chi^2(df)$			23.297(15)(b)				
맞벌이 여부							
외벌이	33.66	12.87	24.26	24.26	1.98	2.97	100.00(202)
맞벌이	32.88	17.58	25.57	19.41	1.60	2.97	100.00(438)
미취업	33.33	33.33	33.33	0.00	0.00	0.00	100.00( 3)
$\chi^2(df)$			5.091(10)(b)				
지역 규모							
대도시	36.25	15.00	23.75	19.17	2.92	2.92	100.00(240)
중소도시	31.11	18.10	25.08	21.59	0.32	3.81	100.00(315)
읍면	31.82	12.50	29.55	22.73	3.41	0.00	100.00( 88)
$\chi^2(df)$			14.694(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7.78	13.33	33.33	11.11	2.22	2.22	100.00( 45)
300 이상~500만원	34.10	10.60	23.50	25.81	1.84	4.15	100.00(217)
500 이상~700만원	33.04	16.30	26.43	20.26	1.32	2.64	100.00(227)
700만원 이상	30.52	24.68	23.38	17.53	1.95	1.95	100.00(154)
$\chi^2(df)$			21.249(15)(b)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자녀의 성별, 연령, 재원기관, 부모의 학력수준,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의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 성별 및 연령, 맞벌이 여부 등은 부모들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최종학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학력별 분석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는 프로그램의 질(44.98%)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고졸 이하 어머니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55.70%)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프로그램의 질(42.59%)을 가장 중시했으며, 고졸 이하 아버지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7.60%)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재원기관별 분석 결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42.80%)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38.46%)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39.78%)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39.78%)을 동등하게 중시했다.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아동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50.94%)을 가장 중시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3.3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역 규모별 분석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41.32%)을 가장 중시했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8.02%)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도시에서도 프로그램의 질(41.67%)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고,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38.16%)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1.25%)이 가장 중시되었고, 프로그램의 질(37.92%)이 그 다음이었다.

가구소득별 분석에서는,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61.1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프로그램의 질(28.57%)이 그 다음이었다. 300~500만원 소득 그룹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40.69%)을 가장 중시했으며, 프로그램의 질(39.23%)이 그 뒤를 이었다. 500~700만원 소득 그룹도 프로그램의 질(42.8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에서는 프로그램의 질(45.74%)이 가장 중시되었으며,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29.97%)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표 III-3-19〉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중요한 고려요소: 2024년

단위: %, (명)

구분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강사 대 영유아 비율	기타	계(수)
전체	7.93	40.93	38.60	11.87	0.67	100.00(1,500)
자녀 성별						
남	8.05	39.61	38.83	13.12	0.39	100.00( 770)
여	7.81	42.33	38.36	10.55	0.96	100.00( 730)
$\chi^2(df)$			4.632(4)			
자녀 연령						
만2세	9.60	36.00	40.80	12.80	0.80	100.00( 500)
만3세	6.80	42.80	40.20	9.60	0.60	100.00( 500)
만5세	7.40	44.00	34.80	13.20	0.60	100.00( 500)
$\chi^2(df)$			13.597(8)(b)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7.30	42.80	38.46	10.45	0.99	100.00( 507)
어린이집	7.69	39.78	39.78	12.42	0.33	100.00( 910)
반일제학원	13.21	50.94	22.64	13.21	0.00	100.00( 53)
가정양육	16.67	26.67	33.33	16.67	6.67	100.00( 30)
$\chi^2(df)$			33.256(12)**(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5.06	24.68	55.70	12.66	1.90	100.00( 158)
전문대졸	5.54	37.85	44.00	11.69	0.92	100.00( 325)
4년제대졸	8.42	44.98	35.18	11.30	0.12	100.00( 867)
대학원졸 이상	13.33	41.33	28.67	14.67	2.00	100.00( 150)
$\chi^2(df)$			58.258(1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7	34.93	47.60	11.79	1.31	100.00( 229)
전문대졸	4.15	42.21	41.52	11.07	1.04	100.00( 289)
4년제대졸	10.09	42.59	35.49	11.58	0.25	100.00( 803)
대학원졸 이상	7.64	40.76	34.39	15.92	1.27	100.00( 157)
$\chi^2(df)$			31.916(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9	39.30	41.25	11.09	0.97	100.00( 514)
맞벌이	8.15	41.79	37.31	12.23	0.51	100.00( 981)
미취업	20.00	40.00	20.00	20.00	0.00	100.00( 5)
$\chi^2(df)$			5.254(8)(b)			
지역 규모						
대도시	10.76	41.32	38.02	9.38	0.52	100.00( 576)
중소도시	5.26	41.67	38.16	13.89	1.02	100.00( 684)
읍면	8.75	37.92	41.25	12.08	0.00	100.00( 240)
$\chi^2(df)$			21.801(8)**(b)			

구분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강사 대 영유아 비율	기타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5	28.57	61.11	3.97	0.00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7.85	39.23	40.69	11.50	0.7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7.27	42.83	36.15	13.16	0.59	100.00( 509)
700만원 이상	9.78	45.74	29.97	13.56	0.95	100.00( 317)
$\chi^2(df)$			42.919(12)***(b)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녀 성별, 연령, 재원기관, 부모의 학력 수준,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 가구소득 등의 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재원기관, 어머니의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지역 규모는 부모들의 프로그램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아버지의 최종학력, 가구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아의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3.12%)을 가장 선호하고 미술, 음악 프로그램(13.90%)을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여아의 부모도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6.30%)을 가장 선호했지만, 미술, 음악 프로그램(22.60%)을 남아 부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녀 연령별 분석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0.80%), 미술, 음악 프로그램(19.80%), 교구(16.60%)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고, 만5세 아동 부모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9.20%), 미술, 음악 프로그램(15.20%), IT, AI, 코딩 프로그램(14.60%)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의 아버지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1.76%), 미술, 음악 프로그램(19.05%), 외국어(12.58%)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고졸 이하 아버지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6.20%), 미술, 음악 프로그램(22.27%), 교구(14.85%)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



과,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9.37%), 미술, 음악 프로그램(26.19%), 교구(11.90%)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에서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25.36%), 미술, 음악 프로그램(20.62%), 교구(14.78%)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에서는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2.02%), 미술, 음악 프로그램(14.34%), 외국어(14.1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34.07%), 미술, 음악 프로그램(16.72%), 교구(15.4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III-3-20〉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 흡수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 2024년

구분	단위: %, (명)										
	체육, 스포츠	미술, 음악	과학	IT, AI, 코딩 등	외국어	수학	한글, 논술	그림책	교구	기타	계(수)
전체	29.80	18.13	3.40	10.87	11.27	1.13	7.27	4.00	13.60	0.53	100.00(1,500)
자녀 성별											
남	33.12	13.90	3.12	12.21	11.82	0.78	7.01	3.90	13.64	0.52	100.00( 770)
여	26.30	22.60	3.70	9.45	10.68	1.51	7.53	4.11	13.56	0.55	100.00( 730)
$\chi^2(df)$	26.866(9)**										
자녀 연령											
만2세	30.80	19.80	4.80	6.80	10.00	0.60	6.60	3.20	16.60	0.80	100.00( 500)
만3세	29.40	19.40	1.80	11.20	13.00	1.80	5.00	4.20	13.60	0.60	100.00( 500)
만5세	29.20	15.20	3.60	14.60	10.80	1.00	10.20	4.60	10.60	0.20	100.00( 500)
$\chi^2(df)$	49.481(1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9.39	17.55	2.37	13.02	11.05	1.78	8.09	4.54	12.03	0.20	100.00( 507)
어린이집	30.00	18.57	3.85	9.12	10.88	0.66	7.36	3.96	14.84	0.77	100.00( 910)
반일제학원	30.19	18.87	7.55	11.32	22.64	0.00	0.00	1.89	7.55	0.00	100.00( 53)
가정양육	30.00	13.33	0.00	26.67	6.67	6.67	3.33	0.00	13.33	0.00	100.00( 30)
$\chi^2(df)$	50.180(27)**(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58	22.78	1.27	15.19	10.76	0.63	7.59	3.16	10.76	1.27	100.00( 158)
전문대졸	27.08	15.38	4.00	12.92	9.23	1.23	10.15	3.69	15.69	0.62	100.00( 325)
4년제대졸	30.68	18.22	3.34	9.46	12.11	1.15	6.57	4.50	13.73	0.23	100.00( 867)
대학원졸 이상	34.00	18.67	4.67	10.00	11.33	1.33	4.67	2.67	11.33	1.33	100.00( 150)
$\chi^2(df)$	31.553(27)										

구분	체육, 스포츠	미술, 음악	과학	IT, AI, 코딩 등	외국어	수학	한글, 논술	그림책	교구	기타	계(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20	22.27	2.18	12.23	7.86	0.44	9.61	3.49	14.85	0.87	100.00( 229)
전문대졸	26.99	12.11	4.15	12.11	11.07	0.69	8.30	6.23	17.99	0.35	100.00( 289)
4년제대졸	31.76	19.05	2.99	9.84	12.58	1.12	6.85	3.61	11.71	0.50	100.00( 803)
대학원졸 이상	28.66	17.83	6.37	10.83	11.46	3.18	4.46	3.18	14.01	0.00	100.00( 157)
$\chi^2(df)$					45.693(27)*						
맞벌이 여부											
외벌이	28.21	18.29	2.53	10.12	9.73	0.78	8.75	4.86	16.15	0.58	100.00( 514)
맞벌이	30.68	18.04	3.87	11.31	12.13	1.33	6.42	3.57	12.23	0.41	100.00( 981)
미취업	20.00	20.00	0.00	0.00	0.00	0.00	20.00	0.00	20.00	20.00	100.00( 5)
$\chi^2(df)$					52.126(18)***(b)						
지역 규모											
대도시	28.30	17.53	3.30	11.98	13.72	0.87	7.12	3.47	13.19	0.52	100.00( 576)
중소도시	32.31	18.13	3.51	9.50	9.65	1.61	7.16	4.68	12.87	0.58	100.00( 684)
읍면	26.25	19.58	3.33	12.08	10.00	0.42	7.92	3.33	16.67	0.42	100.00( 240)
$\chi^2(df)$					17.008(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37	26.19	0.79	7.94	7.94	1.59	5.56	6.35	11.90	2.38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25.36	20.62	3.83	12.04	9.31	0.73	8.94	4.01	14.78	0.36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2.02	14.34	3.34	11.98	14.15	1.18	6.48	4.72	11.59	0.20	100.00( 509)
700만원 이상	34.07	16.72	3.79	8.20	11.36	1.58	6.31	1.89	15.46	0.63	100.00( 317)
$\chi^2(df)$					54.918(27)**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소결(시사점)

###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대상의 65.33%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기타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다는 경우가 37.65%, 학습 관련하여 사교육 받는 경우 32.24%, 두 경우 모두 받는다는 경우 30.10%였다.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는 평균 4.59회로 평일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회당 시간은 약 42분 정도였다. 배경에 따라 자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아버지의 최종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거주 유아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학습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평균 1.85개의 학습 관련 학원을, 예체능/기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 평균 1.36개의 예체능/기타 관련 유형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집단 가정의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 예체능 및 기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사교육 유형별로 예체능/기타 유형의 사교육 개수는 남아보다 여아가 많았다.

사교육 시작 연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집단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장 빨랐다. 영유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은 체육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의 경우 체육, 수학, 국어를, 여아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을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19만 8천원이고, 학습 관련 비용은 월평균 약 16만 3천 원, 예체능/기타 관련 비용은 평균 약 14만 2천원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월간 전체 사교육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비용은 월평균 182만 9천원이었고, 표준편차가 921.25로 매우 컸다.

### 나. 영유아 사교육 변화 및 추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후에 사교육을 받는 비율과 가짓수 또한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참여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사교육 시작 연령 또한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일제 이상 학원 이후의 사교육 비용과 반일제학원 비용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 다. 영유아 사교육 인식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강사 대 아동 비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사교육에 대해 부모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2024년 조사 응답자의 79%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있었으며,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이 강했다.

사교육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사교육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사교육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흡수해주길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소수의 부모들만 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교육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과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인프라 구축을 더 선호했으며, 가정양육의 경우 공교육 특별활동 활성화를 가장 선호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요구 흡수를 가장 선호했는데,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사교육 축소, 7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은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특성화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사교육보다 질이 낮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치원과 반일제학원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동등하게 중시했다.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학 졸업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고졸 이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시했고, 읍면 지역에서는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시하였다. 300만원 미만 소득 그룹은 영유아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3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가장 중시하였다. 공교육에서 사교육 요구를 흡수할 때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 IV

---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

---

- 0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 0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 0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 0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 05 소결



## IV.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영향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현재 영유아의 행동 특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 영향,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 영향,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행동을 평가한 결과를 성별, 연령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사교육 경험 변수(사교육 유무 및 유형,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교육 여부 및 학습사교육 개수에 따른 행동 특성에서는 총체적 어려움 전체 평균, 그리고 외현화 난점, 친사회적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 모두를 받은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외현화 난점 점수가 낮았고, 친사회적 행동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보다 점수가 높았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행동 특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의 결과를 보였는데, 2개 이상의 학습 사교육을 받는 아동이 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1개의 학습 사교육 받는 아동에 비해 외현화 난점의 점수가 낮았고,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과 예체능을 모두 포함하는 다수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은 발달이 빠른 경향이 있으며, 최근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에서도 발달 수준이 높은 아동을 선별하여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는 이미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이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교육의 선별적 접근이나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1-1〉 자녀 행동 특성(1) (영역별 총점):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수)	총체적 어려움						친사회적 행동	
		평균	표준 편차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00)	1.44	0.22	1.37	0.26	1.52	0.27	2.32	0.42
자녀 성별									
남	( 770)	1.46	0.23	1.39	0.27	1.54	0.27	2.28	0.41
여	( 730)	1.42	0.22	1.35	0.26	1.49	0.27	2.36	0.41
<i>t</i>		3.8***		2.6**		3.7***		-3.9***	
자녀 연령									
만2세	( 500)	1.47 <sup>a</sup>	0.21	1.40 <sup>a</sup>	0.25	1.54 <sup>a</sup>	0.26	2.22 <sup>c</sup>	0.42
만3세	( 500)	1.47 <sup>a</sup>	0.22	1.39 <sup>a</sup>	0.27	1.55 <sup>a</sup>	0.26	2.29 <sup>b</sup>	0.41
만5세	( 500)	1.39 <sup>b</sup>	0.23	1.32 <sup>b</sup>	0.26	1.46 <sup>b</sup>	0.29	2.45 <sup>a</sup>	0.39
<i>F</i>		21.9***		13.3***		17.5***		44.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507)	1.43 <sup>a</sup>	0.22	1.36	0.26	1.50	0.27	2.37 <sup>a</sup>	0.40
어린이집	( 910)	1.46 <sup>a</sup>	0.22	1.38	0.26	1.53 <sup>a</sup>	0.27	2.29 <sup>b</sup>	0.42
반일제학원	( 53)	1.38 <sup>a</sup>	0.21	1.32	0.27	1.44	0.27	2.44	0.48
가정양육	( 30)	1.43 <sup>a</sup>	0.24	1.47	0.25	1.39 <sup>b</sup>	0.26	2.33	0.39
<i>F</i>		2.9*		2.5		5.8**		5.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58)	1.47	0.24	1.37	0.24	1.57 <sup>a</sup>	0.31	2.35	0.39
전문대졸	( 325)	1.46	0.23	1.37	0.26	1.54 <sup>a</sup>	0.28	2.28	0.44
4년제대졸	( 867)	1.44	0.23	1.37	0.27	1.50 <sup>b</sup>	0.27	2.33	0.42
대학원졸 이상	( 150)	1.42	0.19	1.36	0.25	1.47 <sup>b</sup>	0.24	2.31	0.38
<i>F</i>		2.5(a)		0.1		5.0**(w)		1.5(a)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229)	1.45	0.22	1.36	0.25	1.54	0.27	2.32	0.39
전문대졸	( 289)	1.46	0.23	1.36	0.25	1.57 <sup>a</sup>	0.29	2.30	0.43
4년제대졸	( 803)	1.43	0.23	1.37	0.27	1.49 <sup>b</sup>	0.27	2.32	0.42
대학원졸 이상	( 157)	1.45	0.22	1.40	0.28	1.51	0.26	2.35	0.42
<i>F</i>		1.5		0.9		5.9**		0.5	
맞벌이 여부									
외벌이	( 514)	1.44	0.21	1.36	0.24	1.51	0.26	2.32	0.43
맞벌이	( 981)	1.45	0.23	1.38	0.27	1.52	0.28	2.32	0.41
미취업	( 5)	1.34	0.19	1.22	0.18	1.46	0.38	2.44	0.36
<i>F</i>		1.1		1.2		0.6(a)		0.2	
지역 규모									
대도시	( 576)	1.44	0.23	1.36	0.26	1.51	0.28	2.35	0.40
중소도시	( 684)	1.45	0.22	1.39	0.27	1.52	0.27	2.29	0.43
읍면	( 240)	1.43	0.22	1.35	0.25	1.51	0.28	2.33	0.41
<i>F</i>		1.4		2.7		0.1		2.9	

구분	(수)	총체적 어려움						친사회적 행동	
		평균	표준 편차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26)	1.46	0.22	1.41	0.25	1.52	0.28	2.32	0.41
300 이상~500만원	( 548)	1.46	0.22	1.38	0.25	1.53	0.27	2.28	0.41
500 이상~700만원	( 509)	1.44	0.23	1.35	0.27	1.52	0.27	2.34	0.43
700만원 이상	( 317)	1.42	0.22	1.36	0.27	1.49	0.27	2.34	0.39
<i>F</i>		1.7		2.0		1.8		2.3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 316)	1.46 <sup>a</sup>	0.22	1.38	0.26	1.54 <sup>a</sup>	0.28	2.31	0.40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 369)	1.47 <sup>a</sup>	0.24	1.39	0.29	1.54 <sup>a</sup>	0.28	2.33	0.43
모두 받음	( 295)	1.40 <sup>c</sup>	0.21	1.34	0.25	1.46 <sup>b</sup>	0.26	2.37 <sup>a</sup>	0.41
사교육 받지 않음	( 520)	1.44	0.22	1.37	0.25	1.52 <sup>a</sup>	0.27	2.29 <sup>b</sup>	0.42
<i>F</i>		5.7**		2.5		6.1***		3.0*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 889)	1.45 <sup>a</sup>	0.23	1.38	0.27	1.53 <sup>a</sup>	0.27	2.31 <sup>b</sup>	0.42
1개	( 313)	1.45 <sup>a</sup>	0.23	1.38	0.26	1.53 <sup>a</sup>	0.29	2.29 <sup>b</sup>	0.41
2개 이상	( 298)	1.41 <sup>b</sup>	0.20	1.34	0.24	1.47 <sup>b</sup>	0.26	2.40 <sup>a</sup>	0.39
<i>F</i>		5.1**		2.3		5.2**		6.5**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3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아니다. 2. 다소 그렇다. 3. 분명히 그렇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의 행동 특성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서증상, 포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등 네 가지 주요 행동 특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교육 여부에 따른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행동문제와 과잉행동/부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행동문제 항목에서는 *F*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Welch ANOVA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행동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과잉행동/부주의 항목에서는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그룹의 아동이 예체능이나 기타 사교육을 받은 그룹에 비해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과잉행동이나 부주의 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사교육 여부와 그 유형에 따라 일부 행동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들이 행동문제와 과잉행동/부주의 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참여 아동의 특성에 따른 편향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 IV-1-2〉 자녀 행동 특성(1) (총체적 어려움 세부영역별 점수):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수)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정서증상		도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00)	1.32	0.32	1.42	0.32	1.43	0.28	1.60	0.39
자녀 성별									
남	( 770)	1.33	0.32	1.45	0.33	1.43	0.28	1.65	0.40
여	( 730)	1.32	0.32	1.38	0.31	1.43	0.28	1.55	0.37
<i>t</i>		0.4		3.9***		0.3		5.0***	
자녀 연령									
만2세	( 500)	1.31	0.29	1.49 <sup>a</sup>	0.32	1.46 <sup>a</sup>	0.27	1.63 <sup>d</sup>	0.37
만3세	( 500)	1.34	0.32	1.44 <sup>a</sup>	0.33	1.48 <sup>a</sup>	0.29	1.62	0.39
만5세	( 500)	1.32	0.34	1.32 <sup>b</sup>	0.29	1.35 <sup>b</sup>	0.26	1.56 <sup>c</sup>	0.40
<i>F</i>		0.9		38.8***(w)		31.9***(w)		4.0*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507)	1.34	0.33	1.38 <sup>c</sup>	0.31	1.41	0.28	1.59	0.39
어린이집	( 910)	1.32	0.31	1.43 <sup>b</sup>	0.31	1.44	0.28	1.63 <sup>a</sup>	0.39
반일제학원	( 53)	1.25	0.27	1.39 <sup>d</sup>	0.37	1.40	0.27	1.48	0.34
가정양육	( 30)	1.27	0.34	1.67 <sup>a</sup>	0.29	1.35	0.30	1.42 <sup>b</sup>	0.30
<i>F</i>		1.9		10.1***		2.3		5.7**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58)	1.34	0.31	1.41	0.28	1.46	0.31	1.69 <sup>a</sup>	0.44
전문대졸	( 325)	1.34	0.31	1.41	0.32	1.44	0.28	1.64 <sup>a</sup>	0.40
4년제대졸	( 867)	1.32	0.33	1.42	0.32	1.42	0.28	1.58 <sup>a</sup>	0.37
대학원졸 이상	( 150)	1.31	0.29	1.41	0.32	1.39	0.23	1.56 <sup>a</sup>	0.37
<i>F</i>		0.7		0.2		1.7(a)		5.1**(w)	



구분	(수)	내재화 난점				외현화 난점			
		정서증상		도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229)	1.33	0.32	1.39	0.30	1.44	0.26	1.64 <sup>a</sup>	0.39
전문대졸	( 289)	1.32	0.30	1.39	0.31	1.45	0.28	1.69 <sup>a</sup>	0.42
4년제대졸	( 803)	1.32	0.32	1.43	0.32	1.42	0.29	1.56 <sup>a</sup>	0.37
대학원졸 이상	( 157)	1.35	0.35	1.45	0.34	1.41	0.28	1.60 <sup>a</sup>	0.39
<i>F</i>		0.6		1.8(a)		0.8		7.7***(w)	
맞벌이 여부									
외벌이	( 514)	1.32	0.30	1.41	0.31	1.41	0.26	1.61	0.38
맞벌이	( 981)	1.33	0.33	1.42	0.32	1.44	0.29	1.60	0.39
미취업	( 5)	1.12	0.18	1.32	0.23	1.40	0.37	1.52	0.41
<i>F</i>		1.3		0.5		2.0(a)		0.1	
지역 규모									
대도시	( 576)	1.31	0.32	1.42	0.32	1.43	0.29	1.60	0.38
중소도시	( 684)	1.34	0.32	1.43	0.32	1.43	0.28	1.61	0.39
읍면	( 240)	1.31	0.30	1.38	0.30	1.44	0.28	1.58	0.39
<i>F</i>		2.4		1.9		0.1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26)	1.37	0.33	1.44	0.29	1.48	0.31	1.56	0.38
300 이상~500만원	( 548)	1.34	0.31	1.42	0.32	1.42	0.27	1.64 <sup>a</sup>	0.40
500 이상~700만원	( 509)	1.31	0.32	1.40	0.32	1.43	0.28	1.61	0.38
700만원 이상	( 317)	1.30	0.32	1.43	0.33	1.41	0.29	1.56 <sup>b</sup>	0.38
<i>F</i>		2.6		0.9		1.6		3.4*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 316)	1.33	0.31	1.43 <sup>a</sup>	0.32	1.46 <sup>a</sup>	0.29	1.62	0.39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 369)	1.35	0.35	1.43 <sup>a</sup>	0.34	1.44 <sup>a</sup>	0.29	1.64 <sup>a</sup>	0.38
모두 받음	( 295)	1.32	0.31	1.36 <sup>a</sup>	0.31	1.37 <sup>c</sup>	0.24	1.54 <sup>b</sup>	0.40
사교육 받지 않음	( 520)	1.30	0.31	1.43 <sup>a</sup>	0.30	1.44 <sup>a</sup>	0.28	1.61	0.38
<i>F</i>		2.0(a)		3.4*		7.3***(w)		3.5*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 889)	1.32	0.33	1.43 <sup>a</sup>	0.32	1.44 <sup>a</sup>	0.29	1.62 <sup>a</sup>	0.38
1개	( 313)	1.33	0.32	1.42	0.32	1.44 <sup>a</sup>	0.29	1.61	0.40
2개 이상	( 298)	1.32	0.30	1.37 <sup>b</sup>	0.31	1.39 <sup>b</sup>	0.25	1.55 <sup>b</sup>	0.39
<i>F</i>		0.2		4.5*		4.6*(w)		3.4*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3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아니다. 2. 다소 그렇다. 3. 분명히 그렇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의 행동 특성 중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의 어려움 여부와 어려움 지속기간을 조사하였다. 먼저 사교육 여부에 따른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부를 살펴보면,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24.37%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22%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26.5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63%는 상당히, 1.08%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체능/기타 및 학습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의 경우, 18.98%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71%는 상당히, 0.68%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의 경우, 23.08%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50%는 상당히, 0.19%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검정 결과, 사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여부가 아이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는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결과,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의 24.52%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14%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23.9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19%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19.46%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68%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 사교육 개수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개수가 아이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는 어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교육 여부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어려움을 겪은 아동 중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가 20.24%로 나타났고, 1~5개월이 28.57%, 6~12개월이 21.43%, 그리고 1년 초과 지속된 경우가 29.76%로 나타났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37.96%로 가장 높았으며,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는 12.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지속된 경우가 3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22.73%, 1~5개월 지속된 경우는 27.27%, 1개월 미만은 13.64%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1년 초과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34.3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5개월 지속된 경우가 32.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는 16.4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사교육 여부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 1년 초과 지속된 비율이 35.95%로 가장 높았고, 1~5개월 지속된 경우가 32.64%,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16.53%, 1개월 미만은 14.88%로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을 1개 받은 아동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 1~5개월 지속된 비율이 34.12%로 가장 높았고, 1년 초과는 30.59%, 6~12개월은 20.00%, 1개월 미만은 15.29%로 나타났다. 학습 사교육을 2개 이상 받은 아동은 1년 초과 지속된 비율이 35.38%로 가장 높았고, 6~12개월 지속된 경우가 24.62%, 1개월 미만과 1~5개월은 각각 20.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어려움 지속기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학습 사교육 개수가 아동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IV-1-3〉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여부 및 지속기간): 2024년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단위: %, (명)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아니오	계(수)	1개월 미만	1~5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계(수)		
전체	23.40	2.27	0.47	73.87	100.00(1,500)	15.82	30.87	18.62	34.69	100.00(392)
자녀 성별										
남	25.84	2.99	0.78	70.39	100.00( 770)	15.79	28.95	17.11	38.16	100.00(228)
여	20.82	1.51	0.14	77.53	100.00( 730)	15.85	33.54	20.73	29.88	100.00(164)
		13.563(3)**(b)					3.210(3)			
자녀 연령										
만2세	25.00	2.40	0.60	72.00	100.00( 500)	18.57	37.14	20.00	24.29	100.00(140)
만3세	24.20	2.80	0.80	72.20	100.00( 500)	15.83	31.65	16.55	35.97	100.00(139)
만5세	21.00	1.60	0.00	77.40	100.00( 500)	12.39	22.12	19.47	46.02	100.00(113)
		8.545(6)(b)					15.245(6)*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2.49	1.78	0.39	75.35	100.00( 507)	16.80	24.00	19.20	40.00	100.00(125)
어린이집	24.18	2.53	0.55	72.75	100.00( 910)	14.52	35.89	17.74	31.85	100.00(248)
반일제학원	24.53	1.89	0.00	73.58	100.00( 53)	28.57	14.29	21.43	35.71	100.00( 14)
가정양육	13.33	3.33	0.00	83.33	100.00( 30)	20.00	0.00	40.00	40.00	100.00( 5)
		3.988(9)(b)					11.609(9)(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75	3.80	1.27	65.19	100.00( 158)	10.91	20.00	21.82	47.27	100.00( 55)
전문대졸	27.38	2.46	0.31	69.85	100.00( 325)	18.37	38.78	13.27	29.59	100.00( 98)
4년제대졸	20.99	1.96	0.46	76.59	100.00( 867)	15.76	30.05	18.72	35.47	100.00(203)
대학원졸 이상	22.00	2.00	0.00	76.00	100.00( 150)	16.67	30.56	27.78	25.00	100.00( 36)
		15.613(9)(b)					13.080(9)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예, 아니오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예	계(수)	1개월 미만	1년 초과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chi^2(df)$	24.89	100.00( 229)	18.46	100.00( 65)
	29.76	100.00( 289)	13.54	100.00( 96)
	21.17	100.00( 803)	14.81	100.00(189)
	21.02	100.00( 157)	22.22	100.00( 36)
	13.700(9)(b)		9.859(9)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미취업 $\chi^2(df)$	22.96	100.00( 514)	15.56	100.00(135)
	23.55	100.00( 981)	16.08	100.00(255)
	40.00	100.00( 5)	0.00	100.00( 2)
	5.197(6)(b)		11.465(6)(b)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chi^2(df)$	22.92	100.00( 576)	11.03	100.00(145)
	24.71	100.00( 684)	17.37	100.00(190)
	20.83	100.00( 240)	22.81	100.00( 57)
	3.996(6)(b)		6.86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 이상~500만원 500 이상~700만원 700만원 이상 $\chi^2(df)$	20.63	100.00( 126)	21.21	100.00( 33)
	25.55	100.00( 548)	15.43	100.00(162)
	23.77	100.00( 509)	12.21	100.00(131)
	20.19	100.00( 317)	21.21	100.00( 66)
	19.359(9)*(b)		9.238(9)	

구분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 여부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 지속기간							
	예, 조금 예, 상당히 예, 심각하게	아니오	계(수)	1개월 미만	1~5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계(수)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24.37	2.22	0.00	73.42	21.07( 316)	20.24	28.57	21.43	29.76	21.43( 84)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26.56	1.63	1.08	70.73	24.60( 369)	12.96	33.33	15.74	37.96	27.55(108)
모두 받음	18.98	2.71	0.68	77.63	19.67( 295)	13.64	27.27	22.73	36.36	16.84( 66)
사교육 받지 않음	23.08	2.50	0.19	74.23	34.67( 520)	16.42	32.09	17.16	34.33	34.18(134)
$\chi^2(df)$	11.919(9)(b)						5.087(9)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24.52	2.14	0.56	72.78	59.27( 889)	14.88	32.64	16.53	35.95	61.73(242)
1개	23.96	3.19	0.00	72.84	20.87( 313)	15.29	34.12	20.00	30.59	21.68( 85)
2개 이상	19.46	1.68	0.67	78.19	19.87( 298)	20.00	20.00	24.62	35.38	16.58( 65)
$\chi^2(df)$	7.048(6)(b)						6.337(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자녀가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어려움의 정도를 자녀의 고통 정도, 자녀 생활 방해 정도, 부모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 정도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사교육 여부에 따라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자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면, 학습 사교육을 받은 아동과 예체능/기타 사교육과 학습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평균 1.80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기타 사교육을 받은 아동도 평균 1.75로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1.66으로 약간 더 낮은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 여부가 아동의 고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겪은 어려움이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생활, 친구 관계, 교실 놀이, 여가활동 전반에서 유사한 수준의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은 친구 관계에서의 생활 방해 정도가 1.97로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사교육 그룹과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역시 가정생활, 친구 관계, 교실 놀이, 여가활동 전반에서 다른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방해를 경험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주는 부담의 경우에도 사교육 여부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의 가족 부담 정도는 2.02로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다른 그룹들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에서 자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면, 학습 사교육을 0개 받은 아동과 1개 받은 아동, 2개 이상 받은 아동 간에 고통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1개를 받은 아동이 1.81로 다른 그룹보다 조금 더 높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생활 방해 정도에서는 교실 놀이 영역에서만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교실 놀이에서 0개 받는 아동들보다 더 많은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러나 가정생활, 친구 관계, 여가활동에서는 사교육 개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 부담 정도는 학습 사교육 개수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교육을 1개 받은 아동의 가족 부담 정도가 약간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4〉 자녀 행동 특성(2) (어려움 정도): 2024년

단위: (명), 점(표준편차)

구분	(수)	막내자녀 고통 정도 평균	막내자녀 생활 방해 정도 평균				부모, 가족 부담 정도 평균
			가정생활	친구관계	교실놀이	여가활동	
전체	( 392)	1.74(0.62)	1.75(0.68)	1.85(0.69)	1.83(0.69)	1.65(0.67)	1.93(0.71)
자녀 성별							
남	( 228)	1.76(0.63)	1.79(0.71)	1.92(0.73)	1.92(0.68)	1.68(0.68)	1.97(0.75)
여	( 164)	1.70(0.61)	1.71(0.65)	1.76(0.63)	1.70(0.68)	1.60(0.64)	1.86(0.64)
<i>t</i>		1.0	1.1	2.2*	3.1**	1.3	1.6
자녀 연령							
만2세	( 140)	1.71(0.61)	1.67(0.65)	1.70 <sup>b</sup> (0.65)	1.69 <sup>b</sup> (0.63)	1.66(0.61)	1.87(0.73)
만3세	( 139)	1.76(0.64)	1.85(0.71)	2.00 <sup>a</sup> (0.74)	1.96 <sup>a</sup> (0.77)	1.66(0.74)	1.98(0.77)
만5세	( 113)	1.74(0.61)	1.73(0.68)	1.86(0.64)	1.82 (0.63)	1.62(0.65)	1.93(0.61)
<i>F</i>		0.3	2.4	6.7**	5.5**	0.1	0.8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125)	1.77(0.65)	1.77(0.67)	1.92(0.67)	1.79(0.68)	1.58 <sup>a</sup> (0.65)	1.95(0.71)
어린이집	( 248)	1.74(0.61)	1.75(0.69)	1.82(0.71)	1.85(0.70)	1.71 <sup>a</sup> (0.67)	1.94(0.72)
반일제학원	( 14)	1.57(0.51)	1.79(0.80)	2.00(0.55)	2.00(0.55)	1.29 <sup>a</sup> (0.47)	1.79(0.58)
가정양육	( 5)	1.40(0.55)	1.40(0.55)	1.40(0.55)	1.20(0.45)	1.40 <sup>a</sup> (0.89)	1.20(0.45)
<i>F</i>		0.9	0.5	1.5(a)	1.9	2.8*	2.0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55)	1.78(0.60)	1.76(0.61)	1.78(0.66)	1.75(0.70)	1.67(0.61)	1.75(0.62)
전문대졸	( 98)	1.69(0.65)	1.70(0.65)	1.81(0.68)	1.82(0.66)	1.58(0.64)	1.87(0.71)
4년제대졸	( 203)	1.71(0.60)	1.76(0.71)	1.87(0.71)	1.83(0.70)	1.67(0.70)	1.98(0.73)
대학원졸 이상	( 36)	1.94(0.67)	1.83(0.74)	1.97(0.70)	1.94(0.71)	1.64(0.64)	2.06(0.67)
<i>F</i>		1.7	0.3	0.7	0.6	0.5	2.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65)	1.75(0.64)	1.78(0.70)	1.77 (0.58)	1.71(0.72)	1.68(0.59)	1.97(0.79)
전문대졸	( 96)	1.66(0.63)	1.72(0.63)	1.69 <sup>b</sup> (0.62)	1.79(0.68)	1.65(0.70)	1.85(0.75)
4년제대졸	( 189)	1.77(0.60)	1.75(0.70)	1.97 <sup>a</sup> (0.74)	1.87(0.68)	1.62(0.67)	1.95(0.64)
대학원졸 이상	( 36)	1.83(0.65)	1.78(0.76)	1.83 (0.74)	1.94(0.71)	1.69(0.75)	2.00(0.79)
<i>F</i>		1.0	0.1	3.9**	1.3	0.2	0.6
맞벌이 여부							
외벌이	( 135)	1.70(0.61)	1.68(0.68)	1.81(0.70)	1.74(0.62)	1.59(0.60)	1.98(0.74)
맞벌이	( 255)	1.76(0.62)	1.79(0.69)	1.87(0.69)	1.87(0.72)	1.68(0.70)	1.90(0.69)
미취업	( 2)	1.50(0.71)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0(0.71)
<i>F</i>		0.6	1.2	0.5	1.6	1.1(a)	0.9



구분	(수)	막내자녀 고통 정도 평균	막내자녀 생활 방해 정도 평균				부모, 가족 부담 정도 평균
			가정생활	친구관계	교실놀이	여가활동	
지역 규모							
대도시	( 145)	1.74(0.62)	1.83 <sup>a</sup> (0.70)	1.84(0.65)	1.90(0.67)	1.62(0.68)	1.97(0.66)
중소도시	( 190)	1.77(0.62)	1.75 (0.69)	1.86(0.72)	1.78(0.71)	1.68(0.70)	1.91(0.70)
읍면	( 57)	1.61(0.62)	1.56 <sup>b</sup> (0.60)	1.84(0.70)	1.79(0.65)	1.61(0.53)	1.88(0.85)
<i>F</i>		1.4	3.1*	0.0	1.2	0.4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33)	1.82(0.64)	1.88(0.70)	1.94(0.83)	1.94(0.79)	1.88(0.78)	1.82(0.68)
300 이상~500만원	( 162)	1.76(0.63)	1.72(0.64)	1.79(0.67)	1.78(0.68)	1.63(0.66)	1.97(0.76)
500 이상~700만원	( 131)	1.73(0.61)	1.74(0.67)	1.89(0.66)	1.79(0.65)	1.66(0.65)	1.97(0.70)
700만원 이상	( 66)	1.67(0.62)	1.80(0.81)	1.88(0.73)	1.94(0.72)	1.55(0.64)	1.79(0.60)
<i>F</i>		0.6	0.7	0.8	1.2	1.9	1.5
사교육 여부							
학습 사교육 받음	( 84)	1.80(0.62)	1.82(0.75)	1.92(0.66)	1.94(0.65)	1.77(0.72)	1.96(0.70)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 108)	1.75(0.58)	1.76(0.68)	1.87(0.71)	1.81(0.69)	1.68(0.68)	1.91(0.63)
모두 받음	( 66)	1.80(0.71)	1.74(0.64)	1.97(0.70)	1.88(0.73)	1.48(0.64)	2.02(0.81)
사교육 받지 않음	( 134)	1.66(0.60)	1.71(0.67)	1.74(0.68)	1.75(0.69)	1.63(0.62)	1.87(0.72)
<i>F</i>		1.3	0.5	2.1	1.5	2.5	0.7
학습 사교육 개수							
0개	( 242)	1.70(0.59)	1.73(0.67)	1.80(0.70)	1.77 <sup>b</sup> (0.69)	1.65(0.65)	1.89(0.68)
1개	( 85)	1.81(0.66)	1.81(0.72)	1.92(0.62)	2.01 <sup>a</sup> (0.66)	1.64(0.69)	2.00(0.74)
2개 이상	( 65)	1.78(0.65)	1.75(0.69)	1.97(0.75)	1.78 (0.70)	1.66(0.71)	1.97(0.77)
<i>F</i>		1.3	0.4	2.1	4.1*(w)	0.0	0.9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4) 4점(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척도로 측정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자녀와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의 경우, 응답자의 32%가 매일 책을 읽어준다고 답했으며, 35.47%는 주 1~2번 정도 읽어줬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야기 해주기 활동에서는 58.93%가 매일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이는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함께 노래 부르기는 41.73%가 매일 한다고 답했으며, 미술이나 만들기 활동은 17.47%만이 매일 참여한다고 했다. 집안일 함께 하기는 응답자의 20.53%가 매일 한다고 답했다. 퍼즐이나 게임 활동의 경우 14.47%가 매일 하며, 조립용 완구 놀이와 스포츠 또는 운동 역시 매일 하는 비율은 각각 13.20%, 12.60%로 비교적 낮았다.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나 과학놀이의 경우, 매일 하는 비율은

14.47%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활동은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12.67%,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9.60%)와 조립용 완구 놀이(9.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부모-자녀 상호작용(전체):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3.80	35.47	28.73	32.00	100.00(1,500)
이야기 해주기	0.73	16.93	23.40	58.93	100.00(1,500)
함께 노래 부르기	3.60	25.07	29.60	41.73	100.00(1,500)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5.53	46.67	30.33	17.47	100.00(1,500)
집안일 함께 하기	7.80	44.13	27.53	20.53	100.00(1,500)
퍼즐, 게임 하기	6.27	46.40	32.87	14.47	100.00(1,500)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12.67	49.47	23.40	14.47	100.00(1,500)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9.00	48.53	29.27	13.20	100.00(1,500)
스포츠, 운동하기	9.60	50.20	27.60	12.60	100.00(1,500)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활동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기, 집안일 함께 하기,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및 과학놀이하기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책 읽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미술 및 만들기 도와주기, 퍼즐 및 게임하기,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스포츠 및 운동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책 읽어주기의 경우,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매일 책을 읽어주는 비율이 높았다. 만2세 아동의 부모는 39.40%, 만3세는 34.80%, 만5세는 21.80%가 매일 책을 읽어준다고 응답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했다.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의 55.80%가 매일 노래를 부르며, 만3세는 43.00%, 만5세는 26.4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미술 및 만들기 도와주기의 경우, 만2세 부모의 17.60%, 만3세 부모의 18.20%, 만5세 부모의 16.60%가 매일 미술 활동을 도와준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퍼즐 및 게임하기에서는 만2세 아동 부모의 17.00%, 만3세는 13.80%, 만5세는 12.60%가 매일 퍼즐 및 게임을 한다고 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조립용 완구 놀이는 만2세 아동 부모의 18.00%, 만3세는 12.80%, 만5세는 8.80%가 매일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고 답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활동 빈도가 감소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및 운동하기는 만2세 부모의 17.60%, 만3세 부모의 10.40%, 만5세 부모의 9.80%가 매일 함께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했다.

〈표 IV-1-6〉 부모-자녀 상호작용(자녀 연령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만2세	2.60	29.40	28.60	39.40	100.00( 500)
만3세	3.00	32.00	30.20	34.80	100.00( 500)
만5세	5.80	45.00	27.40	21.80	100.00( 500)
$\chi^2(df)$		54.420(6)***			
이야기 해주기					
만2세	0.60	14.40	22.40	62.60	100.00( 500)
만3세	1.00	17.80	23.00	58.20	100.00( 500)
만5세	0.60	18.60	24.80	56.00	100.00( 500)
$\chi^2(df)$		6.247(6)(b)			
함께 노래 부르기					
만2세	1.40	13.40	29.40	55.80	100.00( 500)
만3세	2.60	25.40	29.00	43.00	100.00( 500)
만5세	6.80	36.40	30.40	26.40	100.00( 500)
$\chi^2(df)$		127.369(6)***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만2세	4.80	48.20	29.40	17.60	100.00( 500)
만3세	4.40	42.60	34.80	18.20	100.00( 500)
만5세	7.40	49.20	26.80	16.60	100.00( 500)
$\chi^2(df)$		13.371(6)*			
집안일 함께 하기					
만2세	9.20	43.60	26.80	20.40	100.00( 500)
만3세	7.40	44.20	28.40	20.00	100.00( 500)
만5세	6.80	44.60	27.40	21.20	100.00( 500)
$\chi^2(df)$		2.477(6)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퍼즐, 게임 하기					
만2세	6.60	42.20	34.20	17.00	100.00( 500)
만3세	5.00	45.60	35.60	13.80	100.00( 500)
만5세	7.20	51.40	28.80	12.60	100.00( 500)
$\chi^2(df)$		14.227(6)*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만2세	12.40	45.80	24.20	17.60	100.00( 500)
만3세	11.20	51.80	24.00	13.00	100.00( 500)
만5세	14.40	50.80	22.00	12.80	100.00( 500)
$\chi^2(df)$		9.881(6)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만2세	5.20	44.20	32.60	18.00	100.00( 500)
만3세	6.80	46.00	34.40	12.80	100.00( 500)
만5세	15.00	55.40	20.80	8.80	100.00( 500)
$\chi^2(df)$		72.933(6)***			
스포츠 운동하기					
만2세	9.00	46.20	27.20	17.60	100.00( 500)
만3세	8.40	50.40	30.80	10.40	100.00( 500)
만5세	11.40	54.00	24.80	9.80	100.00( 500)
$\chi^2(df)$		23.918(6)**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가구소득별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활동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일관된 증가 또는 감소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V-1-7〉 부모-자녀 상호작용(가구소득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300만원 미만	3.97	43.65	21.43	30.95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4.93	35.04	29.74	30.29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34	36.74	29.67	30.26	100.00( 509)
700만원 이상	2.52	30.91	28.39	38.17	100.00( 317)
$\chi^2(df)$		15.476(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이야기 해주기					
300만원 미만	0.79	22.22	24.60	52.38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9	18.25	23.18	57.48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0.39	16.31	23.77	59.53	100.00( 509)
700만원 이상	0.63	13.56	22.71	63.09	100.00( 317)
$\chi^2(df)$		8.974(9)(b)			
함께 노래 부르기					
300만원 미만	2.38	30.95	23.81	42.86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4.01	22.63	29.93	43.4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3.34	26.13	30.84	39.69	100.00( 509)
700만원 이상	3.79	25.24	29.34	41.64	100.00( 317)
$\chi^2(df)$		6.832(9)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300만원 미만	7.94	35.71	34.92	21.43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5.84	47.99	28.28	17.88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5.50	45.97	33.20	15.32	100.00( 509)
700만원 이상	4.10	49.84	27.44	18.61	100.00( 317)
$\chi^2(df)$		13.415(9)			
집안일 함께 하기					
300만원 미만	10.32	39.68	27.78	22.22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8.21	46.35	24.82	20.62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6.88	46.76	27.90	18.47	100.00( 509)
700만원 이상	7.57	37.85	31.55	23.03	100.00( 317)
$\chi^2(df)$		12.068(9)			
퍼즐, 게임 하기					
300만원 미만	6.35	44.44	34.13	15.08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6.57	48.36	30.84	14.2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7.27	47.35	32.81	12.57	100.00( 509)
700만원 이상	4.10	42.27	35.96	17.67	100.00( 317)
$\chi^2(df)$		10.317(9)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300만원 미만	11.90	49.21	23.02	15.87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3.14	51.64	22.08	13.14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13.56	48.72	24.56	13.16	100.00( 509)
700만원 이상	10.73	47.00	23.97	18.30	100.00( 317)
$\chi^2(df)$		7.791(9)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300만원 미만	5.56	48.41	34.92	11.11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04	49.27	27.92	12.77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9.63	48.72	28.29	13.36	100.00( 509)
700만원 이상	7.57	47.00	30.91	14.51	100.00( 317)
$\chi^2(df)$		6.565(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스포츠 운동하기					
300만원 미만	9.52	50.79	23.81	15.87	100.00( 126)
300 이상~500만원	10.58	50.36	26.82	12.23	100.00( 548)
500 이상~700만원	10.81	50.29	27.90	11.00	100.00( 509)
700만원 이상	5.99	49.53	29.97	14.51	100.00( 317)
$\chi^2 (df)$		10.178(9)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학습 사교육 개수별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라 부모-자녀 상호작용 빈도는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책 읽어주기, 이야기 해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퍼즐이나 게임하기,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및 과학놀이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집안일 함께 하기,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그리고 스포츠나 운동하기에서는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안일 함께하기를 매일 하는 경우를 보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20.25%,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7.57%,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24.50%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빈도에서도 학습 사교육 개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14.74%,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4.06%,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7.72%가 매일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놀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나 운동하기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는 14.29%, 1개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10.54%,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부모는 9.73%가 매일 자녀와 함께 스포츠나 운동을 했다.

〈표 IV-1-8〉 부모-자녀 상호작용(학습 사교육 개수별): 2024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0개	4.16	34.20	28.91	32.73	100.00( 889)
1개	2.88	38.34	29.39	29.39	100.00( 313)
2개 이상	3.69	36.24	27.52	32.55	100.00( 298)
$\chi^2(df)$		3.256(6)			
이야기 해주기					
0개	1.01	15.86	22.61	60.52	100.00( 889)
1개	0.32	21.41	22.36	55.91	100.00( 313)
2개 이상	0.34	15.44	26.85	57.38	100.00( 298)
$\chi^2(df)$		9.892(6)			
함께 노래 부르기					
0개	3.15	22.95	30.26	43.64	100.00( 889)
1개	5.11	28.43	27.80	38.66	100.00( 313)
2개 이상	3.36	27.85	29.53	39.26	100.00( 298)
$\chi^2(df)$		8.868(6)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0개	6.19	45.67	29.92	18.22	100.00( 889)
1개	4.47	49.84	30.99	14.70	100.00( 313)
2개 이상	4.70	46.31	30.87	18.12	100.00( 298)
$\chi^2(df)$		4.433(6)			
집안일 함께 하기					
0개	9.22	43.98	26.55	20.25	100.00( 889)
1개	7.99	50.80	23.64	17.57	100.00( 313)
2개 이상	3.36	37.58	34.56	24.50	100.00( 298)
$\chi^2(df)$		26.960(6)***			
퍼즐, 게임 하기					
0개	6.64	46.23	32.17	14.96	100.00( 889)
1개	7.03	46.33	31.63	15.02	100.00( 313)
2개 이상	4.36	46.98	36.24	12.42	100.00( 298)
$\chi^2(df)$		4.627(6)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0개	13.39	49.72	22.61	14.29	100.00( 889)
1개	11.50	51.44	20.77	16.29	100.00( 313)
2개 이상	11.74	46.64	28.52	13.09	100.00( 298)
$\chi^2(df)$		7.278(6)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0개	8.32	49.72	27.22	14.74	100.00( 889)
1개	9.27	46.33	30.35	14.06	100.00( 313)
2개 이상	10.74	47.32	34.23	7.72	100.00( 298)
$\chi^2(df)$		14.589(6)*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스포츠 운동하기					
0개	10.57	49.16	25.98	14.29	100.00( 889)
1개	4.79	55.91	28.75	10.54	100.00( 313)
2개 이상	11.74	47.32	31.21	9.73	100.00( 298)
$\chi^2(df)$		19.962(6)**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사교육 여부에 따른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활동에서 차이가 존재했지만,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여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표 IV-1-9〉 부모-자녀 상호작용(사교육 여부별): 2024년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책 읽어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3.80	39.56	29.75	26.90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52	34.42	29.54	32.52	100.00( 369)
모두 받음	2.71	34.92	27.12	35.25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4.62	34.04	28.46	32.88	100.00( 520)
$\chi^2(df)$		8.015(9)			
이야기 해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0.32	19.94	23.10	56.65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0.81	16.80	21.95	60.43	100.00( 369)
모두 받음	0.34	16.95	26.10	56.61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15	15.19	23.08	60.58	100.00( 520)
$\chi^2(df)$		7.495(9)(b)			
함께 노래 부르기					
학습 사교육 받음	4.75	25.95	29.11	40.19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3.79	26.83	27.91	41.46	100.00( 369)
모두 받음	3.73	30.51	28.14	37.6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2.69	20.19	31.92	45.19	100.00( 520)
$\chi^2(df)$		15.777(9)			
미술, 만들기 도와주기					
학습 사교육 받음	3.80	49.68	31.65	14.87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5.69	46.61	28.46	19.24	100.00( 369)
모두 받음	5.42	46.44	30.17	17.97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6.54	45.00	30.96	17.50	100.00( 520)
$\chi^2(df)$		6.226(9)			



구분	전혀 하지 않음	주 1~2번	주 3~6번	매일함	계(수)
집안일 함께 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5.06	48.42	25.95	20.57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8.94	44.99	27.10	18.97	100.00( 369)
모두 받음	6.44	40.00	32.20	21.36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9.42	43.27	26.15	21.15	100.00( 520)
$\chi^2(df)$		12.356(9)			
퍼즐, 게임 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6.33	48.42	31.01	14.24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6.78	45.26	32.52	15.45	100.00( 369)
모두 받음	5.08	44.75	36.95	13.22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6.54	46.92	31.92	14.62	100.00( 520)
$\chi^2(df)$		4.021(9)			
자연 관련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11.71	51.90	22.78	13.61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13.28	50.41	22.49	13.82	100.00( 369)
모두 받음	11.53	46.10	26.44	15.9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3.46	49.23	22.69	14.62	100.00( 520)
$\chi^2(df)$		4.197(9)			
조립용 완구 가지고 놀기					
학습 사교육 받음	8.86	49.37	31.33	10.44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9.21	48.51	27.37	14.91	100.00( 369)
모두 받음	11.19	44.07	33.22	11.53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7.69	50.58	27.12	14.62	100.00( 520)
$\chi^2(df)$		11.644(9)			
스포츠 운동하기					
학습 사교육 받음	8.23	54.43	27.53	9.81	100.00( 316)
예체능/기타 사교육 받음	10.57	47.70	27.64	14.09	100.00( 369)
모두 받음	8.14	48.81	32.54	10.51	100.00( 295)
사교육 받지 않음	10.58	50.19	24.81	14.42	100.00( 520)
$\chi^2(df)$		12.937(9)			

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2.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검사와 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가.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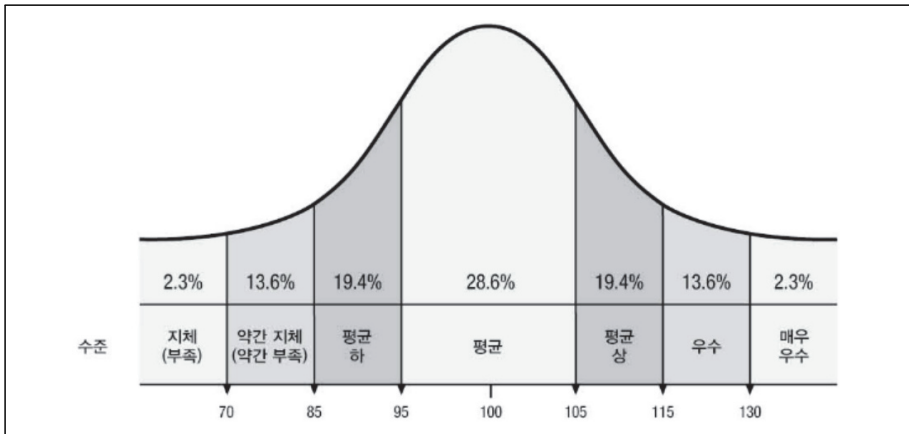
### 1) 언어능력

#### 가) 전반적 언어능력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이윤경·허현숙·장승민, 2015)를 실시하였다. LSSC의 총 9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 언어의 의미(상위개념 이해, 상위어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 표현, 비유문장 이해), 구문(구문 이해, 문법 오류 판단, 문법 오류 수정, 복문 산출), 화용-담화(단락 듣기 이해)와 같은 전반적인 언어영역을 이해와 표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LSSC의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는 다음과 같다. 언어지수가 69 이하로 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하에 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하위 2.3% 이하에 해당하여 언어능력이 많이 지체된 상태이며, 언어지수가 70~84 사이로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의 하위 13.6% 이하에 해당하여 약간 지체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언어지수가 115~129 사이로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13.6%에 해당하여 우수한 수준이며, 언어지수가 130 이상인 경우는 상위 2.3% 이내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2-1] LSSC 언어지수에 따른 해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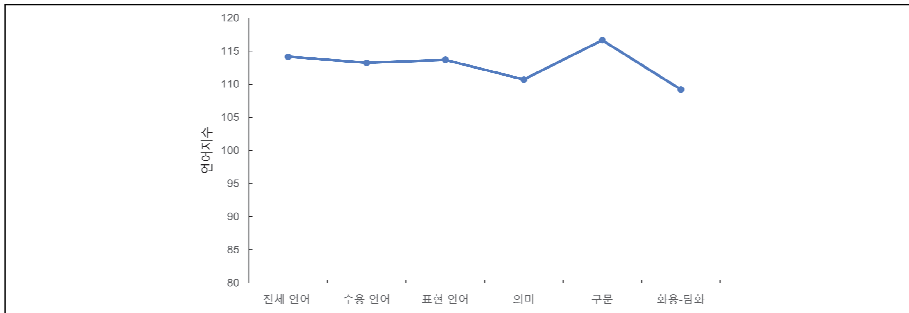
언어지수가 130 이상으로 '매우 우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8.3%, 115 이상~130 미만으로 '우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5.4%, 105 이상~115 미만으로 '평균 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9.6%, 95 이상~105 미만으로 '평균'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2.7%', 85 이상~95 미만으로 '평균 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9.9%, 70 이상~85 미만으로 '약간 지체'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2.8%, 70 미만으로 '지체'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4%로 나타났다.

〈표 IV-2-1〉 LSSC 검사 결과

영역 구분	하위 검사	언어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언어	전체 하위 검사	114.1	16.8
수용언어	상위개념 이해 5. 구문 이해 6. 비유문장 이해 7. 문법 오류 판단 10. 단락 듣기 이해	113.2	15.3
표현언어	2. 상위어 표현 3. 반의어 표현 4. 동의어 표현 8. 문법 오류 수정 9. 복문 산출	113.7	18.2
의미	상위개념 이해 상위어 표현 반의어 표현 동의어 표현 6. 비유문장 이해	110.7	18.6
문법	5. 구문 이해 7. 문법 오류 판단 8. 문법 오류 수정 9. 복문 산출	116.6	14.9
담화/화용	10. 단락 듣기 이해	109.2	16.4

LSSC 수행 결과, 전체언어 언어지수 평균 점수는 114.1(표준편차 16.8)로 대상 아동들의 전체 언어능력은 평균 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 영역의 평균 언어지수 점수는 113.2(표준편차 15.32), 표현 언어영역의 평균 언어지수 점수는 113.7(표준편차 18.2)로 나타나, 대상 아동들의 수용 언어능력과 표현 언어능력은 모두 평균 상 범주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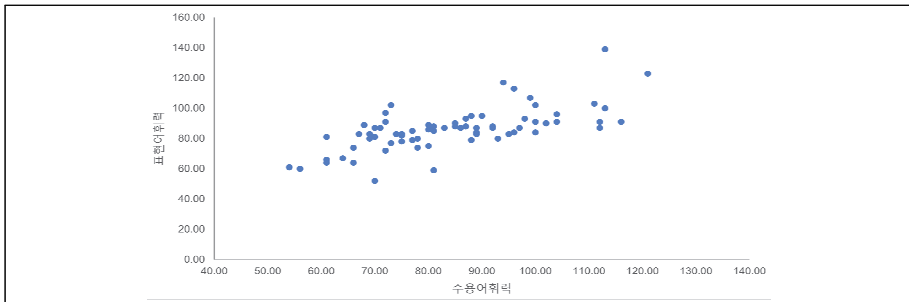
[그림 IV-2-2] LSSC 영역별 점수



나) 어휘력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아동의 REVT 수용어휘 평균 점수는 84.1, 표준편차 15.6이며, 표현어휘 평균 점수는 85.9, 표준편차 14.1이다. REVT 수용어휘력 점수가 해당 생활 연령대의 평균 점수 이상에 속하는 아동은 45명(62.5%), 평균~+1SD에 속하는 아동은 2명(2.7%), -1SD~평균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9명(12.5%), -2SD~-1SD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11명(15.2%), -2SD 미만에 속하는 아동은 5명(6.9%)으로 나타났다. 표현어휘력의 경우, 해당 생활 연령대의 평균 이상에 속하는 아동은 42명(58.3%), 평균~+1SD에 속하는 아동은 2명, -2SD~-1SD 범주에 속하는 18명, -2SD 미만에 속하는 아동은 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점수



주: REVT는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를 기준으로 '정상 발달', '약간 지체/유의 요망(생활 연령대의 -2SD~-1SD)', '어휘 능력 발달 지체(-2SD 미만)'로 어휘 능력 발달의 정상성을 판정할 수 있음.

### 다) 언어능력 및 언어환경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인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한지윤·임동선, 2018)을 실시한 결과, 총점은 83.9(표준편차 11.8)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력 영역의 평균 점수는 95.2(표준편차 12.1)로 나타났다. 초기 이정표 영역의 평균 점수는 88.5(표준편차 17.7),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영역 평균 점수는 77.1(표준편차 13.2), 현재 언어능력 영역 평균 점수는 82.1(표준편차 18.8)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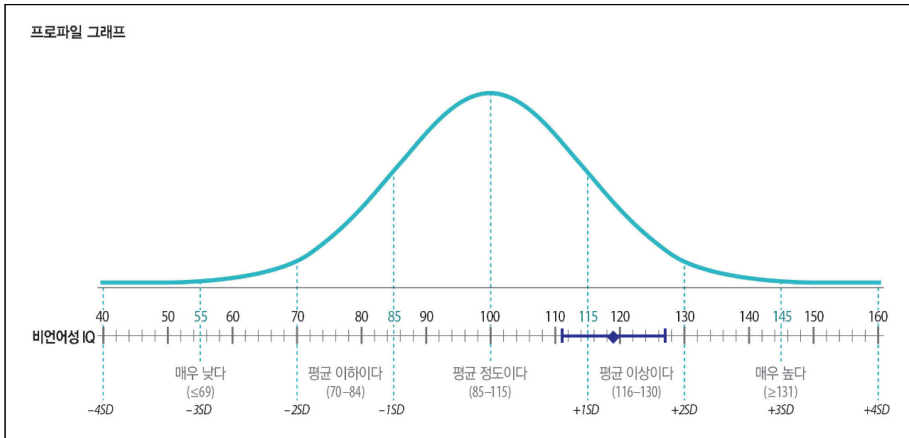
영역	평균	표준편차
초기 이정표 (걸음마 시기, 첫 낱말 시기 등)	88.5	17.7
현재 언어능력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문장 구성 능력, 현 언어 수준 등)	82.1	18.8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책 읽기 선호도, 문해 능력, 선호하는 활동 등)	77.1	13.2
가족력 (교육 수준, 언어 및 학습 어려움에 대한 가족력)	95.2	12.1
총점	83.9	11.8

## 2) 인지 능력

### 가) 비언어성 지능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2: K-BIT-2)(문수백, 2020)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 점수는 119.25(표준편차 20.84)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이상 수준에 속하는 점수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비언어성 지능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2-4] 비언어성 지능 점수



### 나) 집행기능

집행기능의 하위요소인 ‘일화적 완충기’를 측정하기 위해 단어목록회상 과제(천 소연·임동선, 2017)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어순 배열 조건과 무선 배열 조건 모두에서 어절 수가 3어절~7어절로 증가할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어순 및 배열 조건에 따른 수행력을 살펴본 결과, 문장 순 배열에서 3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96.3점(표준편차 7.3), 5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82.7점(표준편차 15.1), 7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72.6점(표준편차 18.2)으로 나타났다. 무선 배열 조건의 경우, 3어절 조건에서의 수행력은 93.6점(표준편차 8.7), 5어절 조건은 65.3점(표준편차 16.6), 7어절 조건은 44.6점(표준편차 16.5)으로 나타났다.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총점은 86.3점(표준편차 37.6),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총점은 68.1점(표준편차 33.5)으로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순 배열 조건에서의 3어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 배열 조건에서의 7어절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목록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을 보였으나, 어순이라는 장기기억을 사용하여 단기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IV-2-3〉 단어목록회상 과제 결과

단위: 점

	어순 배열 조건		무선 배열 조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어절	96.3	7.3	93.6	8.7
5어절	82.7	15.1	65.3	16.6
7어절	72.6	18.2	44.6	16.5
총점	86.3	37.6	68.1	33.5

### 3) 사회정서

#### 가) 문제해결력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력 검사(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2023)을 실시하였다.

상황/단서 추론 능력은 상황이 일어난 장소의 인물과 사물 같은 단서들을 활용하여 문제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의미하며 평균 점수는 82.2점(표준편차 12.1)으로 나타났다. 원인/이유 추론 능력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와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평균 82.4점(표준편차 10.9)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상황에서 각 인물들의 감정을 유추하고 그제 상응하는 감정 어휘를 표현하는 감정 추론 능력은 평균 92.1점(표준편차 8.2)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추론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동이 보고 겪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식 안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균 80.6점(표준편차 13.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방책은 상황 속에서 주요 단서나 적절한 참조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 능력을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였으며, 평균 74.2점(표준편차 17.1)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단위: 점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상황/단서 추론	82.2	12.1
원인/이유 추론	82.4	10.9
감정 추론	92.1	8.2
문제해결 추론	80.6	13.3
예방책	74.2	17.1
총 점	81.9	8.3

## 나) 정서·행동 특성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II) 결과를 <표 IV-2-5>에 제시하였다. 각 핵심 성격 특성별 원점수를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환산하였다.

먼저, CPSQ-II 검사의 성격 특성 부분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요인은 책임감이 높고 신중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외적 요인은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내적 요인 중 성실성(맡은 바 일을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태도) 평균 T점수는 48.1(표준편차 13.9)로 나타났고, 자존감(나에 대해 가치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평균 T점수는 49.5(표준편차 15.1), 개방성(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T점수는 48.9(표준편차 14.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타인이해(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 T점수는 49.7(표준편차 13.7), 사회적 주도성(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참여하는 태도) T 점수는 50.6(표준편차 12.8), 공동체의식(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태도) T점수는 49.2(표준편차 15.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아동들의 성격 요인 발달이 평균 범주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험 문항인 학교폭력 피해의 평균 T점수는 49.1(표준편차 5.7)이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뚜렷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요인인 부모 자녀 관계의 평균 T점수는 49.1(표준편차 8.8)로, 부모 자녀 관계 영역의 점수가 평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 관계가 양호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 중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행동 특성 발달을 살펴본 결과, 집중력 부진(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평균 T점수는 50.7(표준편차 11.3), 불안(분리불안장애 등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충격, 별다른 원인 없이 나타나는 여러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감, 원치 않는 생각이나 장면이 떠오르는 등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평균 T점수는 51.5(표준편차 11.7), 학습(언어 발달의 지연 및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의 부진, 학습장애, 지적장애, 강박 성향 등으로 인한 학습 부진 또는 사회성 부진) 평균 T점수는 48.9(표준편차



9.4), 과민(짜증스러운 기분과 반항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우울증, 기분 조절 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에서 흔한 정서 및 행동문제의 경향성) T점수는 49.5 (표준편차 11.7)로 나타났다.

CPSQ-II 검사의 정서·행동 특성 부분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서·행동 특성 총점에 따라 관심군과 정상군으로 판정된다. 관심군은 정서·행동문제 총점이 초1 남학생 20/여학생 17 이상이며 이 점수는 평균에서 1.5 SD(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판정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 특성 영역은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여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부진,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정서·행동 특성 T점수

구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성격특성	내적	성실성	48.1	13.9
		자존감	49.5	15.1
		개방성	48.9	14.1
	외적	타인이해	49.7	13.7
		사회적 주도성	50.6	12.8
		공동체의식	49.2	15.2
위험문항		학교폭력피해	49.1	5.7
외부요인		부모 자녀 관계	49.1	8.8
요인	정서·행동 특성	집중력 부진	50.7	11.3
		불안	51.5	11.7
		학습	48.9	9.4
		과민	49.5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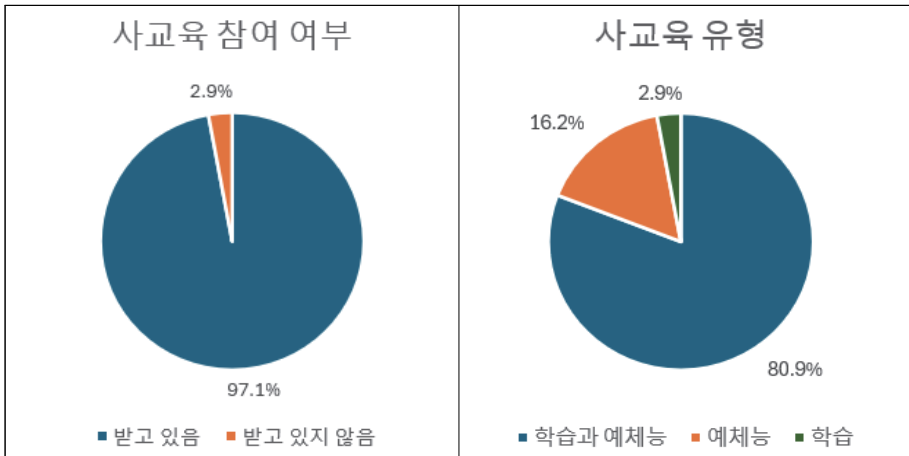
#### 4) 사교육 현황 및 인식

현재 사교육 참여 여부 응답 결과, 응답자의 97.1%(68명)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2.9%(2명)는 현재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하는 사교육의 유형은 ‘학습(수, 과학, 창의, 언어 등)과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프로그램 모두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16.2%, ‘학습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아동이 참여하는 사교육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습 관련 프로그램은 국어, 논술, 수학, 영어, 한자, 코딩, 그리고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은 피아노, 미술, 합기도, 태권도, 축구, 줄넘기, 발레, 댄스, 리듬체조, 수영, 테니스, 바둑 등으로 응답하였다. 1주일 기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는 최소 1개~최대 10개이고, 평균 3.7개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개수는 최소 0개~최대 6개이고, 평균 개수는 1.6개였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 개수는 최소 0개~최대 5개이고, 평균 개수는 2.4개였다.

[그림 IV-2-5] 사교육 참여 여부와 실시 유형 조사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2.7시간(표준편차 1.4)이었다.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1.5시간(표준편차 1.2), 하루 평균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1.2시간(표준편차 0.5)이었다. 다음으로 주말 기준 하루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0.6시간(표준편차 0.9)이었다.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주말 하루 평균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0.3시간(표준편차 0.6),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평균 0.3시간(표준편차 0.9)이었다.

자녀가 처음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의 평균은 4.5세(표준편차 1.4),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18.7%), 영어(17.3%), 미술(17.3%), 무용(10.1%), 음악(8.6%),

수학(7.2%), 국어(7.2%), 창의(4.3%), 기타(5%), 과학(1.4%), 컴퓨터코딩(1.4%), 논술(0.7%), 기타외국어(0.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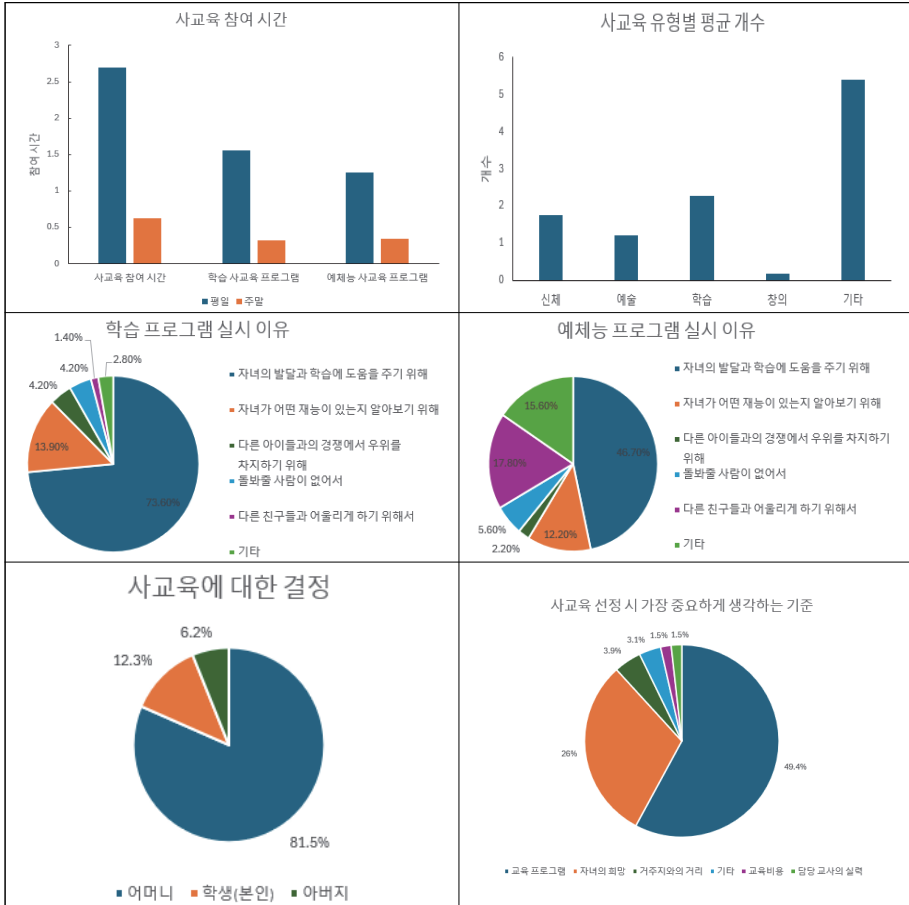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평균 5.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체육, 무용), 예술(음악, 미술), 학습(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창의(블록 등), 기타(취미, 교양)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유형별 평균 개수는 신체 1.7개, 예술 1.2개, 학습 2.2개, 창의 0.1개, 기타 5.4개였다. 기타로는 과학관 체험, 숲 체험, 천문대 활동, 바둑, 승마 등이 제시되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을 살펴본 결과, 학습 관련 프로그램 실시 목적은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로 응답한 비율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는 13.9%,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는 각각 4.2%, '기타'는 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학습 관련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로 응답한 비율이 46.7%,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17.8%, '기타' 15.6%, '자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2%,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 5.6%,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 활동을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어머니가 한다는 응답이 81.5%, 학생 본인 12.3%, 아버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응답은 '교육 프로그램'(49.4%), '자녀의 희망'(26%), '거주지와 거리'(3.9%), '기타'(3.1%), '교육비용'(1.5%), '담당교사의 실력'(1.5%)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차량 이동 유무, 정서적 안정, 시간 조율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IV-2-6] 현재 사교육 참여 현황 및 인식 조사



사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8.2%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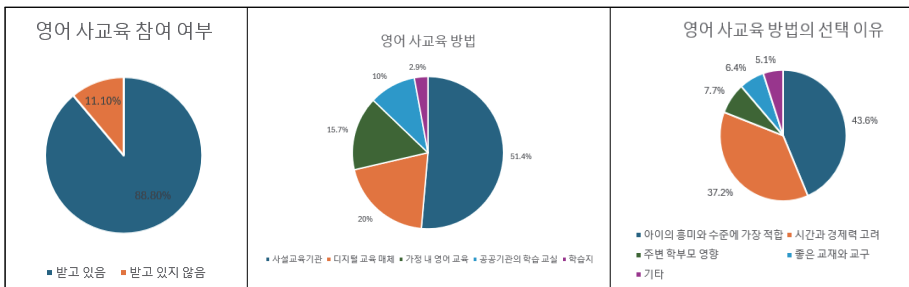
영어 사교육에 대한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8%는 현재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1.1%는 현재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사교육 방법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51.4%가 사설교육기관(보습학원, 영어도서관 등)에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교육 매체(인터넷 강의, 화상영어, 전화영어 등)를 활용하여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20%였으며,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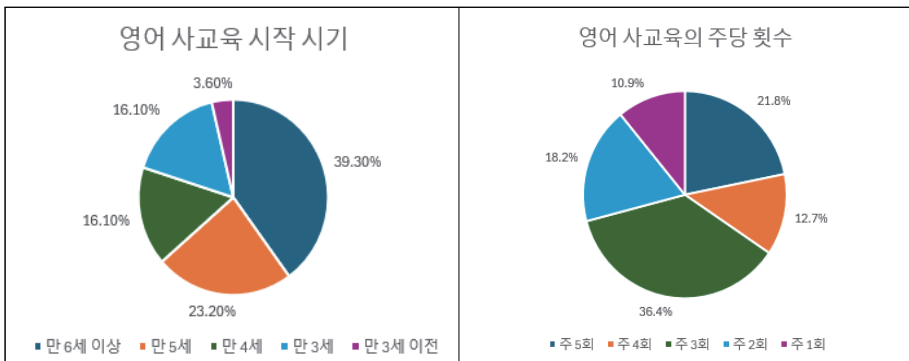
내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15.7%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학습교실(주민센터, 문화센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10%, 학습지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2.9%이었다.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으로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6%인 34명이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시간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37.2%(29명)로 나타났으며, 주변 학부모의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경우는 7.7%(6명)이었다. 좋은 교재와 교구를 이유로 선택한 경우는 6.4%(5명), 기타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는 5.1%(4명)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이유로는 돌봄, 안전한 이동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IV-2-7] 영어 사교육 참여 여부 및 방법



[그림 IV-2-8] 영어 사교육 시작 시기 및 현재 주당 실시 횟수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만6세 이상에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5세에 시작한 경우는 23.2% 이었고 만4세와 만3세에 시작한 경우가 각각 16.1%로 나타났다. 만3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는 3.6%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영어 사교육의 주당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3회가 36.4%로 가장 많았으며, 주 5회는 21.8%, 주 2회는 18.2%, 주 4회는 12.7%, 주 1회는 10.9%로 나타났다.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시간에서 2시간을 받는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고, 2시간에서 3시간은 20%, 30분 미만은 20%, 3시간에서 4시간은 3.3%, 5시간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 나. 사교육 경험과 언어,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행동 특성과의 관계

### 1)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간 관계 및 영향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교육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어휘력을 살펴보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현재 및 과거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중 사교육 시간과 표현어휘, 수용어휘, 표현언어, 수용언어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주말 사교육 시간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말 사교육 시간 또한 어휘력,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비용과 어휘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사교육 비용과 언어능력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개수와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개수 모두 아동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언어능력과도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표현언어, 수용언어)과 어휘력(표현어휘, 수용어휘)을 살펴보았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아동이 주중 및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월 사교육 비용, 과거와 현재에 아동이 참여한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언어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표현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57, p>.05$ ). 또한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수용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45, p>.05$ ).

다음으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63, p>.05$ ). 또한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930, p>.05$ ).

## 2) 사교육 경험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 및 영향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사교육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능력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어휘력을 살펴보았고 사교육 경험의 변인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현재 및 과거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다.

사교육 시간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중 사교육 시간과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사교육 시간 또한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 비용과 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체능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총개수는 문제해결력의 모든 영역(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참여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 학습 프로그램 개수, 창의 프로그램 개수는 문제해결력의 모든 영역(상황/단서, 원인/이유, 감정, 문제해결, 예방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과거에 참여한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개수는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인 예방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2, p<.05$ ). 또한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총개수는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인 예방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37, p<.05$ ). 상관계수 .02~.04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현재 사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문제해결력과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은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방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3.05, p>.05$ ). 즉,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교육 경험과 집행기능 간 관계 및 영향

먼저, 사교육 시간과 집행기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시간과 단어목록 회상 과제 수행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문제해결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사교육 비용과 단어목록회상 과제 수행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교육 경험과 집행기능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현재 사교육 참여 개수와 과거 사교육 참여 개수를 분석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개수와 과거에 참여한 사교육 개수 모두 아동의 집행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45, p>.05$ ). 즉,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교육 경험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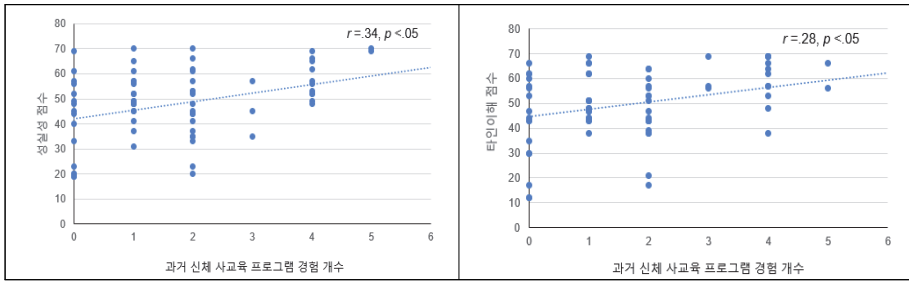
사교육 시간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중 및 주말 사교육 시간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비용과 정서·행동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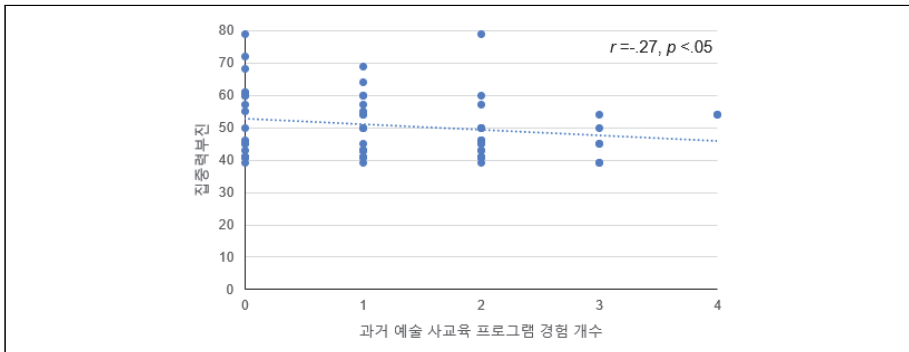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교육 경험과 정서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4, p<.05$ ). 또한 아동의 과거 신체 사교육 참여 개수와 타인이해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8, p<.05$ ). 이는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성실성과 타인이해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이 낮게 나타났다( $r=-.27, p<.05$ ). 이는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관계수 .02~.04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과거 학습 사교육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31, p<.05$ ). 이는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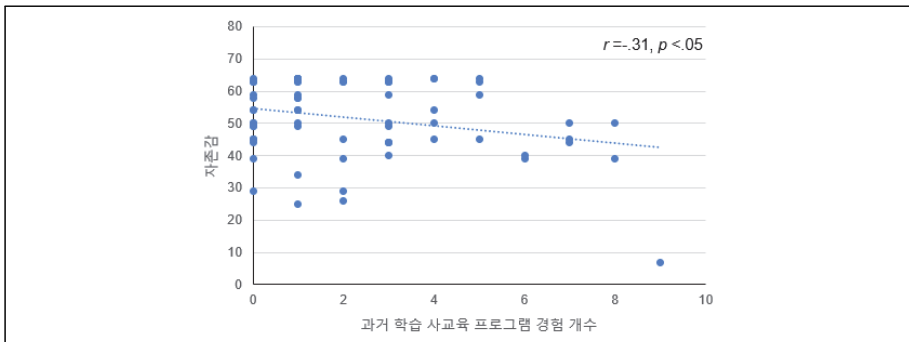
[그림 IV-2-9] 과거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성실성, 타인이해 간 관계



[그림 IV-2-10] 과거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집중력 부진 간 관계



[그림 IV-2-11] 과거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자존감 간 관계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정서 및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주중 및 주말), 월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 개수(현재 및 과거)가 아동의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식, 학교폭력피해, 부모 자녀 관계, 집중력 부진, 불안, 학

습, 과민 각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모든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본 절에서는 부모 변수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사교육 경험 및 이후의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의 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패널<sup>7)</sup>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 변수, 사교육 경험 변수, 아동 변수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IV-3-1〉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사교육 경험 및 아동 변수

사교육 경험 변수 (w5, w6, w7)	부모 변수 (w7)	아동 변수 (w8~w14)
사교육 경험 유무	출생순위 [첫째(참조집단),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지능지수 (w9)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무경험(참조집단),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패널 거주지역 규모 [읍면지역(참조집단), 중소도시, 대도시]	학업수행능력 (w8~w1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0개(참조집단), 1~2개, 3개 이상]	가구소득 (로그변환)	삶의 만족도 (w11~w14)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부모학력(부모학력 평균)	자아존중감 (w8~w11, w13~w14)
월평균 사교육 비용	모 취·학업 유무[무(참조집단), 유]	집행기능곤란 (w8~w11, w13)
	부 취·학업 유무[무(참조집단), 유]	
	부모 우울 (부모 우울 평균)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부모 양육스트레스 평균)	

주: 1) w는 wave의 약자로써 반복측정을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반복측정을 실시한 것이 몇차년도인지를 의미함.  
2) 아동 변수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7)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8월 중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2008년 1차년도 최초 참가자 수 2,150)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되는 패널조사로서 단일 연령집단의 횡단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음.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차년도 자료(중학교 2학년 시기, 참가자 1304, 참가자 아동 1,293명)까지 공개되어있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 인출일: 2024. 12. 31.)

## 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

사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재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3년 동안 자료를 활용하여 만3세에서 만5세까지 3년 동안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IV-3-2>~<표 IV-3-6>는 아동기(만3세~5세)에서의 사교육 관련 경험들, 즉,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0개, 1~2개, 3개 이상),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만3세 47.2%, 만4세 98.5%, 만5세 71.9%의 추이를 보였다(표 IV-3-2 참조). 사교육 경험 유형의 경우 만3세에는 사교육 무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만4세에는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비율이, 만5세에는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많았다(표 IV-3-3 참조).

<표 IV-3-2>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만3세		만4세		만5세	
유	804	(47.2)	267	(98.5)	1,165	(71.9)
무	899	(52.8)	4	(1.5)	455	(28.1)

주: 만4세의 경우 2013년 6차년도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사교육 경험 결측치가 많아 표본수가 감소함.

<표 IV-3-3> 아동기의 사교육 경험 유형의 추이

단위: 명, (%)

사교육 경험	만3세		만4세		만5세	
사교육 무경험	899	(52.8)	4	(1.5)	436	(26.9)
예체능 사교육 경험	71	(4.2)	50	(18.5)	308	(19.0)
학습 사교육 경험	628	(36.9)	129	(47.6)	323	(19.9)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105	(6.2)	88	(32.5)	553	(34.1)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경우 만3세에는 0개라고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만4세에는 1~2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만5세에는 0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표 IV-3-4 참조).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는 만3세에는 평균 1.65개, 만4세에는 평균 2.80개, 만5세에는 평균 3.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5 참조).

〈표 IV-3-4〉 아동기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의 추이

단위: 명, (%)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만3세		만4세		만5세	
	수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0개	970	(57.0)	54	(19.9)	744	(45.9)
1~2개	669	(39.3)	173	(63.8)	605	(37.3)
3개 이상	64	(3.8)	44	(16.2)	271	(16.7)

〈표 IV-3-5〉 아동기의 주평균 사교육 이용 개수

단위: 개

	만3세			만4세			만5세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1,703)	1.65	1.24	(271)	2.80	1.81	(1,620)	3.39	1.84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만3세에는 평균 79.4천원, 만4세에는 평균 101.0천원, 만5세에는 평균 184.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6 참조).

〈표 IV-3-6〉 아동기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의 추이

단위: 천원

	만3세			만4세			만5세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1,703)	79.4	8.01	(271)	101.0	9.23	(1,620)	184.7	17.08

## 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부모 변수의 효과

부모 변수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었다. 첫째,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7〉에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 넷째 이상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389$ ,  $p<0.01$ ;  $b=-0.427$ ,  $p<0.05$ ;  $b=-2.146$ ,  $p<0.001$ ).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1.256$ ,  $p<0.001$ ). 그러나 거주지역 규모, 부모학력,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 유무가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7〉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b	S.E.	Wald	Exp(b)
상수항		-6.266***	1.127	30.902	0.002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389**	0.131	8.873	0.678
	셋째 <sup>R</sup>	-0.427*	0.202	4.478	0.652
	넷째 이상 <sup>R</sup>	-2.146***	0.594	13.043	0.117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83	0.332	0.062	1.086
	대도시 <sup>D</sup>	0.047	0.334	0.019	1.048
로그가구소득7		1.256***	0.183	47.305	3.510
부모학력7		-0.023	0.076	0.093	0.977
모 취·학업 유무7		-0.219	0.130	2.819	0.803
부 취·학업 유무7		-0.367	0.314	1.370	0.693
부모 우울7		0.025	0.133	0.035	1.025
부부갈등7		0.126	0.109	1.356	1.135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48	0.153	0.098	1.049

주: 1) [참조집단] 종속변수: 사교육 무경험 집단,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둘째,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8〉에 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 관련 사교육 경험 및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355, p<0.05$ ;  $b=-0.601, p<.001$ ). 그리고 출생순위가 셋째 및 넷째 이상 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98, p<0.01$ ;  $b=-2.082, p<.01$ ).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무경험보다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경 험 및 예체능·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b=0.835, p<0.001$ ;  $b=0.924, p<0.001$ ;  $b=1.612, p<0.001$ ). 그러나 거주지역 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학력,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8〉 사교육 경험 유형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b	S.E.	b	S.E.	b	S.E.	
상수항		-5.757***	1.488	-4.765**	1.452	-8.994***	1.341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355*	0.172	-0.158	0.170	-0.601***	0.152
	셋째 <sup>R</sup>	-0.466	0.277	-0.018	0.252	-0.698**	0.243
	넷째 이상 <sup>R</sup>	-1.123	0.673	-26.838	227260.25	-2.082**	0.790

영향 요인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b	S.E.	b	S.E.	b	S.E.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284	0.508	-0.02	0.440	-0.344	0.388
	대도시 <sup>D</sup>	0.442	0.510	-0.126	0.444	-0.252	0.391
로그가구소득 <sup>7</sup>		0.835***	0.238	0.924***	0.233	1.612***	0.214
부모학력 <sup>7</sup>		0.117	0.100	-0.229*	0.098	0.041	0.088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062	0.172	-0.097	0.168	-0.297	0.152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527	0.378	-0.245	0.386	-0.076	0.384
부모 우울 <sup>7</sup>		0.007	0.176	-0.055	0.170	0.088	0.156
부부갈등 <sup>7</sup>		0.17	0.143	0.168	0.139	0.042	0.127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65	0.203	0.134	0.198	-0.043	0.179

주: 1) [참조집단] † : 사교육 무경험 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9>에서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 및 넷째 이상인 아동보다 첫째인 아동이 0개보다 1~2개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61$ ,  $p<0.05$ ;  $b=-1.774$ ,  $p<0.05$ ).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개보다 1~2개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b=0.833$ ,  $p<0.001$ ;  $b=1.342$ ,  $p<0.001$ ),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0개보다 3개 이상의 학습 관련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0.196$ ,  $p<0.05$ ).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9>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영향 요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	
		b	S.E.	b	S.E.
상수항		-4.582***	1.097	-7.725***	1.440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261*	0.126	-0.315	0.162
	셋째 <sup>R</sup>	-0.168	0.198	-0.343	0.265
	넷째 이상 <sup>R</sup>	-1.774*	0.766	-26.283	226817.36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303	0.335	-0.338	0.444
	대도시 <sup>D</sup>	-0.398	0.338	-0.290	0.446
로그가구소득 <sup>7</sup>		0.833***	0.175	1.342***	0.225
부모학력 <sup>7</sup>		-0.078	0.074	-0.196*	0.095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179	0.126	-0.219	0.163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145	0.306	-0.067	0.387
부모 우울 <sup>7</sup>		-0.053	0.130	0.200	0.167

영향 요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	
	b	S.E.	b	S.E.
부부갈등 <sup>7</sup>	0.042	0.105	-0.034	0.137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86	0.149	-0.009	0.193

주: 1) [참조집단] + :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0개 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넷째,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IV-3-10>에서와 같이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14.756, p<0.001$ ;  $b=1.408, p<.05$ ). 그러나 출생순위, 거주지역, 그리고 부 및 모 취·학업 유무, 부모 우울, 부부갈등,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따라서는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표 IV-3-10>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

독립변수		b	S.E.	$\beta$	t	$R^2$	$\Delta R^2$		
상수항		-74.681	8.606	-	-8.678***	.124***	.124***		
출생순위	둘째 <sup>R</sup>	-1.538	1.064	-0.044	-1.445				
	셋째 <sup>R</sup>	-2.131	1.729	-0.038	-1.232				
	넷째 이상 <sup>R</sup>	2.875	8.154	0.010	0.353				
거주지역	중소도시 <sup>D</sup>	-3.679	2.950	-0.107	-1.247				
	대도시 <sup>D</sup>	-2.279	2.972	-0.066	-0.767				
로그가구소득 <sup>7</sup>		14.756	1.453	0.334	10.155***				
부모학력 <sup>7</sup>		1.408	0.620	0.071	2.270*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1.832	1.066	-0.053	-1.718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412	2.514	0.005	0.164				
상수항		-81.709	9.643	-	-8.473***			.126***	.002
출생순위	둘째 <sup>R</sup>	-1.562	1.067	-0.045	-1.464				
	셋째 <sup>R</sup>	-2.092	1.731	-0.037	-1.208				
	넷째 이상 <sup>R</sup>	3.865	8.203	0.014	0.471				
거주지역	중소도시 <sup>D</sup>	-3.602	2.955	-0.104	-1.219				
	대도시 <sup>D</sup>	-2.190	2.975	-0.063	-0.736				
로그가구소득 <sup>7</sup>		15.093	1.474	0.341	10.239***				
부모학력 <sup>7</sup>		1.536	0.627	0.077	2.447*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1.872	1.070	-0.054	-1.750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506	2.520	0.006	0.201				
부모 우울 <sup>7</sup>		-0.217	1.098	-0.008	-0.198				
부부갈등 <sup>7</sup>		0.515	0.897	0.022	0.574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1.399	1.282	0.041	1.091				

주: 1) [참조집단] R : 출생순위 첫째, D :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아동 특성에 대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들 분석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외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사교육이 질적인 변수인 경우,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할 수도 있다(Angrist, J. D. & Pischke, J-S., 2017; 손호성·이재훈, 2018; Card & Krueger, 1994). 이중차분법은 이질 집단 전후검사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서 종속변수의 변화점수가 이질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의 평균을 비교함에 있어서 1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기타 가외변수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면 1차 시점 종속변수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외변수를 회귀모형에 동시에 투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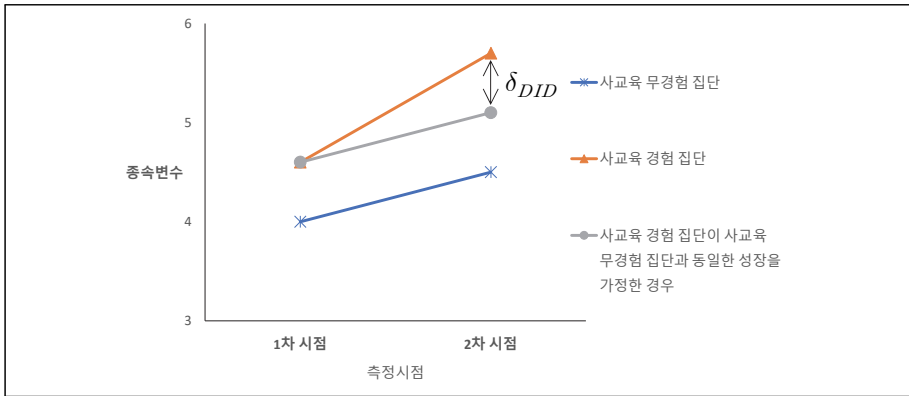
$$Y_{dt} = \alpha + \beta T_d + \gamma P_t + \delta_{DID} T_d \times P_t + f(X) + \epsilon_{dt}$$

[단,  $Y_{dt}$  : 종속변수,  $T_d$  : 사교육 경험 유무의 더미변수(경험 유 vs 경험 무),  $P_t$  : 측정시점의 더미변수(1차년도 vs 2차년도),  $T_d \times P_t$  :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와 측정시점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  $\delta_{DID}$  : 이중차분 추정값,  $f(X)$  : 기타 가외변수]

위 식에서  $\delta_{DID}$ 는 측정시점에 따른 평균 변화값을 사교육 경험 유무별로 구한 다음, 이들 값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이중차분 추정값(DID estimator)’이다. 이중

차분 추정값은 1차 시점 종속변수와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IV-3-1]은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를 도식화하여 예시한 것이다. 이중차분 추정값( $\delta_{DID}$ )은 1차 시점 종속변수와 기타 가외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림 IV-3-1] 이중차분 추정값의 의미 예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다면, 1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 경험 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변수’ 등 3가지 변수를 차례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변수’는 사교육 경험 유형 변수를 변경한 것으로써 사교육 무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 중에서 사교육 무경험 유형과 예체능 사교육 경험 유형을 0, 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과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유형을 1로 코딩변경한 이분변수이다. 한편,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변수’는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변수를 변경한 것으로써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1~2개인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3개 이상인 유형 중에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유형과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1~2개인 유형을 0,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3개 이상인 유형을 1로 코딩변경한 이분변수이다. 이중차분법 적용과정에서 결측값 처리는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만 결측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는 pairwise dele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학업수행능력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학업수행능력을 이용하였다. <표 IV-3-11>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학업수행능력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18, p>.05$ ;  $b=0.042, p>.05$ ;  $b=0.049, p>.05$ ). 이는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1>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F</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52	0.051	0.063	0.046	0.055	0.059	
학년	-0.526***	0.050	-0.532***	0.045	-0.516***	0.058	
사교육 경험×학년	-0.018	0.100	0.042	0.090	0.049	0.116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59	0.047	-0.057	0.047	-0.061	0.047
	셋째 <sup>R</sup>	-0.13	0.074	-0.129	0.074	-0.132	0.074
	넷째 이상 <sup>R</sup>	-0.814***	0.228	-0.811***	0.228	-0.826***	0.228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3	0.125	-0.026	0.125	-0.028	0.125
	대도시 <sup>D</sup>	-0.143	0.126	-0.139	0.126	-0.143	0.126
로그가구소득 <sup>7</sup>	0.061	0.064	0.064	0.063	0.070	0.063	
부모학력 <sup>7</sup>	0.094***	0.029	0.095***	0.029	0.094**	0.029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004	0.046	-0.007	0.046	-0.007	0.046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124	0.112	0.124	0.112	0.122	0.112	
부모 우울 <sup>7</sup>	-0.054	0.048	-0.053	0.048	-0.054	0.048	
부부갈등 <sup>7</sup>	-0.081*	0.039	-0.079*	0.039	-0.079*	0.039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23	0.056	0.022	0.056	0.020	0.056
지능지수 <sup>9</sup>	0.029***	0.002	0.029***	0.002	0.029***	0.002
<i>R</i> <sup>2</sup>	.298***		.298***		.298***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11차년도 삶의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표 IV-3-12>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40, p>.05$ ;  $b=0.011, p>.05$ ;  $b=0.018, p>.05$ ). 이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16	0.024	-0.041	0.022	0.018	0.029	
학년	-0.520***	0.024	-0.512***	0.021	-0.505***	0.029	
사교육 경험×학년	0.040	0.047	0.011	0.043	0.018	0.058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26	0.023	-0.028	0.023	-0.024	0.023
	셋째 <sup>R</sup>	-0.073*	0.037	-0.075*	0.037	-0.071	0.037
	넷째 이상 <sup>R</sup>	-0.495***	0.115	-0.505***	0.115	-0.486***	0.114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08	0.061	-0.011	0.061	-0.009	0.061
	대도시 <sup>D</sup>	0.037	0.061	0.034	0.061	0.036	0.061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F</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로그가구조속7	0.010	0.032	0.014	0.032	0.004	0.031
부모학력7	-0.031*	0.014	-0.032*	0.014	-0.031*	0.014
모 취·학업 유무7	-0.007	0.023	-0.008	0.023	-0.007	0.023
부 취·학업 유무7	0.114*	0.055	0.114*	0.055	0.115*	0.055
부모 우울7	-0.05*	0.023	-0.05*	0.023	-0.051*	0.023
부부갈등7	-0.03	0.019	-0.03	0.019	-0.030	0.019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39	0.027	-0.039	0.027	-0.039	0.027
지능지수9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R^2$	0.218***		0.218***		0.217***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차년도 자아존중감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자아존중감을 이용하였다. <표 IV-3-13>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27, p>.05$ ;  $b=-0.034, p>.05$ ;  $b=-0.018, p>.05$ ). 이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3차년도 집행기능곤란을 2차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차 시점에서의 변수로는 8차년도 집행기능곤란을 이용하였다. <표 IV-3-14>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1차 시점에서의 집행기능곤란 및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등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교육 유형별로 구한 집행기능곤란의 변화값의 차이(즉, 이중차분 추정값)를 의미하는 ‘사교육 경험×학년’의 효과는 3가지 사교육 경험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02, p>.05$ ;  $b=0.028, p>.05$ ;  $b=0.016, p>.05$ ). 이는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02	0.023	-0.009	0.021	0.038	0.027	
학년	-0.247***	0.023	-0.251***	0.020	-0.258***	0.027	
사교육 경험×학년	-0.027	0.045	-0.034	0.041	-0.018	0.054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34	0.022	-0.035	0.022	-0.034	0.022
	셋째 <sup>R</sup>	-0.042	0.035	-0.043	0.034	-0.041	0.034
	넷째 이상 <sup>R</sup>	-0.162	0.105	-0.166	0.104	-0.159	0.104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23	0.058	-0.023	0.058	-0.023	0.058
	대도시 <sup>D</sup>	0.008	0.058	0.008	0.058	0.008	0.058
로그가구소득 <sup>7</sup>	0.027	0.030	0.029	0.030	0.024	0.030	
부모학력 <sup>7</sup>	0.006	0.013	0.006	0.013	0.007	0.013	
모 취·학업 유무 <sup>7</sup>	-0.006	0.022	-0.006	0.022	-0.006	0.022	
부 취·학업 유무 <sup>7</sup>	0.004	0.052	0.004	0.052	0.005	0.052	
부모 우울 <sup>7</sup>	-0.023	0.022	-0.023	0.022	-0.025	0.022	
부부갈등 <sup>7</sup>	-0.016	0.018	-0.016	0.018	-0.015	0.018	
부모 양육스트레스 <sup>7</sup>	-0.064*	0.026	-0.065*	0.026	-0.065*	0.026	
지능지수 <sup>9</sup>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R^2$	0.079***		0.080***		0.080***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14〉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이중차분법에 의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 <sup>E,T,L</sup>	0.006	0.014	0.021	0.012	0.006	0.016
학년	0.063***	0.014	0.063***	0.012	0.069***	0.016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형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sup>T</sup>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sup>L</sup>		
	b	SE	b	SE	b	SE	
사교육 경험×학년	0.002	0.027	0.028	0.025	0.016	0.033	
출생 순위	둘째 <sup>R</sup>	-0.019	0.013	-0.018	0.013	-0.019	0.013
	셋째 <sup>R</sup>	-0.026	0.021	-0.025	0.021	-0.027	0.021
	넷째 이상 <sup>R</sup>	0.026	0.064	0.032	0.063	0.024	0.063
거주 지역	중소도시 <sup>D</sup>	0.02	0.034	0.021	0.034	0.02	0.034
	대도시 <sup>D</sup>	-0.005	0.034	-0.004	0.034	-0.005	0.034
로그가구소득7	-0.061***	0.018	-0.064***	0.018	-0.061***	0.018	
부모학력7	-0.011	0.008	-0.011	0.008	-0.011	0.008	
모 취·학업 유무7	0.039**	0.013	0.039**	0.013	0.038**	0.013	
부 취·학업 유무7	0.053	0.031	0.052	0.031	0.053	0.031	
부모 우울7	0.032*	0.014	0.031*	0.014	0.031*	0.014	
부부갈등7	0.013	0.011	0.013	0.011	0.013	0.011	
부모 양육스트레스7	0.087***	0.016	0.087***	0.016	0.086***	0.016	
지능지수9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i>R</i> <sup>2</sup>	0.077***		0.078***		0.077***		

주: 1)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T: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무,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2개 이하, R: 출생순위 첫째, D: 거주지역 읍면지역  
 2) 변수 뒤 숫자: 조사차년도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15>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15>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 유무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가지 이상 여부
학습수행능력(w8 vs w14)	×	×	×
삶의 만족도(w11 vs w14)	×	×	×
자아존중감(w8 vs w14)	×	×	×
집행기능곤란(w8 vs w13)	×	×	×

주: 1) vs 앞은 1차 시점, 뒤는 2차 시점을 의미함.  
 2) ×는 효과 없음을 의미함.

##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에

서의 변화율(rates of change)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활용하였다(Muthen, & Muthen, 2017). 학업수행능력,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등의 종속변수의 개인별 변화율의 전체 분산 중에서 사교육 경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면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개인별 변화양상은 초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성장모형(no growth modeling), 직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선형적 성장모형(linear growth modeling), 이차곡선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이차곡선 성장모형(quadratic growth modeling) 등으로 구분된다. 무변화 성장모형에서는 초깃값만 추정되며, 선형적 성장모형에서는 초깃값과 변화율이 동시에 추정된다. 변화율은 종속변수가 1단위 기간 동안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이차곡선 성장모형에서는 초깃값을 나타내는 상수와, time이 0인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의 순간변화율을 의미하는 일차항 계수와, 종속변수의 순간가속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차항 계수가 동시에 추정된다. 순간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과 관련한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개인별 변화양상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요인들(growth factors)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을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사교육 무경험, 예체능 사교육 경험, 학습 사교육 경험,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0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1~2개,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 3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에서도 부모 변수와 개인 능력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모수값이 수렴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면 사교육 경험이 ‘개인별 변화’를 설명해 주는지 검증할 수 있으므로 통제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 적용 과정에서 결측값 처리는 각 변수의 결측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missing at random: MAT)는 가정 하에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



〈표 IV-3-16〉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4.189***	0.020	4.246***	0.025	4.166***	0.028
일차항, $\beta_{10}$			-0.023***	0.005	0.099***	0.016
이차항, $\beta_{20}$					-0.023***	0.003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365***	0.019	0.426***	0.030	0.485***	0.042
일차항(S) 분산, $\tau_{11}$			0.005***	0.001	0.018	0.01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17***	0.005	-0.063**	0.021
I, Q간 공분산, $\tau_{02}$					0.008*	0.003
S, Q간 공분산, $\tau_{23}$					-0.002	0.002
$\chi^2(df)$	258.692(26)		221.919(23)		141.982(19)	
CFI	0.856		0.877		0.924	
TLI	0.884		0.888		0.916	
RMSEA	0.090		0.088		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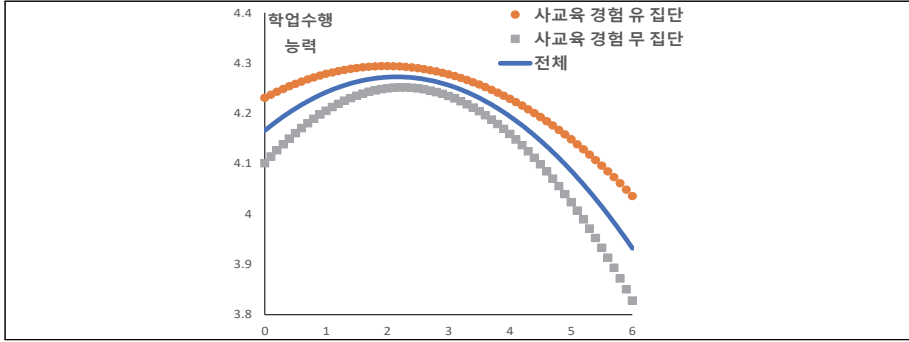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첫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8~w14 총 7번 반복측정) 7년 동안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6〉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7〉에서와 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은 더 높았다( $b=0.130$ ,  $p<.05$ ). 그리고,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의 순간 변화율이 더 높았고( $b=-0.071$ ,  $p<.05$ ),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업수행능력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14$ ,  $p<.05$ ).

이는 [그림 IV-3-2]와 같이, w8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학업수행능력이 더 높았고, w8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순간속도가 더 컸지만(순간변화율),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수행능력이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사교육 경험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

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IV-3-2]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궤적 평균



한편,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예체능·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학업수행능력의 순간변화율이 더 높고( $b=-0.092, p<.05$ ), ‘예체능·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학업수행능력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018, p<.05$ ).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17>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4.073*** 0.052	4.086*** 0.053		4.126*** 0.041	
	일차항, $\beta_{10}$	0.149*** 0.029	0.134*** 0.030		0.134*** 0.023	
	이차항, $\beta_{20}$	-0.033*** 0.005	-0.031*** 0.005		-0.030*** 0.004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130* 0.061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96 0.081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38 0.081			
	예체능·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166* 0.072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A</sup> , $\beta_{05}$				0.059 0.061	
	3개 이상 <sup>B</sup> , $\beta_{06}$				0.113 0.078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71* 0.035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00 0.046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27 0.046			
	$YEAR \times$ 예체능·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92* 0.041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YEAR \times 1\sim 2개^{\ddagger}, \beta_{15}$					-0.061	0.035
$YEAR \times 3개 이상^{\ddagger}, \beta_{16}$					-0.079	0.045
$YEAR^2 \times 사교육 경험^{\ddagger}, \beta_{21}$	0.014*	0.006				
$YEAR^2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ddagger}, \beta_{22}$			0.001	0.008		
$YEAR^2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ddagger}, \beta_{23}$			0.006	0.008		
$YEAR^2 \times 예체능 \cdot 학습 사교육 경험^{\ddagger}, \beta_{24}$			0.018**	0.007		
$YEAR^2 \times 1\sim 2개^{\ddagger}, \beta_{25}$					0.013*	0.006
$YEAR^2 \times 3개 이상^{\ddagger}, \beta_{26}$					0.015	0.008
무선희과						
상수(I) 분산, $\tau_{00}$	0.480***	0.042	0.480***	0.042	0.482***	0.042
일차항(S) 분산, $\tau_{11}$	0.018	0.015	0.018	0.015	0.019	0.01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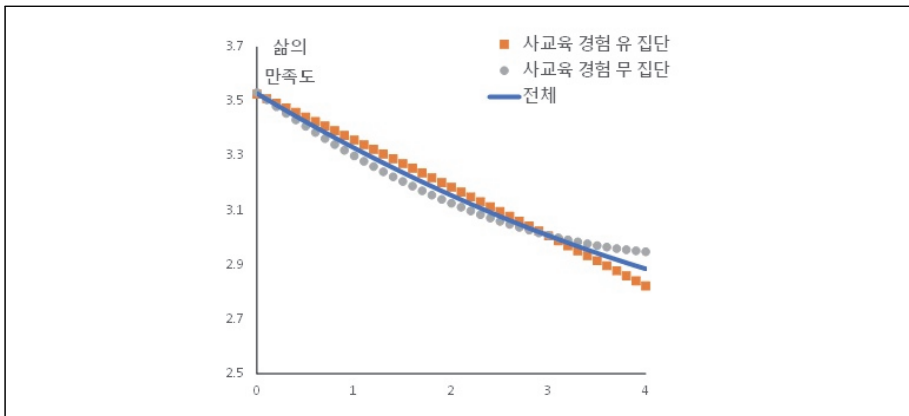
둘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1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11~w14 총 4번 반복측정) 4년 동안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8>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19>에서와 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 이 0인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순간변화율이 더 높았고( $b=0.094, p<.05$ ),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삶의 만족도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31, p<.05$ ). 이는 [그림 IV-3-3]과 같이, w11 시점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의 순간속도가 더 컸지만(순간변화율),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교육 경험의 부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표 IV-3-18〉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274***	0.013	3.520***	0.014	3.529***	0.015
일차항, $\beta_{10}$			-0.175***	0.006	-0.213***	0.020
이차항, $\beta_{20}$					0.013*	0.006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100***	0.007	0.117***	0.010	0.185***	0.026
일차항(S) 분산, $\tau_{11}$			0.016***	0.002	0.168***	0.034
이차항(Q) 분산, $\tau_{22}$					0.012***	0.003
I, S간 공분산, $\tau_{01}$			-0.014***	0.004	-0.098***	0.029
I, Q간 공분산, $\tau_{02}$					0.021**	0.007
S, Q간 공분산, $\tau_{23}$					-0.043***	0.009
$\chi^2 (df)$	862.668(8)		33.796(5)		4.666(1)	
CFI	0.000		0.963		0.995	
TLI	0.179		0.956		0.972	
RMSEA	0.311		0.072		0.058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IV-3-3〉 사교육 경험 유무 집단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 평균



한편,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time이 0인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순간 변화율이 더 높았다( $b=0.133, p<.05$ ;  $b=0.147, p<.05$ ). 그리고,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예체능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습 관련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삶의 만족도의 순간가속도가 더 높았다( $b=-.038, p<.05; b=-.056, p<.05$ ).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19〉 삶의 만족도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534***	0.028	3.544***	0.028	3.534***	0.022	
일차항, $\beta_{10}$	-0.284***	0.037	-0.292***	0.038	-0.237***	0.029	
이차항, $\beta_{20}$	0.055*	0.025	0.039***	0.012	0.023*	0.009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beta_{01}$	-0.005	0.033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02}$		-0.024	0.044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03}$		0.000	0.043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04}$		-0.027	0.038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L</sup>	$\beta_{05}$			-0.023	0.032	
	3개 이상 <sup>L</sup>	$\beta_{06}$			0.028	0.042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beta_{11}$	0.094*	0.044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12}$		0.133*	0.058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13}$		0.147**	0.057		
	$YEAR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14}$		0.058	0.051		
	$YEAR \times$ 1~2개 <sup>L</sup>	$\beta_{15}$			0.073	0.043	
	$YEAR \times$ 3개 이상 <sup>L</sup>	$\beta_{16}$			-0.044	0.056	
	$YEAR^2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beta_{21}$	-0.031*	0.014			
	$YEAR^2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22}$		-0.038*	0.018		
	$YEAR^2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23}$		-0.056**	0.018		
	$YEAR^2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beta_{24}$		-0.017	0.016		
	$YEAR^2 \times$ 1~2개 <sup>L</sup>	$\beta_{25}$			-0.027*	0.014	
	$YEAR^2 \times$ 3개 이상 <sup>L</sup>	$\beta_{26}$			0.009	0.018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179***	0.026	0.179***	0.026	0.177***	0.026	
일차항(S) 분산, $\tau_{11}$	0.160***	0.035	0.159***	0.035	0.158***	0.035	
이차항(Q) 분산, $\tau_{22}$	0.012***	0.003	0.012***	0.003	0.012***	0.003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4차년도까지(w8~w11, w13~14 총 6번 반복측정) 7년 동안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0>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이차곡선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차곡선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상수와 일차항 계수 및 이차항 계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1>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0>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435***	0.009	3.53***	0.012	3.431***	0.014
일차항, $\beta_{10}$			-0.043***	0.003	0.069***	0.010
이차항, $\beta_{20}$					-0.018***	0.001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66***	0.004	0.084***	0.007	0.104***	0.011
일차항(S) 분산, $\tau_{11}$			0.005***	0.001	0.034***	0.00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1***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10***	0.002	-0.031***	0.007
I, Q간 공분산, $\tau_{02}$					0.003***	0.001
S, Q간 공분산, $\tau_{23}$					-0.005***	0.001
$\chi^2(df)$	635.253(19)		271.244(16)		31.032(12)	
CFI	0.467		0.779		0.984	
TLI	0.579		0.793		0.979	
RMSEA	0.171		0.120		0.038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1> 자아존중감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3.421***	0.026	3.429***	0.027	3.44***	0.020
일차항, $\beta_{10}$	0.071***	0.018	0.068***	0.018	0.077***	0.014
이차항, $\beta_{20}$	-0.018***	0.003	-0.018***	0.003	-0.02***	0.002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015	0.031					
사교육 경험 유형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27	0.041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36	0.041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014	0.036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L</sup> , $\beta_{05}$				-0.025	0.031	
	3개 이상 <sup>L</sup> , $\beta_{06}$				0.003	0.039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02	0.021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20	0.029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21	0.028			
	$YEAR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22	0.025			
	$YEAR \times$ 1~2개 <sup>L</sup> , $\beta_{15}$				-0.021	0.021	
	$YEAR \times$ 3개 이상 <sup>L</sup> , $\beta_{16}$				0.001	0.027	
	$YEAR^2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21}$	0.000	0.003				
	$YEAR^2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2}$		-0.004	0.004			
	$YEAR^2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3}$		-0.003	0.004			
	$YEAR^2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24}$		0.003	0.004			
	$YEAR^2 \times$ 1~2개 <sup>L</sup> , $\beta_{25}$				0.003	0.003	
	$YEAR^2 \times$ 3개 이상 <sup>L</sup> , $\beta_{26}$				0.000	0.004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105***	0.011	0.104***	0.011	0.105***	0.011
	일차항(S) 분산, $\tau_{11}$	0.035***	0.005	0.035***	0.005	0.035***	0.005
	이차항(Q) 분산, $\tau_{22}$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sup>\*</sup>  $p < .05$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넷째,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차년도에서 13차년도까지(w8~w11, w13 총 5번 반복측정) 6년 동안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2>에서와 같이, 이차항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하지 않아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선형적 성장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형적 성장모형을 토대로 사교육 경험이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초깃값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V-3-23>에서와 같이,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2〉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무변화 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이차곡선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1.457***	0.008	1.447***	0.009	1.448***	0.009
일차항, $\beta_{10}$			0.007***	0.002	0.004	0.006
이차항, $\beta_{20}$					0.000	0.001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62***	0.003	0.078***	0.004	0.063***	0.004
일차항(S) 분산, $\tau_{11}$			0.001***	0.000	0.007***	0.002
이차항(Q) 분산, $\tau_{22}$					0.000	0.000
I, S간 공분산, $\tau_{01}$			-0.006***	0.001	0.007**	0.002
I, Q간 공분산, $\tau_{02}$					-0.003***	0.000
S, Q간 공분산, $\tau_{23}$					-0.001***	0.000
$\chi^2(df)$	407.688(13)		316.744(10)		101.502(6)	
CFI	0.850		0.883		0.964	
TLI	0.884		0.883		0.939	
RMSEA	0.166		0.166		0.12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3〉 집행기능곤란의 개인별 변화양상에 대한 사교육 경험의 영향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상수, $\beta_{00}$	1.451***	0.018	1.444***	0.018	1.446***	0.014
일차항, $\beta_{10}$	0.005	0.004	0.006	0.004	0.007*	0.003
사교육 경험 유무 <sup>E</sup> , $\beta_{01}$	-0.004	0.021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2}$			0.003	0.028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3}$			-0.007	0.028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04}$			0.012	0.024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1~2개 <sup>H</sup> , $\beta_{05}$					0.008	0.021
3개 이상 <sup>H</sup> , $\beta_{06}$					-0.005	0.027
$YEAR \times$ 사교육 경험 <sup>E</sup> , $\beta_{11}$	0.003	0.005				
$YEAR \times$ 예체능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2}$			0.004	0.006		
$YEAR \times$ 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3}$			-0.001	0.006		
$YEAR \times$ 예체능·학습 사교육 경험 <sup>T</sup> , $\beta_{14}$			0.001	0.005		
$YEAR \times$ 1~2개 <sup>H</sup> , $\beta_{15}$					-0.001	0.005
$YEAR \times$ 3개 이상 <sup>H</sup> , $\beta_{16}$					-0.002	0.006



독립변수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무선효과	상수(I) 분산, $\tau_{00}$	0.078*** 0.004	0.078*** 0.004	0.078*** 0.004	0.078*** 0.004	
	일차항(S) 분산, $\tau_{11}$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주: [참조집단] E: 사교육 경험 무 집단, T: 사교육 경험 없는 집단, L: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개수가 0개인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3-24〉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3-24〉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효과 주요 결과

	사교육 경험 유무	사교육 경험 유형	학습 관련 사교육 참여 수준
학습수행능력(w8~w14)	○	△	△
삶의 만족도(w11~w14)	△	△	×
자아존중감(w8~w11, w13~w14)	×	×	×
집행기능곤란(w8~w11, w13)	×	×	×

주: ○은 효과 있음, △는 일부 효과 있음, ×는 효과 없음을 의미함.

## 4.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 가. 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분포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는 〈표 IV-4-1〉과 같다. 전체 학원 대비 유아 대상 학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2%이며, 그 다음은 대전으로 19%이다. 수도권, 광역시, 제주도는 10%를 넘는다. 한편, 유아 인구 1만 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수는 부산이 8.8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8.5곳, 울산이 7.9곳이다.

〈표 IV-4-1〉 시도별 유아 대상 학원 수

시도명	유아 대상 학원 수 (A)	학습 사교육기관 수 (B)	유아 인구 수 (C)	유아 대상 학원 밀도	
				학원 총수 대비 (A/B)	유아 만 명당 (A/C) x 1만
전국	956	8,761	2,033,033	11%	4.7
서울특별시	271	1,225	318,405	22%	8.5
부산광역시	103	795	116,709	13%	8.8
대구광역시	58	430	89,858	13%	6.5
인천광역시	45	353	124,948	13%	3.6

시도명	유아 대상 학원 수 (A)	학습 사교육기관 수 (B)	유아 인구 수 (C)	유아 대상 학원 밀도	
				학원 총수 대비 (A/B)	유아 만 명당 (A/C) x 1만
광주광역시	17	127	60,077	13%	2.8
대전광역시	29	152	59,656	19%	4.9
울산광역시	37	380	46,877	10%	7.9
세종특별자치시	12	206	26,666	6%	4.5
경기도	241	2126	608,742	11%	4.0
강원특별자치도	12	235	56,989	5%	2.1
충청북도	11	311	63,605	4%	1.7
충청남도	22	444	87,571	5%	2.5
전북특별자치도	11	468	60,714	2%	1.8
전라남도	9	359	65,893	3%	1.4
경상북도	7	387	91,534	2%	0.8
경상남도	54	588	123,956	9%	4.4
제주특별자치도	17	175	30,833	10%	5.5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24).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

### 1) 사교육기관의 지역분포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아 사교육기관은 특광역시와 지방의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한다(그림 IV-4-2). 구별로 평균 35개소가 있으며, 유아 사교육기관이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주시 덕진구, 울산 남구, 천안 서북구, 전주시 완산구의 순서이다. 가장 많은 곳은 277개에 이르며, 사교육기관이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등 16곳이 있다.

Hot Spot 지역은 서울의 강남3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경기 서부의 고양시 일산동구, 김포시, 파주시, 인천의 남동구와 계양구, 경기 남부의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중부권 지역의 천안시 동남구, 청주시, 세종시, 서남권 지역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동남권 지역의 부산, 울산, 양산시, 제주도를 포함한다. 한편, Cold Spot은 강원도와 경북 산간 및 내륙지역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산간지역에서 나타난다.

## 2)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도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는데(그림 IV-4-3), 구별로 평균 3.8개 기관이 있다. 서울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동래구, 대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화성시, 경남 김해시가 상위 10개 시군구인데, 가장 많은 강남구는 36개소가 있으며 상위 10개구에는 평균 25개소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있어 전국 평균 대비 6.5배 이상 많다.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한다.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Hot Spot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은 은평구와 강북구 등 7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경기도는 서부 및 남부의 대부분의 시군구에 외국어학원이 많으며, 부산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구 지역과 인근의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진해구가 hot spot에 포함되며, 대구는 중구와 남구가 외국어학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곳으로 탐지되었다. 대구 수성구(30개소)와 달서구(10개소)는 hot spot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는 인근 시군 지역에 학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이웃하고 있어서 주변에 비해 이례적으로 학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Cold Spot은 8곳인데 충북 괴산군, 음성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청송군으로 해당 시군구와 주변이 모두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거나, 인접한 한 두 개의 시군구 내에 학원이 많아야 1~2개 정도로 적은 수만이 있는 지역이다.

## 3)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유아수가 많은 곳에 다수 분포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 수가 아닌 학원의 밀도 즉,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수를 유아의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IV-4-4). 구별로 유아 1만명당 평균 3.2개소가 있는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서울의 용산구, 중구, 양천구, 강남구와 부산의 중구, 강서구, 동래구, 대구의 수성구, 울산의 남구, 경북의 영양군이며, 이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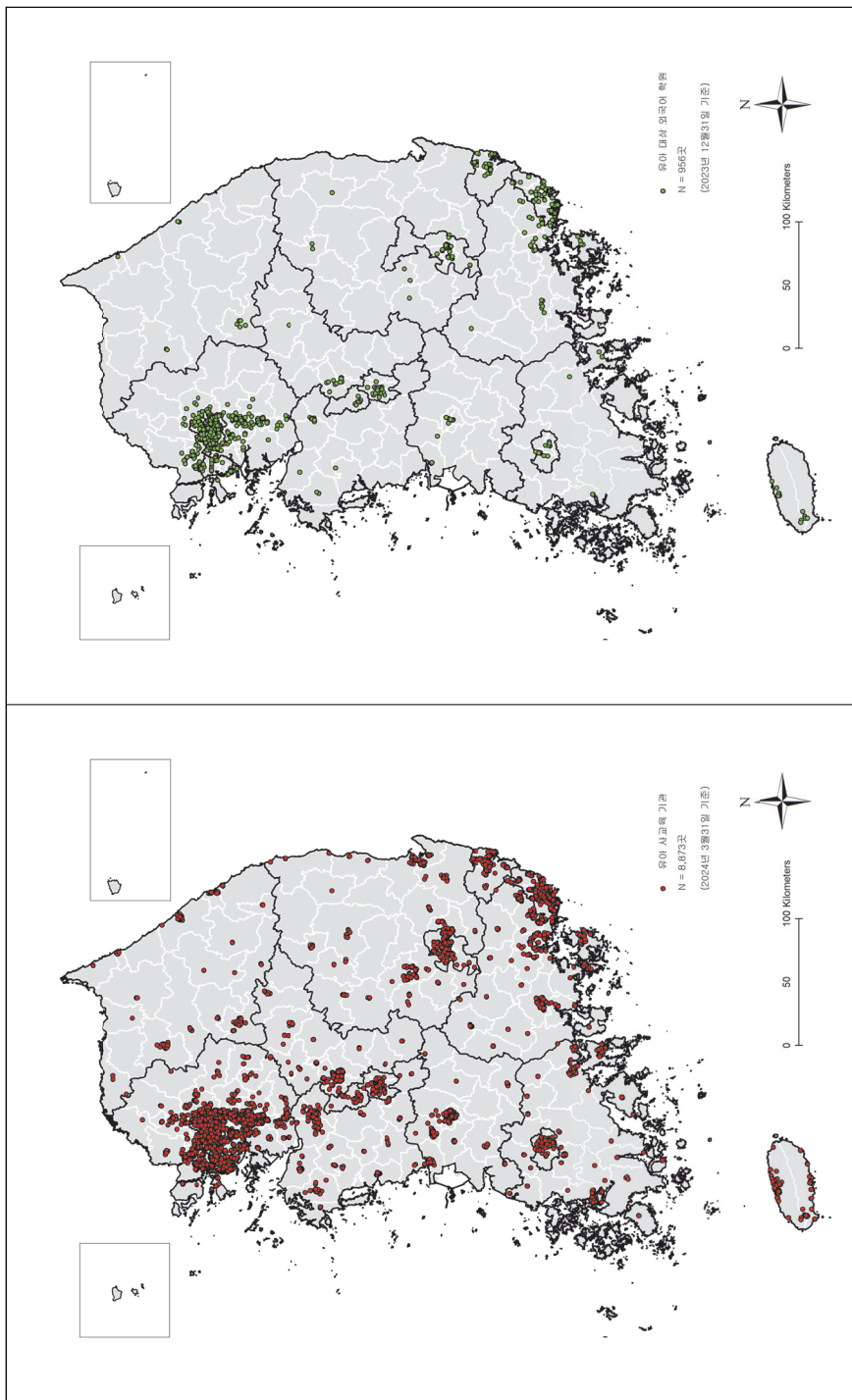
(표 IV-4-2). 그 중 서울 용산구가 가장 많아서 유아 1만명당 38개소가 있다. 한편 경북 영양군과 부산 중구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1곳이지만 그 지역의 유아 인구가 각각 313명, 492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8개의 시군구는 유아 인구비가 3% 이상 되는데 부산 강서구(7.3%)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아 인구비가 3% 대이다. 서울 용산구, 중구는 유아 만명당 밀도가 38개소와 29개소로 높은 편인데 비해 다른 6개 시군구는 16~21개소 정도로 유의미하게 적으며, 또한 전자의 자치구는 학원 총수 대비 밀도가 88%, 65%로 후자의 12~27%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해당 구에 학원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2〉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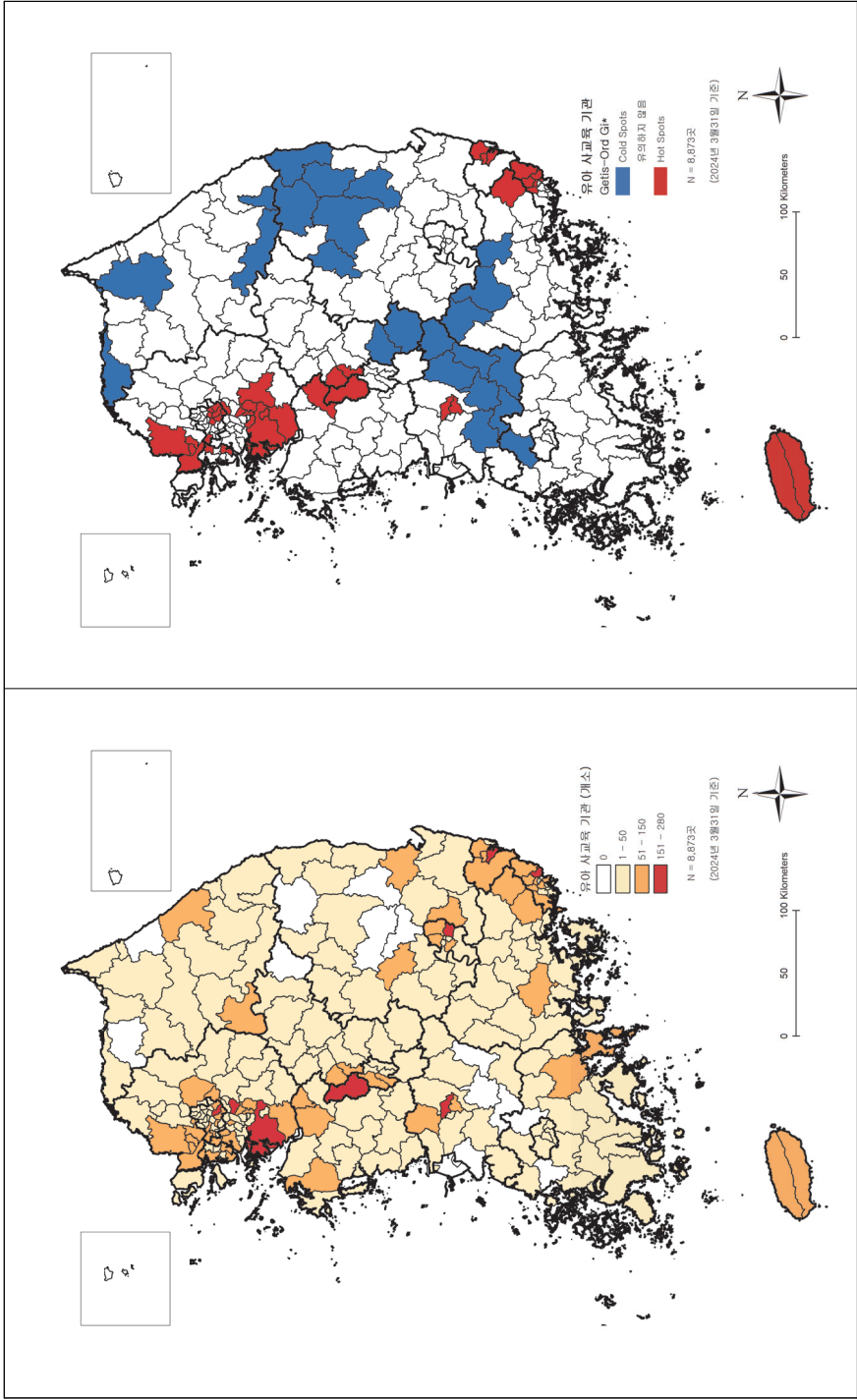
시도명	시군구명	인구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유아 대상 학원 밀도	
		유아인구비	유아	전체		학원 총수 대비	유아 만 명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3.42%	7,290	213,151	28	87.5	38
경상북도	영양군	2.00%	313	15,661	1	100.0	32
서울특별시	중구	3.12%	3,788	121,312	11	64.7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3.44%	14,005	407,331	30	19.1	21
부산광역시	중구	1.27%	492	38,619	1	50.0	20
부산광역시	동래구	3.93%	10,656	270,815	21	20.8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3.47%	18,903	544,873	36	13.0	19
부산광역시	강서구	7.30%	10,399	142,396	19	24.4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3.30%	14,375	436,028	24	27.0	17
울산광역시	남구	3.85%	11,843	307,232	19	12.3	16

Hot Spot 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IV-4-4, 표 IV-4-3). 서울은 10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에 외국어학원 밀도가 높으며, 부산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구 지역과 인근의 창원시 진해구가 hot spot에 포함되었으며, 대구는 중구, 남구, 수성구가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으로 탐지되었다. Cold Spot은 5곳인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이다. 해당 시군구는 외국어학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수가 8곳 이상으로 많지만 그 중 외국어학원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곳의 시군구에만 있는 지역으로 매우 밀도가 낮은 공간 군집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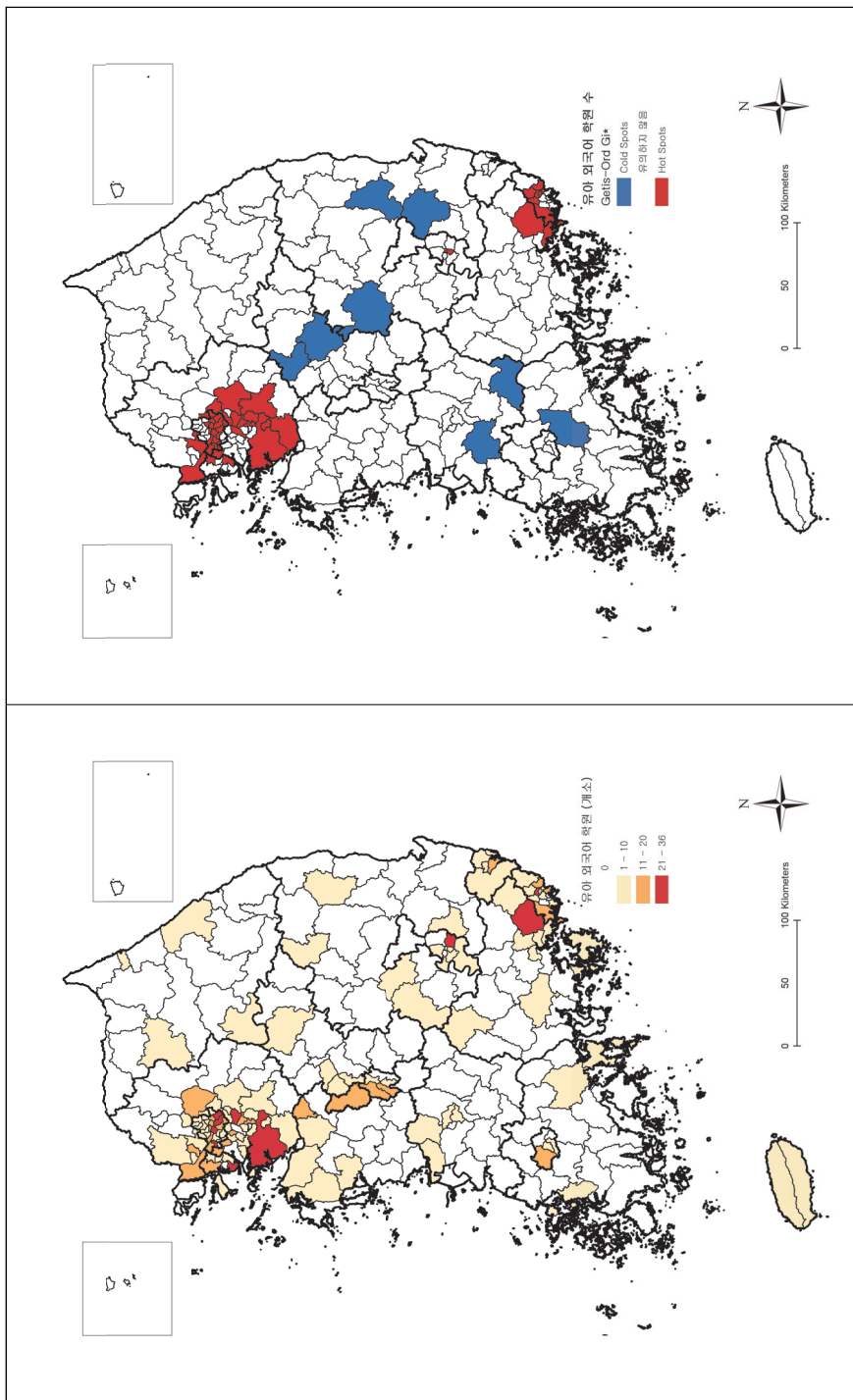
[그림 IV-4-1] 유아 대상 학원의 분포 (좌: 유아 사교육기관, 우: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그림 IV-4-2] 시군구별 유아 사교육기관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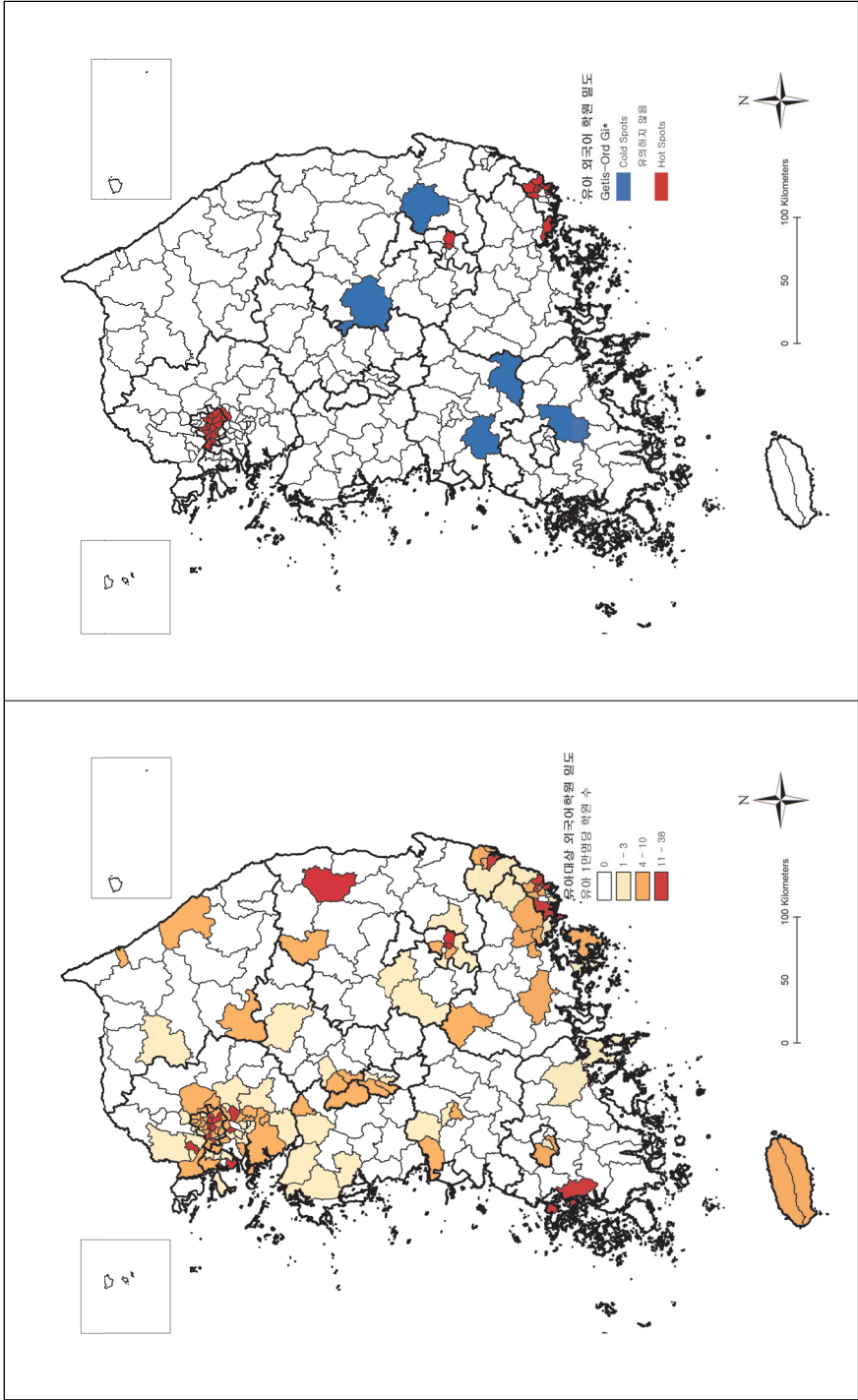


[그림 IV-4-3]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분포 (좌: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그림 IV-4-4]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 (좌: 유아 1만명당 학원 수, 우: Hot and Cold Spots)





〈표 IV-4-3〉 유아 1만명당 학원수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Hot/Cold Spots	시도명	시군구명
Hot Spots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Hot Spots	부산광역시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Hot Spots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Hot Spot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원시 진해구
Cold Spots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경상북도	화순군
		영천시
		상주시

### 나.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지역분포

시도별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는 〈표 IV-4-4〉와 같다. 전국 약 6,600여개 센터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00여 개소로 전체 대비 약 77%에 해당한다. 전체 대비 유아 대상 센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약 95%이며, 그 다음은 경기도로 약 87%이다. 유아 대상 센터의 비율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2/3 이상으로 대다수의 센터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4〉 시도별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

단위: 개소, %

시도명	전체 센터수(A)	유아 치료 여부		유아 치료 센터 비율 (B/A)
		여(B)	부	
전체	6,637	5,114	1,523	77.05
서울특별시	1,499	1,024	475	68.31
부산광역시	309	239	70	77.35
대구광역시	420	347	73	82.62
인천광역시	377	320	57	84.88
광주광역시	243	207	36	85.19
대전광역시	221	175	46	79.19
울산광역시	172	142	30	82.56
세종특별자치시	43	41	2	95.35
경기도	1,172	1,014	158	86.52
강원특별자치도	240	161	79	67.08
충청북도	247	166	81	67.21
충청남도	323	259	64	80.19
전북특별자치도	264	176	88	66.67
전라남도	205	141	64	68.78
경상북도	246	191	55	77.64
경상남도	510	402	108	78.82
제주특별자치도	146	109	37	7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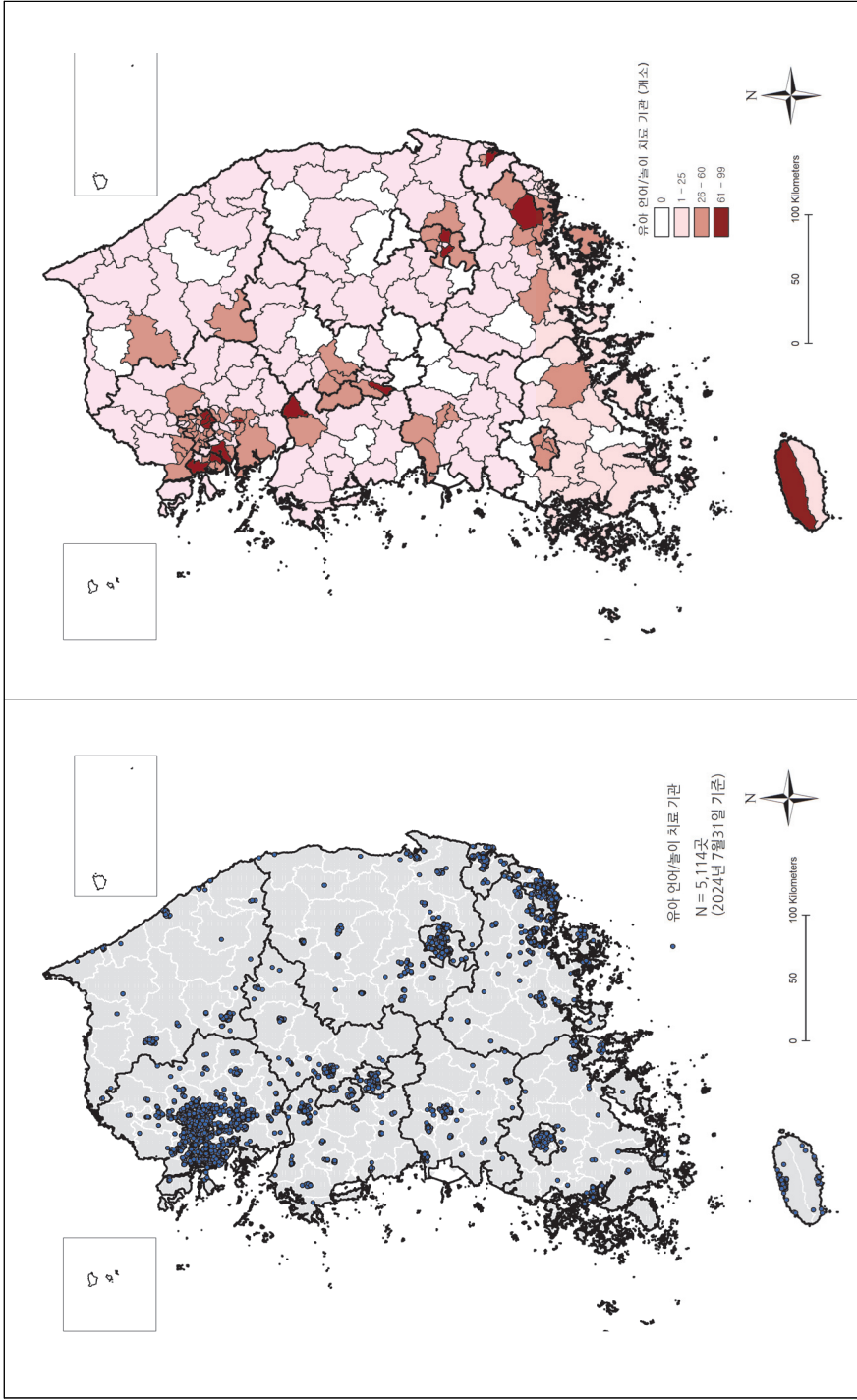
### 1) 시군구별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데(그림 IV-4-5),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다. 유아 상담 및 치료센터가 많은 상위 10곳은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대구 수성구, 제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천 서구, 대구 달서구, 서울 서초구, 경남 김해시, 대전 서구의 순서인데, 유아용 센터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99개가 있으며 상위 10개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약 4배에 해당한다. 한편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24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 내륙 지역, 도서 지역 등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유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이 24곳 중 18곳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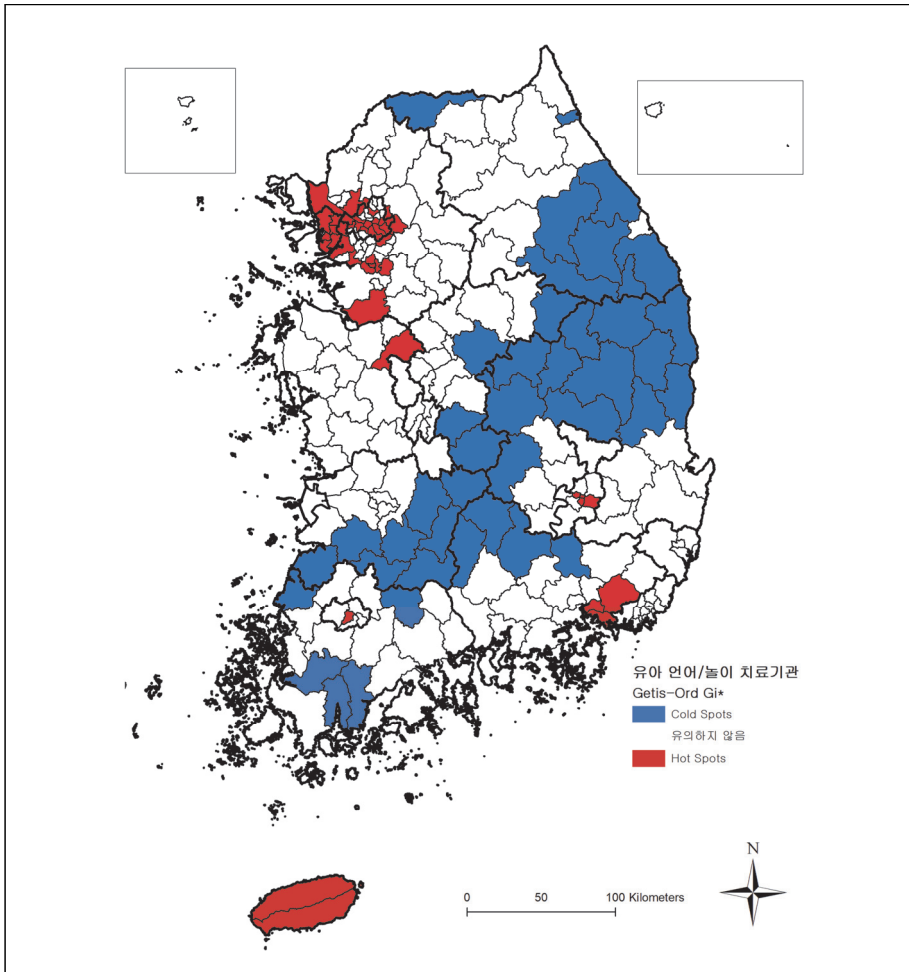
Hot Spot 지역은 총 45곳의 시군구가 탐지되었는데, 특광역시 및 수도권과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의 대도시의 자치구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IV-4-6).

서울은 14곳으로 서대문구와 중랑구 등 11곳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가 포함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14곳으로 서부 및 남부의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권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1곳, 서남권은 광주 서구 1곳, 동남권은 대구 수성구, 중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5곳,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이 포함된다. 센터의 수가 많은 시군구인 천안시 서북구(82개소)와 대전 서구(65개소)는 hot spot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는 인근 시군 지역에 센터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곳을 이웃하고 있어서 주변에 비해 이례적으로 학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Cold Spot은 41곳인데 강원도와 경북 산간 및 내륙지역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산간지역, 전남의 남서부의 시군구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곳은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센터수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IV-4-5]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 (좌: 센터의 위치, 우: 시군구별 분포)



[그림 IV-4-6]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Hot and Cold Spots



## 2)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의 지역분포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즉, 시군구별 유아 대상 센터의 수를 유아의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IV-4-7). 전국의 각 시군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5개소의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있는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외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인 서울의 종로구, 강남구, 경기도의 수원시 팔달구, 대구의 수성구, 중구, 남구, 울산의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특광역시 또는

지역 내 대도시의 자치구나 행정구이고, 충남 부여군, 충북 단양군은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이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57.8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다(표 IV-4-5). 그 중 서울 종로구가 유아 1만명당 85개소로 가장 많다. 한편 유아 인구가 적은 두 시군구, 즉, 부여군과 단양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여군의 유아 인구는 1,173명, 단양군은 549명이고,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각각 9개소, 5개소가 있다. 이처럼 해당 군은 유아 인구비가 해당 지역 전체 인구 대비 2%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상담 및 치료센터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곳 모두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다.

〈표 IV-4-5〉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상위 10개구 특성

단위: %, 명, 개소

시도명	시군구명	인구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 밀도	
		유아인구비	유아	전체		치료센터 총수 대비(%)	유아 만명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2.55	3,549	139,417	30	48.4	85
대구광역시	수성구	3.44	14,005	407,331	87	85.3	62
충청남도	부여군	1.92	1,173	61,046	7	77.8	6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4.02	9,851	245,259	55	87.3	56
대구광역시	중구	5.10	4,541	89,064	25	69.4	55
충청북도	단양군	1.98	549	27,701	3	60.0	55
대구광역시	남구	2.57	3,573	139,187	19	65.5	53
서울특별시	강남구	3.47	18,903	544,873	99	80.5	52
울산광역시	남구	3.85	11,843	307,232	61	88.4	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02	7,931	197,213	39	70.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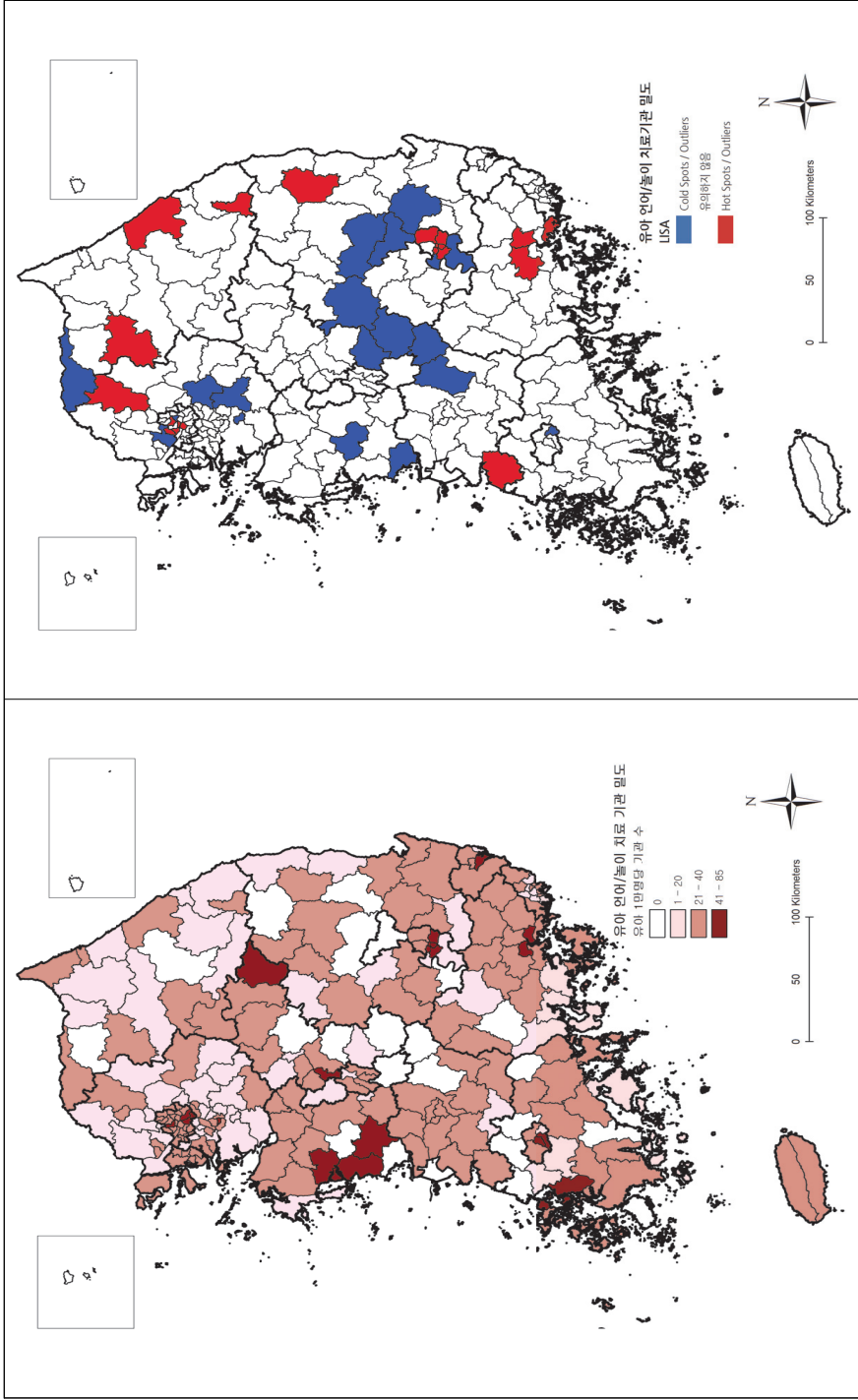
Hot Spot 지역은 특광역시, 대도시와 일부 지방 시군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7, 표 IV-4-6). 총 20곳의 hot Spot 중 서울은 5곳, 대구는 6곳이며, 경남 창원시 2곳, 경남 함안군이 포함된다. 이 14곳은 해당 지역과 인근 시군구의 밀도가 모두 높은 곳이다. 한편 나머지 6곳에 해당하는 경기 포천시, 강원도의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전북의 고창군, 경북의 영양군은 절대적인 밀도는 최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이웃하고 있는 시군구의 밀도가 낮아서 이례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곳으로 판별되었다.

Cold Spot은 18곳인데 해당 시군구와 인근 지역 모두 밀도가 낮은 곳은 12곳이고, 나머지 6곳은 주변 지역이 밀도가 높는데 그에 비해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매우 낮은 이례적인 곳이다. 전자는 대구 군위군,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이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성군, 광주 동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남 서천군과 청양군으로 해당 지역의 주변은 상대적으로 유아 대상 상담 및 치료센터가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다.

〈표 IV-4-6〉 유아 1만명당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Hot Spots 또는 Cold Spots인 시군구

Hot/Cold Spots	시도명	시군구명
Hot Spots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기도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Cold Spot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위군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산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서천군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무주군
	경상북도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그림 IV-4-기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 밀도 (좌: 유아 1만명당 수, 우: Hot and Cold Spots)





## 다.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분포의 상관성 분석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관계수만을 살펴보는대 그치지 않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유아 대상 학원과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 센터의 밀도가 전역적으로 공간적 일치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공간적 일치성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국지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어슨 상관계수가 아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그 값은 0.377이고, p-value는 7.39e-10으로 극히 낮은 값이므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은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표 IV-4-7).

〈표 IV-4-7〉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상관 계수값	p-value
Spearman's rho ( $\rho$ )	0.376865	< 0.001 (7.39E-10)

공간적 자료의 특성 상 인접한 지역은 유사한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공간적 의존성 또는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사한 값이 연속하여 나타나는 시군구가 있으면 이를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이라 하고, 두 값이 공간적 일치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웃하는 시군구의 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면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하며 두 값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 $x_i$ ) 대비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담 및 놀이 센터의 밀도( $\sum_j W_{ij}y_j$ )의 공간적 일치성을 살펴본 Moran's  $I$  값은 0.127으로 나타나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p-value < 0.001이므로 확률적으로 유의하다(표 IV-4-8).

〈표 IV-4-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센터 밀도의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상관 계수값	p-value
Moran's I (이변량)	0.127	< 0.001 (999 permutation)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시군구에 위치한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게 분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떠한 지역이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세부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패턴, 즉,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에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가 낮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값 군집 및 낮은 값의 군집, 또한 이례적인 패턴을 보이는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기 위해 LISA를 사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전역적 Moran's I를 지역별로 분해하여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지적 Moran's I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ISA 값을 지도화 하여 LISA 맵을 만들어 국지적 패턴을 시각화 할 수 있다.

시군구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 센터의 공간적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그림 IV-4-8). LISA는 이변량 분석이고 이례적인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외국어학원의 밀도  $x_i$ 를 먼저 입력하고,  $y_j$ 를 나중에 입력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공간적 일치를 보여주는 국지적 이변량 군집(HH, LL 유형)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1.2%, 공간적 이례 지역(HL, LH 유형)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4.8%로 나타났다(그림 IV-4-8, 표 IV-4-9). 전역적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시군구별 외국어학원의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분포는 일부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HH(High-High)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총 11곳으로 서울의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중구, 대구의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해당된다. 이 지역은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센터가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다.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방문과 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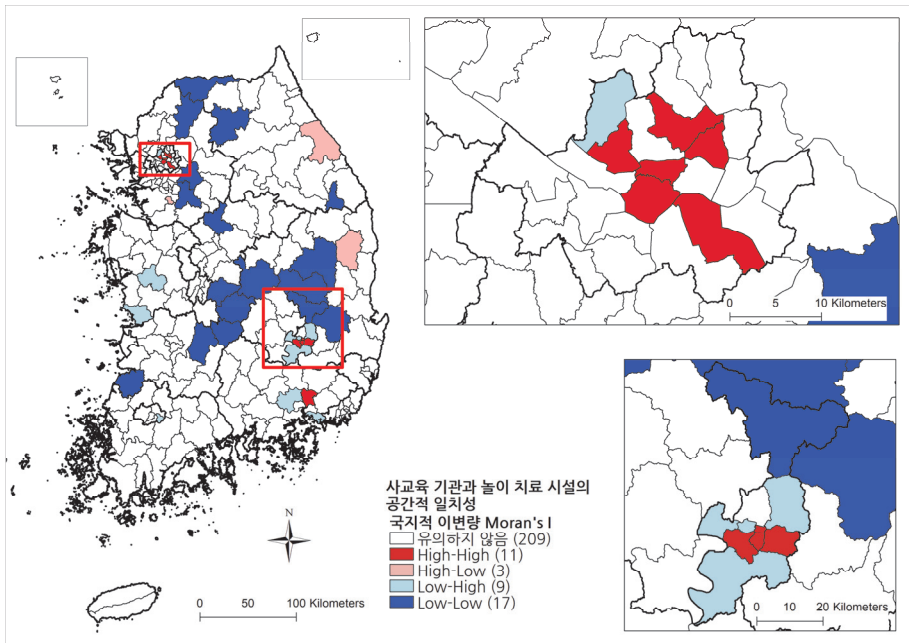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있다면 LISA 분석 결과 역시 공간적 회귀모형(Anselin, 1988; Anselin and Rey, 2014)이나 지리가중회귀모형(Fotheringham et al., 2002)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과의 강약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어학원과 상담 및 놀이센터가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는 LL(Low-Low) 군집은 총 17곳으로 대구 군위군, 경기의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포천시, 강원도의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충북의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전북의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경북의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이다.

LH(Low-High)에 해당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서울 은평구, 대구의 동구, 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충남의 서천군, 청양군, 경남의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어학원이 많지 않으나 인근 지역은 상담 및 놀이센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HL(High-Low)에 해당하는 3곳은 경기도 오산시, 강원 강릉시, 경북 영양군이다. 이곳은 해당 지역에는 외국어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주변 지역은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8]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표 IV-4-9〉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밀도와 상담 및 놀이치료 센터 밀도의 공간적 일치성

공간적 일치성 유형 (외국어 교육기관 밀도 - 치료센터 밀도)	시도명	시군구명
High-High 군집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High-Low 이레 지역	경기도	오산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상북도	영양군
Low-High 이레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서천군 청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Low-Low 군집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태백시 철원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경상북도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 5. 소결

### 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행동 특성/부모-자녀 상호작용과의 관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아동이 다른 그룹에 비해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다른 변인 통제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교육 여부, 사교육 개수에 따라 영유아기 행동 특성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을 받거나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영유아의 부모가 집안일 함께 하기, 스포츠나 운동 하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였다.

### 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단기적 영향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과 사교육 비용을 살펴보았고,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를 프로그램 유형별(학습, 예체능)로 살펴보았다.

아동 성별에 따른 사교육 경험과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의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과 현재 아동의 언어 발달,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발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의 현재 및 과거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의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의의식, 학교폭력피해, 집중력 부진, 불안, 학습, 과민과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거에 실시한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많은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이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체육과 무용 등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은 성실

성과 타인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프로그램의 경험도 집중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에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의 경험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비용, 또한 현재 및 과거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개수는 아동의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정서 및 행동 특성 모두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의 추이, 사교육에 대한 부모 변수의 영향, 사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순위 등 다양한 아동 및 부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분법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사교육 경험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적 안녕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외의 다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종속변수인 아동 특성 변인은 시점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나 아동 중 응답자가 달라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 8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는 어머니가 응답했으나, 13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측정 도구의 변화는 변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결과 해석 시 신

증함을 요한다.

## 라.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

유아 대상 기관 지역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대비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2개 유형 기관 분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761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66% 이상 집중하고 있고,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포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평균 한 시군구에 34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는 277개로 전국에서 사교육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그 외에도 특광역시의 자치구와 지방 대도시의 행정구에 많이 분포한다.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총 956개소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하여 사교육기관보다 공간적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시군구에 평균 3.8개소가 분포하는데 서울 강남구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구는 전국 대비 6.5배 이상 많이 분포한다. 반면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없는 시군구는 121곳으로 전국의 48%에 해당한다. 이는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정도가 유아 사교육기관의 지역 집중도 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아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를 살펴보았는데, 시군구별로 평균 3.2개소 분포한다.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 또는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인데, 밀도가 높은 상위 10개구에는 유아 1만명당 평균 23개소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7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10개구를 전체 인구 대비 유아 인구 비율에 따라 유아 인구 비율이 낮은 (1~2%) 시군 지역, 3% 대인 자치구 지역, 매우 높은(7.3%) 지역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유아 인구비가 3% 대인 자치구를 학원 총수 대비 밀도를 기준으로 두 유형으로 세부 구분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증가하는 초기에는 외국어학원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 해당 구에 학원이 많아지면서 외국어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는 전국 6,63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관은 5,114여 개소이다. 세부적으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담센터와 놀이치료센터는 특광역시와 그 인근 시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분포한다. 구별로 평균 20.4개소가 있는데,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평균 80개소가 있어 전국 대비 약 4배 집중 분포한다. 한편 유아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가 한 개소도 없는 시군구도 24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 내륙 지역, 도서 지역 등 유아 인구가 적은 곳으로 그 중 유아 인구가 1,000명 미만인 곳이 24곳 중 18곳에 달한다.

유아 인구 1만명당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수로 나타난 유아 대상 상담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 평균은 23.5개소인데, 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이거나 유아 인구가 적은 곳이다. 밀도가 높은 상위 10곳은 평균 57.8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밀집되어 있다.

유아 대상 사교육 시설이 많은 지역에 영유아 대상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가 유의하게 많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스피어만 상관관계수가 0.377(p-value: 7.39e-10)으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의 밀도가 높은 곳은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의 밀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Moran's  $I$  값 역시 0.127(p-value < 0.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LISA 지수 및 LISA 맵을 작성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패턴을 검토한 결과, 약 11.2%의 시군구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어 외국어학원의 밀도 분포와 상담 및 놀이센터의 밀도 분포는 일부 시군구별 지역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LISA 분석은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 두 값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포가 다른 값의 분포에 원인이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 유아 대상 사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 상담센터 및 놀이치료센터 방문과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있다면 LISA 분석 결과 역시 공간적 회귀모형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과의 강약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

## 결론 및 시사점

---

01 결론

02 시사점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변화 추이, 영유아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영유아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과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첫째,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0%의 부모가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영유아의 특성상 예체능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이나 특별활동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영유아 사교육 참여와 유형, 개수, 비용 등은 영유아의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배경,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육실태조사,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영유아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학습 사교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정 배경 또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확률과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사교육 시작 연령이 빨랐다. 영유아가 거

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았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목적은 영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흥미, 유아의 경우에는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을 우선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사교육의 주된 목적이 대부분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가 뒤쳐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도 높았다.

다섯째, 부모의 인식과 실재는 차이가 있다.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흥미나 적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일 제학원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예체능 못지않게 한글과 영어 등 학습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컸다.

## 나.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

첫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구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기도 하며, 본 연구의 결과처럼 영유아기 사교육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둘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는 학습요령 터득,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인지 및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등의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학습 사교육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받은 영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패널 심층분석 결과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는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이 보고되었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 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기 예체능 사교육은 사회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반면 인지교육 중심의 사교육은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예술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았고,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 지속성과 관련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교육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유아의 행복감은 감소하였다. 한편 사교육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 수업내용 이해, 학습태도 등의 학습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본 연구의 아동검사 결과에서도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제해결력, 집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시사점

이상의 결론에 따라 영유아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 가.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는 미미하였으나, 사교육의 유형별로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학습 사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예체능 사교육이 사회성(성실성, 타인이해 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배경과 상관없이 체육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영유아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성·자율성·협력 등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체험 기반의 예술과 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공교육 체계나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기에 사교육 대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교육의 개수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아

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유아의 공격성,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교육 대체를 위한 공공 도서관, 과학관, 문화예술 체험 등 공공 인프라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사교육 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공공 지원 확대

사교육 기회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및 부모 배경에 따라 사교육 이용률, 유형이나 개수, 비용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사교육 기회가 적고, 고소득층은 과잉 사교육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소득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특별 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 반일제학원 등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 밀집 지역 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교육 과잉 및 부모 불안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 다. 부모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필요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경감 정책을 펼쳐왔으나 사교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들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23년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학 입시 관련 정책과 함께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이 포함되었다. 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으로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지원 계획과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 근절 방안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 초기여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 성과를 살펴봐야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 영유아 사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사교육 축소보다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및 공교

육 내 사교육 수요 수용을 선호하고, 동시에 방과후 과정에서 제공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지(예: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분야별 전문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교육 내에서 부모의 수요에 기반한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 라.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부모들에게 사교육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교육의 효과(긍정적, 부정적, 효과 부재)와 한계에 대한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 교육,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지만,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사교육 횟수나 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교육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영유아기에는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 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나감으로써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원하던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교육 대신 공교육과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권혜진·정혜옥(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018). 201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세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 내부자료(2024). 학원 및 교습소(2024년 3월 31일 기준) 자료
- 김보용(2009).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근진·윤지연(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2 세와 5 세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옥·배호중(2021).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52(2), 1-28.
- 김지경(2004).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6-86.

- 김희영·곽수란(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 427-445.
- 문수백(2020).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2(KBIT2). 인사이트심리검사연구소.
- 민미희(2015).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17-136.
- 박영양·이성희(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75-196.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승희·정혜원(2017). 영·유아의 사교육 시작 시점과 영향요인 검증: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생존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233-253.
- 백지원(2009).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 조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Ⅰ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 서유현(2010). 두뇌발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감을 터치하세요. 유치원 교육의 이해: 엄마, 아빠! 꼭 읽어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
- 손호성·이재훈(2018).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의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활용과 쟁점. 현대사회와 행정, 28(3), 1-31.
-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

## 여성연구원

-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2011). 미취학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5(2), 96-120.
- 안주희·곽승주(2017). 영아기 사교육 유형별 실태 및 교사-부모 인식 비교. 열린 유아교육연구, 22(1), 273-302.
- 우남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249-265.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윤소정·김진옥(2016).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3(4), 55-79.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교육정책학연구, 22(3), 83-107.
-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5), 299-322.
-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2013). 만 5세 읽기능력, 어휘력 및 개인·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유아교육연구, 33(4), 363-384.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승미(2015). 부모-자녀 놀이 및 사교육 현황과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김연경(2018). 유아 사교육 현황, 사교육에 대한 유아의 불만족도 및 행복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9(3), 31-48.
- 이원준(2018). 아동 사교육 시장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2), 159-167.

- 이윤경·허현숙·장승민(2015).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서울: 학지사
-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배운진·조혜주(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2023). 아이세이랩 문제해결력 교재. 임동선아이세이언어연구소.
-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기주·윤성규·이지윤(2022). 인지과학 연구결과가 유아교육 실체에 주는 함의: 체화된 인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7(2), 147-172.
-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천소연·임동선(2017). 단어목록 회상을 통한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일반아동의 덩이짓기 능력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233-244.
- 최정윤·양정호(2022). 영유아의 보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비용 결정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589-608.
-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항석(2014). 사교육의 문제점 및 경감 대책 분석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4(3), 1-14.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이정원·김태우(2021b). 초등 전환기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15(1), 3-27.
- 통계청(2022).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하형석·정은진·최승주·구본호(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지윤·임동선(2018).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 능력 평가도구(KBPR)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69-84.
- 홍세희·노언경(2017). 유아 사교육 시작 시점의 결정요인과 시작 시점이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검증: 혼합생존분석의 확장. 유아교육연구, 37(3), 53-72.
- Angrist, J. D. & Pischke, J-S. (2017), *고수들의 계량경제학: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강창희, 박상곤, 역). (주)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15년)
- Anselin, L. (1988). *Spatial Econometrics: Methods and Models*. Springer Dordrecht, The Netherlands.
-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93-115.
- Anselin, L. and Rey, S. J. (2014). *Modern Spatial Econometrics in Practice, A Guide to GeoDa, GeoDaSpace and PySAL*. GeoDa Press, Chicago, IL.
- Card, D., & Krueger, A. B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 Cromley, E. K. & McLafferty, S. (2012). *GIS and public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Fotheringham, A.S., Brunsdon, C., and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John Wiley & Sons.
- Getis, A., & J.K. Ord.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al Analysis*, 24(3), 189-206.
- Mitchell, A. (2005). *The ESRI Guide to GIS Analysis, Volume 2*. ESRI

Press.

Muthen, L. K., & Muthen, B. O. (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Los Angeles: Muthen & Muthen.

Ren, L., Kutaka, T. S., Chernyavskiy, P., Fan, J., & Li, X. (2020). The linear and nonlinear effects of organiz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Chinese Preschoolers' develop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0, 101845.

Shi, J., Yue, Y., Zhao, W., & Huang, Q. (2022).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mpact of After-School Tutoring on Chinese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Sustainability*, 15(1), 181. <https://doi.org/10.3390/su15010181>

### **【법령 및 자치법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34492호, 2024. 5. 7.,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18호, 2023. 8. 4., 일부개정]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7741호, 2023. 8. 7., 일부개정]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5556호, 2023. 12. 28., 일부개정]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4883호, 2023. 7. 13.,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313호, 2023. 12. 15.,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5906호, 2022. 12. 3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6230호, 2024. 3.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7107호, 2023. 12. 20.,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608호, 2023. 4. 3.,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92호, 2023. 9. 27.,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제2843호, 2023. 12. 28.,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982호, 2023. 2. 20., 일부개정]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4871호, 2019. 6. 13., 전부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1호, 2024. 2. 16.,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22호, 2023. 12. 22., 일부개정]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17호, 2023. 5. 30., 일부개정]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4808호, 2022. 10. 14., 일부개정]

### 【인터넷 자료】

- 교육부(2023).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 사교육 경감대책(2023. 6. 26.) <https://www.moe.go.kr/bo>

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5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 2. 23.)

교육부(2024a)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914> (인출일:2024. 2. 23.)

교육부(2024b)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주요업무계획>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2024.1.24)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page=72760&m=031101&s=moe> (인출일: 2024. 2. 27.)

교육부(2024c).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2024. 6. 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92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인출일: 2024. 6. 27.)

위키백과(2024). 사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5%90%EC%9C%A1> (인출일: 2024. 2. 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소통공간>보도자료>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인출일: 2024. 6. 19.)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 인출일: 2024. 12. 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누리집 <https://jumin.mois.go.kr> (인출일: 2024. 5. 30.)





## Abstract

# A Study on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Development

Eunyoung Kim · Ja Yeon Koo · Jiwon Kim · Hyejin Kim  
Jae Chul Kim · Jong-Geun Kim · Sook In Cho  
Ewha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on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parents' perceptions and demand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and the impact of early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on subsequent development.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literature review analyzing prior research, legal and policy materials; in-depth analysis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using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child characteristic variables; analysis of assessment results of 72 1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urvey data from their 72 parents; regional distribution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academies, counseling centers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survey involving 1,500 mothers with children aged 2, 3, and 5; policy forum;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In this study, private education is defined as education conducted privately at institutions other tha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gulates private education through provisions such as regulations on after-school programs and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term "kindergarten," and specifies policies to respond

to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Private Education Reduction Measures(Ministry of Education, 2023). These measures propose short-term initiatives, such as the operation of “linking semesters” and the expansion of customized after-school programs for subjects like English,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s well as long-term plans, including link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ystems, revising the curriculum for children aged 3 to 5, and establishing new surveys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 review of prior studies 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found mixed results. While some studies reported positive outcomes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Woo, N., Baek, H., & Kim, H., 2005; Ren et al., 2020), others noted negative effect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Kwon, J., 2007; Baek, H. et al., 2005; Kim, S., 2013). Additionally, research showed that the effects on development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number of concurrent private education (Shi et al., 2022), with some studies finding no significant effects at all (Lee, K., Kim, S., & Kim, M., 2011; Lee, K. et al., 2013; Yoon, S. & Kim, J., 2016).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65.33% of the respondents used private education services. Among these, 37.65% engaged in arts, physical education/ 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32.24% participated in academic private education, and 30.10% received both. The average weekly frequency of private education was 4.59 times, with sessions occurring almost daily on weekdays and lasting about 42 minutes each. Families with older children,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families with higher household incomes were more likely to us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Urban children, particularly those in metropolitan areas, participated more in private education than those in small and mid-sized cities. For

academic private education, children attended an average of 1.85 academies, while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they attended an average of 1.36 academies. High-income families (monthly income above 7 million KRW)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enroll their children in both academic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Girls participated in more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ivate education programs than boys. The starting age for private education was earlier in households where the mother had a postgraduate degree and in those attending full-day ECEC services. The first type of private education children encountered was most commonly physical education, with boys starting with sports, mathematics, and Korean, and girls starting with dance, art, and music. Monthly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averaged 198,000 KRW, with academic education costing 163,000 KRW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non-academic programs costing 142,000 KRW. Higher household income groups had significantly higher monthly expenditures on private education. The average monthly tuition for half-day or longer programs is 1,829,000 KRW,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921.25, showing a significant varia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Compared to 2016, participation rates, types, and costs of private education after kindergarten or childcare have steadily increased. Physical education remain the most popular type, while participation in mathematics and science programs continue to grow. The starting age for private education has gradually decreased, and the costs of programs and full-day academies have risen over time.

In terms of perceptions regarding private education, parents' main purpose for sending their child to private academies was primarily to support the child's development and learning. The biggest reason

parents choose private education academies over kindergartens or childcare centers is the lower teacher-child ratio and the high-quality programs offered. Most parent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private education.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in this study, 79% indicated their intention to either start or continue private education, with a stronger inclination to do so as the child's age increased and household income grew. Regarding private education policies, the demand for enhanc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public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2016, while the preference for accommodat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significantly increased. Regardless of income, parents overwhelmingly preferred absorb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mong income groups, those earning less than 3 million KRW preferred reducing private education, while those with incomes above 7 million KRW preferred maintaining or boosting private educa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believed that specialized program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uld replace private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and overall, trust in such programs declined. Families with lower incomes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specialized programs could replace private education. Over time, there was a growing perception that specialized program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of lower quality compared to private education.

When accommodat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through public education, parents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program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or half-day services valued program quality the most, while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equally prioritized both program quality and teaching methods suited to the child's characteristics. Parents who provided home care for their children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suited to the child's characteristics. Across all backgrounds, the most preferred program for accommodating private education demands in public education wa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was examined in various ways.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 who received both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behavior problems and hyperactivity/inatten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However, in detail, there were almost no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behavio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private education or the number of private education sessions. The younger the chil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arent-child interactions. Additionally, parents of young children who received private education or more academic private education had relatively lower frequencies of both parents jointly engaging in household chores and participating in sports or physical activitie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uring early childhood, a study was conducted with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hildren's gender,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nd pas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showed no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or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Meanwhile,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urrent private education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it were not correlated with traits such as conscientiousness, self-esteem, openness, understanding of others, social initiative, community awarenes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lack of concentration, anxiety, learning, or hypersensitivity. However, children who had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private programs in the past showed higher levels of conscient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others. This indicates that experiences in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programs may positively affect conscientiousness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Additionally, children with more experience in private arts education programs were less likely to have concentration difficulties, suggesting that arts programs may positively impact concentration. However, children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academic private education programs showed a negative impact on their self-esteem, indicating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ma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emotional development.

When analyzing the impact of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on language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urrent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costs, and the number of current and past private education programs the child is participating in did not significantly explain any of these factors.

To examine the medium- and long-term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uring early childhood,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 Child Panel to analyze the trends in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the impact of parental variables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influence of private education on subsequent academic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latent growth models were applied to verify the independent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controlling for various child and parent variables such as the child's intelligence, parental income level, and birth order.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early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but the differences were minimal. Furthermore, no 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were found in socio-emotional aspects such a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overall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private education alone is unlikely to guarantee long-term academic achievement or emotional well-being for children. In particular,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hild's IQ, household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the independent effect of private education was found to be small. This suggests that other factors, beyond private education, may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child development.

The distribution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was examined by region,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the two types of institutions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unting for over 66% of the total, and generally follow a distribution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 On a district-by-district basis, an average of 34 institution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Gangnam District in Seoul having the highest number at 277,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country. Other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include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in large regional cities. Among the foreign language academies for young children, over 85% of the 956 institutions nationwide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ajor cities, showing a higher spatial concentration compared to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On average, 3.8 institution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Gangnam District having 36 institutions, the highest in the country, and the top 10 districts accounting for more than 6.5 times the national average. In contrast, 121 districts nationwide which account for 48% of all districts, have no foreign language academies for young children, suggesting that the concentration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is much higher in major cities and the 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for young children are mostly concentrated in autonomous districts of metropolitan cities, nearby urban areas, and Jeju Island. On average, 20.4 centers are distributed per district, with the top 10 districts having an average of 80 centers, showing about a 4-fold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To investigate whether regions with many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ls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vealed a slight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dditionally, by constructing the LISA index and LISA map, the local patterns of spatial autocorrelation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11.2% of districts exhibited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indicating that the density distributions of foreign language academies and counseling and play therapy centers match in certain districts. However, LISA analysis does not model causality beyond correlation. Therefore, while the corre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nsity of both values is high in some districts, this does not imply that one distribution is the cause or result of the oth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the participation rate and costs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have continued to increase. Seco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tion r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related to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but many also participate in learning-related private education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rd, the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its types, frequency, and costs vary depending on background factors. Fourth, the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varies: for infants, the focus is on their interests, while for preschoolers, it is on their aptitudes or talents. Fifth, there is a gap between parents' perceptions and actual behaviors. While parents often cite their children's interests or aptitudes as the main reason for enrolling them in private education, the actual participation rate in part-time private academies is increasing.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rate in learning-focused private education, such as reading and writing Korean and English, is as high as that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dicating a strong interest in learning.

Meanwhile,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ies on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during early childhood have not provided consistent results. Second, positive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clude improved learning strategies, increased confid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impacts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In the survey of this study, young children who received both learning and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had fewer behavioral problems. In the in-depth analysis of the child panel data,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limited, but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n initial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Third, negative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nclude stress, inattention, lack of persistence, selfish tendencies, excessive consciousness about others, and lack of autonomy. Fourth,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related to the type of private education. While private education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was reported to be helpful in social skills development, private education focused on cognitive training showed negative effects such as stress and memory impairment. In the child assessment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arts private education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issues with attention deficits, while those who had more experience with learning private education had negative impacts on their self-esteem. Fifth, the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were related to the number, frequency, and duration of private education. When children participated in multiple private education programs at the same time or the number and frequency of private education increased, their stress levels rose, and behavioral problems such as aggression, withdrawal, depression, and anxiety increased, while their happines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longer durations of private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Sixth, there were studies showing that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interest in school lessons, understanding of lesson content, or learning attitudes. In the child assessment results of this study,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show significant positive or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problem-solving abilities, or executive function.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education policies for young children wer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young children-focused programs, expanding public support to reduce the gap in private education opportunities, designing policies based on parental demand, and strengthen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parents.

Keyword: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 부록 1. 설문지: 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

###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부모용 -

#### 선정문항

선문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쿼터]

1. (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쿼터]

1. 남자 -> 설문중단
2. 여자

선문3.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쿼터]

1. 예
2. 아니오 -> 설문중단

선문4. 귀하 막내자녀의 출생연도를 말씀해주세요. [쿼터]

1. 출생 연월 : ( )년도

[선문4 쿼터 기준]

만2세 : 2021년 생

만3세 : 2020년 생

만5세 : 2018년 생

선문5. [제시: 선문4 응답값 ( )년생] 막내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퀴터]

1. 남자
2. 여자

선문6. [제시: ( )년( )월 생] 막내자녀는 오전에 어떤 기관에 다닙니까? [단수]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반일제 이상(하루 3시간 이상) 학원 : 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4. 그 외 기타기관에만 다님(문화센터, 시간제학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기관에 다니지 않음

선문7.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1. 만20~29세
2. 만30~39세
3. 만40~49세
4. 만50~59세
5. 60세 이상

선문8. 현재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선문8-1. 본인의 경제활동 상태

1. 일하고 있다
2. 휴직 중이다
3. 일하고 있지 않다

선문8-2.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1. 일하고 있다
2. 휴직 중이다
3. 일하고 있지 않다
4. 배우자 없음

//선문8-1=3인 경우, 선문9-1은 미출력//

//선문8-2=3,4인 경우, 선문9-2는 미출력//

선문9. 1주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시오.

휴직 중이실 경우, 휴직 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선문9-1. 본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오픈]

1. 본인 : 평균 ( )시간 (1주 기준)

선문9-2. 배우자(자녀 아버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오픈]

1. 배우자 : 평균 ( )시간 (1주 기준)

선문10.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선문8-2=4인 경우, 선문9-2는 미출력//

선문11. 최종 학력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선문11-1. 본인의 최종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선문11-2. 배우자의 최종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졸업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만2세, 만3세, 만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진행 관련: 한국리서치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 I.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현황 및 인식

[로직 : 선문6=1,2,3 응답자만]

※ 귀하의 막내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직 : 선문6=1,2,3 응답자만]

문1. 막내자녀는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미술, 음악, 체육, 수, 과학, 창의, 언어(한글, 외국어)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1. 예
2. 아니오 -> 문7로 이동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 막내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현재 어떤 종류의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대분류 제시]

학습 관련	1. 국어 2. 논술 3. 영어 4. 기타 외국어(한자 포함) 5. 수학 6. 과학(과학실험, 드론, 시관련 등) 7. 컴퓨터(코딩포함) 8. 교구(가베, 몬테소리, 프리벨 블록, 오감놀이 등) 9. 기타 ( )
예체능 관련	10. 체육 11. 무용(발레, 댄스 등) 12. 음악(창의음악, 유리드믹스, 오르프 등) 13. 미술(도예, 오감미술, 퍼포먼스 미술 포함) 14. 기타( )
기타	15. 인성교육 16. 다도 17. 이야기할머니 18. 요리 19. 기타( )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자동 코딩//

문2-2. 막내자녀는 1주일에 몇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 가지
2.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 가지
3. 기타	주( ) 가지
4. 총(자동합계)	주( ) 가지

[로직: (선문6=1 OR 2) AND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3. 막내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의 비용 중 가정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오픈]

1. 월 평균 ( )원 [로직 : 0 TO 1,000,000]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2-4. 막내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복수][RANK:3]

1. 자녀가 원해서
2. 자녀가 심심할까봐
3. 유치원에서 필수로 해야 해서
4. 필수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안 할 수가 없어서
5.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것이 불안해서
6. 참여하지 않았을 때 마땅한 대체활동이 없어서
7. 아이의 특기를 길러주거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8.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9.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이 지원되므로
10. 외부 학원이나 단체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1.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12.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13. 기타( )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로직: 문2=학습 & 예체능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없는 경우 문항 출력하지 않음]

문2-5. 막내자녀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현재 받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

다음의 학습·예체능·기타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을 현재 참여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학습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제시: 문2 학습 관련 응답]

예체능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제시: 문2 예체능 관련 응답]

프로그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1. 학습 관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로직 : 문2=학습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있는 경우]				
2.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로직 : 문2=예체능 대분류에 해당하는 응답값이 있는 경우]				

[로직: 문1=1인 경우만 응답]

문3.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예 -> 문3-1로 이동
2. 아니오 -> 문3-2로 이동

[로직: (선문6=1 OR 2) AND (문3=1)]

문3-1.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므로
2. 사교육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3. 기관에서 1차적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이므로
4.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시켜주므로
5. 기타( )

[로직: (선문6=1 OR 2) AND (문3=2)]

문3-2.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2. 사교육에 비해 질이 낮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3. 학부모의 선택권이 적으므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시작하고 그만두기 어려움)
4. 진행 과정에서 아이 발달에 대한 보고,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5. 시설이나 교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6. 기타( )

## II.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카테고리(문4~문6) :

※ **막내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 문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에게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2.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우리 아이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줄 것 같아서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미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5. 아이의 소질이나 재능을 개발해주고 싶어서
  6. 기타 ( )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 문5.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에 지불하는 한 달 평균 총 비용(교재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전체 월 지급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월 평균 ( )원 [로직 : 0 TO 4,999,999]

[로직: 선문6=3인 경우만 응답]

- 문6. 본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약간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로직: 선문6=1 OR 2 OR 3인 경우]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에 다녀온 후 막내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막내자녀는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놀이학교)을 다녀온 후 현재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평일 오후·주말 포함)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1. 예
- 2. 아니오

[로직: 선문6=4 OR 5인 경우]

※ 막내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막내자녀는 현재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평일 오후·주말 포함)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1. 예
- 2. 아니오

지금부터는 막내 자녀가 해 본 적 있는 사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아래 예시를 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에 응답해주시시오.

[예시]

저희 아이는 영어를 만2세반부터 만5세반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체육은 만4세반부터 만5세반 현재까지 2년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교육은 한 적 없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응답하면 됩니다.

경험이 있었던 해에 모두 체크해주시면 되고, 아예 사교육을 하지 않았던 항목은 "없음"에 체크합니다.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없음
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선문4 기준으로 응답 범주 출력 //

문8. 막내자녀가 해 본 적 있는 사교육을 모두 표기해주시시오.

과거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 모든 연령에 해당 사교육을 표기해 주십시오.

※ 한 개의 사교육이 '학습'과 '예체능'이 혼합된 경우, 주된 교육 목적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영어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가 주된 목적이라면 '체육'으로만 응답)

※ 학습, 예체능 관련 분야 보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은 기타 분야에서 응답해주시시오.

※ 해 본 적 없는 사교육인 경우 "없음"에 표기해주시시오.

//선문6=1 OR 2 OR 3 (기관에 다니는 경우) 안내 문구//

유치원/어린이집 연령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0세반이었을 때 다녔던 사교육, 만1세반이었을 때 다녔던 사교육 등...  
과거의 모든 경험을 빠짐없이 체크해주세요.

//선문6=4 OR 5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안내 문구//

자녀가 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유치원/어린이집의 연령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0세반 [제시: ****년]	만 1세반 [제시: ****년]	만 2세반 [제시: ****년]	만 3세반 [제시: ****년]	만 4세반 [제시: ****년]	만 5세반 [제시: ****년]	없음
학습	1)국어							
	2)논술							
	3)영어							

		만 0세반 [제시: ****년]	만 1세반 [제시: ****년]	만 2세반 [제시: ****년]	만 3세반 [제시: ****년]	만 4세반 [제시: ****년]	만 5세반 [제시: ****년]	없음
	4)기타 외국어 (한자 포함)							
	5)수학							
	6)과학(과학실험, 드론,SI관련 등)							
	7)컴퓨터 (코딩 포함)							
	8)교구(가베,몬테소리, 프리벨,블록,오감놀이 등)							
예체능	9)체육							
	10)무용(발레,댄스등)							
	11)음악							
	12)미술							
기타	13)요리							
	14)기타( )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은 개월 수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입니다.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 표 상단 [제시 : \*\*\*\*년]을 아래 표를 참고하여 띄워짐

막내자녀 연령	반	연도 (해당 부분을 제시해주세요.)
선문4=2018인 경우	만0세반	2018년 또는 2019년
	만1세반	2020년
	만2세반	2021년
	만3세반	2022년
	만4세반	2023년
	만5세반	2024년
선문4=2020인 경우	만0세반	2020년 또는 2021년
	만1세반	2022년
	만2세반	2023년
	만3세반	2024년
선문4=2021인 경우	만0세반	2021년 또는 2022년
	만1세반	2023년
	만2세반	2024년







문9-4.※ 오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을 다녀온 후의 사교육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시오.

막내자녀가 현재 하고있는 사교육 비용, 주 단위 횟수 및 시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제시 : 만\*세반] 사교육은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지 않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막내자녀 연령	문항 제시값
선문4=2018인 경우	만5세반
선문4=2020인 경우	만3세반
선문4=2021인 경우	만2세반

//제시 : 문8에서 현재 연령 기준으로 사교육 개수대로 출력//

과목	금액 및 횟수	현재는 다니지 않음
[제시:문8(1)]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문8(2)]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문8(3)]	월평균 금액 ( ) [1 to 999999] [한글금액표시] 2. 평일(월~금) ( )회 3. 토~일요일 ( )회 4. 한 회당 ( )분 수업	
//제시 : 문8에서 현재 연령 기준으로 사교육 개수대로 출력함//	...	...

//아래는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문9-4번 응답으로 자동 코딩

학습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 × 한 회당 시간) ÷ 5일

학습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 × 한 회당 시간) ÷ 2일

예체능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 × 한 회당 시간) ÷ 5일

예체능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 × 한 회당 시간) ÷ 2일

기타 관련 평일 평균 = (평일 횟수×한 회당 시간)÷5일

기타 관련 주말 평균 = (토~일요일 횟수×한 회당 시간)÷2일

//문8 응답값 중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내자녀 연령	문8 응답값 반
선문4=2018인 경우	만5세반
선문4=2020인 경우	만3세반
선문4=2021인 경우	만2세반

문10. 향후 막내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음

[로직: 문10=1인 경우만 응답]

문10-1. 귀하는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 시키려고 하십니까? [척도]

프로그램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1	2
1. 학습 관련(수학, 과학, 창의, 언어 등) 사교육		
2.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사교육		
3. 기타(요리 등) 사교육		

### Ⅲ. 자녀의 하루 일과

지난주 막내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단, 지난주에 아파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에 가지 못하는 등 특별한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자녀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막내자녀 하루 일과는 주중 평균 일과와 주말 평균 일과를 나누어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사교육 시간은 앞서 응답하신 내용을 계산하여 저장해두었습니다.

문11-1. 막내자녀는 **평일(월~금)**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 앞서 응답하신 1주 기준 사교육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 저장했습니다. 혹시 응답이 잘못된 경우에만 수정하여 주십시오. [커스텀]

평일 평균 일과		하루 평균 참여 시간	
평일(월~금)		1) 평일(주중)	
1. 밤잠시간		일 ( )시간 ( )분	
2. 유치원/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		일 ( )시간 ( )분	
3. <b>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b>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b>강사에 의한 교육</b>	학습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예체능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기타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 )시간 (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 )시간 (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 )시간 (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 )시간 ( )분	
10. 기타 시간		일 ( )시간 ( )분	
11. 총합		일 24시간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평균 참여 시간 수정해야 할 경우,  
사교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평일 총 학습 시간을 5일(평일)로 나눠서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1회에 60분, 주 3회 수업을 하는 학습 사교육을 받는 경우  
- 평일 총 학습 시간 : 60분 x 3회 = 180분  
평일'학습' 하루 평균 참여 시간 : 180분/5일 = 36분

문11-2. 막내자녀는 주말(토/일요일)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 앞서 응답하신 1주 기준 사교육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 저장했습니다. 혹시 응답이 잘못된 경우에만 수정하여 주십시오. [커스텀]

주말 평균 일과

토요일/일요일(주말)		하루 평균 참여 시간
		2) 토요일/일요일(주말)
1. 밤잠시간		일 ( )시간 ( )분
2. 유치원/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		일 ( )시간 (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예체능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기타	[제시: 문9-4 자동계산 값] 일 ( )시간 (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 )시간 (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 )시간 (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 )시간 (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 )시간 (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 )시간 ( )분
10. 기타 시간		일 ( )시간 ( )분
11. 총합		일 24시간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평균 참여 시간 수정해야 할 경우,

사교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은 일주일 총 학습 시간을 2일(주말)로 나눠서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합니다.

[예시]

1회에 60분, 주 1회 수업을 하는 학습 사교육을 받는 경우

- 주말 총 학습 시간 : 60분 x 1회 = 60분

주말 '학습' 하루 평균 참여 시간 : 60분/2일 = 30분

### Ⅳ. 자녀의 행동 특성

문12. 각 문항을 읽고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기 동안 막내자녀의 행동에 근거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2	3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가까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친절부절하지 못하고 꼼지락 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한다			
15. 쉽게 주위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2세, 3세: 종종 어른들과 논쟁한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세, 3세: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흥친다 (2세, 3세: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을 수 있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자녀 나이 2세, 3세인 경우 2세, 3세용으로 문항 출력//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2세, 3세: 집중력이 좋고,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문13. 전반적으로 막내자녀는 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 중 하나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1. 아니오 -> 문14로 이동
2. 예, 조금
3. 예, 상당히
4. 예, 심하게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1. 막내자녀의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1. 1개월 미만
2. 1~5개월
3. 6~12개월
4. 1년 초과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2.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막내자녀에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3.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막내자녀의 생활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척도]

문항	전혀	약간	상당히	심하게
	1	2	3	4
1. 가정생활				
2. 친구관계				
3. 교실놀이				
4. 여가활동				

[로직: 문13)1인 경우만 응답]

문13-4. 막내자녀의 이러한 어려움(정서, 집중력, 행동 또는 남들과 어울리기)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1. 전혀
2. 약간
3. 상당히
4. 심하게

**V.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14. 다음은 막내자녀와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귀하(혹은 다른 가족들)가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1	2	3	4
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2)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3)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4)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6)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7)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놀이를 한다.				
8) 아이와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9)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 VI.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15.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1.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2.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체육시설, 체험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3.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4.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5. 기타( )

문16. 향후 공교육(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강사의 전문성
2. 프로그램의 질
3.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진행
4. 강사 대 영유아 비율
5. 기타( )

문17. 향후 공교육(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한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십니까?

1.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체육이나 스포츠
2.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프로그램
3. 일반적인 과학 관련 프로그램
4. IT, AI, 코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5. 영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
6. 수학 관련 프로그램
7. 한글, 논술 프로그램
8.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
9. 교구 등을 통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10. 기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2. 설문지: [유아 대상 검사 및 조사자료 분석]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ID		
----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부모 설문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맞벌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학력	부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석시 <input type="checkbox"/> ④ 박사
자녀 연령	_____년 _____개월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석사 <input type="checkbox"/> ④ 박사
				근로 시간	부	주당 평균 _____ 시간
재원했던 기관	<input type="checkbox"/> ①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학원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input type="checkbox"/> ④기관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 졸업 이상	월평균 가구수입		_____만원(세후소득)
				가족 형태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③해당없음

### 사교육 현황 및 인식

※ 학교를 다녀온 후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초등학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귀하의 자녀는 하교 혹은 하원 후나 주말에,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예 (☞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8번으로 이동)

2. 귀하의 자녀는 평소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2-1. 설문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단답형\_(예: 논술, 피아노) \_\_\_\_\_

2-2.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하교 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1주일 기준)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 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 개
기타	주( ) 개
총(합계)	주( ) 개

2-3. 귀하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습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③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nput type="checkbox"/> ③ 다른 아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④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돌봄을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2-4.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학습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만족

2-5. 귀하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약 ( )원

2-6.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3. 자녀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까?

3-1.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만 ( )년 ( )개월
--------------

3-2. 자녀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 ① 체육                      ② 무용                      ③ 음악  
④ 미술                      ⑤ 국어                      ⑥ 논술  
⑦ 영어                      ⑧ 기타 외국어(      )      ⑨ 수학  
⑩ 과학                      ⑪ 컴퓨터(코딩)      ⑫ 창의  
⑬ 기타 (      )

4.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를 기록해 주세요.

		0	1	2	3	4	5	비고
신체	체육							
	무용							
	소계							
예술	음악							
	미술							
	소계							
학습	국어							
	논술							
	영어							
	기타 외국어 (한자 포함)							
	수학							
	과학							
	컴퓨터 (코딩 포함)							
	소계							
	창의							
기타	블록 등							
	취미, 교양							
총계								

5.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 ① 학생 본인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기타(            )

6.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비용    ② 교육 프로그램    ③ 담당교사의 실력    ④ 자녀의 희망  
⑤ 거주지와의 거리    ⑥ 기타 (                    )

7 그만둔 사교육이 있다면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단한 사교육 없음    ② 자녀가 흥미 없어 하므로    ③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④ 교육방법/내용이 좋지 않아서    ⑤ 효과가 없어서 ⑥ 기타( )

8. 향후 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예 8-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8-1.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9.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②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③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④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⑤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⑥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⑦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9-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고려 중인 사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 귀하의 자녀(아동 대상 조사에 참여한 자녀)가 현재 참여하는 영어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어떤 방법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현재 어떠한 영어 사교육 및 가정내 영어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 (양육효능감 섹션으로 이동)
  - ② 비용을 지불한 사교육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영어 교육 실시 (엄마표 영어 섹션 이동)
  - ③ 공공기관의 학습교실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방과 후 수업 등)
  - ④ 사설교육기관 (보습학원, 영어유치원, 영어도서관 등)
  - ⑤ 디지털 교육 매체 (인터넷 강의, 화상영어, 전화영어, 워크 등)
  - ⑥ 학습지 (구문, 윤선생 등)
  
2.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을 선택한 실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시간과 경제력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 ②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③ 좋은 교재와 교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 ④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 ⑤ 기타
  
3. 처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만2세 이전    ② 만3세    ③ 만4세    ④ 만5세    ⑤ 만6세 이상
  
4.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이상
  
5.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6. 영어 사교육에 지출되는 한 달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③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④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⑤ 50만원 이상
  
7.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효과가 있다(7-1번)    ② 보통이다    ③ 효과가 없다(7-2번)  
  - 7-1.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가지 선택 가능)
    - ① 영어에 대한 아동의 흥미와 동기유발    ② 영어 문해력 증진
    - ③ 영어 작문 실력 향상    ④ 영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⑤ 영어 발음 향상
    - ⑥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 증가    ⑦ 기타 ( )

7-2.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 2가지 선택 가능)

- ①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② 교사의 실력과 지도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 ③ 좋은 교재 및 교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 ④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식 학습법이 아니어서
- ⑤ 기타

#### ※ 정서·행동 특성 검사

다음으로는 **자녀의 정서 행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응답 결과는 자녀의 정서·행동 측면에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는 자료로만 활용이 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행동 특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조금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가까운 응답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녀는 스스로를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내 자녀는 수업시간, 공부, 오랜 책읽기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				
3	내 자녀는 집을 나서거나 부모(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한다.				
4	내 자녀는 또래에 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잘하지 못한다.				
5	내 자녀는 울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많다.				
6	내 자녀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7	내 자녀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인다.				
8	내 자녀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해 보인다.				
9	내 자녀는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				
10	내 자녀는 지금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1	내 자녀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12	내 자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자주 아파한다(예: 두통, 복통,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13	내 자녀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4	내 자녀는 어른(부모, 교사 등)에게 반항적이거나 대든다.				
15	내 자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나 질문을 한다.				
16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17	내 자녀는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18	내 자녀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겁을 낸다.				

### 부록 3. 부록 표

〈부록 표 1〉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 구성 지표별 질문

구성 지표	질문
초기 이정표	1. 당신의 아동은 언제 걷기 시작하였나요? (15개월 이하, 16개월 이상) 2. 당신의 아동은 언제 첫 낱말을 시작하였나요? (15개월 이하, 16-24개월, 25개월 이상) 3. 당신의 아동은 언제 낱말을 나열하거나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였나요? 아동이 발화하였던 문장을 예를 들어 적어주세요.(24개월 이하, 25-30개월, 31개월 이상) 4. 당신의 아동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또래 아동에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언어능력	1.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이 단어를 발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들은 아동과 대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4.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당신의 아동은 올바른 문장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정확한 어휘, 올바른 문법,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 5. 당신은 아동의 언어능력에 만족하시나요?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1. 당신의 아동은 책을 읽거나 어른이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나요? 2. 또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읽기 쓰기 능력은 어떠한가요? 3. 아동이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4. 당신의 아동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배우나요? (예: 스포츠, 어휘, 게임, 새로운 장난감) 5. 당신의 아동이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활동패턴은 어떤가요? 6. 당신의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해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력	1. 가족 구성원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2. 직계 가족이나 친척 중(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가족이 있나요? 학습의 어려움, 언어 또는 발음 문제, 특수교육 경험, 말/언어 치료, 읽기/쓰기 어려움, 영어 학습 어려움, 학교 안에서서의 유급

〈부록 표 2〉 문제해결력 검사 평가 영역 및 질문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야구공에 맞아 자동차 창문이 깨진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자동차 유리가 공 때문에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자동차 유리는 왜 깨졌을까요?
	감정 추론	자동차 주인이 자기 차를 발견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제 두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수영 가기 전 차 문에 손이 낀 상황	상황/단서 추론	이 친구는 어디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수영장에 도착했는데, 이 친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 추론	이 친구는 차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쳤어요. 이걸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친구는 손을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이 친구가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를 위반해서 건넌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원인/이유 추론	왜 사고가 날 뻔 했을까요?
	감정 추론	운전하던 아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아저씨가 이 친구에게 "파란불에 건너야지"라고 말하며 꾸짖으셨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방책	건너편에 친구가 지나가고 있어서 반가워요. 인사를 하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에서 친구가 축구공에 맞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은 수업 시간일까요 쉬는 시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원인/이유 추론	공을 찬 남자친구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감정 추론	공을 맞은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공을 찬 친구와 공을 맞은 친구가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초콜릿을 사고 싶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이 아이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감정 추론	아빠는 어떤 기분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아이는 초콜릿을 하루에 두 개만 먹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이미 초콜릿을 두 개나 먹었어요. 그런데 또 사달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초콜릿이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초콜릿을 더 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강아지가 식탁 위 음식들을 먹은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강아지가 식탁 위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아빠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감정 추론	마침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면서 이 장면을 보았어요.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장면을 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예방책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기 무서운 상황	상황/단서 추론	여기는 어디인가요? 놀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친구들은 왜 이 친구를(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감정 추론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문제해결 추론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도저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책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싶은데, 비가 올까 봐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	평가 영역	질문
상을 받는 상황	상황/단서 추론	무슨 상황인가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시상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감정 추론	3등을 한 친구는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문제해결 추론	이 친구들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3등을 한 친구가 속상해 한다면, 어떤 말을 해서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예방책	다음 달리기 시합에서 지금보다 더 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래성이 무너진 상황	상황/단서 추론	지금은 무슨 계절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인/이유 추론	남자 아이는 왜 모래를 더 부으려고 하는 걸까요?
	감정 추론	남자 아이가 모래를 쏟아 부어서 모래성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동생은 기분이 어떨까요?
	문제해결 추론	남자 아이는 동생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방책	남자 아이는 모래성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록 표 3〉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질문 내용
1. 귀하의 자녀는 하교 혹은 하원 후나 주말에,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평소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 귀하의 자녀는 평소에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2-1. 설문대상(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을 구체적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2-2.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하교 및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1주일 기준) 2-3.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2-4.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2-5. 귀하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월비용은 얼마입니까? 2-6.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3. 자녀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까? 3-1.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3-2. 자녀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4. 자녀의 과거 사교육 경험의 개수를 기록해주세요.
5.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6. 사교육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그만둔 사교육이 있다면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향후 자녀에게 사교육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속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8-1.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9. 설문 대상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9-1. 설문 대상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고려 중인 사교육 과목이 있습니까?

자료: 김보용(2009).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pp. 98-107 내용과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pp. 134-144 내용 및 최재원(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 pp. 67-71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함.

**〈부록 표 4〉 영어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설문문항 구성**

질문 내용
1. 설문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어떤 방법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 설문 대상 자녀의 영어 사교육 방법을 선택한 실제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처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4. 주당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5. 하루에 자녀가 받는 영어 사교육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6. 영어 사교육에 지출되는 한 달 비용은 얼마입니까? 7. 현재 영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7-1.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2. 만약 영어 사교육의 교육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백지원(2009).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실태조사. pp. 50-55 내용과 신나나(2021). 유아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 7차 교육과정을 경험한 만 35세 미만 엄마들을 중심으로. pp. 61-68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부록 표 5>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기점수 (1)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0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2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전체	1.09	1.24	1.03	1.48	1.31	1.62	2.93	(663)
자녀 성별								
남	1.17	1.29	1.16	1.44	1.39	1.61	3.00	(321)
여	1.01	1.19	0.91	1.52	1.23	1.63	2.86	(342)
<i>t</i>	0.8	0.6	2.5*	-0.7	1.7	-0.2	1.0	
자녀 연령								
만2세	0.08 <sup>b</sup>	1.22	0.95	1.56 <sup>a</sup>	1.29	1.67 <sup>a</sup>	2.97 <sup>a</sup>	(316)
만3세	1.38 <sup>a</sup>	1.41	1.13	1.55 <sup>a</sup>	1.45 <sup>a</sup>	1.71 <sup>a</sup>	3.16 <sup>a</sup>	(236)
만5세	1.40	1.00	1.12	1.09 <sup>b</sup>	1.06 <sup>b</sup>	1.28 <sup>b</sup>	2.34 <sup>b</sup>	(111)
<i>F</i>	4.9*(w)	1.2(w)	1.7(w)	4.1*	3.6*(w)	4.7**	6.9**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27	1.38	1.07	1.51	1.34	1.69	3.04	(170)
어린이집	0.95	1.18	0.99	1.55	1.29	1.63	2.92	(445)
반일제하원	2.36	1.09	1.43	0.78	1.48	1.30	2.79	( 33)
가정양육	0.71	1.57	0.91	0.91	1.13	1.20	2.33	( 15)
<i>F</i>	2.2(w)	0.6	1.4	3.6*	0.4	1.4	0.7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0	1.64	1.40	1.94	1.95 <sup>a</sup>	2.10	4.05 <sup>a</sup>	( 61)
전문대졸	1.06	1.00	0.92	1.46	1.15 <sup>b</sup>	1.47	2.62 <sup>b</sup>	(130)
4년제대졸	0.93	1.21	0.98	1.42	1.25 <sup>b</sup>	1.59	2.83 <sup>b</sup>	(389)
대학원졸 이상	1.33	1.26	1.11	1.42	1.37	1.66	3.04	( 83)
<i>F</i>	1.1(w)	1.2(w)	1.7(w)	1.6(w)	4.3***(w)	2.6(w)	5.4***(w)	

단위: 개(명)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0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2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1	1.29	2.50	0.93	1.57	2.51	1.16	1.78	2.94
전문대졸	1.04	1.51	2.55	1.01	1.62	2.63	1.33	1.68	3.01
4년제대졸	0.97	1.15	2.12	1.02	1.45	2.47	1.35	1.57	2.92
대학원졸 이상	1.74	1.13	2.87	1.27	1.18	2.45	1.25	1.42	2.67
F	1.0(w)	1.1	1.1	0.9(w)	1.4	0.2	0.9(w)	1.3	0.5
맞벌이 여부									
외발이	0.75	1.07	1.83	0.89	1.48	2.38	1.33	1.66	2.99
맞벌이	1.23	1.30	2.54	1.10	1.47	2.57	1.30	1.60	2.90
미취업	1.00	2.00	3.00	1.00	4.00	5.00	1.67	2.00	3.67
F	-	1.0	-	1.8	2.1	1.6	0.2	0.3	0.4
지역 규모									
대도시	1.16	1.15	2.32	1.11	1.43	2.54	1.35	1.60	2.95
중소도시	1.12	1.32	2.44	1.02	1.53	2.55	1.34	1.61	2.95
읍면	0.88	1.16	2.05	0.93	1.46	2.39	1.11	1.70	2.80
F	0.6	0.5	0.5	0.8	0.3	0.2	1.6	0.2	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2	1.15	2.58	0.89	1.47	2.37	1.62	1.53	3.15
300 이상~500만원	1.24	1.39	2.64	1.05	1.51	2.56	1.21	1.80	3.01
500 이상~700만원	0.75	1.27	2.01	1.03	1.53	2.57	1.29	1.54	2.83
700만원 이상	1.25	1.07	2.32	1.07	1.37	2.43	1.37	1.52	2.88
F	2.5	0.8	1.3(w)	0.3	0.4	0.2	1.8	2.2	0.6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만n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6〉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기점수 (2)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단위: 개(명)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전체	1.79	1.62	3.41	1.56	3.32	1.48	3.59	(439)
자녀 성별								
남	1.89	1.55	3.45	1.39	3.18	1.30	3.37	(225)
여	1.70	1.69	3.38	1.71	3.44	1.66	3.81	(214)
<i>t</i>	1.4	-1.2	0.3	-2.4*	-0.9	-3.1**	-1.8	
자녀 연령								
만2세	-	-	-	-	-	-	-	-
만3세	1.99	1.75	3.74	-	-	-	-	-
만5세	1.49	1.43	2.92	1.56	3.32	1.48	3.59	(439)
<i>t</i>	3.6***	2.9**	4.1***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80	1.66	3.46	1.65	3.41	1.58 <sup>a</sup>	3.72 <sup>a</sup>	(235)
어린이집	1.76	1.59	3.35	1.43	3.10	1.30 <sup>a</sup>	3.28 <sup>a</sup>	(178)
반일제학원	1.88	1.59	3.47	1.54	3.73	1.73 <sup>a</sup>	4.46 <sup>a</sup>	(26)
가정양육	-	-	-	-	-	-	-	
<i>F</i>	0.1	0.2	0.2	1.1	1.0	2.0(w)	3.4*(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16	1.66	3.81	1.60	3.30	1.33	3.48	(42)
전문대졸	1.60	1.60	3.19	1.48	3.42	1.42	3.69	(105)
4년제대졸	1.74	1.62	3.36	1.59	3.35	1.55	3.63	(253)
대학원졸 이상	2.14	1.68	3.83	1.59	2.85	1.36	3.13	(39)
<i>F</i>	2.7*	0.1	1.5	0.2	0.4	0.7	0.5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9 <sup>b</sup>	1.68	3.17	1.41	1.57	2.98	2.13	1.48	3.61
전문대졸	1.93	1.64	3.57	1.74	1.43	3.17	2.32	1.32	3.64
4년제대졸	1.73	1.57	3.30	1.86	1.62	3.48	2.00	1.49	3.49
대학원졸 이상	2.19 <sup>a</sup>	1.67	3.87	1.80	1.54	3.34	2.34	1.75	4.09
F	2.7*	0.2	1.4	1.0	0.3	0.8(w)	0.8(w)	1.2	0.5(w)
맞벌이 여부									
외벌이	1.51 <sup>a</sup>	1.70	3.21	1.65	1.56	3.21	1.97	1.60	3.57
맞벌이	1.91 <sup>a</sup>	1.58	3.50	1.82	1.57	3.38	2.18	1.42	3.60
미취업	3.00 <sup>a</sup>	3.00	6.00	-	-	-	-	-	-
F/t	4.4*	1.5	2.0	-0.9	-0.1	-0.6	-1.2	1.5	-0.1
지역 규모									
대도시	1.88	1.76	3.63	1.82	1.75	3.57	2.13	1.59	3.72
중소도시	1.73	1.51	3.24	1.62	1.44	3.06	2.11	1.40	3.51
읍면	1.72	1.60	3.32	1.96	1.41	3.37	2.05	1.41	3.45
F	0.6	2.1	1.6	1.0	2.4(w)	1.5(w)	0.1	1.2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26	1.60	3.86	2.12	1.65	3.76	2.82	1.75	4.57
300 이상~500만원	1.75	1.77	3.52	1.74	1.49	3.23	2.01	1.45	3.45
500 이상~700만원	1.83	1.59	3.42	1.73	1.54	3.27	2.05	1.42	3.48
700만원 이상	1.65	1.47	3.12	1.75	1.69	3.44	2.14	1.54	3.68
F	1.6	1.4(w)	1.5(w)	0.3	0.4	0.3	1.7	0.7	1.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n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반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7〉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가짓수 (1)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0세만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2세만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2세만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개(수)	평균	
전체	1.54 (166)	1.87 (155)	2.33 (234)	1.93 (322)	1.39 (322)	1.93 (333)	2.52 (434)	1.78 (487)	1.99 (540)	2.93 (663)											
자녀 성별																					
남	1.74 (80)	1.80 (85)	2.45 (119)	1.89 (167)	1.49 (167)	1.89 (163)	2.60 (214)	1.81 (247)	2.00 (259)	3.00 (321)											
여	1.35 (86)	1.96 (70)	2.20 (115)	1.97 (155)	1.30 (155)	1.97 (170)	2.44 (220)	1.75 (240)	1.98 (281)	2.86 (342)											
<i>t</i>	1.6	-0.9	0.9	-0.7	1.8	-0.7	1.0	0.6	0.1	1.0											
자녀 연령																					
만2세	1.24 <sup>a</sup> (76)	1.67 (86)	2.02 (118)	1.94 (163)	1.28 (163)	1.94 (177)	2.50 (220)	1.72 (237)	2.02 (262)	2.97 <sup>a</sup> (316)											
만3세	1.84 <sup>a</sup> (55)	2.10 (49)	2.79 (73)	1.95 (105)	1.57 (105)	1.95 (116)	2.68 (146)	1.91 (179)	2.07 <sup>a</sup> (195)	3.16 <sup>a</sup> (236)											
만5세	1.71 <sup>a</sup> (35)	2.15 (20)	2.40 (43)	1.85 (54)	1.41 (54)	1.85 (40)	2.21 (68)	1.66 (71)	1.71 <sup>b</sup> (83)	2.34 <sup>b</sup> (111)											
<i>F</i>	3.2*(w)	3.4*	2.7(w)	0.1	2.5(w)	0.1	1.7(w)	2.0	3.0*	6.9**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1.65 (46)	2.18 (38)	2.65 (60)	2.00 (81)	1.47 (81)	2.00 (84)	2.59 (111)	1.85 (123)	2.07 (139)	3.04 (170)											
어린이집	1.41 (105)	1.75 (105)	2.13 (156)	1.93 (211)	1.36 (211)	1.93 (232)	2.54 (289)	1.76 (289)	2.00 (363)	2.92 (445)											
반일제후원	2.60 (10)	2.00 (6)	3.45 (11)	1.80 (21)	1.57 (21)	1.80 (10)	2.22 (23)	1.88 (26)	1.65 (26)	2.79 (33)											
가정양육	1.00 (5)	1.83 (6)	2.29 (7)	1.43 (9)	1.11 (9)	1.43 (7)	1.82 (11)	1.55 (11)	1.50 (12)	2.33 (15)											
<i>F</i>	-	1.6	1.0(w)	0.7	7.5	0.7	0.9	0.5	1.7	0.7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1 (22)	2.30 <sup>a</sup> (20)	3.14 (28)	2.45 (42)	1.60 (42)	2.45 (38)	3.33 (48)	2.29 <sup>a</sup> (52)	2.51 <sup>a</sup> (51)	4.05 <sup>a</sup> (61)											
전문대졸	1.30 (27)	1.65 <sup>a</sup> (20)	2.06 (33)	1.85 (60)	1.22 (60)	1.85 (62)	2.38 (79)	1.61 <sup>b</sup> (93)	1.79 <sup>b</sup> (107)	2.62 <sup>b</sup> (130)											
4년제대졸	1.44 (84)	1.71 <sup>a</sup> (92)	2.14 (130)	1.86 (178)	1.35 (178)	1.86 (187)	2.40 (245)	1.73 (281)	1.95 <sup>b</sup> (317)	2.83 <sup>b</sup> (389)											
대학원졸 이상	1.73 (33)	2.35 <sup>a</sup> (23)	2.58 (43)	1.91 (42)	1.64 (42)	1.91 (46)	2.53 (62)	1.87 (61)	2.12 (65)	3.04 (83)											
<i>F</i>	1.0(w)	3.8*	2.0	2.2(w)	1.9(w)	2.2(w)	2.3(w)	3.2*(w)	4.0*(w)	5.4*(w)											

단위: 개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0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1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12세반 경험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학습 관련	계(수)	예체능/ 기타 관련	총계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F	1.79 (19)	(19)	1.89 (19)	2.50 (28)	1.24 (46)	(46)	1.96 (49)	2.51 (61)	1.55 (65)	(65)	2.12 (73)	2.94 (87)	1.79 (19)	(19)	1.89 (19)	2.50 (28)
	1.56 (34)	(38)	2.03 (38)	2.55 (51)	1.48 (61)	(61)	2.03 (71)	2.63 (89)	1.89 (88)	(88)	2.04 (103)	3.01 (125)	1.70 (119)	(119)	1.93 (111)	2.54 (164)
	1.35 (92)	(82)	1.79 (82)	2.12 (128)	1.35 (179)	(179)	1.92 (178)	2.47 (236)	1.78 (282)	(282)	1.95 (299)	2.92 (371)	1.00 (1)	(1)	2.00 (1)	3.00 (3)
	2.35 (17)	(14)	1.86 (14)	2.87 (23)	1.75 (32)	(32)	1.63 (32)	2.45 (44)	1.96 (46)	(46)	1.79 (57)	2.67 (72)	-	(0)	0.6	0.6
	1.4(w)	0.4	0.4	1.1	2.0(w)	1.1	1.1	0.2	1.6	1.6	1.1	0.5	1.13 (46)	(46)	1.72 (43)	1.83 (69)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미취업 F	1.13 (46)	(43)	1.72 (43)	1.83 (69)	1.26 (94)	(94)	1.85 (106)	2.38 (132)	1.77 (145)	(145)	2.02 (158)	2.99 (192)	1.60 (53)	(53)	1.75 (48)	2.32 (73)
	1.70 (119)	(111)	1.93 (111)	2.54 (164)	1.45 (227)	(227)	1.96 (226)	2.57 (301)	1.79 (339)	(339)	1.97 (380)	2.90 (488)	1.59 (83)	(83)	1.97 (79)	2.44 (118)
	1.00 (1)	(1)	2.00 (1)	3.00 (1)	1.00 (1)	(1)	4.00 (1)	5.00 (1)	1.67 (3)	(3)	3.00 (2)	3.67 (3)	1.27 (30)	(30)	1.79 (28)	2.05 (43)
	-	0.6	0.6	-	-	-	2.3	1.6	0.0	0.0	0.9	0.4	0.7(w)	0.8	0.8	0.5
	1.60 (53)	(48)	1.75 (48)	2.32 (73)	1.50 (111)	(111)	1.91 (113)	2.54 (151)	1.76 (196)	(196)	1.96 (208)	2.95 (255)	1.60 (53)	(53)	1.75 (48)	2.32 (73)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1.59 (83)	(79)	1.97 (79)	2.44 (118)	1.35 (158)	(158)	1.95 (164)	2.55 (209)	1.84 (223)	(223)	2.00 (247)	2.95 (306)	1.59 (83)	(83)	1.97 (79)	2.44 (118)
	1.27 (30)	(28)	1.79 (28)	2.05 (43)	1.30 (53)	(53)	1.93 (56)	2.39 (74)	1.66 (68)	(68)	2.04 (85)	2.80 (102)	1.27 (30)	(30)	1.79 (28)	2.05 (43)
	0.7(w)	0.8	0.8	0.5	1.2	1.2	0.0	0.2	0.7	0.7	0.1	0.3	1.27 (30)	(30)	1.79 (28)	2.05 (43)
	1.95 (19)	(18)	1.67 (18)	2.58 (26)	1.31 (26)	(26)	1.81 (31)	2.37 (38)	1.98 (45)	(45)	2.00 (42)	3.15 (55)	1.95 (19)	(19)	1.67 (18)	2.58 (26)
	1.64 (50)	(45)	2.04 (45)	2.64 (66)	1.38 (108)	(108)	1.97 (109)	2.56 (142)	1.78 (152)	(152)	2.10 (191)	3.01 (223)	1.64 (50)	(50)	2.04 (45)	2.64 (6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 이상~500만원 500 이상~700만원 700만원 이상 F	1.27 (49)	(58)	1.81 (58)	2.01 (83)	1.38 (112)	(112)	2.00 (115)	2.57 (150)	1.69 (169)	(169)	1.97 (173)	2.83 (221)	1.54 (48)	(48)	1.85 (34)	2.32 (59)
	1.54 (48)	(34)	1.85 (34)	2.32 (59)	1.46 (76)	(76)	1.82 (78)	2.43 (104)	1.85 (121)	(121)	1.86 (134)	2.88 (164)	1.54 (48)	(48)	1.85 (34)	2.32 (59)
	1.3(w)	0.6(w)	0.6(w)	0.2	0.2	0.2	0.6	0.3(w)	1.1	1.1	1.2	0.6	1.3(w)	0.6(w)	0.6(w)	0.2
	1.95 (19)	(18)	1.67 (18)	2.58 (26)	1.31 (26)	(26)	1.81 (31)	2.37 (38)	1.98 (45)	(45)	2.00 (42)	3.15 (55)	1.95 (19)	(19)	1.67 (18)	2.58 (26)
	1.64 (50)	(45)	2.04 (45)	2.64 (66)	1.38 (108)	(108)	1.97 (109)	2.56 (142)	1.78 (152)	(152)	2.10 (191)	3.01 (223)	1.64 (50)	(50)	2.04 (45)	2.64 (6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만12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칸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부록 표 8〉 각 연령별 사교육 경험: (해당 연령별 각 항목별(학습, 예체능/기타)로 사교육 경험 1개 이상인) 유형별 기술통계 (2)

단위: 개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3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4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만5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전체	2.43 (436)	2.03 (471)	3.41 (590)	3.41 (590)	2.43 (239)	1.90 (272)	3.32 (330)	3.32 (330)	2.76 (336)	1.85 (350)	3.59 (439)	3.59 (439)	2.76 (336)	1.85 (350)	3.59 (439)	3.59 (439)
자녀 성별																
남	2.40 (219)	2.07 (209)	3.45 (278)	3.45 (278)	2.36 (114)	1.82 (114)	3.18 (150)	3.18 (150)	2.69 (173)	1.77 (166)	3.37 (225)	3.37 (225)	2.69 (173)	1.77 (166)	3.37 (225)	3.37 (225)
여	2.45 (216)	2.01 (262)	3.38 (312)	3.38 (312)	2.49 (125)	1.95 (158)	3.44 (180)	3.44 (180)	2.83 (162)	1.93 (184)	3.81 (214)	3.81 (214)	2.83 (162)	1.93 (184)	3.81 (214)	3.81 (214)
t	-0.4	0.5	0.3	0.3	-0.7	-0.9	-1.0	-1.0	-0.8	-1.4	-1.8	-1.8	-0.8	-1.4	-1.8	-1.8
자녀 연령																
만2세	-	-	-	-	-	-	-	-	-	-	-	-	-	-	-	-
만3세	2.55 (276)	2.16 (287)	3.74 (354)	3.74 (354)	-	-	-	-	-	-	-	-	-	-	-	-
만5세	2.21 (159)	1.84 (184)	2.92 (236)	2.92 (236)	2.43 (239)	1.90 (272)	3.32 (330)	3.32 (330)	2.76 (336)	1.85 (350)	3.59 (439)	3.59 (439)	2.76 (336)	1.85 (350)	3.59 (439)	3.59 (439)
t	2.3*	2.9**	4.1***	4.1***	2.43	1.90	3.32	3.32	2.76	1.85	3.59	3.59	2.76	1.85	3.59	3.59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56 (211)	2.02 (247)	3.46 (300)	3.46 (300)	2.52 (127)	1.93 (156)	3.41 (182)	3.41 (182)	2.87 (175)	1.89 (197)	3.72 <sup>a</sup> (235)	3.72 <sup>a</sup> (235)	2.87 (175)	1.89 (197)	3.72 <sup>a</sup> (235)	3.72 <sup>a</sup> (235)
어린이집	2.31 (197)	2.09 (196)	3.35 (258)	3.35 (258)	2.28 (89)	1.84 (95)	3.10 (122)	3.10 (122)	2.56 (137)	1.78 (130)	3.28 <sup>a</sup> (178)	3.28 <sup>a</sup> (178)	2.56 (137)	1.78 (130)	3.28 <sup>a</sup> (178)	3.28 <sup>a</sup> (178)
반일제학원	2.22 (27)	1.82 (28)	3.47 (32)	3.47 (32)	2.48 (23)	1.90 (21)	3.73 (26)	3.73 (26)	3.09 (23)	1.96 (23)	4.46 <sup>a</sup> (26)	4.46 <sup>a</sup> (26)	3.09 (23)	1.96 (23)	4.46 <sup>a</sup> (26)	4.46 <sup>a</sup> (26)
가정양육	-	-	-	-	-	-	-	-	-	-	-	-	-	-	-	-
F	1.9	0.7	1.6	1.6	0.8(w)	0.2	1.0	1.0	2.1	0.4	3.4*(w)	3.4*(w)	2.1	0.4	3.4*(w)	3.4*(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0 (48)	2.34 (41)	3.81 (58)	3.81 (58)	3.00 (17)	1.85 (26)	3.30 (30)	3.30 (30)	3.21 (28)	1.75 (32)	3.48 (42)	3.48 (42)	3.21 (28)	1.75 (32)	3.48 (42)	3.48 (42)
전문대졸	2.28 (94)	2.02 (106)	3.19 (134)	3.19 (134)	2.39 (64)	1.89 (62)	3.42 (79)	3.42 (79)	2.80 (85)	1.91 (78)	3.69 (105)	3.69 (105)	2.80 (85)	1.91 (78)	3.69 (105)	3.69 (105)
4년제대졸	2.38 (245)	2.01 (269)	3.36 (335)	3.36 (335)	2.36 (145)	1.94 (159)	3.35 (194)	3.35 (194)	2.67 (198)	1.90 (198)	3.63 (253)	3.63 (253)	2.67 (198)	1.90 (198)	3.63 (253)	3.63 (253)
대학원졸 이상	2.81 (48)	1.93 (55)	3.83 (63)	3.83 (63)	2.62 (13)	1.72 (25)	2.85 (27)	2.85 (27)	2.88 (24)	1.56 (34)	3.13 (39)	3.13 (39)	2.88 (24)	1.56 (34)	3.13 (39)	3.13 (39)
F	1.8	1.1	1.5	1.5	1.1	0.3	0.4	0.4	1.1	1.1	0.5	0.5	1.1	1.1	0.5	0.5

구분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민초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민초세반 경험)				(사교육 1개 이상인 경우 민초세반 경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계(수)	총계	계(수)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0 (53)	2.12 (65)	(82)	3.17 (82)	2.06 (35)	1.78 (45)	(51)	2.98 (51)	2.81 (47)	1.84 (50)	(62)	3.61 (62)	(62)
전문대졸	2.45 (93)	2.05 (94)	(118)	3.57 (118)	2.45 (49)	1.87 (53)	(69)	3.17 (69)	3.00 (68)	1.73 (67)	(88)	3.64 (88)	(88)
4년제대졸	2.35 (231)	1.98 (250)	(315)	3.30 (315)	2.44 (129)	1.96 (139)	(169)	3.48 (169)	2.57 (184)	1.85 (190)	(236)	3.49 (236)	(236)
대학원졸 이상	2.77 (53)	2.04 (55)	(67)	3.87 (67)	2.74 (23)	1.80 (30)	(35)	3.34 (35)	3.43 (30)	2.03 (38)	(44)	4.09 (44)	(44)
F	1.3	0.3	1.4	1.4	1.1	0.4	0.8(w)	0.8(w)	2.6(w)	0.6	0.5(w)	0.5(w)	0.5(w)
맞벌이 여부													
외벌이	2.29 (125)	1.99 (161)	(189)	3.21 (189)	2.27 (85)	1.94 (94)	(117)	3.21 (117)	2.66 (111)	1.97 (122)	(150)	3.57 (150)	(150)
맞벌이	2.48 (308)	2.05 (308)	(399)	3.50 (399)	2.51 (154)	1.88 (178)	(213)	3.38 (213)	2.81 (224)	1.79 (228)	(289)	3.60 (289)	(289)
미취업	3.00 (2)	3.00 (2)	(2)	6.00 (2)	-	-	-	-	-	-	-	-	-
F/t	0.9	0.8	2.0	2.0	-1.2	0.4	-0.6	-0.6	-0.9	1.4	-0.1	-0.1	-0.1
지역 규모													
대도시	2.38 (190)	2.08 (203)	(241)	3.63 (241)	2.40 (103)	2.11 <sup>a</sup> (113)	(136)	3.57 (136)	2.77 (137)	1.94 (146)	(178)	3.72 (178)	(178)
중소도시	2.48 (183)	1.99 (199)	(262)	3.24 (262)	2.34 (97)	1.73 <sup>b</sup> (117)	(140)	3.06 (140)	2.69 (153)	1.81 (151)	(195)	3.51 (195)	(195)
읍면	2.42 (62)	2.01 (69)	(87)	3.32 (87)	2.72 (39)	1.81 (42)	(54)	3.37 (54)	3.00 (45)	1.75 (53)	(66)	3.45 (66)	(66)
F	0.2	0.3	1.7	1.7	1.0(w)	3.3*(w)	1.5(w)	1.5(w)	0.7	0.8	0.4	0.4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0 (38)	2.09 (32)	(42)	3.86 (42)	2.77 (13)	1.75 (16)	(17)	3.76 (17)	3.16 (25)	2.33 (21)	(28)	4.57 (28)	(28)
300 이상~500만원	2.48 (143)	2.18 (165)	(203)	3.52 (203)	2.24 (86)	1.92 (86)	(111)	3.23 (111)	2.76 (106)	1.77 (119)	(146)	3.45 (146)	(146)
500 이상~700만원	2.59 (145)	2.02 (161)	(205)	3.42 (205)	2.51 (84)	1.88 (100)	(122)	3.27 (122)	2.70 (125)	1.83 (127)	(164)	3.48 (164)	(164)
700만원 이상	2.12 (109)	1.82 (113)	(140)	3.12 (140)	2.50 (56)	1.93 (70)	(80)	3.44 (80)	2.73 (79)	1.88 (83)	(101)	3.68 (101)	(101)
F	2.3	2.0(w)	1.5(w)	1.5(w)	0.8	0.1	0.3	0.3	0.4(w)	1.6	1.6	1.6	1.6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3) "민초세반 경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빈번성 기관 연령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경험한 사교육 개수를 의미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 p < .05, \*\*\* p < .001.

〈부록 표 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2세	2016	78.51	21.49	100.00( 456)	3.63	52.23	44.13	( 358)
	2024	86.38	13.62	100.00( 470)	3.94	19.70	76.35	( 406)
5세	2016	89.50	10.50	100.00( 657)	3.91	25.34	70.75	( 588)
	2024	94.20	5.80	100.00( 500)	2.34	7.86	89.81	( 471)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부록 표 1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여부: 2024년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전체		90.75	9.25	100.00(1,470)	3.22	11.47	85.31	(1,334)
자녀 성별								
남		89.96	10.04	100.00( 757)	2.94	11.16	85.90	( 681)
여		91.58	8.42	100.00( 713)	3.52	11.79	84.69	( 653)
	$\chi^2(df)$		1.154(1)			0.528(2)		
자녀 연령								
만2세		86.38	13.62	100.00( 470)	3.94	19.70	76.35	( 406)
만3세		91.40	8.60	100.00( 500)	3.50	7.88	88.62	( 457)
만5세		94.20	5.80	100.00( 500)	2.34	7.86	89.81	( 471)
	$\chi^2(df)$		18.016(2)***			41.942(4)***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94.87	5.13	100.00( 507)	3.53	8.32	88.15	( 481)
어린이집		88.46	11.54	100.00( 910)	2.86	13.42	83.73	( 805)
반일제학원		90.57	9.43	100.00( 53)	6.25	10.42	83.33	( 48)
	$\chi^2(df)$		15.938(2)***			9.433(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92.90	7.10	100.00( 155)	2.78	13.19	84.03	( 144)
전문대졸		90.09	9.91	100.00( 323)	4.81	12.03	83.16	( 291)
4년제대졸		90.40	9.60	100.00( 844)	2.62	10.62	86.76	( 763)
대학원졸 이상		91.89	8.11	100.00( 148)	3.68	13.24	83.09	( 136)
	$\chi^2(df)$		1.373(3)			5.069(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91.19	8.81	100.00( 227)	2.90	14.01	83.09	( 207)
전문대졸		90.91	9.09	100.00( 286)	3.85	9.23	86.92	( 260)
4년제대졸		90.77	9.23	100.00( 780)	2.68	11.16	86.16	( 708)
대학원졸 이상		90.32	9.68	100.00( 155)	5.71	15.00	79.29	( 140)
	$\chi^2(df)$		0.088(3)			8.298(6)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수)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관련	학습, 예체능/ 기타 모두	(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88.64	11.36	100.00( 493)	2.97	12.59	84.44	( 437)
맞벌이	91.87	8.13	100.00( 972)	3.36	10.97	85.67	( 893)
미취업	80.00	20.00	100.00( 5)	0.00	0.00	100.00	( 4)
$\chi^2(df)$		4.759(2)(b)			1.542(4)(b)		
지역 규모							
대도시	93.01	6.99	100.00( 558)	3.28	11.95	84.78	( 519)
중소도시	90.22	9.78	100.00( 675)	3.45	11.33	85.22	( 609)
읍면	86.92	13.08	100.00( 237)	2.43	10.68	86.89	( 206)
$\chi^2(df)$		7.762(2)*			0.808(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9.43	10.57	100.00( 123)	5.45	7.27	87.27	( 110)
300 이상~500만원	89.70	10.30	100.00( 534)	3.13	13.78	83.09	( 479)
500 이상~700만원	90.22	9.78	100.00( 501)	2.65	11.50	85.84	( 452)
700만원 이상	93.91	6.09	100.00( 312)	3.41	9.22	87.37	( 293)
$\chi^2(df)$		4.835(3)			7.900(6)		

주: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 <부록 표 11>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2세	2016	( 171)	1.51	0.76	( 345)	2.08	0.86	-	-	-	( 358)	2.72	1.22
	2024	( 326)	1.55	0.84	( 388)	1.98	0.83	(111)	1.42	0.65	( 406)	3.52	1.74
	$t$		-0.52			1.63			-			-7.40***	
5세	2016	( 439)	2.03	1.03	( 565)	2.33	0.98	-	-	-	( 588)	3.76	1.65
	2024	( 434)	2.65	1.43	( 455)	2.07	0.86	(265)	1.55	0.79	( 471)	5.32	2.52
	$t$		-7.34***			4.50***			-			-11.65***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부록 표 12〉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지수: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34)	1.96	1.40	(1334)	1.98	0.94	(1334)	0.70	0.92	(1334)	4.64	2.37
자녀 성별												
남	( 681)	1.95	1.39	( 681)	1.95	0.92	( 681)	0.70	0.90	( 681)	4.60	2.27
여	( 653)	1.97	1.43	( 653)	2.02	0.96	( 653)	0.70	0.94	( 653)	4.68	2.47
<i>t</i>		-0.2			-1.4			0.0			-0.6	
자녀 연령												
만2세	( 406)	1.24 <sup>c</sup>	0.97	( 406)	1.89	0.91	( 406)	0.39 <sup>b</sup>	0.72	( 406)	3.52 <sup>c</sup>	1.74
만3세	( 457)	2.11 <sup>b</sup>	1.32	( 457)	2.04	0.98	( 457)	0.79 <sup>a</sup>	0.96	( 457)	4.93 <sup>b</sup>	2.35
만5세	( 471)	2.44 <sup>a</sup>	1.55	( 471)	2.00	0.92	( 471)	0.87 <sup>a</sup>	0.97	( 471)	5.32 <sup>a</sup>	2.52
<i>F</i>		118.3*** <sup>(w)</sup>			2.9 <sup>(w)</sup>			43.9*** <sup>(w)</sup>			94.7*** <sup>(w)</sup>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81)	2.30 <sup>a</sup>	1.43	( 481)	2.02	0.96	( 481)	0.89 <sup>a</sup>	1.02	( 481)	5.21 <sup>a</sup>	2.48
어린이집	( 805)	1.73 <sup>b</sup>	1.31	( 805)	1.97	0.92	( 805)	0.60 <sup>b</sup>	0.84	( 805)	4.30 <sup>b</sup>	2.18
반일제학원	( 48)	2.38	1.86	( 48)	1.73	1.03	( 48)	0.54 <sup>b</sup>	0.80	( 48)	4.65	3.12
<i>F</i>		26.5*** <sup>(w)</sup>			2.3 <sup>(w)</sup>			14.4*** <sup>(w)</sup>			22.3*** <sup>(w)</sup>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44)	2.03	1.44	( 144)	1.99	0.94	( 144)	0.92 <sup>a</sup>	1.02	( 144)	4.94	2.63
전문대졸	( 291)	1.96	1.39	( 291)	1.96	1.01	( 291)	0.74	0.97	( 291)	4.66	2.45
4년제대졸	( 763)	1.96	1.39	( 763)	2.00	0.91	( 763)	0.65 <sup>b</sup>	0.87	( 763)	4.60	2.27
대학원졸 이상	( 136)	1.93	1.49	( 136)	1.91	0.93	( 136)	0.66	0.94	( 136)	4.51	2.42
<i>F</i>		0.1			0.4			3.7*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207)	1.98	1.49	( 207)	2.00	0.97	( 207)	0.84	0.99	( 207)	4.82	2.59
전문대졸	( 260)	2.10	1.50	( 260)	1.98	0.97	( 260)	0.72	0.93	( 260)	4.81	2.52
4년제대졸	( 708)	1.92	1.34	( 708)	1.96	0.91	( 708)	0.65	0.88	( 708)	4.52	2.22
대학원졸 이상	( 140)	1.86	1.44	( 140)	2.03	0.99	( 140)	0.66	1.02	( 140)	4.55	2.45
<i>F</i>		1.3 <sup>(a)</sup>			0.3			2.4			1.5 <sup>(a)</sup>	
맞벌이 여부												
외벌이	( 437)	1.93	1.39	( 437)	1.98	0.91	( 437)	0.66	0.88	( 437)	4.57	2.33
맞벌이	( 893)	1.98	1.41	( 893)	1.98	0.95	( 893)	0.71	0.94	( 893)	4.67	2.38
미취업	( 4)	2.50	1.29	( 4)	2.00	1.41	( 4)	1.00	0.82	( 4)	5.50	3.11
<i>F</i>		0.5			0.0			0.7			0.5	
지역 규모												
대도시	( 519)	1.99	1.47	( 519)	2.01	0.97	( 519)	0.71	0.95	( 519)	4.70	2.52
중소도시	( 609)	1.96	1.37	( 609)	1.93	0.91	( 609)	0.65	0.88	( 609)	4.54	2.26
읍면	( 206)	1.91	1.35	( 206)	2.05	0.94	( 206)	0.82	0.96	( 206)	4.78	2.29
<i>F</i>		0.2			1.6			2.5			1.0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기타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10)	2.10	1.43	( 110)	1.80	0.85	( 110)	0.77	0.90	( 110)	4.67	2.32
300 이상~500만원	( 479)	1.94	1.42	( 479)	2.00	0.95	( 479)	0.73	0.95	( 479)	4.67	2.46
500 이상~700만원	( 452)	1.94	1.43	( 452)	2.04	0.93	( 452)	0.63	0.86	( 452)	4.62	2.30
700만원 이상	( 293)	1.97	1.34	( 293)	1.92	0.95	( 293)	0.72	0.97	( 293)	4.61	2.34
<i>F</i>		0.4			2.4			1.2			0.1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표 13〉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가짓수: 2024년

단위: (명), 개

구분	(1개이상) 학습 관련			(1개이상) 예체능 관련			(1개이상) 기타			(1개이상)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81)	2.22	1.29	(1281)	2.06	0.87	(606)	1.54	0.76	(1334)	4.64	2.37
자녀 성별												
남	( 605)	2.20	1.27	( 655)	2.02	0.85	(313)	1.52	0.73	( 681)	4.60	2.27
여	( 576)	2.23	1.31	( 626)	2.10	0.88	(293)	1.55	0.79	( 653)	4.68	2.47
<i>t</i>		-0.4			-1.6			-0.5			-0.6	
자녀 연령												
만2세	( 326)	1.55 <sup>c</sup>	0.84	( 388)	1.98 <sup>b</sup>	0.83	(111)	1.42	0.65	( 406)	3.52 <sup>c</sup>	1.74
만3세	( 421)	2.29 <sup>b</sup>	1.21	( 438)	2.13 <sup>a</sup>	0.90	(230)	1.57	0.77	( 457)	4.93 <sup>b</sup>	2.35
만5세	( 434)	2.65 <sup>a</sup>	1.43	( 455)	2.07	0.86	(265)	1.55	0.79	( 471)	5.32 <sup>a</sup>	2.52
<i>F</i>		103.1***(w)			3.2*(w)			1.9(w)			94.7***(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41)	2.51 <sup>a</sup>	1.30	( 457)	2.13 <sup>a</sup>	0.86	(261)	1.63 <sup>a</sup>	0.84	( 481)	5.21 <sup>a</sup>	2.48
어린이집	( 697)	2.00 <sup>b</sup>	1.20	( 779)	2.03	0.86	(326)	1.47 <sup>b</sup>	0.69	( 805)	4.30 <sup>b</sup>	2.18
반일제학원	( 43)	2.65 <sup>a</sup>	1.77	( 45)	1.84 <sup>b</sup>	0.95	( 19)	1.37	0.68	( 48)	4.65	3.12
<i>F</i>		23.0***(w)			3.3*			3.6*(w)			22.3***(w)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5)	2.34	1.29	( 139)	2.06	0.88	( 80)	1.65	0.81	( 144)	4.94	2.63
전문대졸	( 256)	2.23	1.27	( 274)	2.08	0.91	(134)	1.60	0.81	( 291)	4.66	2.45
4년제대졸	( 682)	2.19	1.29	( 738)	2.06	0.85	(335)	1.48	0.72	( 763)	4.60	2.27
대학원졸 이상	( 118)	2.23	1.37	( 130)	2.00	0.85	( 57)	1.58	0.80	( 136)	4.51	2.42
<i>F</i>		0.5			0.3			1.5(w)			1.0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78)	2.30	1.35	( 200)	2.07	0.91	(108)	1.61	0.80	( 207)	4.82	2.59
전문대졸	( 236)	2.31	1.41	( 248)	2.08	0.89	(122)	1.54	0.75	( 260)	4.81	2.52
4년제대졸	( 629)	2.16	1.22	( 682)	2.03	0.84	(312)	1.48	0.73	( 708)	4.52	2.22
대학원졸 이상	( 119)	2.19	1.30	( 132)	2.15	0.88	( 52)	1.77	0.90	( 140)	4.55	2.45
<i>F</i>		1.1(w)			0.8			2.6			1.5(a)	

구분	(1개이상) 학습 관련			(1개이상) 예체능 관련			(1개이상) 기타			(1개이상)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82)	2.20	1.27	( 420)	2.06	0.83	(195)	1.48	0.73	( 437)	4.57	2.33
맞벌이	( 795)	2.22	1.30	( 857)	2.06	0.88	(408)	1.56	0.77	( 893)	4.67	2.38
미취업	( 4)	2.50	1.29	( 4)	2.00	1.41	( 3)	1.33	0.58	( 4)	5.50	3.11
<i>F</i>		0.1			0.0(w)			0.9			0.5	
지역 규모												
대도시	( 457)	2.26	1.36	( 500)	2.08	0.90	(233)	1.57	0.80	( 519)	4.70	2.52
중소도시	( 540)	2.21	1.24	( 583)	2.02	0.83	(265)	1.50	0.72	( 609)	4.54	2.26
읍면	( 184)	2.14	1.24	( 198)	2.13	0.86	(108)	1.56	0.78	( 206)	4.78	2.29
<i>F</i>		0.5(w)			1.6(w)			0.6			1.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02)	2.26	1.35	( 103)	1.92	0.74	( 58)	1.47	0.71	( 110)	4.67	2.32
300 이상~500만원	( 413)	2.25	1.28	( 460)	2.08	0.88	(225)	1.55	0.81	( 479)	4.67	2.46
500 이상~700만원	( 400)	2.20	1.32	( 437)	2.11	0.87	(193)	1.48	0.68	( 452)	4.62	2.30
700만원 이상	( 266)	2.17	1.25	( 281)	2.00	0.88	(130)	1.63	0.81	( 293)	4.61	2.34
<i>F</i>		0.3			2.1(w)			1.2(w)			0.1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4〉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2세	2016	9.22	9.78	24.02	25.42	16.48	15.08	100.00( 358)	46.33	34.78
	2024	5.81	11.62	11.62	14.65	15.40	40.91	100.00( 396)	69.78	48.97
	<i>t</i>								-7.66***	
5세	2016	34.35	5.44	17.01	17.69	12.76	12.76	100.00( 588)	37.76	40.25
	2024	26.56	7.81	11.38	9.60	7.59	37.05	100.00( 448)	60.31	59.96
	<i>t</i>								-7.05***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



〈부록 표 15〉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 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64	9.18	10.65	11.74	10.58	41.21	100.00(1,286)	66.98	56.23
자녀 성별									
남	16.16	8.69	9.15	12.65	12.35	41.01	100.00( 656)	68.78	56.86
여	17.14	9.68	12.22	10.79	8.73	41.43	100.00( 630)	65.11	55.55
$\chi^2(df)/t$			8.323(5)						1.2
자녀 연령									
만2세	5.81	11.62	11.62	14.65	15.40	40.91	100.00( 396)	69.78 <sup>a</sup>	48.97
만3세	16.29	8.37	9.05	11.31	9.28	45.70	100.00( 442)	71.23 <sup>a</sup>	57.87
만5세	26.56	7.81	11.38	9.60	7.59	37.05	100.00( 448)	60.31 <sup>b</sup>	59.96
$\chi^2(df)/F$			81.817(10)***						4.6*(w)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28.27	7.28	13.10	10.19	7.28	33.89	100.00( 481)	55.29	56.78
어린이집	9.69	10.31	9.19	12.67	12.55	45.59	100.00( 805)	73.96	54.75
$\chi^2(df)/t$			89.321(5)***						-5.8***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58	10.49	13.29	12.59	4.90	39.16	100.00( 143)	63.00	57.84
전문대졸	16.49	8.77	11.23	13.33	9.12	41.05	100.00( 285)	69.35	59.83
4년제대졸	16.83	9.03	9.99	11.35	12.18	40.63	100.00( 731)	66.38	55.03
대학원졸 이상	12.60	9.45	10.24	9.45	11.02	47.24	100.00( 127)	69.59	53.08
$\chi^2(df)/F$			13.119(15a)						0.5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18.14	9.80	12.75	8.33	9.31	41.67	100.00( 204)	68.20	60.90
전문대졸	18.58	8.70	8.70	13.83	9.49	40.71	100.00( 253)	67.20	57.16
4년제대졸	15.67	8.93	10.54	12.01	11.57	41.29	100.00( 683)	66.87	54.75
대학원졸 이상	14.96	10.24	11.02	12.60	11.02	40.16	100.00( 127)	64.92	54.17
$\chi^2(df)/F$			7.888(15)						0.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09	9.24	12.09	10.19	9.24	38.15	100.00( 422)	60.91 <sup>b</sup>	55.25
맞벌이	14.53	9.19	10.00	12.44	11.28	42.56	100.00( 860)	69.80 <sup>a</sup>	56.53
미취업	0.00	0.00	0.00	25.00	0.00	75.00	100.00( 4)	100.50	42.50
$\chi^2(df)/F$			15.734(10)(b)						4.3*
지역 규모									
대도시	14.49	10.00	9.18	13.67	13.27	39.39	100.00( 490)	67.09	54.75
중소도시	14.00	9.44	12.31	10.12	9.11	45.03	100.00( 593)	70.45 <sup>a</sup>	56.51
읍면	29.56	6.40	9.36	11.82	8.37	34.48	100.00( 203)	56.57 <sup>b</sup>	57.87
$\chi^2(df)/F$			42.255(10)***						4.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67	7.41	10.19	12.04	10.19	43.52	100.00( 108)	63.25	48.44
300 이상~500만원	20.46	9.07	11.18	9.70	9.70	39.87	100.00( 474)	64.37	57.66
500 이상~700만원	15.56	9.38	10.07	12.36	12.59	40.05	100.00( 437)	68.40	57.62
700만원 이상	11.61	9.74	10.86	14.23	8.99	44.57	100.00( 267)	70.78	54.21
$\chi^2(df)/F$			16.429(15)						1.0

주: 1) F통계량에서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부 Welch ANOVA 검정을 수행하고, (w)라고 표기함.

2) 검정 통계량의 경우,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b)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  $p < .001$ .

〈부록 표 16〉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16년 VS. 2024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대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단위: %(명)
														계(수)
2세	2016	13.13	8.38	5.59	2.51	4.47	15.92	40.22	0.84	0.84	1.40	1.12	-	100.00(358)
	2024	3.20	10.59	18.72	19.70	7.64	10.34	5.17	20.94	0.99	1.23	0.74	-	100.00(406)
5세	2016	23.13	4.25	10.03	3.40	2.89	3.74	14.29	31.80	2.21	1.53	1.53	0.34	100.00(588)
	2024	15.07	4.88	23.14	10.19	3.82	8.49	5.31	20.81	2.34	2.55	0.64	0.21	100.00(471)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부록 표 17〉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024년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대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저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단위: %(명)
														계(수)
전체	9.52	8.32	20.91	13.94	5.10	9.22	5.77	20.16	2.85	1.35	2.02	0.52	0.30	100.00(1,334)
자녀 성별														
남	7.20	9.40	22.03	14.24	3.96	9.10	6.02	21.29	2.06	1.76	1.76	0.73	0.44	100.00( 681)
여	11.94	7.20	19.75	13.63	6.28	9.34	5.51	18.99	3.68	0.92	2.30	0.31	0.15	100.00( 653)
$\chi^2(df)$	22.678(12)*													
자녀 연령														
만2세	3.20	10.59	18.72	19.70	7.64	10.34	5.17	20.94	0.99	0.74	1.23	0.74	0.00	100.00( 406)
만3세	9.41	9.85	20.57	12.69	4.16	8.97	6.78	18.82	5.03	0.66	2.19	0.22	0.66	100.00( 457)
만5세	15.07	4.88	23.14	10.19	3.82	8.49	5.31	20.81	2.34	2.55	2.55	0.64	0.21	100.00( 471)
$\chi^2(df)$	97.255(24)***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신심할 까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단체활동 부재	특기개발, 적성 파악	발달· 학습에 도움	정부비용 지원	외부학원 보다 자렴	장소이동 없음	프로그램 질이 높아서	기타	계(수)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학원 $\chi^2$ (df)	11.85	6.86	25.36	8.11	3.33	8.52	5.20	19.33	5.20	1.66	3.33	0.83	0.42	100.00( 481)
	8.07	9.19	17.89	17.76	6.34	9.57	5.59	20.87	1.49	1.24	1.37	0.37	0.25	100.00( 805)
	10.42	8.33	27.08	8.33	2.08	10.42	14.58	16.67	2.08	0.00	0.00	0.00	0.00	100.00( 48)
$75.142(24)^{***}(b)$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chi^2$ (df)	3.47	6.94	18.75	18.75	9.03	8.33	6.25	20.14	4.86	0.69	1.39	0.69	0.69	100.00( 144)
	9.62	6.19	24.05	16.15	8.59	7.90	5.50	17.53	2.41	0.34	1.03	0.34	0.34	100.00( 291)
	9.70	8.52	20.31	11.93	3.54	9.70	6.68	21.49	2.62	2.10	2.62	0.66	0.13	100.00( 763)
	14.71	13.24	19.85	15.44	2.21	10.29	0.74	18.38	2.94	0.00	1.47	0.00	0.74	100.00( 136)
$67.199(36)^{***}(b)$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이상 $\chi^2$ (df)	7.73	6.28	24.15	12.56	5.31	10.14	6.76	19.32	1.93	2.90	1.45	0.48	0.97	100.00( 207)
	9.23	8.46	20.00	16.92	5.00	9.23	5.00	20.38	3.08	0.77	1.15	0.38	0.38	100.00( 260)
	8.19	8.19	21.47	13.56	5.65	9.04	5.93	20.62	2.40	1.41	2.68	0.71	0.14	100.00( 708)
	18.57	10.71	17.14	12.86	1.43	9.29	5.71	18.57	4.29	0.00	1.43	0.00	0.00	100.00( 140)
$42.531(36)(b)$														
맞벌이 여부 외벌이 맞벌이 미취업 $\chi^2$ (df)	7.32	6.64	21.28	13.50	5.72	9.15	4.58	24.94	3.43	2.06	1.14	0.23	0.00	100.00( 437)
	10.64	9.07	20.72	14.22	4.59	9.29	6.38	17.92	2.58	1.01	2.46	0.67	0.45	100.00( 893)
	0.00	25.00	25.00	0.00	5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4)
$43.837(24)^{***}(b)$														
지역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chi^2$ (df)	10.60	7.71	19.65	15.80	5.78	8.09	6.36	20.23	1.73	0.77	2.31	0.58	0.39	100.00( 519)
	8.37	9.52	22.50	11.82	4.11	10.51	5.75	20.36	2.63	1.81	1.97	0.66	0.00	100.00( 609)
	10.19	6.31	19.42	15.53	6.31	8.25	4.37	19.42	6.31	1.46	1.46	0.00	0.97	100.00( 206)
$34.370(24)(b)$														



〈부록 표 19〉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16년 VS.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t	(수)	평균	표준편차	t
2세	2016 ( 171)	3.51	0.57	3.57***	( 345)	3.54	0.61	-0.60
	2024 ( 326)	3.31	0.66		( 388)	3.57	0.56	
5세	2016 ( 439)	3.48	0.67	3.04**	( 565)	3.52	0.66	0.47
	2024 ( 434)	3.34	0.65		( 455)	3.50	0.57	

주: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2016년 결과는 2016년 부모 대상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김은영 외, 2016) 데이터를 재분석하였고, 2024년

결과는 본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  $p < .001$ .

〈부록 표 20〉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만족도: 2024년

단위: (명), 점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81)	3.36	0.63	(1,281)	3.52	0.57
자녀 성별						
남	( 605)	3.37	0.64	( 655)	3.53	0.57
여	( 576)	3.35	0.63	( 626)	3.51	0.57
<i>t</i>		0.4			0.5	
자녀 연령						
만2세	( 326)	3.31	0.66	( 388)	3.57	0.56
만3세	( 421)	3.41	0.58	( 438)	3.51	0.57
만5세	( 434)	3.34	0.65	( 455)	3.50	0.57
<i>F</i>		2.4			1.7	
자녀 재원기관						
유치원	( 441)	3.38	0.60	( 457)	3.50	0.56
어린이집	( 697)	3.35	0.66	( 779)	3.55 <sup>a</sup>	0.57
반일제학원	( 43)	3.26	0.49	( 45)	3.31 <sup>b</sup>	0.56
<i>F</i>		0.9(a)			4.2*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25)	3.42	0.67	( 139)	3.58	0.56
전문대졸	( 256)	3.37	0.62	( 274)	3.52	0.58
4년제대졸	( 682)	3.34	0.63	( 738)	3.52	0.57
대학원졸 이상	( 118)	3.39	0.61	( 130)	3.48	0.56
<i>F</i>		0.7			0.6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 178)	3.42	0.56	( 200)	3.57	0.53
전문대졸	( 236)	3.37	0.68	( 248)	3.52	0.58
4년제대졸	( 629)	3.33	0.62	( 682)	3.52	0.56
대학원졸 이상	( 119)	3.34	0.69	( 132)	3.45	0.66
<i>F</i>		1.1(a)			1.2(a)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외벌이	( 382)	3.35	0.61	( 420)	3.52	0.55
맞벌이	( 795)	3.37	0.64	( 857)	3.53	0.58
미취업	( 4)	2.75	0.50	( 4)	3.25	0.50
<i>F</i>		2.0			0.5	
지역 규모						
대도시	( 457)	3.35	0.59	( 500)	3.51	0.55
중소도시	( 540)	3.33	0.67	( 583)	3.51	0.59
읍면	( 184)	3.44	0.62	( 198)	3.60	0.52
<i>F</i>		2.0(a)			2.0(a)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 102)	3.39	0.68	( 103)	3.59 <sup>a</sup>	0.57
300 이상~500만원	( 413)	3.37	0.62	( 460)	3.54 <sup>a</sup>	0.56
500 이상~700만원	( 400)	3.38	0.65	( 437)	3.54 <sup>a</sup>	0.57
700만원 이상	( 266)	3.29	0.61	( 281)	3.44 <sup>a</sup>	0.58
<i>F</i>		1.2			2.7*	

주: 1)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Games-Howell)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t/F 통계량의 경우, 등분산 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3) 만족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매우 만족한다)

자료: 본 응답은 어머니 대상의 2024년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